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출애굽기

EXO · 오경 · 히브리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40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출애굽기 1장

EXO-001 · 오경 · 히브리어

번성과 압제. 이름이 채워지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난다.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 두 산파가 멈춘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점점 좁아진다 — 애굽 땅 전체(번성) → 건축 노역 현장(비돔·라암셋) → 산실(産室)/산파 → 나일 강.
- 1-5절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아들들의 **이름 명단**으로 열리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으로 마감.
- 소품 — 흙(진흙)과 벽돌(14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산파(*ovnayim*, 16절), 나일 강(*ye'or*, 22절).
- 비돔(*Pithom*)·라암셋(*Raamses*)은 "국고성"(저장 도시)으로 불림.
- 시간 표지 — 6절 "요셉과 그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고",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 차오르는 번성. 뒤: 점점 차가워지고 잔인해지는 압제. 참가자 다수가 "누를수록 불어나는" 역설을 인상으로 공유.
- 산파 장면(15-21절)에서 공기가 한 번 숨을 돌린다는 관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 들어오는 이름·생명.
- 22절: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 강에 던지라" — 버려지는 아들.
- 이름으로 열려 강물로 달히는 대비. 채움 ↔ 꺾음.
- 압제가 은밀(산파 들)에서 공개(온 백성)로 상승하다가 절정에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새 왕 바로(이름 없음, "요셉을 알지 못하는" *lo yada*, 8절) /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 / 산파 십브라(*Shifrah*)·부아(*Puah*, 이름 있음, 15절) / 하나님(17·21절에만 직접 언급).
- 대비 — 왕은 무명, 산파는 호명.
- *yare*(두려워하다)의 방향 전환: 9·12절 바로가 백성을 두려워함 → 17·21절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yare elohim*).
- 바로의 전략 상승: 노역(11절) → 더 가혹한 노역(13-14절) → 산파에게 은밀히(16절) → 온 백성에게 공개(22절).

- 역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12절).
- 산파의 답(19절)에 대해 본문은 거짓·참 평가를 하지 않음. 20-21절에서 하나님이 산파를 잘 대우하고 "집안"(*bottim*)을 주심.
- 16절: 죽이라는 대상은 "아들", 딸은 살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이름 명단·한 세대의 죽음·폭발적 번성
- 컷 2 (8-14절): 새 왕·두려움·강제노역(비돔·라암셋)
- 컷 3 (15-19절): 산파 십브라·부아, 은밀한 명령과 거역
- 컷 4 (20-21절):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집안, 백성 더 번성
- 컷 5 (22절): 온 백성에게 공개 명령 — 나일 강

6 의문점·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shemot*(שֵׁמוֹת) — "이름들". 히브리어 책 제목이자 1절 첫 단어. 70인역/그리스어 제목은 *Exodos*.
- *parah / sharats / rabah / atsam*(7절) — 생육·떼지어 붙어남·번성·강대. 동사가 한 절에 중첩.
- *sharats*(שָׂרַצְתָּ) — '떼지어 우글거리다'. 창 1:20-21 물의 생물 번성과 같은 어근 (창조 어휘의 반향).
- *lo yada*(לֹא יָדָע, 8, 17, 22절) —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요셉을 모름.
- *parekh*(פָּרַח, 13-14, 22절) — '가혹함/엄혹함'. 노역의 성격.
- *marar*(מָרַר, 14, 22절) — '쓰다/괴롭게 하다'. "생활을 괴롭게 하였더라".
- *ovnayim*(אֲבָנַיִם, 16, 22절) — '두 돌/산판'. 출산 받침대로 알려짐.
- *yare elohim*(יָרָא אֱלֹהִים, 21-17, 22, 23절) — '하나님을 두려워함'.
- *bottim*(בֵּיתֵי, 21, 22, 23절) — '집들/집안'. 하나님이 산파에게 주심.
- *Pithom / Raamses*(11절) — 국고성(저장 도시) 두 곳.

6 — (2) 문학 구조

- 이름 명단(1-5절)이 창 46:8-27의 명단과 손을 맞잡음 — 창세기-출애굽기 경첩.
- 번성 동사의 중첩(7절)이 창조 어휘(*parah·sharats·rabah*)를 반향.
- 압제의 3단계 상승 구조: 노역 → 산파 → 강물 (은밀 → 공개).
- *yare*(두려워함)의 주체 전환 — 바로 → 산파.
- 호명 대비 — 왕(무명) vs 산파(십브라·부아, 유명).
- 컷 4(20-21절)가 상승 사이의 숨 쉴 틈.

6 — (3) ANE·역사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이집트 신왕국의 진흙 벽돌 강제노역과 셈족 노동 인력 동원이 이집트 문헌에 보고됨.
- 비돔·라암셋 — 나일 삼각주 동부 저장 도시. 라암셋은 람세스 왕명과 연결되는 지명으로 알려짐.
- *ovnayim*(산판) — 산모가 앉던 받침대로 알려진 출산 도구.

6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1 ↔ 창 46:8-27 (애굽으로 내려간 이름·숫자 명단)

- 출 1 ↔ 창 15:13 (자손이 객이 되어 괴롭힘 당하리라는 예고)
- 출 1 ↔ 창 50:24-26 (요셉의 죽음)
- 출 1 ↔ 출 2:23-25 (신음과 하나님의 기억)
- 출 1 ↔ 신 26:5-7 (애굽 고난의 신앙고백)
- 출 1 ↔ 행 7:17-19 (스데반의 회고)
- 출 1 ↔ 히 11:23 (모세 부모의 믿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야곱과 함께 들어온 이름들이 하나씩 불리고, 그 세대가 다 죽은 뒤 백성이 폭발하듯 불어나 땅을 채운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 두려워하며 노역을 지운다 — 비돔과 라암셋이 그들의 손으로 선다. 누를수록 더 불어나자 왕은 산파 둘을 은밀히 불러 사내아이를 죽이라 하나, 십브라와 부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멈춰 선다. 하나님이 산파를 잘 대우하시고 그 집안을 세우시며 백성은 더 번성한다. 끝내 왕은 온 백성에게 공개 명령을 내린다 — "아들은 나일 강에 던지라." 화면이 그 강물 위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이름이 가득 차고, 이름 모르는 왕이 일어나다"
- 초벌 부제: "번성과 압제 — 이름으로 열려 강물로 닫히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노역·저장 도시 + 문학 구조 다수)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산파의 답(19절) 윤리 평가가 신학 토론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목상 단계로 이월.

-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정체·연대 논의가 역사 고증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서 "알지 못했다"까지만.
- *sharats*의 창조 어휘 반향은 관찰로만 표시, 신학 프레임 금지.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1장은 이름으로 가득 차오르는 생명과 그 생명을 강물로 꺾으려는 압제가 맞물린 한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야곱과 함께 들어온 이름 명단으로 열려, 한 세대가 죽은 뒤 폭발하는 번성으로 차오른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두려움 속에 압제를 세 계단으로 쌓아 올린다 — 노역, 산파를 통한 은밀한 살해, 온 백성에게 내린 공개 명령. 그 상승의 한복판에 두 산파가 멈춰 서고, 본문은 이름 없는 왕과 이름 있는 산파를 나란히 둔다. 채움과 꺾음, 무명과 호명, 두려움의 두 방향을 같이 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좁아진다 — 애굽 땅(번성) → 노역 현장(비둠·라암셋) → 산파 → 나일 강. 소품 — 이름 명단, 흙·벽돌, 산파(*ovnayim*), 강.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차오르고 뒤는 차가워진다. 누를수록 불어나는 역설. 산파 장면에서 한 번 숨을 돌린다.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이름은 이러하니"(1절, 들어오는 생명). 끝 — "아들은 나일 강에 던지라"(22절, 버려지는 생명). 이름으로 열려 강물로 닫힌다.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무명의 왕 ↔ 호명된 산파 십브라·부아. *yare*(두려움)가 바로(9·12절)에서 산파(17·21절)로 옮겨간다. 하나님은 17·21절에만 직접 등장.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명단·번성(1~7). 컷 2 새 왕·노역(8~14). 컷 3 산파·은밀한 명령(15~19). 컷 4 산파에게 은혜(20~21). 컷 5 공개 명령·강(22).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산파가 둘만 호명된 까닭. 19절 답을 본문이 평가하지 않음. *sharats*가 창 1장 창조 어휘를 반향. *bottim*(집안)이 산파에게 주어짐.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명단 → 번성 → 새 왕의 두려움 → 노역 → 산파의 멈춤 → 하나님의 은혜 → 공개 명령 → 강물. 압제 3단계의 상승과 그 사이의 틈.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이름이 가득 차고, 이름 모르는 왕이 일어나다". 초벌 부제 — "번성과 압제 — 이름으로 열려 강물로 닫히다".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불어나는 사람들과 멈춰 선 두 산파 걸을 걸으며 주께 아뢰다 — "놀리는 자리에서도 생명이 자라는 걸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누를수록 번성:**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압제와 번성이 같은 방향으로 자란다. 본문이 답하지 않는 역설이다.
2. **결 2 — 무명과 호명:** 가장 큰 권력(왕)이 이름 없이 지나가고, 가장 낮은 자리(산파)가 이름으로 남는다. 십브라·부아가 본문에 못박혀 있다.
3. **결 3 — 두려움의 두 방향:** yare가 바로의 두려움(9·12절)에서 산파의 두려움(17·21절)으로 옮겨간다. 같은 단어가 정반대 자리로 흐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23~25** (백성의 신음과 하나님의 기억으로 이어짐). **출 2:1~10** (1장의 "강물" 위로 갈대 상자가 띄워짐).
- 다른 권 — **창 46:8~27** (이름 명단이 이미 거기 있었음). **창 15:13** ("객이 되어 괴롭힘 당하리라"는 예고의 성취). **신 26:5~7** (이 고난을 신앙고백으로 회상).
- 정경 흐름 — 창세기의 "이름들"이 출애굽기 첫 절로 이어지며, 한 가족 이야기가 한 민족 이야기로 넘어가는 경첩이 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이름들이 불리는 소리를 들으며 멈춘다.
- **멈춤 1:** 누를수록 불어나는 12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이름 없는 왕과 이름 있는 산파가 나란히 선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두려움이 바로에게서 산파에게로 옮겨가는 순간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생명은 강물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늘리는 자리에서도 자라는 생명*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이름 명단으로 열려 강물 명령으로 닫힌다
- [x] 한 세대의 죽음 뒤 폭발적 번성이 온다
- [x] 압제가 세 계단으로 상승한다 (노역·산파·강)
- [x] 누를수록 번성하는 역설
- [x] 왕은 무명, 산파는 호명(십브라·부아)
- [x] 두려움(*yare*)이 바로에서 산파로 옮겨간다
- [x] 하나님은 17·21절에만 직접 등장한다
- [x] 산파에게 "집안"이 주어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강물.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산파가 "둘"로만 나오는 이유는?

- 온 백성의 산파가 둘일 수 없는데, 본문은 십브라·부아 둘만 호명한다. 대표인지 책임자인지 설명하지 않음.
- 관찰로 "둘만 호명됨"까지만 기록. 묵상 단계에서 다시.

Q2. 산파의 답(19절)을 본문은 왜 평가하지 않는가?

- 산파가 바로에게 둘러대는 답을 하지만 본문은 거짓·참을 판단하지 않고, 20-21절에서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을 잘 대우한다.
- 거짓말 윤리 문제는 해석 영역. 답하지 않고 보존.

Q3.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정말 몰랐는가?

- *lo yada*가 무지인지, 외면인지, 정권 교체인지 본문은 "알지 못했다"까지만 말함.
- 역사 고증(왕조·연대)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어휘만 기록.

Q4. 누를수록 변성하는 역설(12절)을 본문은 어떻게 보는가?

-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변성하여 퍼져나가니" — 인과가 역전된 듯한 진술.
- 본문은 그 까닭을 직접 설명하지 않음. 질문으로 남김.

Q5. 왜 "아들"만 죽이고 "딸"은 살리라 했는가?

- 16·22절 모두 사내아이만 겨냥. 노동력·군사력 우려로 읽힐 수 있으나 본문은 길게 설명하지 않음.
- 관찰에서는 대상 분포만 기록.

Q6. 하나님이 산파에게 "집안"(*bottim*)을 주신다는 것은?

- 21절 — 아기를 살린 자에게 집안이 세워짐. 생명을 지킨 자리에 집이 주어지는 결.
- 그 결의 의미는 답하지 않고 묵상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2장

EXO-002 · 오경 · 히브리어

강물에 띄워진 상자, 건져진 아이, 광야로 도망친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다섯 번 바뀐다 — 레위 가문의 집 → 나일 강가(갈대 사이) → 바로의 궁 → 들판(노역 현장) → 미디안 우물가.
- 소품 — 갈대 상자(*tevah*, 역청 *chemar*·나무진 *zefet* 칠함), 갈대(*gome*·*suf*), 우물(*be'er*), 양 떼.
- *tevah*는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창 6:14)와 이 본문에만 쓰이며, 두 곳 모두 역청을 칠해 물에 띄움.
- 시간 표지 — "그 아이가 자라매"(10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11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고"(23절)로 큰 도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조마조마함(숨김·강에 띄움) → 긴장(살인·도망) → 가라앉음(우물·결혼) → 묵직한 전환(하나님의 네 동사).
- 무대가 끊임없이 옮겨가는 인상. 마지막으로 사람의 움직임이 멈추고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관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라" — 한 가정의 작은 일.
-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 기억하셨더라" — 하나님과 온 민족.
- 1장~2:22까지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지 않음. 23-25절에서 처음 주어로 등장.
- "보다"(*ra'ah*)가 양쪽에 걸림 — 2절 어머니가 아기를 봄, 25절 하나님이 백성을 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레위 부부 / 아기(모세) / 누이 / 바로의 딸·시녀 / 히브리 두 사람 / 애굽 사람 / 미디안 제사장(르우엘)·일곱 딸 / 십보라 / 하나님.
- 호명 지연 — 앞부분 인물은 무명("레위 사람", "그 아이"). 모세는 10절, 십보라는 21절에서 명명.
- 모세 이름: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냈다"(*mashah*) 하며 *Mosheh*라 부름(10절).
- 누이가 4절에서 지켜보다 7절에서 유모를 제안 — 기지로 개입.
- 모세의 끼인 처지 — 궁에서 자랐으나 "형제들"의 노역을 봄(11절). 11-12절 "보다"(*ra'ah*)와 "치다"(*nakah*) 나란히.

- 14절 "모세가 두려워하여" 도망 — 궁의 사람에서 도망자로.
- 게르솜(*Gershom*) 이름 풀이 — "타국에서 나그네(*ger*)가 되었음이라"(22절).
- 23-25절: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네 동사가 응답처럼 붙음 — 들으심·기억하심·보심·아심.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0절): 출생·숨김·갈대 상자·바로 딸·건져짐·이름
- 컷 2 (11-15절상): 장성·애굽 사람을 침·드러남·두려움
- 컷 3 (15절하-22절): 미디안·우물가·십보라·게르솜
- 컷 4 (23절): 세월·왕의 죽음·부르짖음
- 컷 5 (24-25절): 하나님의 네 동사

6 의문점·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tevah*(תֵּבַחַ) — 상자/방주. 창 6:14 노아의 방주와 동일 단어. 둘 다 역청 칠함.
- *gome*(גֹּמֵ) — 갈대/파피루스. *suf*(סוּף) — 갈대(강가 갈대밭).
- *chemar*(חֶמָר)·*zefet*(זֶפֶת) — 역청·나무진(방수 도료).
- *tov*(טוֹב, 2, 2, 2) — "잘생긴/좋은". 창 1장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같은 어근.
- *Mosheh*(מֹשֶׁה)/*mashah*(10, מַשָּׁח) — 모세/건지다. 소리로 이어진 이름 풀이.
- *ra'ah*(רָאָה) — 보다. 2·5·11·25절에 반복(어머니·딸·모세·하나님).
- *ger*(גֵּר)/*Gershom*(22, גֵּרְשֹׁם) — 나그네/게르솜.
- *shama·zakhar·ra'ah·yada*(23-25절) — 들으심·기억하심·보심·아심, 네 동사 연쇄.

6 — (2) 문학 구조

- *tevah*의 반향 — 노아 이야기와의 단어 다리(물·역청·구원).
- 호명 지연 구조 — 무명으로 시작해 이름을 얻어감(모세·십보라·게르솜).
- 우물가 만남(15-22절) — 고대 내러티브의 익숙한 무대(이삭·야곱의 우물 만남과 같은 결).
- 23-25절의 네 동사 연쇄가 1장~2:22의 "사람만 움직이는" 결을 반전.
- "보다"(*ra'ah*)가 장 전체를 꿰는 실 — 인간의 봄에서 하나님의 봄으로.

6 — (3) ANE·역사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나일 강가의 파피루스 갈대밭 — 상자를 띄울 수 있는 정황의 무대.
- 역청·나무진 방수 —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에 공통.
- 미디안 — 시내 반도 동쪽·아라비아 북서부 유목지로 알려짐. 우물이 만남의 장소.

6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2 ↔ 창 6:14 (방주 *tevah*·역청)
- 출 2 ↔ 출 1:22 (강에 던지라는 직전 명령)
- 출 2 ↔ 출 6:20 (모세 부모 아므람·요게벳)
- 출 2 ↔ 출 3:1 (미디안에서 양 치는 모세로 이어짐)
- 출 2 ↔ 행 7:20-29 (스테반의 모세 회고)

- 출 2 ⇔ 히 11:23-27 (믿음의 모세 부모와 모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레위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고, 어머니가 석 달을 숨기다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둔다. 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의 딸이 아기를 건져 불쌍히 여기고,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 젖을 먹인다. 아이는 자라 모세라 불린다. 장성한 모세는 형제들의 노역을 보고 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나, 일이 드러나 두려워 미디안으로 도망친다. 우물가에서 제사장의 딸들을 도운 인연으로 그 집에 머물러 십보라와 결혼하고, 게르솜을 낳으며 "나그네 되었다"고 말한다. 여러 해가 지나 왕이 죽고 백성의 부르짖음이 올라간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강물이 삼키려 한 아이가 강물에서 건져지다"
- 초벌 부제: "건져진 아이와 돌아서신 하나님"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tevah* 다리 + 우물가 무대 + 미디안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모세의 살인(12절) 윤리 평가가 신학 토론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tevah* 반향을 "예표" 신학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서선 "같은 단어·역칭·물"까지만.
- 24절 "기억"의 뜻풀이 — 본문 너머이므로 어휘만 기록, 해석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2장은 사람들만 끊임없이 움직이던 무대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 돌아서는 한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한 레위 가정의 작은 일로 열려, 강물에 삼켜질 뻔한 아기가 도리어 강물에서 건져지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그 아기는 모세라는 이름을 얻고, 장성하여 형제의 노역을 보다 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다. 미디안 우물가에서 가정을 이루고 "나그네"가 된다. 그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러다 마지막 두 절에서, 백성의 부르짖음 위로 네 동사가 응답처럼 내려온다 —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다섯 번 옮겨감 — 집 → 강가 → 궁 → 들 → 우물가. 소품 — 갈대 상자(*tevah*, 역청), 갈대, 우물, 양 떼. *tevah*는 노아 방주와 같은 단어.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조마조마 → 긴장 → 가라앉음 → 목직환 전환. 무대가 끊임없이 옮겨가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한 레위 가정(1절). 끝 —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심(25절). 1장~2:22 하나님 침묵, 23-25절 첫 등장. "보다"가 양쪽에 걸림.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무명으로 시작해 이름을 얻어감(모세 10절·십보라 21절·게르솜 22절). 모세는 궁과 형제 사이에 끼인 정체. 23-25절 하나님의 네 동사.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출생·건져짐(1~10). 컷 2 살인·도망(11~15상). 컷 3 미디안·우물(15하~22). 컷 4 세월·부르짖음(23). 컷 5 하나님의 네 동사(24~25).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tov*(2절)가 창 1장 어휘를 반향. 살인을 본문이 평가하지 않음. 부르짖음 하나에 네 동사가 응답처럼 붙음. "기억"의 대상은 언약.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출생 → 건져짐 → 장성·살인 → 도망 → 우물·가정 → 세월·부르짖음 → 하나님의 네 동사. 사람의 움직임에서 하나님의 돌아서심으로.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강물이 삼키려 한 아이가 강물에서 건져지다". 초벌 부제 — "건져진 아이와 돌아서신 하나님".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갈대밭과 우물가, 부르짖음이 올라가는 자리를 걸으며 주께 아뢰다 — "사람만 움직이는 듯한 세월에도 들으시고 계셨는지요."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걸 1 — 강물의 반전:** 1장에서 아들을 삼키려던 강물(22절)이, 2장에서 도리어 아기를 살려 건져내는 자리가 된다. 같은 강이 정반대로 흐른다.

2. **결 2 — 하나님의 지연된 등장:** 가장 큰 무게가 *침묵*에 실려 있다. 한 장 반 동안 사람만 움직이고, 마지막 두 절에서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

3. **결 3 —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네 동사:** 23절의 부르짖음 하나에, 24-25절의 들으심·기억하심·보심·아심이 한 묶음으로 붙는다. 본문이 하나님의 응답을 동사의 연쇄로 그린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1:22** (강물 명령의 반전). **출 3:1** (미디안의 모세가 호렙으로 이어짐). **출 6:20** (모세 부모의 이름).
- 다른 권 — **창 6:14** (방주 *tevah*·역청의 단어 다리). **행 7:20~29** (스테반의 모세 회고). **히 11:23~27** (믿음의 모세).
- 정경 흐름 — 24절의 "언약" 기억이 창세기 족장 이야기로 거슬러 가는 다리가 되어, 한 민족의 구원이 옛 약속에 매여 있음을 본문이 표시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강물에 띄워지는 작은 상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1:** 삼키려던 강물이 도리어 살리는 자리가 되는 반전에서 멈춘다.
- **멈춤 2:** 모세가 궁과 형제 사이에 끼여 도망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한 장 반의 하나님의 침묵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네 동사를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침묵처럼 보이던 세월 끝의 돌아서심*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강물이 삼킴에서 살림으로 반전된다
- [x] 무명에서 이름을 얻어가는 인물들
- [x] *tevah*(상자)가 노아 방주와 같은 단어다
- [x] 모세가 궁과 형제 사이에 끼여 있다
- [x] 1장~2:22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신다
- [x] 부르짖음에 네 동사가 응답처럼 붙는다
- [x] "기억"의 대상은 족장 언약이다
- [x] "보다"가 장 전체를 꿰는 실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돌아서심.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본문은 어떻게 보는가?

- 11-12절 "보고 ... 처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 칭찬도 정죄도 없이 기록.
- 행위의 옳고 그름은 해석 영역. 답하지 않고 보존.

Q2. *tevah*(상자)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인 것은 우연인가?

- 성경에서 이 두 곳에만 쓰이고, 둘 다 역청을 칠해 물에 띄움.
- 의도된 다리인지 우연인지는 본문이 말하지 않음. 어휘 관찰만 기록.

Q3. 1장~2:22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까닭은?

- 긴 분량 동안 사람들만 움직이고, 23-25절에서야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
- 그 "자연"의 까닭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질문으로 남김.

Q4. 24절 "기억하셨다"는 무슨 뜻인가?

- 잊으셨던 것이 아닐 텐데 "기억"이라는 말을 씀. 대상은 아브라함·이삭·야곱과의 언약.
- "기억"의 뜻풀이는 본문 너머. 답하지 않고 묵상으로 이월.

Q5. 모세의 "끼인 정체"는 어디에 속하는가?

- 궁에서 자랐으나 "형제들"의 노역을 보고, 미디안에서는 "애굽 사람"으로 불림(19절).
- 그의 소속을 본문은 한쪽으로 정하지 않음. 관찰로만 표시.

Q6. 부르짖음에 네 동사가 응답처럼 붙는 구조는?

- 23절 부르짖음 → 24-25절 들으심·기억하심·보심·아심.
- 그 응답의 결이 다음 장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답하지 않고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3장

EXO-003 · 오경 · 히브리어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는다. 보내심에 더듬거리는 사람에게, 이름이 주어진다 — "스스로 있는 자".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미디안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렘"(*Chorev*). 양을 치다 이룬 산.
- 소품 — 떨기나무(*seneh*), 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불, 벗은 신, 그리고 말로 그려진 "젓과 꿀이 흐르는 땅".
- "거룩한 땅"(*admat qodesh*, 5절) — 성경에서 "거룩"(*qadosh*)이 처음 등장하는 자리.
- 신을 벗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성소에 드는 정황과 이어짐 (배경 자료).
- 시간 표지 적음 —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 떼를 치는 일상(2장과 연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멈춤(이상한 광경) → 조여짐("가까이 오지 말라"·신을 벗으라) → 길어지는 대화(부르심과 사양) → 쏟아지는 미래 약속.
- 14절의 이름에서 공기가 멎는다는 관찰. "보다"가 앞쪽에 몰려 있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모세가 장인의 양 떼를 치는 — 평범한 일상·현재.
- 22절: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약속.
- 주어 이동 — 1절 모세 → 22절 "너희가"(백성 전체).
- "산"이 양쪽에 걸림 — 1절 호렘에 이름, 12절 "이 산에서 섬기리라" 표징.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모세 / 하나님(여호와) — 거의 둘만의 대화. 양 떼·떨기나무가 배경.
- 2절 "여호와와 사자"(*mal'akh YHWH*)와 4절 이후 "하나님"·"여호와"의 호칭이 또렷이 갈리지 않음.
- 모세의 응답 단계 — 4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hineni*) → 6절 얼굴 가림 → 11·13절 사양("내가 누구 이기에"·"이름을 무엇이라").
- 하나님의 "보다·듣다·알다"(7절) 묶음 — 2:24-25의 네 동사와 이어짐.
- 하나님의 자기 소개 —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6절).
- 이름 계시 — "스스로 있는 자"(*ehyeh asher ehyeh*, 14절) → 네 글자 이름 *YHWH*(15절).
- 12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ehyeh imkha*)와 14절 이름이 같은 동사 *ehyeh*.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광야·호렘·타지 않는 떨기나무·돌이켜 봄
- 컷 2 (4-6절): 부르심·신을 벗으라·거룩한 땅·조상의 하나님·얼굴 가림
- 컷 3 (7-10절): 보고·듣고·알고·내려와·보내심
- 컷 4 (11-15절): 모세의 사양과 답, 이름의 계시(*ehyeh*·*YHWH*)
- 컷 5 (16-22절): 장로들·바로 앞·약속의 땅·빈손이 아니리라

6 의문점·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Chorev*(כרוב) — 호렘. "하나님의 산"(*har ha-elohim*) 별칭.
- *seneh*(סנה) — 떨기나무. 시내(Sinai)와 소리가 가까우나 연결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 *ba'ar*(באר)·*ukkal*(2-3, לַאֲבָרִים 절) — 불붙다·삼켜지다. "타는데 삼켜지지 않음".
- *qadosh*/*admat qodesh*(5, אֲדָמַת קֹדֶשׁ 절) — 거룩/거룩한 땅. 성경 최초의 "거룩".
- *hineni*(4, הִנְנִי 절) — "내가 여기 있나이다".
- *ehyeh asher ehyeh*(14, אֲהִיֶּה אֲשֶׁר אֲהִיֶּה 절) —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동사 *ehyeh* 반복.
- *YHWH*(15, יהוה 절) — 네 글자 이름. 70인역 *κύριος*(주)로 대체.
- *erets zavat chalav u-devash*(8·17절)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 *ra'ah-shama-yada*(7절) — 보다·듣다·알다 묶음 (2:24-25 반향).

6 — (2) 문학 구조

- 전형적 부르심 내리티브 결 — 현현 → 부름 → 사양 → 확신/표징 → 파송.
- 모세의 사양과 하나님의 답이 핑퐁처럼 교차(11·13절 ↔ 12·14절).
- 이름(*ehyeh*, 14절)과 동행 약속(*ehyeh imkha*, 12절)이 같은 동사로 묶임.
- 7절의 "보고·듣고·알고"가 2:24-25의 네 동사를 이어받음.
- "산"의 수미상관 — 시작의 호렘(1절)이 표징의 산(12절)으로.

6 — (3) ANE·역사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호렘/시내 — 시내 반도 산악 광야로 알려진 지역. 유목 목자의 정황.
- 신을 벗음 — 고대 근동에서 성소·거룩한 장소에 드는 관습.
- 이름을 묻고 답함 — 고대 근동에서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이 관계를 뜻하던 정황.

6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3 ↔ 출 2:24-25 (들으심·기억하심·보심·아심)
- 출 3 ↔ 창 15:13-16 (애굽 종살이·귀환 예고)
- 출 3 ↔ 출 6:2-3 (이름 *YHWH* 재계시)
- 출 3 ↔ 신 33:16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이)
- 출 3 ↔ 마 22:32 (조상의 하나님 인용)
- 출 3 ↔ 행 7:30-34 (스데반의 떨기나무 회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세가 양을 치며 광야 서쪽 호렘에 이른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아, 돌이켜 다가간다. 그때 그 가운데서 부르는 소리가 난다 —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이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이라 밝히고,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아 내려왔다 하시며 모세를 보내신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사양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이름을 묻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답하시며 네 글자 이름을 주신다. 끝으로 하나님이 앞일을 펼쳐 보이신다 — 바로의 거절, 그를 친 뒤의 보냄, 빈손 아닌 나옴. 화면이 그 약속 위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불 앞에서 신을 벗다"
- 초벌 부제: "떨기나무의 부르심과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호렘·신 벗음 관습 + 부르심 내러티브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4절 이름(*ehyeh asher ehyeh*)의 뜻풀이가 존재론·신학 토론으로 변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여호와와 사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기독교론 프레임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호칭이 또렷이 갈리지 않음"까지만.
- 12절 "표징"이 미래를 가리키는 역설 — 어휘만 기록, 해석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3장은 평범한 광야의 한 목자가 타지 않는 불 앞에서 이름을 얻고 보냄을 받는 한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양을 치는 일상으로 열려,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멈추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부르심이 내리고, 신을 벗는 거룩한 땅이 선포된다.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아 내려왔다 하시며 모세를 보내신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라며 거듭 사양하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동행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같은 단어로 주신다. 마지막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약속으로 펼쳐진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광야의 산 호렙. 소품 — 떨기나무(*seneh*), 타지 않는 불, 벗은 신, 말로 그려진 약속의 땅. "거룩"(*qadosh*)이 처음 불린 자리.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멈춤 → 조여짐 → 길어지는 대화 → 쏟아지는 미래 약속. 14절 이름에서 공기가 멎는다.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양을 치는 일상(1절). 끝 — 아직 오지 않은 약속(22절). 주어가 모세에서 "너희"로. "산"이 양쪽에 걸림(1·12절).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모세와 하나님의 거의 둘만의 대화. 사자와 하나님의 호칭이 또렷이 갈리지 않음. 사양과 답의 교차. 이름의 계시(*ehyeh*·*YHWH*).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떨기나무·봄(1~3). 컷 2 부르심·거룩한 땅(4~6). 컷 3 보고 듣고 알고·보내심(7~10). 컷 4 사양과 이름(11~15). 컷 5 약속의 펼침(16~22).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불. 미래를 가리키는 12절 "표징". 이름(*ehyeh*)과 동행 약속(*ehyeh imkha*)이 같은 동사. 7절의 보고·듣고·알고가 2:24-25를 이음.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양 치기 → 떨기나무·봄 → 부르심·신 벗음 → 보냄 → 사양 → 동행·이름 → 미래 약속. 일상에서 파송으로.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불 앞에서 신을 벗다". 초벌 부제 — "떨기나무의 부르심과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 거룩한 땅을 걸으며 주께 아뢴다 — "내가 누구이기에 묻던 자리에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걸 1 — 타는데 사라지지 않음:** 불이 붙었는데 삼켜지지 않는다(2-3절). 그 모순이 모세를 "돌이켜 보게" 만드는데. 본문이 답하지 않는 걸이다.

2. **결 2 — 이름이 곧 동행:** 14절의 "스스로 있는 자"(*ehyeh*)와 12절의 "너와 함께 있으리라"(*ehyeh imkha*)가 같은 동사다. 이름과 약속이 한 단어로 묶인다.

3. **결 3 — 미래를 가리키는 표징:** 12절의 표징이 지금이 아니라 "이 산에서 섬길" 미래를 가리킨다. 확신이 미래에 매여 있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24~25** (들으심·기억하심·보심·아심이 3:7로 이어짐). **출 6:2~3** (이름 *YHWH*의 재계시). **출 19장** (12절의 "이 산"이 시내산 언약으로 성취됨).
- 다른 권 — **창 15:13~16** (애굽 종살이와 귀환의 옛 예고). **마 22:32**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의 인용). **행 7:30~34** (스데반의 떨기나무 회고).
- 정경 흐름 — 6절의 "조상의 하나님"이 창세기 족장들과 손을 맞잡고, 14-15절의 이름이 이후 정경 전체에서 불리는 그 이름의 첫 계시가 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일상의 광야에서 이상한 불 앞에 멈춰 선다.
- **멈춤 1:**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불의 모순에서 멈춘다.
- **멈춤 2:**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사양과 "함께 있으리라"는 답 사이에서 멈춘다.
- **멈춤 3:**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이름이 곧 동행이다*는 결을 손에 쥐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벗은 신과 가린 얼굴*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일상으로 열려 약속으로 닫힌다
- [x] 불이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 [x] "거룩"이 여기서 처음 불린다
- [x]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밝히신다
- [x] 이름(*ehyeh*)과 동행(*ehyeh imkha*)이 같은 동사다
- [x] 12절 표징이 미래를 가리킨다
- [x] 7절의 보고·듣고·알고가 2장 끝을 잇는다
- [x] 거의 둘만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보내심.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떨기나무가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 2-3절 "불붙다"(*ba'ar*)와 "삼켜지지 않음"(*ukkal*)이 함께 나옴.
- 본문은 그 까닭을 설명하지 않음. 관찰로만 기록, 묵상 단계로 이월.

Q2. 12절 "표징"이 미래의 일인 까닭은?

- 표징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아직 안 일어난 일.
- 지금의 확신이 미래에 매여 있는 결. 답하지 않고 보존.

Q3. "나는 스스로 있는 자"(*ehyeh asher ehyeh*)는 무슨 뜻인가?

- 동사 *ehyeh*의 반복으로 된 이름. 네 글자 이름 *YHWH*와 소리·어근이 이어짐.
- 뜻풀이는 본문 너머. 어휘 관찰만 두고 해석 보류.

Q4. 12절 "함께 있으리라"와 14절 이름이 같은 동사인 것은?

- 둘 다 *ehyeh*. 동행 약속과 이름이 한 단어로 묶임.
- 그 연결의 의미는 답하지 않고 묵상으로 이월.

Q5. "여호와와 사자"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 2절은 사자, 4절 이후는 하나님·여호와. 본문이 또렷이 가르치지 않음.
- 기독론·천사론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호칭 미끄러짐만 기록.

Q6. 하나님이 바로의 거절을 미리 아시는 것은?

- 19-22절에서 거절·이김·빈손 아닌 나옴을 미리 펼쳐 보이심.
- 예지와 보내심의 관계는 본문 너머.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4장

EXO-004 · 오경 · 히브리어

세 표징이 주어지고, 더딘 입이 사양하고, 아론이 붙는다. 돌아가는 길 위, 어두운 밤의 짧은 한 장면.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 — 앞부분은 호렘 산 곁(3장 대화의 연속), 뒷부분은 미디안→애굽 길 위와 밤의 숙소 (*malon*).
- 소품 — 지팡이(*matteh*, 뱀 *nachash*으로 변함), 손(*yad*, 나병 *tsara'at*·눈처럼 *sheleg*), 물(피 *dam*으로 변함), 나귀, 차돌(*tsor*, 부싯돌 칼).
- 세 표징이 모두 "손"을 동작의 중심으로 함.
- 차돌·할레(*mul*)는 창 17장 아브라함 언약의 표와 연결됨 (배경 자료).
- 시간 표지 — 앞은 3장과 같은 시점, 18절부터 작별·여정으로 시간 흐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실랑이(사양과 답) → 신기·두려움(표징) → 노하심 → 길 떠남 → 갑작스러운 어두운 밤(24-26절).
- "지팡이"와 "손"이 계속 나온다는 청각·시각 인상. 컷 5의 결이 앞뒤와 단절된다는 관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 모세의 의심 섞인 사양.
- 31절: "백성이 믿으며 ...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 백성의 믿음·경배.
- "밋다"(*aman*)가 1·5·8·9·31절에 걸쳐 장 전체를 꿰는 실.
- 주어 이동 — 1절 모세의 걱정 → 31절 백성의 믿음. 의심으로 열려 믿음으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모세 / 하나님 / 이드로 / 아론 / 십보라 / 아들 / 장로들·백성.
- 모세의 사양 연쇄 — 1절(안 믿을 것), 10절(입이 뻗뻗·혀가 둔함 *kevad peh*·*kevad lashon*), 13절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 하나님의 답 — 11-12절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으리라"(3:12의 동행이 입으로 좁혀짐).
-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니라" — 본문 첫 하나님의 진노.
- 아론의 등장(14-16절) — "그가 네 입을 대신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 21-23절 —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chazaq*),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beni vekhori*), "네 장자를 죽이리라".

- 24-26절 — 숙소의 밤, "그를 만나 죽이려 하신지라"(대상 모호), 십보라의 차돌 할레, "피 남편"(*chatan damim*).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절): 세 표징(지팡이/뱀·나병 든 손·물이 피)
- 컷 2 (10-12절): 더딘 입의 사양·"네 입과 함께"
- 컷 3 (13-17절): 다시 사양·노하심·아론
- 컷 4 (18-23절): 작별·귀환·완악하게 하심·"내 장자"
- 컷 5 (24-26절): 밤·죽이려 하심·할레·"피 남편"
- 컷 6 (27-31절): 아론과의 만남·장로·백성·믿음·경배

6 의문점·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atteh*(מַטֵּה) — 지팡이. *nachash*(נָחָשׁ) — 뱀. 2·4·17·20절.
- *yad*(יָד) — 손. 세 표징의 동작 중심으로 반복.
- *tsara'at*(צָרַעַת)·*sheleg*(שֶׁלֶג) — 나병·눈(처럼 흰).
- *dam*(דָּם) — 피(물이 변함).
- *kevad peh*·*kevad lashon*(10, כֶּבֶד פִּי, כֶּבֶד לָשׁוֹן) — 입이 무거움·혀가 무거움(*kaved* 사용).
- *ot*(אוֹת) — 표징. 8·9·17·28·30절.
- *aman*(אָמַן) — 믿다. 1·5·8·9·31절.
- *beni vekhori*(22, בְּנֵי וְכוֹרֵי) — "내 아들 내 장자"(이스라엘의 첫 호칭).
- *malon*(מַלֹּן)·*tsor*(צָר)·*chatan damim*(25-26, חַתָּן דָּמִים) — 숙소·차돌·"피 남편".

6 — (2) 문학 구조

- 세 표징의 **삼중 구조** — 지팡이·손·물, 모두 "손"이 무대.
- 부르심 내러티브의 **사양-답 교차**가 3장에서 이어져 절정(노하심)에 이름.
- "믿다"(*aman*)의 수미상관 — 1절 의심이 31절 믿음으로 반전.
- 3:12 "함께 있으리라"가 4:12 "네 입과 함께"로 좁혀짐.
- 컷 5(24-26절)가 앞뒤 결과 단절된 어둡고 모호한 삽입.

6 — (3) ANE·역사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목자의 지팡이(*matteh*) — 유목 문화의 일상 도구가 표징의 매개가 됨.
- 차돌(*tsor*, 부싯돌 칼) — 할레에 쓰인 석기. 수 5장에도 등장.
- 할레(*mul*) — 창 17장 아브라함 언약의 표와 연결.

6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4 ↔ 출 3:1-12 (호렘 부르심·표징 약속)
- 출 4 ↔ 출 3:18-22 (장로·바로·빈손 아닌 나옴 예고)
- 출 4 ↔ 창 17:9-14 (할레 언약)
- 출 4 ↔ 출 7:1-2 (아론이 대언자가 됨 재확인)

- 출 4 ↔ 출 12:29 (애굽 장자 죽음 — 4:23의 성취)
- 출 4 ↔ 행 7:35-36 (스테반의 모세 회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세가 "그들이 안 믿으면" 하고 걱정하자, 하나님이 세 표징을 주신다 —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돌아오고, 손이 나병으로 희어졌다 회복되고, 강물이 피가 된다. 그래도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 사양하니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다시 "다른 이를 보내소서" 하자 노하시며 형 아론을 붙이신다. 모세가 장인과 작별하고 가족을 나귀에 태워 떠난다. 길에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심과 "내 장자" 약속을 일러 주신다. 숙소의 밤, 죽이려 하시는 어두운 장면이 끼어들고, 십보라의 차돌 할레로 지나간다. 아론과 만나 장로와 백성에게 표징을 행하니, 백성이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한다. 화면이 그 경배 위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안 믿을 것이라던 말이, 믿음과 경배로 닫히다"
- 초벌 부제: "세 표징·더딘 입·길 위의 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지팡이·차돌·할레 + 부르심 내러티브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1절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이 예정·자유의지 신학 토론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24-26절 할레 사건 — 본문 자체가 모호하므로 "누구를·왜가 또렷하지 않음"까지만 기록. 해석 금지.
- 23절 "내 장자를 죽이리라"를 12장 재앙으로 미리 끌어오지 않도록 주의. 어휘 연결만 표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4장은 "그들이 안 믿을 것"이라던 한 사람의 의심이, 표징과 형과 길을 거쳐 "백성이 믿으며 경배하였더라"로 닫히는 한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모세의 의심으로 열려, 손 위에서 일어나는 세 표징으로 답을 받는다. 그래도 더딘 입을 핑계로 거듭 사양하던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형 아론을 동행으로 얻는다. 가족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완악하게 하심과 "내 장자"의 약속이 일러진다. 그 여정 한복판에 짧고 어두운 밤의 할례 사건이 모호하게 끼어든다. 끝에서 백성이 믿고 머리를 숙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둘 — 호렙 산 곁, 그리고 길 위·밤의 숙소. 소품 — 지팡이 (*matteh*), 손(*yad*), 물(피), 나귀, 차돌(*tsor*). 세 표징이 모두 "손"을 무대로 함. |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실랑이 → 신기·두려움 → 노하심 → 길 떠남 → 갑작스러운 어두운 밤. "지팡이"와 "손"이 계속 나온다. |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 — "믿지 아니하며"(1절). 끝 — "백성이 믿으며... 경배하였더라"(31절). "만다"(*aman*)가 장 전체를 꿰는 실. 의심 → 믿음. |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모세의 거듭된 사양과 하나님의 답·진노. 아론이 "입"으로 붙음. "내 아들 내 장자"(22절). 모호한 할례 사건(24-26절). |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세 표징(1~9). 컷 2 더딘 입(10~12). 컷 3 노하심·아론(13~17). 컷 4 귀환·"내 장자"(18~23). 컷 5 밤·할례(24~26). 컷 6 만남·믿음·경배(27~31). |

|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세 표징이 모두 "손"을 무대로 함. 21절 완악하게 하심. 24-26절의 모호함. *aman*이 처음(의심)과 끝(믿음)에 걸림. |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 의심 → 표징 → 사양 → 노하심·아론 → 귀환·약속 → 어두운 밤 → 만남 → 믿음·경배. 한 사람의 의심에서 온 백성의 경배로. |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 "안 믿을 것이라던 말이, 믿음과 경배로 닫히다". 초벌 부제 — "세 표징·더딘 입·길 위의 밤". |

|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 표징들과 어두운 밤, 백성이 머리 숙이던 자리를 걸으며 주께 아뢰다 — "물려서던 자도 길을 떠났는데, 머뭇거리는 저도 그 길에 서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결 1 — 의심이 믿음으로:** 1절 "그들이 안 믿을 것"이라던 모세의 걱정이, 31절 "백성이 믿으며"로 정반대로 닫힌다. *aman*이 양끝에 걸려 장을 꿰뚫는다.

2. **결 2 — 진노 뒤에 붙여진 동행:** 하나님의 첫 진노(14절)가 정죄로 끝나지 않고 형 아론이라는 동행으로 이어진다. 가장 큰 무게가 그 전환에 실린다.

3. **결 3 — 단절된 어두운 밤:** 24-26절은 앞뒤와 결이 끊긴 채 모호하게 끼어든다. 본문이 또렷이 답하지 않는 결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3:1~22** (부르심과 표징 약속·예고가 4장에서 실행됨). **출 7:1~2** (아론이 대언자가 됨의 재확인). **출 12:29** (4:23 "장자" 예고가 마지막 재앙으로 성취).
- 다른 권 — **창 17:9~14** (할례 언약이 24-26절의 배경). **행 7:35~36** (스데반의 모세 회고).
- 정경 흐름 — 3-4장의 부르심 내러티브가 한 매듭을 짓고, 22-23절의 "장자"가 출애굽 전체의 마지막 재앙을 미리 가리키는 다리가 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그들이 안 믿으면 어쩌나"라는 의심 앞에서 멈춘다.
- **멈춤 1:** 손 위에서 일어나는 세 표징에서 멈춘다.
- **멈춤 2:** 거듭된 사양 끝의 진노와, 그 뒤에 붙여진 형 아론에서 멈춘다.
- **멈춤 3:** 길 위의 어둡고 모호한 밤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의심하던 자도 끝내 길을 떠났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머뭇거림과 보내심 사이* 결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의심으로 열려 믿음·경배로 닫힌다
- [x] 세 표징이 모두 "손"을 무대로 한다
- [x] 더딘 입에게 형 아론이 붙여진다
- [x] 본문 첫 하나님의 진노가 14절에 있다
- [x] "이스라엘은 내 장자"가 처음 불린다
- [x] 24-26절은 앞뒤와 단절된 모호한 밤이다
- [x] 3:12의 동행이 4:12 "네 입과 함께"로 좁혀진다
- [x] "믿다"(*aman*)가 장 전체를 꿰는 실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보냄받은 입.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21절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는 무슨 뜻인가?

-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진술. 본문은 여기서 까닭을 설명하지 않음.
- 예정·자유지의 문제는 해석 영역. 답하지 않고 보존.

Q2. 24-26절에서 누구를, 왜 죽이려 하셨는가?

- "그를 만나 죽이려 하신지라" — 대상(모세인지 아들인지)·이유가 모두 모호. 히브리어 본문 자체가 난해.
- "피 남편"(*chatan damim*)의 뜻도 불명. 답하지 않고 보존.

Q3. 길게 사양하던 모세가 노하심 이후 더 사양하지 않는 까닭은?

- 14절 진노 이후 18절부터 그냥 길을 떠남. 전환의 계기를 본문이 따로 말하지 않음.
- 관찰로 "사양이 멈춤"까지만 기록. 묵상으로 이월.

Q4. "내 아들 내 장자"(*beni vekhori*)라는 호칭은?

-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로 부르는 첫 자리(22절). "네 장자를 죽이리라"(23절)와 짝을 이룸.
- 그 호칭의 무게는 본문 너머. 어휘만 기록, 해석 보류.

Q5. 세 표징이 모두 "손"을 무대로 하는 것은?

- 손에 든 지팡이, 품에 넣는 손, 손으로 붓는 물. 손이 동작의 중심.
- 그 집중의 의미는 답하지 않고 보존.

Q6. 모세의 의심(1절)과 백성의 믿음(31절)의 거리는?

- "안 믿을 것"이라던 걱정이 "백성이 믿으며"로 반전됨.
- 그 거리를 본문은 표징·아론·말씀으로 채울 뿐 따로 설명하지 않음. 질문으로 남김.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5장

EXO-005 · 오경 · 히브리어

보내라는 요구와 더 무거워진 짐. 구원이 시작되자 형편이 더 나빠진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두 공간을 오간다: 바로의 궁전(1-9, 15-19절)과 벽돌 작업 현장(10-14절), 그리고 마지막 기도 자리(22-23절).
- 핵심 소품은 짚(*teven*)과 벽돌(*levenim*). 짚을 빼면 벽돌 할당량(*matkoneth*)은 유지하라는 명령이 무대를 움직인다.
- 인물 구조가 이층이다: 애굽 감독(*nogesim*, 몰아붙이는 자)과 이스라엘 작업반장(*shoterim*).
- 매 맞는 자가 이스라엘 반장들(14절)이라는 점이 압력 전달 구조를 드러낸다.
- 배경 자료: 고대 이집트 벽돌 공정은 진흙에 잘게 썬 짚을 섞어 햇볕에 말렸으며, 짚이 점착력을 더했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기대가 좌절로 무너지는 공기. 참가자 6인 중 다수가 "답답함·무거워짐"을 공유함.
- 바로의 첫마디 "여호와가 누구냐"의 차가움이 청각적 인상으로 남음.
- "보내라"와 "더 무겁게 하라"가 부딪치는 리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모세·아론이 바로에게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 사람 앞에서 시작.
-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 하나님 앞에서 끝.
- 시작은 "보내라"(요구), 끝은 "구원하지 않으셨다"(좌절)로 대비된다.
- 양쪽 모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이에 둔다 (1절 그분의 말씀, 23절 그분을 향한 호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모세·아론 / 바로 / 애굽 감독들(*nogesim*) / 이스라엘 작업반장들(*shoterim*) / 백성 / 여호와 (22-23절 대상).
- 바로의 사상(2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lo yadati*)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 바로의 명분(4, 8, 17절): "백성이 게으르다", "헛된 말을 듣는다."
- 반장들의 처한 상황: 위에서 매를 맞고(14절), 바로에게 호소했다 거절당하고(15-19절), 백성 앞에 책임을 짐.

- 반장들의 원망 방향(21절): 바로가 아니라 모세·아론에게로 향함 — "여호와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 모세의 항의(22-23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바로 궁전 — "보내라" vs "여호와와가 누구냐"
- 컷 2 (6-9절): 바로가 감독·반장에게 명령 — 짚 없이 같은 수량
- 컷 3 (10-14절): 현장 시행 — 그루터기 모으기, 반장 매 맞음
- 컷 4 (15-19절): 반장들이 바로에게 호소 → 거절
- 컷 5 (20-23절): 반장들의 원망 → 모세의 기도/항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1) 원어 카드

- *shalach*(שָׁלַח) — 보내다/풀어준다. 본장에서 모세의 요구와 바로의 거부에 반복적으로 부딪침.
- *lo yadati*(לֹא יָדַעְתִּי) — "알지 못하니". 정보 부재가 아닌 '인정·관계 거부'의 어감. 70인역 οὐκ οἶδα.
- *nogesim*(נֹגְסִים) — 몰아붙이는 감독(애굽 측).
- *shoterim*(שׁוֹטְרִים) — 이스라엘 자손 중 세워진 작업반장.
- *teven*(טֵבֵן) — 짚. *levenim*(לֵבֵנִים) — 벽돌.
- *matkoneth*(מַטְכֹּנֶת) — 정해진 분량/할당량.
- *chag*(חַג) — 순례 절기. 표면 요구가 예배의 자유로 표현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2) 문학 구조

- 아이러니: 구원의 첫 요구가 오히려 노역을 가중시킨다 (요구 → 악화).
- 압력의 하향 전달: 바로 → 감독 → 반장 → 백성. 매는 가장 아래(반장)에서 맞는다.
- *shalach*(보내라)의 긍정·부정 충돌이 장을 관통한다.
- "게으르다"(17절)가 명분으로 반복됨. "벽돌 수량"(7-8, 18절)이 모순의 핵으로 강조됨.
- 공간 이동 구조: 궁전 → 현장 → 궁전 → 기도 자리.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3)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이집트 벽돌 부여: 진흙·짚 혼합, 일일 할당량 문서가 존재. 짚 제거 시 노동 강도 급증.
- 이중 감독 제도: 외부 감독관과 현지인 반장의 이중 구조는 고대 노동 조직의 일반적 배경.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5 ↔ 출 3:18-20 (요구의 예고와 바로의 거부 예고)
- 출 5 ↔ 출 6:1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이제 내가 행할 일을 보리라")
- 출 5 ↔ 출 7:16 (반복되는 "내 백성을 보내라")
- 출 5 ↔ 출 14:30-31 (마침내 백성이 본 구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세와 아론이 바로 궁전에 서서 "보내라"를 전하지만,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며 거부한다. 그날로 명령이 내려가 깊이 끊기고, 백성은 들판에서 그루터기를 모으며, 할당량을 못 채운 이스라엘 반장들이 매를 맞는다. 반장들이 바로에게 호소하나 "게으르다"는 말로 돌아온다. 궁에서 나오던 반장들이 모세를 만나 원망을 쏟고, 모세는 홀로 여호와께 돌아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묻는다. 구원의 첫 발걸음이 더 무거운 짐과 한 사람의 물음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보내라 했더니, 짐이 더 무거워졌다"
- 초벌 부제: "요구와 좌절 — 사람 앞에서 시작해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한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이집트 벽돌 공정 + 이중 감독 제도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가 신학적 무지 논의로 번질 위험 → 어감(인정 거부)까지만 기록, 해석 이월.
- "왜 구원이 악화로 시작되는가"가 섭리론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 open_questions에 보존.
- 반장들의 원망 방향(모세 향함)을 도덕 평가하지 않도록 — 방향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5장은 "보내라"는 한 마디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오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사람 앞에서(바로 궁전) 시작해 하나님 앞에서(기도 자리) 끝난다. 그 사이에서 구원의 요구는 거부당하고, 짚이 끊긴 채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백성은 더 깊은 노역으로 내몰린다. 압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매는 가장 아래에서 맞으며, 원망은 압제자가 아니라 구원의 전달자에게로 향한다. 본문은 첫 발걸음의 악화를 답 없이 한 사람의 물음 앞에 세운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바로 궁전 ↔ 벽돌 현장 ↔ 기도 자리. 소품 — 짚(*teven*)과 벽돌(*levenim*), 할당량(*matkoneth*). 이중 감독 구조(*nogesim*/*shoterim*).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기대가 좌절로 무너지는 답답함. "여호와가 누구냐"의 차가움. "보내라" vs "더 무겁게 하라"의 충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내 백성을 보내라"(1절, 사람 앞). 끝 —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대"(23절, 하나님 앞). 요구↔좌절의 대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바로 의 사상 —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2절). 반장들 — 매 맞고 거절당함. 원망이 모세에게 향함(21절). 모세의 항의(22-23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1 궁전 대면(1-5). 컷2 명령(6-9). 컷3 현장 시행·매질(10-14). 컷4 호소·거절(15-19). 컷5 원망·기도(20-23).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구원이 악화로 시작되는 까닭. *lo yadati*의 어감. *shalach*의 긍정·부정 충돌. 짚 없는 할당량의 모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요구 → 거부 → 짚 제거 → 매질 → 호소 거절 → 원망 → 기도/항의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보내라 했더니, 짐이 더 무거워졌다". 부제 — "사람 앞에서 시작해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한 장".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들판과 작업장과 기도 자리를 걸으며 "어찌하여"의 물음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보내라"(*shalach*)의 충돌:** 같은 동사가 모세의 요구와 바로의 거부에서 부딪친다. 보냄을 둘러싼 다툼이 장 전체를 관통한다.
- 결 2 — 짚 없는 할당량:** 본문은 가장 큰 무게를 물리적 모순에 싣는다. 줄 것은 빼고 요구는 그대로 둔다.
- 결 3 — 원망의 방향과 기도의 방향:** 반장은 모세를 원망하고(21절), 모세는 여호와께 묻는다(22-23절). 두 방향이 한 장 안에 마주 선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3:18-20** (요구와 거부의 예고). **출 6:1** (직접 이어지는 응답 "이제 내가 행할 일을 보리라").
- 다른 결 — **출 7:16** ("내 백성을 보내라"의 반복). **출 14:30-31** (마침내 본 구원과 믿음).
- 정경 흐름 — 구원의 서막이 악화로 열린다는 결은, 출애굽기 전체가 "더 깊은 어둠을 지나 빛으로"의 골격을 가짐을 미리 비춘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보내라"는 담대한 요구 앞에서 한 사람이 기대를 품는다.
- 멈춤 1: "여호와가 누구냐"는 차가운 거부에서 멈춘다.
- 멈춤 2: 짚 없이 같은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모순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원망이 구원의 전달자에게 향하는 장면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모세와 함께 "어찌하여"를 손에 쥐 채 일어선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악화의 한복판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묻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요구가 거부당하고 형편이 더 나빠진다
- [x] 짚은 빼되 할당량은 유지된다
- [x] 압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 [x] 매는 이스라엘 반장이 맞는다
- [x] 원망이 모세에게 향한다
- [x]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에 가깝게 묻는다
- [x] 장은 사람 앞에서 시작해 하나님 앞에서 끝난다
- [x] 응답은 다음 장으로 이월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어찌하여.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왜 구원의 첫 요구가 오히려 악화로 이어지는가?

- 관찰 사실: "보내라"(1절) 직후 짚 제거·할당량 유지(6-9절)로 노역이 가중됨.
- 본문 자체는 까닭을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바로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2절)는 어떤 모름인가?

- *lo yadati*가 정보 부재인지 관계·인정의 거부인지, 어감만 기록함.
- 해석(완악함의 출발점인가)은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3. 반장들의 원망이 바로가 아니라 모세에게 향한 이유는?

- 21절에서 매를 가한 바로가 아니라 요구를 전한 모세·아론을 향해 원망함.
- 본문은 그 방향을 설명하지 않음. 방향만 보존.

Q4. "사흘 길의 절기"(3절)는 완전한 해방의 요구인가?

- 표면 요구가 "광야에서 제사"(*chag*)로 한정되어 표현됨.
- 이 표현과 이후 완전한 출애굽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남김.

Q5. 짚을 빼되 할당량을 유지한 명령의 의도는?

-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 "게으르다"는 명분과 함께 부과됨.
- 본문은 바로의 내면 의도를 직접 진술하지 않음. 모순 구조만 기록.

Q6. 모세의 항의(22-23절)는 어떤 성격의 기도인가?

-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는 항의에 가까운 호소.
- 이 호소가 불신인지, 정직한 부르짖음인지는 답하지 않고 6:1의 응답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6장

EXO-006 · 오경 · 히브리어

나는 여호와라. 일곱 동사의 약속과 짧아진 영, 그리고 레위의 족보.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전반부 무대는 거의 비어 있고 말씀(하나님 → 모세 → 백성 → 하나님)으로 채워진다.
- 후반부(14절 이하) 무대는 족보(*toledot*)로 바뀐다: 르우벤·시므온은 짧고 레위에서 멈춰 자세해진다.
- 핵심 소품은 "이름": 엘 샤다이(*El Shaddai*)와 여호와(*YHWH*)가 3절에 나란히 놓인다.
- 배경 소품으로 "언약"(*berit*, 4-5절)과 조상들의 신음(2:24과 연결되는 기억)이 깔린다.
- 배경 자료: *toledot* 족보 양식은 혈통의 정당성을 세우는 고대 근동 서술 형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전반부 — "나는 여호와라"가 못을 박듯 또렷하고 단단함. 약속 동사가 줄줄이 쏟아짐.
- 중간 —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더라"(9절)에서 가라앉음.
- 후반부 — 족보로 분위기 전환(선언 → 혈통). 모세의 "입술이 둔하다"가 머뭇거림으로 남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 하나님의 확인(앞 장 "어찌하여"의 응답).
- 30절: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이까" — 모세의 머뭇거림.
- 12절과 30절이 거의 같은 말("입술이 둔하다")로 족보(14-27절)를 감싼다.
- 28-30절이 12-13절 장면을 다시 받아 7장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전해 듣는) 이스라엘 백성 / 족보의 조상들. 바로는 언급되나 직접 등장하지 않음.
- 하나님의 사상(6-8절): 일곱 약속 동사 — 빼냄(*yatsa*)·건짐(*natsal*)·속량(*gaal*)·삼음(*laqach*)·되심(*hayah*)·인도·기업.
- 백성의 처한 상황(9절): "마음의 상함"(*qotser ruach*, '영의 짧음')과 가혹한 노역으로 듣지 못함.
- 모세의 사상(12, 30절): "입술이 둔한 자"(*aral sefatayim*, '할레받지 못한 입술'). 백성도 안 들었으니 바로가 듣겠느냐.
- 상황: 약속은 최고조, 듣는 쪽과 전하는 쪽 모두 막혀 있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하나님의 확인
- 컷 2 (2-8절): "나는 여호와라" — 이름·언약·일곱 동사

- 컷 3 (9절): 백성이 듣지 못함 (영의 짧음)
- 컷 4 (10-13절): 모세의 머뭇거림 (입술이 둔함)
- 컷 5 (14-27절): 레위 중심 족보, 아론·모세로 모임
- 컷 6 (28-30절): 12절로 되돌아와 7장으로 가는 다리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1) 원어 카드

- *ani YHWH*(אני יהוה) — "나는 여호와라". 6-8절을 감싸는 수미상관.
- *El Shaddai*(3, אלהים) — 전능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이름. 창 17:1과 연결.
- *yatsa*(צא, 히필) — 빼내다. *natsal*(נצל) — 건지다. *gaal*(גאל) — 속량/구속하다.
- *laqach*(לקח) — 취하다/삼다. *hayah*(היה) — 되다("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 *qotser ruach*(9, קוצר רוח) — '영의 짧음', 숨이 가빠 듣지 못하는 상태의 어감.
- *aral sefatayim*(30·12, ארל שפתים) — '할례받지 못한 입술'. 70인역 ἄλογος εἶμι.
- *toledot*(תולדות) — 계보·내력. 14절 이하 족보 양식.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2) 문학 구조

- 6-8절 inclusio: "나는 여호와라"로 열고 닫으며 일곱 동사 약속을 감쌌.
- 족보 삽입(14-27절)이 12절과 28-30절 두 "입술이 둔하다" 사이에 끼어 있음.
- 족보가 르우벤·시므온에서 짧고 레위에서 멈춰 자세해지며 아론·모세로 수렴.
- 26-27절에서 "아론과 모세"/"모세와 아론" 어순이 교차하며 두 인물에 무게를 모음.
- 약속(6-8) → 못 들음(9) → 머뭇거림(10-13) → 족보(14-27)의 의외의 순서 배열.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3)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toledot* 족보 양식: 고대 근동에서 혈통·직무의 정당성을 세우는 서술 장치.
- 레위 족보가 자세한 것은 이후 제사장 직무(아론 계열)와 연결되는 배경으로 관찰됨 (민 3장 등).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6 ↔ 출 6:1 직전 / 출 5:22-23 (모세의 "어찌하여"에 대한 응답)
- 출 6 ↔ 창 17:1 (엘 샤다일로 나타나심)
- 출 6 ↔ 출 3:14-15 (이름 계시)
- 출 6 ↔ 출 2:24 (언약 기억)
- 출 6 ↔ 민 3장 (레위 직무로 이어지는 족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세의 "어찌하여"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행하는 일을 보리라"로 응답하신다. 이어 "나는 여호와라"를 못 박으며 조상들에게는 엘 샤다일로 나타났으나 이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일곱 동사의 약속을 쏟으신다. 모세가 이를 백성에게 전하나 그들은 영이 짧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시 바로에게 보내려 하시나 모세는 "입술이 둔하다"며 머뭇거린다. 화면이 멈추고 르우벤·시므온·레위의 이름이 흐르며 아론과 모세로 모이고, 다시 12절 장면으로 돌아와 7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나는 여호와라 — 또렷한 약속, 막힌 사람"
- 초벌 부제: "약속과 머뭇거림 — 이름이 다시 세워지는 한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toledot 양식 + inclusio + 족보 삽입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3절 "여호와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가 문서가설·신명론 논쟁으로 번질 위험 → 본문 표면(이름 계시의 새 단계)까지만 기록, 해석 이월.
- 일곱 동사 약속을 구원론 프레임으로 확장하지 않도록 — 동사 분포만 기록.
- "할레받지 못한 입술"을 죄론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 어감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6장은 "나는 여호와라"가 못 박히는 또렷한 약속과, 그것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막힌 사람이 마주 선 장이다.

한 문단: 앞 장의 "어찌하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자신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언약을 기억하며, 일곱 동사로 약속을 쏟으신다. 그러나 백성은 영이 짧아 듣지 못하고, 모세는 입술이 둔하다며 머뭇거린다. 본문은 그 약속과 막힘 사이에 이름과 족보를 박아 두고, 다시 7장으로 가는 다리를 놓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전반부 — 말씀으로 채운 빈 무대. 후반부 — 족보(*toledot*). 소품 — 두 이름(*El Shaddai*/*YHWH*)과 언약(*berit*).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나는 여호와라"의 단단함과 약속의 쏟아짐. 9절의 가라앉음. 족보로의 분위기 전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내가 행하는 일을 보리라"(1절). 끝 — "입술이 둔한 자이오니"(30절). 12:30절이 족보를 감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하나님의 일곱 약속 동사(6-8절). 백성의 '영의 짧음'(9절). 모세의 '할례받지 못한 입술'(12:30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1 확인(1). 컷2 약속(2-8). 컷3 못 들음(9). 컷4 머뭇거림(10-13). 컷5 족보(14-27). 컷6 다리(28-30).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3절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의 뜻. 6-8절 inclusio. 족보 삽입의 까닭. 레위에서 멈추는 자세함.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응답 → "나는 여호와라" → 일곱 약속 → 못 들음 → 머뭇거림 → 족보 → 7장으로의 다리.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나는 여호와라 — 또렷한 약속, 막힌 사람". 부제 — "이름이 다시 세워지는 한 장".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못 박히는 이름과 숨이 짧은 백성과 머뭇거리는 모세의 자리를 걸으며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나는 여호와라"(*ani YHWH*)의 뜻:** 6-8절을 같은 선언이 열고 닫으며 약속 묶음을 감싼다. 이름이 약속의 테두리가 된다.
2. **결 2 — 약속과 막힘의 병치:** 가장 큰 약속(6-8절) 바로 뒤에 가장 짙은 막힘(9절, 영의 짧음)이 온다. 본문은 둘을 나란히 둔다.
3. **결 3 — 족보의 삽입:** 두 "입술이 둔하다" 사이에 혈통이 끼어든다. 흐름을 멈추고 아론·모세를 세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5:22-23** (응답받는 "어찌하여"). **출 3:14-15** (이름 계시의 앞 걸). **출 7장** (12:30절이 놓는 다리의 건너편).
- 다른 권 — **창 17:1** (엘 샤다일로 나타나심). **민 3장** (레위 직무로 이어지는 족보).
- 정경 흐름 — "나는 여호와라"의 선언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반복되며,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일과 묶여 있음을 미리 비춘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이제 내가 행하는 일을 보리라"는 확인 앞에서 한 사람이 숨을 고른다.
- **멈춤 1:** "나는 여호와라"가 못 박히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일곱 약속 뒤에 곧장 오는 "듣지 못함"에서 멈춘다.
- **멈춤 3:** 흐름을 끊고 들어온 족보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입술이 둔하다"는 머뭇거림을 손에 쥔 채 7장 문 앞에 선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약속이 또렷한데도 숨이 짧은*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나는 여호와라"가 약속을 감싼다
- [x] 두 이름(엘 샤다이·여호와)이 나란히 놓인다
- [x] 일곱 동사의 약속이 쏟아진다
- [x] 백성이 영이 짧아 듣지 못한다
- [x] 모세가 입술이 둔하다며 머뭇거린다
- [x] 족보가 두 머뭇거림 사이에 끼어든다
- [x] 족보가 레위에서 멈춰 아론·모세로 모인다
- [x] 12:30절이 7장으로 가는 다리를 놓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이름.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3절)는 무슨 뜻인가?

- 관찰 사실: 창세기에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본문은 "이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함.
- 본문 자체는 "이름을 안다"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일곱 동사 약속(6-8절)은 왜 일곱인가, 그 순서의 결은?

- 빼냄·건짐·속량·삼음·되심·인도·기업의 동사 연쇄.
- 일곱이라는 수와 순서가 의도된 것인지는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3. 큰 약속 직후 백성이 못 듣는 장면(9절)이 바로 오는 까닭은?

- "영의 짧음"(*qotser ruach*)과 가혹한 노역이 이유로 제시됨.
- 약속과 못 들음의 즉각적 병치가 의도된 배열인지는 답하지 않고 남김.

Q4. 왜 이 자리에 족보(14-27절)가 끼어드는가?

- 흐름을 멈추고 르우벤·시므온·레위의 혈통을 세움.

- 본문은 삽입의 까닭을 직접 말하지 않음. 위치와 형식만 기록.

Q5. 족보가 르우벤·시므온에서 짧고 레위에서 자세해지는 이유는?

- 레위에서 멈춰 아론·모세로 수렴함.
- 이후 제사장 직무와의 연결은 배경으로만 기록, 해석 이월.

Q6. 모세의 "입술이 둔하다"(12·30절)는 어떤 상태인가?

- **aral sefatayim**('할레받지 못한 입술')의 어감만 기록함.
- 이 머뭇거림이 겸손인지 불순종인지는 답하지 않고 7장의 응답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7장

EXO-007 · 오경 · 히브리어

뱀이 된 지팡이, 술사들의 흉내, 완악해진 마음, 그리고 피로 변한 나일강.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두 곳: 바로의 궁전(지팡이·뱀)과 나일 강가(피).
- 핵심 소품은 지팡이(*matteh*): 뱀이 되고, 강을 치는 도구가 된다.
- 뱀이 *tannin*(타닌)으로 표기됨 — 4장의 *nachash*(나하쉬)와 다른 단어. 70인역 δράκων.
- 인물 소품: 애굽 술사(*chartummim*, 제관·주술 계층)와 그들의 "술법"(*lahatim*).
- 소재: 나일강(*yeor*), 피(*dam*), 죽은 물고기, 약취.
- 배경 자료: 이집트의 헤카 주술 전통, 나일강 신격화(하피), 뱀(코브라 우라에우스)의 왕권 상징.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긴장의 시작. 첫 표적부터 상대(술사)가 똑같이 따라 해 차이가 흐려지는 답답함.
- "삼켰다"(12절)와 피로 변한 강의 강렬함.
-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후렴처럼 반복되는 청각적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elohim*) 같이 되게 하였은즉, 아론은 네 대언자(*navi*)가 되리니" — 임무의 세움.
- 25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 시간 표지로 닫힘.
- 시작은 권위 세움, 끝은 결과 없이 흐르는 이레. 바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아론 / 바로 / 애굽 술사들 / 백성(물을 못 마시는).
- 하나님의 사상(3-5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 완악함의 세 동사: *qashah*(3절, 완고하게), *chazaq*(13·22절, 강하게), *kaved*(14절, 무겁게).
- 술사들: 지팡이를 뱀으로(11-12절), 물을 피로(22절) — 흉내. 그러나 아론 지팡이가 그들 것을 삼킴(12절).
- 바로의 사상(23절):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더라."
- 백성(24절):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 강가를 파서 물을 구함.
- 나이 기록(7절): 모세 80세, 아론 83세.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임무의 세움, 완악 예고, 나이 기록
- 컷 2 (8-13절): 지팡이가 뱀(*tannin*) → 술사 흥내 → 삼킴 → 완악
- 컷 3 (14-18절): 첫 재앙 예고 — 아침 강가, "강을 피로 치리라"
- 컷 4 (19-21절): 나일강이 피로 → 물고기 죽고 악취
- 컷 5 (22-25절): 술사 흥내 → 바로의 무관심 → 백성이 물 파다 → 이레가 지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1) 원어 카드

- *matteh*(מַטֵּה) — 지팡이. 뱀이 되고 강을 치는 도구.
- *tannin*(9-10, טַנִּין 절) — 뱀/큰 뱀. 4장의 *nachash*(נָחָשׁ)와 다른 단어. 70인역 δράκων.
- *chartummim*(11, חַרְטֻמִּים 절) — 애굽 술사/제관. *lahatim*(לְהָטִים) — 그들의 술법.
- *qashah*(3, קָשָׁה 절) / *chazaq*(22·13, חָזַק 절) / *kaved*(14, כָּבֵד 절) — 완악·강박·완고의 세 동사.
- *yeor*(יְאוֹר) — 나일강. *dam*(דָּם) — 피.
- *nakah*(25·20·17, נָכָה 절) — 치다(강을 치다).
- *elohim*(엘로힘, 1절) — "신 같이". *navi*(נָבִי) — 대언자/예언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2) 문학 구조

- 반복 골격: "표적 → 술사 흥내 → 마음 완악"이 컷 2와 컷 5에 두 번 나타남.
- 이행 공식("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6·10·13·20절)이 후렴처럼 반복.
- 완악함의 주체가 섞여 있음: 하나님께서 주어진 곳(3절)과 상태 서술(13·22절)이 나란히.
- 완악함의 세 동사(*qashah*/*chazaq*/*kaved*)가 번갈아 쓰임.
- 흥내의 한계: 술사들은 흥내는 내나, 아론 지팡이의 "삼킴"은 재현하지 못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3)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이집트 주술 전통(헤카): *chartummim*이 제관·주술 전문가 계층이라는 배경.
- 나일강 신격화(하피 등): 첫 표적이 강을 친다는 점의 배경 자료.
- 뱀(코브라 우라에우스): 이집트 왕권의 상징이라는 배경. 지팡이가 뱀이 되는 장면과 함께 관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7 ↔ 출 4:21 (마음 완악 예고)
- 출 7 ↔ 출 4:2-4 (지팡이가 뱀(*nachash*)이 된 첫 경험)
- 출 7 ↔ 출 6:28-30 (직전의 다리, "입술이 둔하다")
- 출 7 ↔ 출 8~12 (이어지는 재앙들)
- 출 7 ↔ 시 105:29 (물이 피가 됨의 회상)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하나님이 모세를 "신 같이",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고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을 예고하신다(모세 80, 아론 83). 두 사람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자 술사들도 흥내 내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 것을 삼킨다. 그래도 마음은 완악해진다. 이튿날 아침 강가에서 모세가 경고하고, 아론이 강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변해 물고기

가 죽고 악취가 난다. 술사들도 같은 일을 행하므로 바로는 마음에 두지 않고 궁으로 돌아선다. 백성은 강가를 파서 물을 구하고, 그렇게 이레가 지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삼키는 지팡이, 흉내 내는 술법, 굳어 가는 마음"
- 초벌 부제: "흉내와 완악 — 표적이 시작되었으나 마음은 굳어 가는 한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이집트 주술 + 나일 신격화 + 반복 골격)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가 예정론·자유의지 논쟁으로 번질 위험 → 주체 표기의 분포(하나님/상태 서술 혼재)만 기록, 해석 이월.
- 술사들의 흉내를 "진짜냐 속임수냐"로 판정하지 않도록 — 본문 표면(같은 일을 행함 + 삼키는 못 함)까지만 기록.
- 나일강 신격화를 신학 대결로 확장하지 않도록 — 배경 자료로만 남김.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7장은 표적이 시작되었으나 상대는 흉내로 맞서고 왕의 마음은 굳어 가는 장이다.

한 문단: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표적의 시작을 예고하신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강이 피로 변하지만, 그때마다 애굽 술사들이 흉내를 내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진다. 본문은 "표적 → 흉내 → 완악"의 골격을 두 번 반복하고, 첫 재앙을 결과 없는 "이레의 침묵"으로 닫는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바로 궁전 ↔ 나일 강가. 소품 — 지팡이(*matteh*), 뱀(*tannin*), 술사(*chartummim*), 강(*yeor*)과 피(*dam*).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긴장의 시작. 흉내로 흐려지는 차이. "삼켰다"와 피로 변한 강의 강렬함. 이행 공식의 후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1절, 임무 세움). 끝 — "이레가 지나니라"(25절, 시간 표지). 권위↔무반응의 대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완악의 세 동사(*qashah*/*chazaq*/*kaved*). 술사의 흉내와 한계(삼킴 포함). 바로의 무관심(23절). 백성이 물을 파다(24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1 임무·완악 예고(1-7). 컷2 뱀·흉내·삼킴(8-13). 컷3 재앙 예고(14-18). 컷4 강이 피로(19-21). 컷5 흉내·무관심·이레(22-25).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완악 주체의 혼재(하나님/상태 서술). 흉내의 한계. 이행 공식의 반복. 모세 80·아론 83세 기록.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임무 세움 → 뱀·삼킴·완악 → 강가 경고 → 피로 변한 강 → 흉내·무관심 → 이레의 침묵.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삼키는 지팡이, 흉내 내는 술법, 굳어 가는 마음". 부제 — "표적이 시작되었으나 마음은 굳어 가는 한 장".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궁전과 피의 강가와 물 파는 사람들과 돌아서는 왕을 걸으며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반복되는 골격:** "표적 → 술사 흉내 → 마음 완악"이 컷 2와 컷 5에 두 번 나타난다. 본문은 같은 박자를 반복으로 새긴다.
- 결 2 — 흉내의 한계:** 술사들은 따라 하나, 아론 지팡이의 "삼킴"은 재현하지 못한다. 본문은 흉내와 그 한계를 나란히 둔다.
- 결 3 — 완악함의 세 단어와 혼재된 주체:** *qashah*·*chazaq*·*kaved*가 번갈아 쓰이고, 그 주체가 하나님(3절)과 상태 서술(13·22절)로 섞인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4:21** (마음 완악 예고). **출 4:2-4** (지팡이가 뱀이 된 첫 경험). **출 8~12** (이어지는 재앙들).
- 다른 권 — **시 105:29** (물이 피가 됨의 회상).
- 정경 흐름 — 첫 표적의 "이레의 침묵"은 출애굽기 재앙 내러티브 전체가 점층(escalation)의 골격으로 흐를 것을 미리 비춘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신 같이 되게 하였다"는 임무의 세움 앞에서 한 사람이 숨을 고른다.

- **멈춤 1:**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상대도 똑같이 하는 장면에서 멈춘다.
- **멈춤 2:**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 것을 삼키는 순간에서 멈춘다.
- **멈춤 3:** 표적을 보고도 마음에 두지 않고 돌아서는 왕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물을 파는 사람들과 "이레의 침묵"을 손에 쥐 채 일어선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표적을 보고도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는* 자리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임무가 "신 같이·대언자"로 세워진다
- [x] 지팡이가 뱀이 되고 술사들도 흥내 낸다
- [x] 아론 지팡이가 그들 것을 삼킨다
- [x] 나일강이 피로 변해 물고기가 죽는다
- [x] 술사들도 흥내를 낸다
- [x] 바로가 마음에 두지 않고 돌아선다
- [x] "표적 → 흥내 → 완악"이 두 번 반복된다
- [x] 첫 재앙은 이레의 침묵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완악.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완악함의 주체가 왜 섞여 있는가?

- 관찰 사실: 3절은 하나님이 주어("내가 완악하게 하리라"), 13·22절은 상태 서술("마음이 완악하여").
- 본문 자체는 두 표기를 나란히 둘 뿐 관계를 설명하지 않음. 목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완악함의 세 동사(*qashah*/*chazaq*/*kaved*)는 같은 뜻인가, 다른 결인가?

- 완고함·강함·무거움의 세 어감이 번갈아 쓰임.
- 세 단어의 차이가 의도된 것인지는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3. 술사들이 흥내는 내되 "삼킴"은 못 한 까닭은?

- 지팡이·피는 따라 했으나(11, 22절), 아론 지팡이의 삼킴(12절)은 재현되지 않음.

- 본문은 그 한계의 까닭을 직접 말하지 않음. 사실만 기록.

Q4. 이미 피가 된 강에서 술사들은 어떻게 또 피를 만들었는가?

- 22절의 논리적 세부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흉내의 사실만 기록하고, 그 메커니즘은 답하지 않고 남김.

Q5. 첫 표적이 왜 나일강(*yeor*)을 치는 일인가?

- 강이 이집트의 젓줄이자 신격화 대상이었다는 배경만 기록.
- 표적의 선택이 의도된 대상인지는 묵상으로 이월.

Q6. 25절 "이레가 지났다"의 침묵은 무엇을 남기는가?

- 첫 재앙 후 결과 없이 이레가 흐른다.
- 이 시간 표지가 단순 경과인지, 기다림의 결인지는 답하지 않고 8장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8장

EXO-008 · 오경 · 히브리어

술사도 따라 하지만, 거기까지다. 개구리·이·파리 세 재앙에서 한계선이 그어진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나일 강가와 바로의 궁전.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와 침실·화덕·반죽 그릇까지 들어와 공간이 안으로 좁혀진다 (1-4절).
- 소품: 침상, 화덕, 떡 반죽 그릇 (3절) — 일상 생활의 한복판.
- 두 번째 재앙의 소재는 "땅의 티끌" → 이(kinnim)로 변함 (16-17절).
- 세 번째 재앙은 파리 떼(arov)이며, 고센 땅이 구별되어 무대가 둘로 갈라진다 (20-24절).
- 배경: 이집트에서 나일과 그 산물이 풍요·생명과 연결됨 (배경 자료, 해석 아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재앙이 멎었다 다시 시작되는 답답함. 바로의 번복이 반복되며 긴장이 풀렸다 조였다 한다.
- 술사들이 따라 하다 못 따라 하는 지점에서 분위기가 한 번 꺾인다.
- "간구하라"가 반복되어 청각적 인상으로 남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 명령.
- 끝(32절): "바로가 이번에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 거절.
- 시작의 "보내라"와 끝의 "보내지 아니하였더라"가 정면으로 마주 봄.
- 그 사이에 바로가 "보내겠다"고 두 번 말하는 번복이 끼어 있음 (8절, 28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아론 / 바로 / 바로의 술사들(chartummim). 백성(이스라엘·이집트)은 배경.
- 술사들은 개구리는 동일하게 따라 했으나(7절), 이(kinnim)에서 "못하였다"(18절).
- 술사들의 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etsba elohim, '하나님의 손가락', 19절).
- 바로의 태도 변화: 개구리 때 "간구하라"(8절) → 파리 때 "이 땅에서 제사하라"(25절) → "멀리는 가지 말라"(28절)로 흥정.
- 바로가 간구 시점을 묻는 모세에게 "내일"이라 답함 (10절).
- 모세의 응답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아시게 하리이다"(10절)가 명시됨.
- 재앙이 멎으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함이 반복됨 (15절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고", 32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개구리 경고·발생, 술사도 동일하게 따라 함
- 컷 2 (8-15절): 바로의 간청·"내일"·개구리 죽어 쌓임·번복
- 컷 3 (16-19절): 이(kinnim) 재앙, 술사 실패, "하나님의 권능"
- 컷 4 (20-24절): 파리 떼, 고센 땅 구별
- 컷 5 (25-32절): 바로의 흥정·모세의 간구·파리 떠남·재거절

6 의문점·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tsefardea(טִּפְאַרְדֵּעַ) — 개구리. 본장에서 반복.
- kinnim(כִּנִּים) — 이/각다귀류. 정확한 곤충 동정은 학자 간 이견. 70인역 σκνίφες.
- arov(אַרֹב) — '섞인 것·떼', 파리 떼. 70인역 κυνόμυια(개파리).
- chartummim(כַּרְתוּמִּים) — 이집트 술사·점술가.
- etsba elohim(עֵטְבַּאֵלֹהִים) — '하나님의 손가락/권능' (19절).
- pedut(פְּדוּת) — '구별·속량'의 결 (22-23절, 고센 구별).
- "완악하게 하다": kabad(무겁게 하다, 바로 스스로) / chazaq(강하게 하다)의 어휘가 갈림.

6 의문점·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세 재앙 각각이 "경고 → 발생 → 바로 반응 → 번복"의 박자로 반복.
- 술사 모티프의 단계적 변화: 동일하게 따라 함(개구리) → 실패·고백(이) → 등장하지 않음(파리).
- 고센 구별이 세 번째 재앙(파리)에서 처음 명시됨 — 이전 두 재앙엔 구별 언급 없음.
- "알게 하리라"가 목적 진술로 갈림 (10절, 22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

6 의문점·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이집트에서 나일과 그 산물(개구리 포함)이 풍요·생명과 연결됨. 그 강에서 개구리가 떼로 올라와 집 안까지 차오름.
- 개구리 머리 형상의 여신 헤케트가 출산과 연관됨 (배경 참고, 해석 영역이므로 주입 아님).

6 의문점·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8 ↔ 출 7장 (피 재앙·술사의 모방)
- 출 8 ↔ 시 78:45 (파리·개구리)
- 출 8 ↔ 시 105:30-31 (개구리·이·파리)
- 출 8 ↔ 출 9-10장 (이어지는 재앙)
- 출 8 ↔ 삼상 6:6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말라)

7 상황의 흐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세의 경고 뒤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와 집과 침실·화덕·반죽 그릇까지 덮는다. 술사들도 따라 하나 재앙을 보낼 뿐 거두지 못한다. 견디다 못한 바로가 간구를 청하고 "내일"이라 답하며, 이튿날 개구리가 죽어 무더기로 쌓인다. 숨을 돌린 바로는 다시 마음을 단는다. 곧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 퍼지고, 술사들은 따라 하지 못

한 채 "하나님의 권능"이라 고백한다. 세 번째로 파리 떼가 이집트를 덮되 고센 땅만은 비껴간다. 바로는 흥정을 시도하고 모세의 간구로 파리가 떠나지만, 이번에도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여기까지다 — 술사가 멈춘 자리"
- 초벌 부제: "경고·발생·간청·번복 — 세 재앙의 반복되는 박자"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배경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하나님의 권능"(etsba elohim)이 신학 프레임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술사 입에서 나온 고백"까지만 기록.
- 완악 동사(kabed/chazaq)의 주어 문제 — open_questions에 보존, 해석 생략.
- 고센 구별이 구원사 도식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본장에선 "세 번째 재앙에서 처음 명시"까지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8장은 같은 박자의 재앙이 세 번 반복되며, 그 안에서 흉내가 멈추는 자리와 땅이 갈라지는 자리가 드러난다.

한 문단: 본문은 "경고 → 발생 → 바로의 반응 → 번복"의 박자를 세 번 돌린다. 첫 박자(개구리)에서 술사는 동일하게 따라 하고, 둘째 박자(이)에서 막혀 "하나님의 권능"이라 고백하며, 셋째 박자(파리)에서는 등장조차 하지 않고 대신 고센 땅이 비껴간다. 반복되는 형식 안에서 두 개의 선이 그어진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나일 강가와 바로의 궁전. 개구리가 침실·화덕·반죽 그릇까지 차오름. 둘째 재앙 소재는 땅의 티끌→이, 셋째는 파리 떼와 고센 구별.
2 첫 느낌·분위기	몇었다 다시 시작되는 답답함. 술사가 막히는 지점에서 분위기가 꺾임. "간구하라"의 반복.
3 시작과 끝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1절) ↔ 끝 "보내지 아니하였더라"(32절). 사이에 "보내겠다"는 번복 두 번.
4 등장인물·사상	여호와·모세·아론·바로·술사들. 술사는 개구리는 따라 했으나 이에서 막힘. "하나님의 권능"(19절). 바로의 흥정.
5 장면 컷	컷1 개구리(1-7). 컷2 간청·번복(8-15). 컷3 이·술사 실패(16-19). 컷4 파리·고센 구별(20-24). 컷5 흥정·재거절(25-32).
6 의문·발견·정보	술사가 이에서 막힌 이유. 바로의 "내일". 술사가 거두지 못함. 고센 구별의 시점. 완악 동사의 갈림.
7 동영상	경고→발생→번복의 세 바퀴. 흥내가 멈추고, 땅이 갈라지는 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초벌 제목 — "여기까지다 — 술사가 멈춘 자리". 부제 — "세 재앙의 반복되는 박자".
9 기도·내면 떠오름	세 번 반복되는 박자 안에 들어가 걸을 때, 술사가 막힌 자리와 번복의 자리에서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술사 모티프의 세 단계:** 동일하게 따라 함(개구리) → 막힘·고백(이) → 사라짐(파리). 흥내의 한계가 한 장 안에서 드러난다.
- 결 2 — 고센의 구별:** 세 번째 재앙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선이 그어진다.
- 결 3 — 번복의 반복:** "보내라"와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이에서, 바로는 숨을 돌리면 다시 마음을 달는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7장** (피 재앙·술사의 모방). **출 9-10장** (이어지는 재앙과 완악).
- 다른 권 — **시 78:45·시 105:30-31** (개구리·이·파리의 회상). **삼상 6:6**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말라").
- 정경 흐름 — 재앙 내려티브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는 인식 동사로 묶인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개구리가 집 안까지 차오르는 장면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술사가 따라 하다 막히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고센엔 파리가 없었다는 구별의 선에서 멈춘다.
- **멈춤 3:** 숨을 돌린 바로가 다시 마음을 달는 순간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흥내와 능력은 다르다*는 걸을 손에 쥐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번복의 자리*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같은 박자의 재앙이 세 번 반복된다
- [x] 술사는 개구리는 따라 했으나 이에서 막힌다
- [x] 술사가 "하나님의 권능"이라 고백한다
- [x] 고센 땅이 세 번째 재앙에서 구별된다
- [x] 술사는 재앙을 보낼 뿐 거두지 못한다
- [x] 바로는 "보내겠다" 했다가 번복한다
- [x] 시작의 "보내라"와 끝의 "보내지 아니하였더라"가 마주 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구별.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술사들은 왜 하필 '이'(kinnim)에서 막혔는가?

- 관찰 사실: 개구리(7절)는 동일하게 따라 했으나, 이(18절)는 "못하였다".
- 본문은 이유를 말하지 않음. 목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바로는 왜 "내일"이라 답했는가?

- 당장 개구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텐데, 모세의 "언제?"에 "내일"이라 답함 (10절).
- 본문은 그 까닭을 설명하지 않음. 질문으로 보존.

Q3. 술사들은 왜 재앙을 보태기만 하고 거두지는 못하는가?

- 개구리를 더 올라오게 할 뿐, 물러가게 하는 건 모세의 간구뿐 (8절, 12-13절).
- 흉내와 능력의 경계를 본문이 직접 설명하지 않음. 어휘 분포만 기록.

Q4. 고센 구별이 세 번째 재앙에서야 명시된 이유는?

- 앞의 두 재앙(개구리·이)엔 이스라엘·이집트 구별 언급이 없음.
- 왜 파리(arov) 재앙부터 갈라지는지는 본문이 말하지 않음. 보존.

Q5. "완약하게 하다"의 주어가 갈리는 이유는?

- 바로 스스로 마음을 무겁게 함(15절, 32절)과, 다른 장에서 여호와께서 완약하게 하심의 어휘가 다름.
- 주어의 결을 신학으로 풀지 않고, 8장에서는 어휘 분포만 관찰.

Q6. 바로의 흥정("이 땅에서/멀리는 가지 말라")이 가리키는 것은?

- 제사 장소와 거리를 두고 단계적으로 흥정함 (25절, 28절).
- 흥정의 의도·구조는 답하지 않고 다음 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9장

EXO-009 · 오경 · 히브리어

"온 땅에 나 같은 자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돌림병·종기·우박, 그리고 처음으로 떨며 인정하는 입.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들판(가축) → 사람·짐승의 몸(종기) → 하늘(우박)로 옮겨 가며 점점 위로 올라간다.
- 소품: "풀무의 재 두 움큼"(piach kivshan, 8절) — 화덕 재가 재앙의 매개가 됨.
- 우박(barad)에 불이 섞여 내림 (24절). "나라가 생긴 그날부터 그같은 일이 없던" 우박.
- 작물 기록(31-32절): 보리·삼은 상함, 밀·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 상하지 않음 → 계절 가늠.
- 배경: 이집트에서 가축이 농경·운송·신앙(아피스 황소 등)의 핵심 자산 (배경 자료, 해석 아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가축→몸→하늘로 올라가며 무게가 커지는 인상. 술사들이 아예 서지 못하는 데서 한 단계 더 꺾임.
- 바로의 첫 "범죄하였노라"와 곧이은 반복의 낙차가 큼.
- "구별"과 "두려워하다"가 청각적 인상으로 남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 명령.
- 끝(35절): "바로야 마음이 완악하여...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 거절 + "말씀하심과 같더라".
- 8장과 같은 "보내라 ↔ 보내지 아니함" 틀에, 9장 끝엔 "말씀하심과 같더라"가 덧붙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아론 / 바로 / 바로의 신하들 / 술사들(11절, 종기로 못 섬).
- 신하 구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가축을 집으로 피함,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는 들에 둠 (20-21절).
- 선언: "온 땅에 나 같은 자가 없는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14절), "너를 세움은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함"(16절).
- 바로의 첫 죄 인정: "내가 이번에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27절).
- 모세의 응답: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안다"(30절).
- 우박이 그치자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함"(34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가축 돌림병(dever), 이스라엘 가축 무사, 바로 완악
- 컷 2 (8-12절): 풀무의 재→종기(shechin), 술사 못 섬, 여호와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12절)
- 컷 3 (13-21절): 우박 경고, "나 같은 자 없는 줄 알게 하리라", 신하 갈림
- 컷 4 (22-26절): 우박과 불, 고센 땅 우박 없음
- 컷 5 (27-35절): "범죄하였노라"·간구·우박 그침·재완악·"말씀하심과 같더라"

6 의문점·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dever(דֵּבֵר) — 돌림병·역병 (3절). 70인역 θάνατος.
- shechin(שֵׁכִינַח) — 종기·부스럼 (9절). 70인역 ἔλκη.
- piach kivshan(פִּיַח כִּישָׁן) — '풀무(가마)의 재' (8절).
- barad(בָּרָד) — 우박 (18절 이하).
- chatati(חָטֵאתִי) — "내가 범죄하였다" (27절, 바로의 입).
- hatsdik 계열 — "여호와는 의로우시다"(27절).
- 완악 동사: kabed(무겁게 하다, 바로 스스로, 7·34절) / chazaq(강하게 하다, 여호와께서, 12절).

6 의문점·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세 재앙이 무대를 들판→몸→하늘로 끌어올리며 점층(escalation).
- 술사 모티프의 다음 단계: 8장에서 막힌 술사가, 9장에선 종기로 "서지 못함"(11절).
- 완악의 주어가 이 장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로 전환됨 (12절).
- "알게 하리라"의 인식 동사가 14·16절에 집중, 우박 단락에 무게 중심.
- "범죄하였노라"(27절)와 "다시 범죄하여 완악"(34절)이 한 단락에서 짝을 이룸.

6 의문점·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이집트에서 가축이 농경·운송·신앙(아피스 황소 등)의 핵심 자산. 가축 돌림병이 그 자산을 침.
- 화덕(가마)의 재가 일상 소재인데, 그것이 하늘로 뿌려져 재앙의 매개가 됨 (8절).

6 의문점·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9 ↔ 출 8장 (앞선 재앙·고센 구별)
- 출 9 ↔ 출 10-11장 (이어지는 재앙)
- 출 9 ↔ 시 78:47-48 (우박)
- 출 9 ↔ 시 105:32-33 (우박·불)
- 출 9 ↔ 롬 9:17 (출 9:16 "너를 세움은..." 인용)

7 상황의 흐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세의 경고 뒤 들의 가축에 돌림병이 임해 이집트 가축은 죽되 이스라엘 가축은 무사하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다. 모세가 풀무의 재를 하늘로 뿌리자 사람과 짐승에 종기가 돋고, 술사들마저 종기로 서지 못한다. 세 번째로 모세가 우박을 예고하며 "나 같은 자 없는 줄 알게 하리라"는 선언이 내려진다. 신하들은 말씀을 두려워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갈린다. 우박과 불이 쏟아져 들의 것을 상하게 하나 고센 땅은 비껴간다.

바로가 처음으로 "범죄하였노라" 하나, 우박이 그치자 다시 마음을 달는다. 끝은 "말씀하심과 같더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나 같은 자 없는 줄 알게 하리라"
- 초벌 부제: "구별·인정·번복 — 점점 또렷해지는 선"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배경 + 작물·계절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완악의 주어 전환(12절 여호와)이 예정론 프레임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서 "주어가 처음 여호와로 바뀐"까지만 기록.
- "가축이 다 죽음"(6절)과 이후 가축 등장 of 긴장 — open_questions에 보존, 해석 생략.
- 바로의 "범죄하였노라"(27절)가 회개 신학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본장에서 "입에 담음 + 곧 번복"까지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9장은 세 재앙이 들판에서 몸으로, 몸에서 하늘로 올라가며, 그 한가운데서 바로가 처음으로 죄를 입에 담았다가 곧 닫는다.

한 문단: 돌림병은 들의 가축을 치고, 종기는 사람과 짐승의 몸을 치며, 우박은 하늘에서 쏟아진다. 무대가 점점 위로 끌려 올라가는 동안 구별의 선은 점점 또렷해진다 — 이스라엘 가축, 고센 땅, 그리고 말씀을 두려워한 신하. "온 땅에 나 같은 자 없는 줄 알게 하리라"는 선언이 그 가운데 놓이고, 끝은 "말씀하심과 같더라"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들판(가축)→몸(종기)→하늘(우박)로 올라감. 소품 "풀무의 재"(8절), 우박에 섞인 불, 작물 기록(31-32)으로 계절 가능.
2 첫 느낌·분위기	점점 무거워지는 인상. 술사가 아예 못 서는 데서 한 단계 꺾임. "범죄하였노라"와 번복의 낙차.
3 시작과 끝	시작 "보내라"(1절) ↔ 끝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 말씀하심과 같더라"(35절).
4 등장인물·사상	신하가 돌로 갈림(20-21). "나 같은 자 없는 줄 알게 하리라"(14). 바로의 첫 "범죄하였노라"(27)와 재완약(34).
5 장면 컷	컷1 돌림병(1-7). 컷2 종기·술사 못 섬(8-12). 컷3 우박 경고·신하 갈림(13-21). 컷4 우박·불·고센(22-26). 컷5 인정·간구·재완약(27-35).
6 의문·발견·정보	"다 죽은" 가축의 재등장. 완약 주어가 12절 여호와로 전환. 술사 "서지 못함". 우박만의 강조 표현.
7 동영상	가축→몸→하늘의 세 박자. 구별의 선이 점점 또렷해지는 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초벌 제목 — "나 같은 자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부제 — "점점 또렷해지는 선".
9 기도·내면 떠오름	세 박자 안에 들어가 걸을 때, 우박 속 "범죄하였노라"의 자리에서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점층하는 무대:** 들판(가축)→몸(종기)→하늘(우박). 재앙이 닿는 자리가 점점 높고 깊어진다.
- 결 2 — 또렷해지는 구별:** 이스라엘 가축, 고센 땅, 말씀을 두려워한 신하 — 구별의 선이 이집트 안팎으로 그어진다.
- 결 3 — 인정과 번복:** "범죄하였노라"(27절)가 우박이 그치자 "다시 범죄하여 완약"(34절)으로 닫힌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8장** (앞선 재앙·고센 구별). **출 10-11장** (이어지는 재앙).
- 다른 권 — **시 78:47-48·시 105:32-33** (우박·불의 회상). **롬 9:17** (출 9:16 "너를 세움은..." 인용).
- 정경 흐름 —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16절)가 재앙 내러티브를 인식의 결로 묶는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들의 가축이 쓰러지되 이스라엘 가축은 무사한 장면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술사들이 종기로 서지조차 못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신하가 말씀을 두려워한 자와 아닌 자로 갈리는 선에서 멈춘다.
- **멈춤 3:** 우박 속에서 바로가 "범죄하였노라" 하는 순간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위급할 때의 입과 평온할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인정과 번복 사이*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세 재앙이 들판→몸→하늘로 올라간다
- [x] 술사들이 종기로 서지 못한다
- [x] "나 같은 자 없는 줄 알게 하리라"가 무게 중심이다
- [x] 고센 땅엔 우박이 없다
- [x] 신하가 두려워한 자와 아닌 자로 갈린다
- [x] 바로가 처음으로 "범죄하였노라" 한다
- [x] 우박이 그치자 다시 완악해진다
- [x] 끝이 "말씀하심과 같더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알게.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가축이 "다 죽었다"는데 이후에 또 가축이 나오는 이유는?

- 6절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와 10·19-25절의 가축 등장이 긴장.
- 6절의 "뜰에 있는 가축" 한정이 어디까지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음. 보존.

Q2. "완악하게 하다"의 주어가 12절에서 여호와로 바뀐 이유는?

- 7·34절은 바로 스스로(kabed), 12절은 여호와께서(chazaq).
- 주어 전환의 까닭은 본문이 직접 풀지 않음. 어휘 분포만 기록, 해석은 묵상으로.

Q3. 술사들의 "서지 못함"(11절)은 어떤 의미인가?

- 8장에서 막히더니, 9장에선 종기로 모세 앞에 서지조차 못함.
- 등장 방식의 변화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음. 보존.

Q4. 왜 우박 재앙에만 "나라가 생긴 날부터 없던"이라는 강조가 붙는가?

- 앞의 돌림병·종기엔 없던 표현 (18·24절).
- 강조의 까닭을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5. 바로의 "범죄하였노라"(27절)는 어떤 결인가?

- 죄를 처음 입에 담되, 우박이 그치자 곧 번복(34절).
- 인정과 번복이 한 단락에 붙음. 회개 신학으로 풀지 않고 관찰만.

Q6. 신하의 두 갈림(20-21절)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로 갈림.

• 구별의 선이 이집트 내부로 들어온 걸. 의미는 답하지 않고 다음 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10장

EXO-010 · 오경 · 히브리어

신하들마저 "어느 때까지리이까" 간청한다. 메뚜기가 남은 것을 먹고, 삼 일의 흑암이 만질 듯 내린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바로의 궁전(대화)과 들판(메뚜기·흑암)이 번갈아 등장.
- 소재로 바람: 동풍(ruach qadim)이 메뚜기를 몰아오고(13절), 강한 서풍(바닷바람)이 홍해로 몰아냄(19절).
- 메뚜기(arbeh)가 우박이 남긴 채소·열매를 다 먹어 "푸른 것"이 남지 않음 (15절).
- 삼 일의 "만질 만한 흑암"(choshech, 21절). 사람이 서로 못 보고 못 일어남. 이스라엘 거주지엔 빛.
- 배경: 이집트에서 태양이 라(Ra) 신앙의 중심. 메뚜기는 ANE 농경의 대표적 재난 (배경 자료, 해석 아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신하들이 먼저 나서 간청하는 데서 분위기가 한 단계 바뀜 — 바로 혼자가 아님.
- "만질 만한 흑암"이 촉각적 공포로 다가옴.
- 바로의 흥정과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의 차가운 결별이 인상으로 남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1-2절): "들어가라... 네 아들과 네 자손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 후대에 전함이 목적.
- 끝(28-29절): 바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 모세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이다" — 결별 대화.
- 앞 장들의 "보내지 아니하였더라"식 닫힘과 달리, 두 사람의 대화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아론 / 바로 / 바로의 신하들(이 장에서 적극 발언).
- 신하들의 간청: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7절).
- 흥정 1 (메뚜기 전): "갈 자가 누구냐" → "남자만 가라" → 모세·아론을 쫓아냄 (8-11절).
- 바로의 죄 인정: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16절). 9장에 이어 두 번째.
- 흥정 2 (흑암 후): "가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24절) → 모세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26절) → 완악.
- 자녀를 가리키는 taph(타프): 흥정의 핵심 — 누구를·무엇을 데려가는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전하라" — 후대에 알림이 목적
- 컷 2 (3-11절): 메뚜기 경고, 신하 간청, 흥정("남자만"), 쫓아냄
- 컷 3 (12-15절): 동풍·메뚜기, 채소·열매를 다 먹음
- 컷 4 (16-20절): "죄를 지었다", 간구, 서풍이 몰아냄, 재완악
- 컷 5 (21-23절): 삼 일 흑암, 이스라엘 거주지엔 빛
- 컷 6 (24-29절): 흥정("가축 두고"), 거절, "다시 얼굴 보지 말라"

6 의문점·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arbeh(ארבה) — 메뚜기 (4절 이하).
- choshech(חֹשֶׁךְ) — 흑암·어둠 (21절). "만질 만한" 수식.
- ruach qadim(רוּחַ קָדִים) — 동풍 (13절). 70인역은 남풍(νότος).
- taph(תַּפ) — 어린아이·떨린 식구 (흥정 대상, 10·24절).
- chatati(חַטֵּאתִי) — "내가 죄를 지었다" (16절, 바로의 입).
- chag(חַג) — 절기·명절 (모세가 "여호와와의 절기를 지킬 것", 9절).
- 완악 동사: chazaq(여호와께서, 1·20·27절) / kabed(무겁게 함) 계열의 갈림.

6 의문점·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두 재앙(메뚜기·흑암) 사이에 흥정 장면이 끼어 대화 밀도가 높음.
- 바람의 들고 남: 동풍(들임, 13절) ↔ 서풍(내보냄, 19절)의 대칭.
- 신하의 발언이 처음으로 적극화 — 9장(둘로 갈림)에서 10장(입을 엮)으로 진전.
- 1절의 목적이 후대 세대("아들과 자손")로 확장 — 재앙이 '전해질 이야기'로 자리매김.
- "죄를 지었다"(16절)와 흥정·완악의 반복이 한 장 안에 두 번(메뚜기·흑암).

6 의문점·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이집트에서 태양이 라(Ra) 신앙의 중심. 삼 일의 흑암이 그 빛을 가림.
- 메뚜기 떼는 고대 근동 농경 사회의 대표적 재난 — 한 해 농사를 송두리째 앗아감.

6 의문점·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10 ↔ 출 8-9장 (앞선 재앙)
- 출 10 ↔ 출 11-12장 (장자 재앙·유월절)
- 출 10 ↔ 시 78:46 (메뚜기)
- 출 10 ↔ 시 105:34-35 (메뚜기·황충)
- 출 10 ↔ 율 1-2장 (메뚜기 재앙의 결)

7 상황의 흐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여호와와의 말씀이 "전하라"는 목적으로 시작된다. 모세가 메뚜기를 예고하자 이번엔 신하들이 먼저 나서 "어느 때까지리이까" 간청한다. 바로가 흥정하다 둘을 쫓아낸다. 동풍이 메뚜기를 몰아와 땅을 덮고 우박이 남긴 채소·열매를 다 먹는다. 바로가 "죄를 지었다" 하고 간구하니 서풍이 메뚜기를 흥해로 몰아내나, 바로는

다시 닫는다. 삼 일의 만질 만한 흑암이 온 땅을 덮되 이스라엘 거주지엔 빛이 있다. 바로가 "가축은 두고 가라" 흥정하고, 모세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하니, 바로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 하며 두 사람이 결별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 초벌 부제: "간청·흥정·결별 — 주변까지 흔들리는 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배경 + 바람 대칭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절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과 7절 신하들의 간청이 충돌하는 듯한 결 — open_questions에 보 존, 해석 생략.
- 삼 일 흑암의 라(Ra) 배경이 신학 대결 도식으로 번지지 않도록, 본장에선 "빛을 가림"까지만 기록.
- "죄를 지었다"(16절)가 회개 신학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입에 담음 + 흥정·완악 반복"까지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10장은 재앙이 바로 혼자를 넘어 신하들까지 흔들고, 거둬지는 흥정이 점점 좁혀지다 결별로 닫힌다.

한 문단: 메뚜기 경고 앞에서 신하들이 먼저 입을 열어 "어느 때까지리이까" 간청한다. 그러나 바로의 흥정은 멈추지 않는다 — "남자만 가라", 다시 "가축은 두고 가라". 동풍이 메뚜기를 들고 서풍이 내보내며, 삼 일의 만질 만한 흑암이 온 땅을 덮되 이스라엘 거주지엔 빛이 있다. 시작의 "자손에게 전하라"는 목적과 끝의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는 결별이 한 장을 감싼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궁전(대화)·들판(재앙) 교차. 동풍·서풍이 메뚜기를 들고 냄. 삼 일 "만질 만한 흑암", 이스라엘 거주지엔 빛.
2 첫 느낌·분위기	신하가 먼저 나서며 분위기 전환. "만질 만한 흑암"의 촉각적 공포. 결별의 차가움.
3 시작과 끝	시작 "자손에게 전하라"(1-2절) ↔ 끝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 / 보지 않겠다"(28-29절) 결별 대화.
4 등장인물·사상	신하들의 적극 발언(7절). 두 번의 흥정("남자만"·"가축 두고"). "죄를 지었다"(16절).
5 장면 컷	컷1 전하라(1-2). 컷2 메뚜기 경고·간청·흥정(3-11). 컷3 동풍·메뚜기(12-15). 컷4 인정·서풍·재완악(16-20). 컷5 흑암(21-23). 컷6 흥정·거절·결별(24-29).
6 의문·발견·정보	1절 완악과 7절 간청의 충돌. 흑암 단락의 침묵. 동풍·서풍 대칭. 후대로 향하는 목적.
7 동영상	신하들의 입이 열리고, 흥정이 좁혀지다 결별로 닫히는 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초벌 제목 —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부제 — "주변까지 흔들리는 걸".
9 기도·내면 떠오름	흥정의 자리,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자리에서 멈춘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신하들의 입:** 9장에서 둘로 갈린 신하가, 10장에선 먼저 나서 "어느 때까지리이까" 간청한다. 재앙이 바로 주변으로 번진다.
- 결 2 — 좁혀지는 흥정:** "남자만 가라" → "가축은 두고 가라". 내어 주는 듯 붙들려는 흥정이 거듭된다.
- 결 3 — 전하라는 목적:** 재앙이 바로만이 아니라 "아들과 자손"에게 전해질 이야기로 자리매김한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8-9장** (앞선 재앙·구별). **출 11-12장** (장자 재앙·유월절).
- 다른 권 — **시 78:46·시 105:34-35** (메뚜기의 회상). **욘 1-2장** (메뚜기 재앙의 결).
- 정경 흐름 — "자손에게 전하라"(1-2절)가 출애굽 사건을 세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묶는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자손에게 전하라"는 목적에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신하들이 먼저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흥정이 "남자만"에서 "가축은 두고"로 좁혀지는 결에서 멈춘다.
- **멈춤 3:** 만질 만한 흑암 한가운데, 이스라엘 거주지의 빛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다 드린다면서 한 부분을 두려는 흥정*의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흥정의 자리*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신하들이 먼저 나서 간청한다
- [x] 바로의 흥정이 거듭되며 좁혀진다
- [x] 동풍이 메뚜기를 들이고 서풍이 내보낸다
- [x] 삼 일의 흑암은 "만질 만하다"
- [x] 이스라엘 거주지엔 빛이 있다
- [x] 바로가 "죄를 지었다" 하고 또 반복한다
- [x] 시작의 "전하라"가 후대를 향한다
- [x] 끝이 결별 대화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흥정.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1절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과 7절 신하들의 간청은 어떻게 함께 있는가?

- 1절은 신하들도 완악하게 됐다 하고, 7절은 신하들이 보내라 간청함.
- 같은 신하인지, 다른 무리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음. 보존.

Q2. 흑암 단락(21-23절)은 왜 거의 침묵인가?

- 메뚜기 단락은 대화가 많은데, 흑암 단락엔 인물 대화가 거의 없음.
- 침묵의 까닭을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3. 바로의 흥정은 왜 단계적으로 좁혀지는가?

- "남자만"(11절) → "가축은 두고"(24절)로 흥정의 대상이 바뀜.
- 흥정 구조의 의도를 본문이 직접 풀지 않음. 어휘·대상 분포만 기록.

Q4. 1절의 "전하라"(후대에 알림)는 어떤 결인가?

- 재앙의 목적이 바로만이 아니라 "아들과 자손"을 향함.
- 재앙이 '이야기로 전해질 것'이라는 결. 의미는 답하지 않고 보존.

Q5. "죄를 지었다"(16절)는 9장 27절과 어떻게 다른가/같은가?

- 두 장 모두 위급할 때 죄를 입에 담고 곧 반복.
- 반복의 결을 회개 신학으로 풀지 않고 관찰만. 보존.

Q6. 동풍과 서풍의 대칭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동풍이 들고(13절), 서풍이 내보냄(19절). 같은 바람이 통로가 됨.
- 대칭의 의미는 답하지 않고 다음 결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11장

EXO-011 · 오경 · 히브리어

마지막 한 번이 예고된 채로 장이 멈춘다. 말은 끝났고, 밤은 아직 오지 않았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로 겹친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자리(1-3절)와 모세가 바로 앞에 선 자리(4-8절,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8절).
- 소품 — 은(kesef)과 금(zahav) 패물(keli), 이웃에게 "구하라"(sha'al, 2절).
- 시간 표지 — "한밤중"(chatsot halaylah, 4절).
- 직전의 열 재앙이 배경으로 깔림. 1절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
- 신분의 폭 — "왕위의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 여종의 장자"까지(5절),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사건은 없고 예고만 가득함. 참가자 다수가 "숨을 참는 긴장"과 "달히는 끝"을 공유함.
- "한밤중"."장자"의 반복이 서늘한 청각적 인상을 만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shalach, 미래) — 보냄의 약속으로 시작.
- 10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shalach, 부정 과거) — 보냄의 미성취로 닫힘.
- 같은 동사 shalach가 양 끝에 걸리되 방향이 반대(약속 ↔ 미성취).
- 예고로 열려 미성취로 닫히는 단위. 사건 자체는 다음 장(12장)으로 미뤄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바로(침묵).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
- 말하는 자 — 1-3절 여호와, 4-8절 모세. 바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지 아니함"(10절)으로만 등장.
- 3절: 백성이 애굽 사람의 "은혜"(chen)를 입음, 모세가 그 땅에서 "심히 위대함"(gadol me'od).
- 7절: 이스라엘에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charats)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심"(palah).
- 8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옴 — 모세의 감정이 드러나는 드문 자리.
- 6절: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온 애굽에 있으리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여호와와의 말씀 — 마지막 재앙 후 보냄, 은금을 구하라, 은혜·위대함
- 컷 2 (4-6절): 모세의 예고 — 한밤중, 모든 장자의 죽음, 큰 부르짖음
- 컷 3 (7-8절): 구별 —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음, 신하들의 절, 모세가 노하여 나옴
- 컷 4 (9-10절): 총평 — 바로가 듣지 않음,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 보내지 않음
- 마주 봄: 컷 2(예고)와 컷 4(미성취로 멈춤)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nega(נִגָּ) — 재앙/치는 것. 1절 "한 가지 재앙".
- shalach(שָׁלַח) — 보내다. 1절(미래)·10절(부정 과거), 수미상관.
- sha'al(שָׁאַל) — 청하다/구하다. 2절 "은금 패물을 구하라".
- keli(כֶּלִי) / kesef(כֶּסֶף) / zahav(זָהָב) — 기물 / 은 / 금. 2절.
- chen(חֵן) — 은혜/호의. 3절 백성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입음.
- gadol(גָּדוֹל) — 큰/위대한. 3절 모세가 "심히 위대함".
- chatsot halaylah(חַטֹּט הַלַּיְלָה) — 한밤중. 4절.
- bekhor(בְּכוֹר) — 장자. 5절에 집중 반복.
- charats(חָרַט) — (혀를) 움직이다/날카롭게 하다. 7절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라".
- palah(פָּלַח) — 구별하다. 7절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심.
- chazaq(חָזַק) — 강하게 하다/완악하게 하다. 10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shalach(보내다)가 1절(약속)과 10절(미성취)에 걸리는 어긋난 수미상관.
- 장자(bekhor)의 죽음이 "왕위→여중→가축"의 신분·종 폭으로 한 줄에 펼쳐짐(5절).
- 예고만 있고 사건 없음 — 성취는 12:29-30으로 미뤄짐.
- 구별(palah, 7절)이 다음 장 유월절 밤의 복선.
- "바로가 듣지 않음"과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심"(chazaq)이 한 문장에 병치(9-10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애굽에서 장자(상속자)는 가문·왕조 승계의 핵심으로, 그 죽음은 사회 질서 전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관찰됨.
- 떠나는 자에게 이웃이 물품을 주는 정황(은금을 "구함")은 배경 자료로만 주입.
- 본문은 은금 구함과 장자 죽음의 인과를 직접 설명하지 않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11 ↔ 출 3:21-22 (은금을 구하라는 첫 예고)
- 출 11 ↔ 출 4:21-23 (장자 죽음·바로 완악의 예고)
- 출 11 ↔ 출 12:29-30 (장자 죽음의 성취)
- 출 11 ↔ 출 12:35-36 (은금 구함의 성취)
- 출 11 ↔ 출 13:15 (장자 죽음을 기억하는 규례)

- 출 11 ↔ 시 78:51; 105:36; 136:10 (애굽 장자를 치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고, 그 뒤엔 바로가 오히려 쫓아내듯 보내리라 하신다. 백성에게는 이웃의 은금을 구하라 이르신다. 백성은 애굽 사람의 눈에 은혜를 입고, 모세도 그 땅에서 크게 여김을 받는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선언한다 — 한밤중에 왕의 장자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온 애굽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으나, 이스라엘에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심이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나온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백성을 보내지 않은 채 장이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마지막 한 번이 예고된 채로"
- 초벌 부제: "말은 끝났고, 밤은 아직 오지 않았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장자 위치 + 문학 구조 다수)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md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9-10절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심"이 신학(자유의지·예정) 프레임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목상 단계로 이월.
- 장자 죽음은 절제된 관찰로만 기록. 정서적 과장이나 윤리 평가로 미끄러지지 않음.
- 은금 구함의 동기는 본문이 말하는 데까지만(예고·성취의 교차 참조) 표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11장은 마지막 재앙이 예고만 된 채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멈추는, 약속과 미성취 사이의 한 단위다.

한 문단: 본문은 "보내리라"(shalach, 1절)는 약속으로 열린다. 여호와께서 은금을 구하라 이르시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한밤중의 장자 죽음을 선언한다. 가장 높은 왕의 장자에서 가장 낮은 여종의 장자까지,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한 줄로 펼쳐지는 예고다. 그러나 그 사이에 구별(palah)이 그어진다 — 이스라엘에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라. 모세가 노하여 나오고, 본문은 "보내지 아니하였더라"(10절)는 미성취로 닫힌다. 사건은 다음 장으로 미뤄진 채, 장 전체가 예고로만 가득 차 멈춘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무대 — 여호와와 말씀 자리(1-3절)와 바로의 궁(4-8절). 소품 — 은금 패물 (keli·kesef·zahav), 한밤중(chatsot halaylah). 신분 폭 — 왕의 장자에서 여종의 장자까지.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무겁게 가라앉은 긴장. 사건 없이 예고만 가득. "한밤중"·"장자"의 반복이 서늘한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보내리라"(shalach, 1절). 끝 — "보내지 아니하였더라"(shalach, 10절). 같은 동사가 약속↔미성취로 어긋나게 걸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바로(침묵). 말하는 자는 여호와와 모세, 바로는 "듣지 아니함"(10절)으로만 등장. 모세가 "심히 노하여" 나옴(8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여호와와 말씀(1~3). 컷 2 예고(4~6). 컷 3 구별·모세의 분노(7~8). 컷 4 총평·미성취(9~10).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은금을 "구하라"(2절)의 까닭. "바로가 듣지 않음"과 "완악하게 하심"(chazaq)의 관계. 정보 — 장자 폭(왕→여종→가축), 구별(palah)이 12장의 복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말씀이 내려오고→예고가 선언되고→구별이 그어지고→모세가 노하여 나오고→문은 닫힌 채 멈추는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마지막 한 번이 예고된 채로". 초벌 부제 — "말은 끝났고, 밤은 아직 오지 않았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예고만 가득한 멈춘 자리에 서서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앞에서 기다리는 자리를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결 1 — 어긋난 수미상관:** shalach(보내다)가 1절의 약속과 10절의 미성취에 걸린다. 같은 동사가 시작과 끝을 묶되 방향이 반대다. 장은 그 어긋남 안에 멈춘다.

2. **결 2 — 예고만 있는 장:** 가장 큰 무게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실려 있다. 성취는 다음 장으로 미뤄지고, 본문은 기다림의 자리로 남는다.

3. **결 3 — 구별의 선**: 죽음의 예고 한가운데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라"(palah, 7절)는 작은 그림이 들어온다. 가장 큰 일 옆에 가장 작은 소리로 구별이 그어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3:21-22·출 4:21-23** (은금·장자·완약의 첫 예고). **출 12:29-30·출 12:35-36** (예고의 성취). **출 13:15** (장자를 기억하는 규례).
- 다른 권 — **시 78:51·시 105:36·시 136:10** (애굽 장자를 치심을 노래로 회상).
- 정경 흐름 — 예고와 성취가 장을 넘어 마주 보는 결은, 정경 전체가 "말씀이 먼저 가고 일이 뒤따른다"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보내리라"는 약속의 첫 문장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한밤중과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죽음의 예고 옆에 그어지는 구별의 선(7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모세가 심히 노하여 나오는 자리(8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앞에서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예고와 성취 사이, 기다림의 자리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보내리라"(1절)로 열려 "보내지 아니하였더라"(10절)로 닫힌다
- [x] 같은 동사가 약속과 미성취로 어긋나게 걸린다
- [x] 사건은 없고 예고만 가득하다
- [x] 장자의 죽음이 왕에서 여종까지, 짐승까지 펼쳐진다
- [x] 죽음의 예고 옆에 구별의 선이 그어진다
- [x] 바로는 침묵하고 "듣지 아니함"으로만 등장한다
- [x] 장 전체가 기다림의 자리로 멈춘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밤.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1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떠나는 백성에게 은금을 "구하라"(2절) 하신 까닭은?

- 관찰 사실: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청하라는 지시. 출 3:21-22의 예고와 출 12:35-36의 성취 사이에 놓임.
- 본문은 그 목적을 직접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바로가 듣지 않음"과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심"(9-10절)의 관계는?

- chazaq(강하게/완악하게 하다)가 한 문장에 바로의 불순종과 함께 놓임.
- 두 주체(바로·여호와)의 관계는 본문이 풀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3. 장자의 죽음이 왕에서 여종까지, 짐승까지 펼쳐지는(5절) 까닭은?

-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 사람에서 가축까지 한 줄로 내려감.
- 그 폭의 의미는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Q4. 모세가 "심히 노하여"(8절) 나온 까닭은?

- 모세의 감정이 드러나는 드문 자리. 본문은 분노의 대상이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 왜 굳이 이 감정을 적어 두는가는 답하지 않고 보존.

Q5.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라"(7절)는 표현은 무엇을 그리는가?

- 구별(palah)의 정황을 가장 작은 소리(개의 혀)로 그림.
- 그 작은 그림의 함의는 묵상으로 이월.

Q6.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채 장이 멈추는(예고만 가득함) 까닭은?

- 예고는 다 주어졌으나 성취는 12장으로 미뤄짐. 장 전체가 약속과 미성취 사이에 멈춤.
- 그 멈춤 자체가 질문으로 남음.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12장

EXO-012 · 오경 · 히브리어

사건이 일어나는 밤과, 그 밤을 영원히 지키라는 규례가 한 장에서 겹쳐 흐른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이스라엘 각 가정의 문 앞 — 문설주(mezuzah)·인방(mashqof)에 피를 바름(7절).
- 소품 — 양/염소(seh, 흠 없는 일 년 수컷 tamim), 피(dam), 무교병(matsah), 쓴 나물, 우슬초(ezov) 묶음(22절), 그릇.
- 옷차림 소품 — "허리에 띠, 발에 신, 손에 지팡이, 급히 먹으라"(11절).
- 춤추는 시간 표지 — "이 달을 첫 달로"(2절), 열흘(3절), 열나흘날 해 질 때(6절), 그 밤(8·12절).
- 직전 장(11장, 한밤중 장자 죽음 예고)이 배경으로 깔림.
- 무교병(matsah)과 유교병(chamets)의 대비(15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두 결이 섞임 — 차분한 준비(규례)와 무거운 한밤중(사건). 참가자 다수가 "손이 바쁜 분주함"과 "사건과 규례의 겹침"을 공유함.
- "이 밤"과 "영원한 규례"가 번갈아 청각적 인상을 만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 시간을 새로 세움으로 시작.
- 51절: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 떠남의 성취로 닫힘.
- 구조: 법(1-28) → 이야기(29-39, 장자 죽음·떠남) → 법(40-51). 사건이 규례에 둘러싸임.
- 시간의 시작(2절)과 출발의 그 날(51절)이 양 끝에 걸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아론 / 이스라엘 온 회중 / 바로 / 애굽 사람 / 수많은 잡족(erev rav, 38절).
- 말하는 자 전환 — 1-20절 여호와가 모세·아론에게, 21-27절 모세가 장로들에게. 같은 규례가 두 입에서 나옴.
- 미래의 자녀가 등장 —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26-27절).
- 예고의 성취 — "밤중에 여호와께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니"(29절).
- 바로가 11장 내내 침묵을 깨고 처음 말함 — "일어나 떠나라"(31절).
- 핵심 동사 —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pasachti)"(13절). Pesach와 어근 연결.

- 반복되는 사상 — "기억하라·지키라"(겪음과 동시에 후대의 지킴으로 묶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3절): 유월절 규례 — 달의 시작, 양 준비, 피를 문설주에, "넘어가리라"
- 컷 2 (14-20절): 무교절 규례 — 이레 누룩 제함, 영원한 규례, 거룩한 모임
- 컷 3 (21-28절): 모세가 장로들에게 — 우슬초로 피, 자녀의 물음, 백성이 경배·행함
- 컷 4 (29-30절): 한밤중 — 모든 장자의 죽음, 큰 부르짖음
- 컷 5 (31-39절): 떠남 — 바로가 밤에 보냄, 은금, 라암셋→숙곳, 잡족·무교병
- 컷 6 (40-51절): 마무리 규례 — 430년, 지킬 밤, 유월절 조항, 그 날의 인도
- 둘러쌈: 컷 4(사건)가 컷 1~3과 컷 6(규례) 사이에 끼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Pesach(פֶּסַח) — 유월절. 11·13·21·27·43·48절. 동사 pasach(넘어가다/건너뛰다/보호하다)와 연결(13절).
- chodesh(חֹדֶשׁ) — 달/월. 2절 "이 달을 첫 달로".
- seh(סֵחַ) — 양/염소(작은 가축). 3·4·5절.
- tamim(תָּמִים) — 흠 없는/온전한. 5절.
- dam(דָּם) — 피. 7·13·22·23절.
- mezuzah(מִזְוָזָה) / mashqof(מִשְׁקוֹף) — 문설주 / 인방. 7·22·23절.
- ezov(עֶזוֹב) — 우슬초. 22절(피를 바르는 도구).
- matsah(מַצָּה) / chamets(חָמֵץ) — 무교병 / 유교병. 8·15·17·18·20절.
- chipazon(כִּיפָזוֹן) — 서두름/황급함. 11절("급히 먹으라"), 39절("급히 쫓겨남").
- chuqqah olam(חֻקֵּי עוֹלָם) — 영원한 규례. 14·17·24절.
- erev rav(עֶרֶב רַב) — 수많은 잡족/섞인 무리. 38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법-이야기-법 구조 — 규례(1-28)가 사건(29-39)을 감싸고 다시 규례(40-51)로 닫힘.
- Pesach(이름, 11절)와 pasach(동사, 13절)의 어원 연결을 본문이 직접 제시.
- chipazon(서두름)이 규례(11절)와 사건(39절)을 한 단어로 묶음.
- "이 밤"(8·12·42절)과 "영원한 규례"(14·17·24절)의 교차 반복.
- 미래의 자녀(26-27절)가 현재의 규례 안에 미리 들어옴.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목축 사회에서 작은 가축(seh) 한 마리를 가정 단위로 잡는 정황이 무대 배경.
- 문설주·인방은 고대 가옥 출입구 구조 — 피를 바르는 자리가 집의 경계임.
- 40절 "430년"은 마소라("애굽에 거주")와 70인역·사마리아 오경("애굽과 가나안에 거주")의 전승 차이가 있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12 ↔ 출 11:4-7 (장자 죽음의 예고와 성취)
- 출 12 ↔ 출 13:3-10 (무교절 규례 반복)
- 출 12 ↔ 레 23:5-8 (유월절·무교절 절기 규정)
- 출 12 ↔ 민 9:1-14 (둘째 달 유월절 조항)
- 출 12 ↔ 신 16:1-8 (유월절 규례)
- 출 12 ↔ 고전 5:7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 — 신약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여호와께서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세우라 이르시고, 각 집이 흠 없는 양을 열흘에 취해 열나흘날 해 질 때 잡으라 하신다. 그 피를 우슬초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무교병·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으라 하신다 — 이것이 유월절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레의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하신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자녀의 물음에 대답할 말까지 일러 준다. 백성이 경배하고 행한다. 한밤중에 예고가 성취되어 모든 장자가 죽고 온 애굽에 부르짖음이 인다. 침묵하던 바로가 밤에 떠나라 한다. 백성이 발효되기 전 반죽을 지고 은금을 얻어 라암셋에서 숙곳으로 떠나며, 수많은 잡족도 함께 올라간다. 본문은 다시 규례로 돌아가 430년과 지킬 밤을 말하고, "바로 그 날에 인도하여 내셨다"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 초벌 부제: "사건이 일어나는 밤과, 그 밤을 영원히 지키라는 규례가 겹치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목축·가옥 구조 + 문학 구조 다수)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md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3절 "넘어가리라"와 고전 5:7(유월절 양)을 신약 해석으로 끌어가지 않음 →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
- 장자 죽음(29-30절)은 절제된 관찰로만 기록. 정서적 과장·윤리 평가로 미끄러지지 않음.
- 430년 전승 차이는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12장은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 그 사건을 영원히 지키라는 규례에 둘러싸인, 법-이야기-법의 한 단위다.

한 문단: 본문은 "이 달을 첫 달로 삼으라"(2절)며 시간 자체를 새로 여는 것으로 열린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가 먼저 길게 주어진다 — 흠 없는 양, 문설주의 피, 무교병, 급히 먹음,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규례 한가운데 한밤중의 사건이 들어온다. 11장의 예고가 그대로 성취되어 모든 장자가 죽고, 침묵하던 바로가 떠나라 한다. 백성은 발효되기 전 반죽을 지고 급히 떠난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다시 규례로 돌아가 430년과 지킬 밤을 말하며 "그 날에 인도하여 내셨다"로 닫힌다. 겪음과 지킴이 한 장에 겹친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집집의 문 앞(문설주·인방). 소품 — 양(seh)·피(dam)·무교병(matsah)·우슬초(ezov)·옷차림. 촘촘한 시간 표지(이 달·열흘·열나흘날·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차분한 준비(규례)와 무거운 한밤중(사건)의 두 결. 손이 바쁜 분주함. "이 밤"과 "영원한 규례"의 교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이 달을 첫 달로"(2절). 끝 — "그 날에 인도하여 내셨더라"(51절). 법(1-28)-이야기(29-39)-법(40-51) 구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아론·회중·바로·잡족. 같은 규례가 여호와와 모세 두 입에서. 미래의 자녀가 미리 등장(26-27절). 바로가 침묵을 깨(31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유월절 규례(1~13). 컷 2 무교절 규례(14~20). 컷 3 모세가 전함(21~28). 컷 4 한밤중(29~30). 컷 5 떠남(31~39). 컷 6 마무리 규례(40~51).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첫 달로 세움"(2절)의 까닭. 규례가 사건을 둘러싼 구조. 정보 — Pesach/pasach 어원 연결(13절), chipazon(서두름)이 명령·결과를 묶음, 430년 전승 차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시간이 열리고→피가 발리고→한밤중 성취→급한 떠남→다시 지킬 밤의 규례로 봉인되는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초벌 부제 — "사건이 일어나는 밤과, 그 밤을 영원히 지키라는 규례가 겹치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피가 발린 문 앞에 서서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안에서 떨며 기다리는 밤에도 밖에서 그 피를 보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법이 이야기를 감싸다:** 사건(29-39절)이 규례(1-28, 40-51)에 둘러싸인다. 본문은 일을 그저 전하지 않고, 그 일을 지킬 밤으로 미리·다시 묶는다.
2. **결 2 — 넘어감이 이름이 되다:** Pesach(유월절)와 pasach(넘어가다)가 13절에서 직접 맞물린다. 사건의 동작이 그대로 절기의 이름이 된다.
3. **결 3 — 서두름의 한 단어:** chipazon(서두름)이 규례의 명령(11절)과 사건의 결과(39절)를 같은 단어로 묶는다. 무교병이 지킴이자 겪음의 흔적으로 함께 남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11:4-7** (장자 죽음의 예고, 여기서 성취). **출 13:3-10** (무교절 규례의 반복).
- 다른 권 — **레 23:5-8·민 9:1-14·신 16:1-8** (유월절·무교절의 절기 규정). **고전 5:7** (유월절 양으로 다시 읽음, 신약의 결).
- 정경 흐름 — 사건을 규례로 묶어 대대로 지키게 하는 결은, 정경 전체가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사건을 살아 있게 한다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시간을 새로 여는 첫 문장(2절)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급히 먹으라는 규례의 분주함에서 멈춘다.
- **멈춤 2:**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13절)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사건이 규례 한가운데 들어와 한밤중을 채우는 자리(29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겪은 일이 지킬 밤이 되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피가 발린 문 앞, 보임을 받는 자리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이 달을 첫 달로"(2절)로 시간을 새로 연다
- [x] 규례가 사건을 둘러싼다 (법-이야기-법)
- [x] 피가 표징이 되어 하나님 보고 넘어가신다
- [x] 11장의 예고가 한밤중에 성취된다
- [x] 침묵하던 바다가 떠나라 한다
- [x] 무교병이 서두름의 명령이자 결과다
- [x] 겪은 밤이 영원히 지킬 밤이 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지킴.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1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왜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새로 세우라(2절) 하시는가?

- 관찰 사실: 사건과 함께 시간 자체를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
- 본문은 그 까닭을 직접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사건(29-39절)이 규례(1-28, 40-51) 한가운데 끼인 구조의 까닭은?

- 보통의 순서(사건→규례)와 달리 규례가 사건을 둘러쌈.
- 그 둘러쌈의 의미는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Q3.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13절)에서 피를 보는 주체가 하나님인 까닭은?

- 피는 집 안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위에서 보이는 표징(ot)으로 기능함.
- 보는 주체와 표징의 방향에 대한 함의는 묵상으로 이월.

Q4. 무교병이 규례(서두름의 명령)이자 사건(서두름의 결과)인 까닭은?

- chipazon(서두름)이 11절(명령)과 39절(결과)에 같이 쓰임.
- 규례가 먼저인지 사건이 먼저인지 본문은 한 방향으로 말하지 않음.

Q5. "수많은 잡족"(erev rav, 38절)이 함께 올라간 까닭은?

- 이스라엘만이 아닌 섞인 무리가 떠남에 동행함.
- 그 동행의 함의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6. "430년"(40절)의 전승 차이는 무엇을 남기는가?

- 마소라("애굽에 거주")와 70인역·사마리아 오경("애굽과 가나안에 거주")의 차이.
-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본문 전승의 경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13장

EXO-013 · 오경 · 히브리어

기억하라는 규례와 앞서 가는 기둥. 떠난 백성이 무엇을 지고 어디로 향하는지가 그려진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옮겨 다님 — 전반(1-16절) 모세의 당부 자리, 후반(17-22절) 길 위(숙곳→에담, 광야 끝).
- 노정·지리 — 블레셋 길(derekh erets Pelishtim, 가까운 해변 길) 대신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감(17-18절).
- 소품 — 무교병(matsah, 6-7절), 요셉의 해골(etssem Yosef, 19절), 구름 기둥(ammud anan)·불 기둥(ammud esh, 21-22절).
- 시간 표지 — 아빕월(4절), "해마다 기한에 이르러 지키라"(10절).
- 배경 — 창 50:25(요셉의 맹세)과 출 12장(무교절·장자 죽음)이 깔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차분한 당부(규례)로 시작해 길의 선택을 지나 트인 인도하심(기둥)으로 닫힘.
- "기억하라"와 "강한 손"의 반복이 청각적 인상. 요셉의 해골에서 잠시 멈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 백성이 돌려 드림으로 시작.
- 22절: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 떠나지 않으심으로 닫힘.
- 구조: 규례(1-16) → 노정(17-22). 앞은 "지키라", 뒤는 "이끄셨다".
- "강한 손"(yad chazaqah, 3·9·14·16절)이 규례와 노정(17-18절 길 정함)을 묶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백성 / 미래의 자녀(8·14절) / 요셉(해골로 등장, 19절).
- 미래의 자녀가 다시 등장 — "네 아들이 묻기를 이것이 어찌이냐 하거든"(14절),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8절).
- 처음 난 것의 구별 —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padah)하거나 목을 꺾음, 사람의 장자는 대속(13절).
- 까닭 — "바로가 완강하여 보내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애굽의 처음 난 것을 치셨다"(15절).
- 하나님의 배려 — 블레셋 길이 가까우나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광야 길로 인도(17절).
- 반복되는 사상 — "이 날을 기억하라"(zakhar, 3절), "손의 기호·미간의 표"(9·16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라
- 컷 2 (3-10절): 무교절 규례 — 기억하라, 이레 무교병, 아들에게 이르라, 손의 기호·미간의 표
- 컷 3 (11-16절): 처음 난 것의 구별 — 나귀 대속, 장자 대속, 까닭, 다시 손의 기호·미간의 표
- 컷 4 (17-19절): 길의 선택 — 광야 길로 돌림, 무장, 요셉의 해골
- 컷 5 (20-22절): 노정과 기둥 — 숙곳→에담, 구름·불 기둥이 떠나지 않음
- 두 묶음: 컷 1~3(규례)과 컷 4~5(노정)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qadesh(קֹדֵשׁ) — 거룩히 구별하다. 2절 "거룩하게 하여 내게 돌리라".
- peter rechem(פֶּטֶר רֶחֶם) — 태에서 처음 난 것. 2·12·15절.
- bechor(בְּכוֹר) — 장자/처음 난 것. 13·15절.
- padah(פָּדָה) — 대속하다/값 치러 되찾다. 13·15절(나귀·장자).
- chamor(חֲמוֹר) — 나귀. 13절(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
- matsah(מַצָּה) / chamets(חֲמֵץ) — 무교병 / 유교병. 6-7절.
- zakhar(זָכַר) — 기억하다. 3절 "이 날을 기억하라".
- ot(אוֹת) / totafot(טוֹטְפוֹת) — 기호 / 미간의 표. 9·16절(두 규례의 후렴).
- yad chazaqah(יָד חֲזָקָה) — 강한 손. 3·9·14·16절.
- etsem Yosef(עֵטֶם יוֹסֵף) — 요셉의 해골/뼈. 19절.
- ammud anan(עַמֻּד עָנָן) / ammud esh(עַמֻּד אֵשׁ) — 구름 기둥 / 불 기둥. 21-22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두 규례(무교절·처음 난 것)가 같은 후렴 "ot·totafot"(9·16절)로 닫힘.
- "강한 손"(yad chazaqah)이 규례(3·9·14·16절)와 노정(17-18절)을 묶음.
- 규례(1-16) → 노정(17-22)의 두 묶음 구조.
- 미래의 자녀(8·14절)가 현재의 규례 안에 미리 들어옴(12장과 같은 절).
- 구름·불 기둥의 낮/밤 짝(21-22절), "떠나지 아니하니라"로 닫힘 → 14장으로 이어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서 처음 난 것(初産)을 신에게 돌리는 관행이 "구별하라"의 무대 배경.
- 출애굽 경로 — 블레셋 길(해변 길)과 광야 길의 지리적 선택이 시내 반도 북부 두 노선과 관련.
- 요셉의 해골은 창 50:25의 맹세와 직접 이어짐(배경 서사).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13 ↔ 출 12:29 (장자 죽음 — 구별의 까닭)
- 출 13 ↔ 출 11:5 (장자 죽음 예고)
- 출 13 ↔ 창 50:25 (요셉의 해골 맹세)
- 출 13 ↔ 수 24:32 (요셉의 해골을 세겜에 장사)

- 출 13 ↔ 신 6:8 (손의 표·미간의 표 반복)
- 출 13 ↔ 출 14:19-24 (구름·불 기둥의 이어짐)
- 출 13 ↔ 민 33:5-6 (라암셋→숙곳→에담 노정)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여호와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돌리라 이르신다. 모세가 백성에게 당부한다 — 종 되었던 집에서 강한 손으로 나온 이 날을 기억하라,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절기를 지키라, 아들에게 그 까닭을 이르라,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 가나안에 든 후에는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돌리되,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하고 사람의 장자도 대속하라 — 애굽의 처음 난 것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길 이 갈린다. 하나님은 가까운 블레셋 길 대신 광야 길로 인도하신다. 백성은 대오를 갖추어 올라가고,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지고 간다. 숙곳을 떠나 에담에 이른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 가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기억하라, 그리고 앞서 가시는 분"
- 초벌 부제: "기억하라는 규례와, 밤낮으로 떠나지 않는 기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초산 관행·출애굽 경로 + 문학 구조 다수)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md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9:16절 "손의 기호·미간의 표"를 후대 테필린 관습으로 끌어가지 않음 → 배경 자료로만 표시.
- 17절 하나님의 배려를 심리·교훈 프레임으로 미끄러뜨리지 않고 본문 표면(전쟁→돌이킴 우려)까지만 기록.

- 18절 chamushim(무장하고)의 난해 전승은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13장은 떠난 백성에게 기억하라는 규례가 먼저 주어지고, 그들이 옛 약속을 지고 먼 길로 돌아갈 때 떠나지 않는 기둥이 앞서 가는 한 단위다.

한 문단: 본문은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2절)는 명령으로 열린다. 무교절을 기억하고, 처음 난 것을 대속하며, 아들에게 그 까닭을 이르라는 규례가 같은 후렴("손의 기호·미간의 표")으로 두 번 달린다. 그리고 나서 길이 갈린다 — 가까운 블레셋 길 대신 광야 길이다. 백성은 대오를 갖추고,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지고 간다. 마지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으로 앞서 가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킴의 규례와 인도하심의 기둥이 한 장에 나란히 놓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옮겨 다니는 무대 — 당부의 자리와 길 위(숙곳→에담). 두 길(블레셋 길·광야 길). 소품 — 무교병, 요셉의 해골(etsem Yosef), 구름·불 기둥(ammud anan·esh).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차분한 당부(규례)에서 길의 선택을 지나 트인 인도하심(기둥)으로. "기억하라"·"강한 손"의 반복.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돌리라"(2절). 끝 —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니라"(22절). 규례(1-16)→노정(17-22).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백성·미래의 자녀(8·14절)·요셉(해골). 처음 난 것의 대속(padah, 13절), 까닭(애굽 장자 죽음, 15절), 하나님의 길 배려(17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구별 명령(1~2). 컷 2 무교절 규례(3~10). 컷 3 처음 난 것 규례(11~16). 컷 4 길의 선택·해골(17~19). 컷 5 노정·기둥(20~22).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규례를 먼저 주신 까닭. 나귀 대속 조항. 정보 — 두 규례의 같은 후렴(ot·totafot, 9·16절), "강한 손"이 규례·노정을 묶음, 요셉의 해골이 창 50:25과 이어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구별·기억의 규례→대속의 까닭→광야 길로 돌림→해골을 지고 노정→떠나지 않는 기둥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기억하라, 그리고 앞서 가시는 분". 초벌 부제 — "기억하라는 규례와, 밤낮으로 떠나지 않는 기둥".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기둥이 앞서 가는 광야 길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가까운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도 앞서 가심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걸 1 — 같은 후렴의 두 규례:** 무교절(9절)과 처음 난 것(16절)이 "손의 기호·미간의 표"라는 같은 후렴으로 달린다. 두 규례가 한 걸로 묶이고, 그 앞엔 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음"이 놓인다.

2. **결 2 — 돌아가는 길:** 가장 큰 무게가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리심에 실린다. 본문은 그 돌아감의 표면 이유(전쟁→돌이킴 우려)까지 말한다.

3. **결 3 — 옛 약속과 새 노정:** 출애굽의 첫 길에 요셉의 해골(창 50:25의 맹세)이 함께 간다. 옛 약속이 새 출발의 짐으로 실려, 떠남이 기억과 한 몸으로 움직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12:29·출 11:5** (장자 죽음 — 구별의 까닭). **출 14:19-24** (구름·불 기둥의 이어짐).
- 다른 권 — **창 50:25** (요셉의 해골 맹세). **수 24:32** (해골을 세겔에 장사, 맹세의 완결). **신 6:8** (손의 표·미간의 표 반복). **민 33:5-6** (노정).
- 정경 흐름 — 옛 약속(요셉)을 지고 새 길로 나아가는 결은, 정경 전체가 "한 약속이 여러 세대를 가로질러 지켜진다"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구별하여 돌리라"는 첫 명령(2절)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듭된 당부(3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리시는 자리(17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지는 자리(19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떠나지 않는 기둥이 앞서 간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돌아가는 길 위, 앞서 가시는 분을 따르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돌리라"(2절)로 열린다
- [x] 두 규례가 같은 후렴으로 닫힌다 (9·16절)
- [x] 떠남 직후에 기억하라는 규례가 먼저 온다
- [x]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광야 길로 돌리신다
- [x] 옛 약속(요셉의 해골)이 첫 노정에 함께 간다
- [x] 처음 난 것의 대속에 애굽 장자 죽음이 까닭으로 놓인다
- [x] 구름·불 기둥이 떠나지 않고 앞서 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앞서 가심.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1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꺾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막 떠난 백성에게 왜 규례부터 길게 주시는가?

- 관찰 사실: 떠남 직후 무교절·처음 난 것의 규례가 먼저 길게 옴(1-16절).
- 본문은 그 순서의 까닭을 직접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왜 나귀의 첫 새끼만 "대속하거나 목을 꺾으라"(13절) 하는가?

- 다른 짐승과 달리 나귀에게만 특정 조항이 붙음.
- 그 구별의 까닭은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Q3. "손의 기호·미간의 표"(9·16절)가 두 규례를 같은 후렴으로 닫는 까닭은?

- 무교절과 처음 난 것 규례가 같은 표현으로 마무리됨.
- 그 반복의 함의는 묵상으로 이월.

Q4. 왜 가까운 블레셋 길을 두고 먼 광야 길로 돌리시는가?

- 본문은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17절)라는 우려를 표면으로 말함.
- 그 우려 너머의 함의는 답하지 않고 보존.

Q5. 출애굽의 첫 노정에 요셉의 해골(19절)이 함께 가는 까닭은?

- 창 50:25의 옛 맹세가 떠남의 첫 길에 실려 함께 감.
- 옛 약속과 새 출발이 한 노정에 놓이는 결은 관찰까지. 의미는 뒤로.

Q6. "떠나지 아니하니라"(22절)로 닫히는 기둥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 구름·불 기둥이 여기선 "떠나지 않음"까지만. 14장에서 다시 움직임.
- 그 이어짐 자체가 질문으로 남음.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14장

EXO-014 · 오경 · 히브리어

진퇴양난 앞에서 잠잠하라. 가른 바다가 다시 합쳐 돌아온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바다(Yam Suph) 앞 좁은 자리. 비하히롯·믹돌·바알스본 사이에 진을 쳤다(2절).
- 두 진영: 이스라엘 진영과 바로의 군대(병거·마병·보병).
- 핵심 소품 — 구름기둥과 불기둥, 모세의 손/지팡이, 큰 동풍(ruach qadim).
- 시간대는 밤에서 새벽.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21절), "새벽"에 애굽이 어지러워짐(24절).
-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물이 좌우 벽이 됨(22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뒤가 막힌 압박감. 백성의 부르짖음(시끄러움) 가운데 "잠잠하라"(정적)가 끼어듦.
- 긴 밤, 어둠 속 진행. 두 진영의 대칭(같은 길, 다른 결말)이 인상으로 남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명령으로 시작(진 치라·돌이키라).
-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 백성의 믿음으로 닫힘.
- 골격: 말씀 → 사건 → 믿음. 시작의 하나님 발화와 끝의 백성 반응이 양쪽에 걸림.
- 4절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 18절 거의 동일 문장 (목적 진술의 반복).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이스라엘 백성 / 바로와 신하들 / 애굽 군대 / "하나님의 사자"(malak haelohim, 19절).
- 백성의 처지: 두려움 → 원망("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11절).
- 모세의 응답: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1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하라"(charash, 14절).
- 곧이어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나아가게 하라"(15절) — 잠잠함과 나아감이 붙음.
- 바로의 사상: "마음이 변하여" 추격, "어찌하여 보내었는가"(5절).
-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가 4·8·17절에 반복(chazaq 계열).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돌이켜 진 치라 —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 컷 2 (5-9절): 바로의 변심과 추격

- 컷 3 (10-14절): 백성의 두려움·원망 → "잠잠하라"
- 컷 4 (15-20절): "나아가라", 손 내밀라, 구름기둥 후방 이동(두 진영 사이 차단)
- 컷 5 (21-25절): 밤새 동풍, 바다 갈라짐, 이스라엘 도하, 애굽 추격·병거 바퀴 문제
- 컷 6 (26-31절): 손 다시 내밀라, 바다 합침, 애굽 수장, 백성의 믿음

6 의문점·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Yam Suph(יָם סוּף) — 본문이 부르는 바다 이름. 통상 홍해로 옮김.
- charash(14, שָׁרַשׁ) — 잠잠하다·침묵하다.
- ruach qadim(21, רוּחַ קָדִים) — 큰 동풍. ruach는 바람·숨·영을 품음.
- malak haelohim(19, מַלְאֲכֵי הָאֱלֹהִים) — 하나님의 사자.
- yada(18:4, יָדָע) — 알다.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 yasha / yeshuah(30:13, יָשָׁא) — 구원하다/구원. 모세의 예고(13)와 성취(30)가 같은 어근.
- chazaq(צָרַח) — 강하게/완악하게 하다. 마음 완악의 반복 어근.

6 의문점·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컷 5와 컷 6의 거울 대칭: "손 내밀어 갈라짐" ↔ "손 내밀어 합쳐짐". 같은 동작, 반대 결과.
- 두 진영의 대칭: 같은 마른 길로 들어가나 한쪽은 건너고 한쪽은 잠김.
- "알리라"(목적 진술)의 반복: 4절 ↔ 18절.
- "구원" 예고(13절) ↔ 성취(30절)의 어근 일치 — 장 전체를 감싸는 inclusio 후보.
- "완악하게"의 3회 반복(4·8·17)이 추격의 동력으로 깔림.

6 의문점·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군대의 전차·기마 운용 — 본문의 "병거·마병"의 무대 배경.
- "신적 전사" 모티프(신이 백성 대신 싸움) —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와 비교 관찰. 해석은 보류.

6 의문점·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14 ↔ 출 15장 (같은 사건을 노래로)
- 출 14 ↔ 시 77:16-20 / 시 106:7-12 / 시 114편
- 출 14 ↔ 느 9:9-11
- 출 14 ↔ 사 43:16-17
- 출 14 ↔ 고전 10:1-2 (바다에서 세례 받음)
- 출 14 ↔ 히 11:29 (믿음으로 바다를 건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막다른 바다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로가 마음을 바꿔 추격한다. 군대를 본 백성이 두려워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고 답한다. 곧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하시고, 구름기둥이 뒤로 돌아 두 진영을 갈라 막는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밤새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넌다. 뒤따른 애굽은 새벽에 어지러워지고 병거가 멈춘다.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바다가

본래 자리로 돌아와 애굽 군대를 덮는다. 한쪽은 건너고 한쪽은 잠긴다. 그 날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믿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잠잠하라, 그리고 나아가라"
- 초벌 부제: "진퇴양난 — 잠잠함과 나아가감, 가름과 합침"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전차 운용·신적 전사 모티프·문학 대칭)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완악하게 하셨다"가 신학적 자유의지 논쟁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목상 단계로 이월.
- "잠잠하라/나아가라"의 긴장을 적용 설교로 미끄러뜨리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두 명령이 붙어 있음"까지만 기록.
- 병거 바퀴 본문 전송(벗김/묵임) — 본문 비평 사항으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14장은 막다른 자리에서 같은 손짓이 가름과 합침이라는 정반대 결말을 내는 하룻밤이다.

한 문단: 본문은 백성을 일부러 막다른 바다 앞에 세운다.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바다다. 그 좁은 자리에서 "잠잠하라"는 말과 "나아가라"는 말이 한 호흡에 붙는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고, 다시 손을

내밀어 바다를 합친다. 같은 마른 길로 두 진영이 들어가지만 한쪽은 건너고 한쪽은 잠긴다. 시작의 두려움이 끝의 믿음으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비하히룻·믹돌·바알스본 사이, 바다(Yam Suph) 앞 좁은 자리. 소품 — 두 기둥(구름·불), 모세의 손/지팡이, 큰 동풍. 시간대 밤→새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앞뒤가 막힌 압박. 부르짖음 가운데 "잠잠하라"가 정적으로 끼어듦. 긴 밤, 두 진영의 대칭.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하나님의 명령(진 치라). 끝 — 백성의 믿음(31절). 4절↔18절 "알리라"의 반복.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백성·바로·애굽 군대·하나님의 사자. 백성 두려움→원망, 모세의 "잠잠하라"(14), 곧 하나님의 "나아가라"(15).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1 진 침(1~4). 컷2 추격(5~9). 컷3 두려움·"잠잠하라"(10~14). 컷4 "나아가라"·구름기둥 차단(15~20). 컷5 갈라짐·도하(21~25). 컷6 합쳐짐·수장·믿음(26~31).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잠잠하라/나아가라"의 긴장. 막다른 진 침의 까닭. 정보 — "구원"(yasha)이 13절 예고·30절 성취로 같은 어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진 침→추격→두려움→잠잠/나아가→갈라짐·도하→합쳐짐·수장→믿음의 한 흐름. 컷5와 컷6이 거울 대칭.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잠잠하라, 그리고 나아가라". 초벌 부제 — "가름과 합침".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가른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막힌 자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잠잠하라"와 "나아가라"의 맞붙음:** 가만히 서는 일과 발을 떼는 일이 한 호흡에 놓인다. 본문은 둘을 모순으로 풀지 않고 나란히 둔다.
- 결 2 — 같은 손짓, 반대 결말:**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고(21절), 다시 손을 내밀어 바다를 합친다(27절). 같은 동작이 구원과 심판으로 갈린다.
- 결 3 —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10절의 부르짖음과 31절의 믿음이 한 장의 양 끝에 걸린다. 그 사이가 하룻밤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15장** (같은 사건을 바다의 노래로 다시 노래함).
- 다른 권 — **시 77:16-20** (물이 주를 보고 뿔). **시 106:7-12** (믿었다가 곧 잊음). **고전 10:1-2** (바다에서 세례 받음). **히 11:29** (믿음으로 바다를 건넌).
- 정경 흐름 — 출애굽 구원의 절정으로, 이후 백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돌아보는 원형 사건.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앞은 바다, 뒤는 군대라는 좁은 자리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잠잠하라"는 말과 "나아가라"는 말이 붙어 있는 지점에서 멈춘다.

- **멈춤 2:** 손이 한 번은 가르고 한 번은 합치는 대칭에서 멈춘다.
- **멈춤 3:** 같은 길이 누구에겐 구원, 누구에겐 수장이 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두려움이 믿음으로 닫히는 하룻밤*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막힌 자리에서 잠잠히 나아가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본문은 백성을 막다른 자리에 세운다
- [x] "잠잠하라"와 "나아가라"가 한 호흡에 붙는다
- [x] 같은 손짓이 가름과 합침으로 갈린다
- [x] 두 진영이 같은 길에서 정반대 결말을 맞는다
- [x] 구원의 예고(13절)와 성취(30절)가 같은 어근으로 묶인다
- [x] 두려움(10절)이 믿음(31절)으로 닫힌다
- [x] 두 기둥이 두 진영을 갈라 막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노래.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1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잠잠하라"(14절)와 "나아가라"(15절)는 어떻게 함께 서는가?

- 관찰 사실: 모세는 "가만히 서서... 잠잠하라"고 하고, 곧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하심.
- 본문은 둘을 모순으로 설명하지 않고 나란히 둬.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왜 막다른 자리(비하히롯)에 진을 치게 하셨는가?

- 4절은 "바로가 그들을 쫓으리라"를 미리 말하고, 목적을 "영광을 얻고 애굽이 알게"로 둬.
- 그 표면 진술 너머의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해석은 뒤로.

Q3.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의 결은?

- 4·8·17절 반복. 동시에 5절은 바로 "마음이 변하여"라고도 함.
- 완악하게 하심과 스스로 변함의 관계는 본문이 풀지 않음.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4. 같은 마른 길이 한쪽엔 구원, 한쪽엔 수장이 된 결은?

- 이스라엘과 애굽이 같은 갈라진 바다로 들어감. 결말이 정반대.
- 구원과 심판이 한 장소·한 사건에 겹침. 어휘 분포만 기록, 해석은 보류.

Q5. 25절 병거 바퀴 — "벗김"인가 "묶임"인가?

- 마소라 본문과 일부 고대 역본 사이 전승이 갈림.
- "달리기 어렵게 됨"의 결과는 같음. 본문 비평 사항으로만 보존.

Q6. 이스라엘의 "믿음"(31절)은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 두려움(10절)에서 믿음(31절)으로 한 장 안에 옮겨 옴.
- 이 믿음의 지속 여부는 본장이 말하지 않음. 다음 장들로 가지고 갈 질문.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15장

EXO-015 · 오경 · 히브리어

건넌 자들이 노래한다. 노래 끝에서 사흘 길 광야의 쓴 물을 만난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로 나뉨: 바닷가 노래 자리(1-21절)와 광야 길(22-27절, 수르 광야·마라·엘림).
- 소품 — 미리암의 소고(tof), 여인들의 춤(mecholah), 마라의 쓴 물, 한 나무, 엘림의 샘과 종려.
- 물이 두 얼굴: 노래에선 원수를 덮는 물(5·10절), 광야에선 마실 수 없는 쓴 물(23절).
- 엘림의 숫자가 구체적: 샘 열둘, 종려나무 일흔(27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환호(노래·춤)에서 목마름(원망)으로 한 장 안에서 낙차가 큼.
- 노래 부분은 평행 구절(메아리)의 반복 리듬. "오른손"이 청각적 인상으로 남음.
- 엘림의 샘 곁에서 숨이 트이며 조용히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 노래로 시작.
- 27절: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엘림) — 샘 곁 씬으로 닫힘.
- 노래 부분 자체는 수미상관: 1절 첫 줄(gaah, 높고 영화로움) ↔ 21절 미리암 후렴이 거의 동일.
- 장 전체는 노래(1-21)와 광야 길(22-27)이 한 단위로 붙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모세 / 이스라엘 자손 / 미리암("아론의 누이 선지자", 20절) / 여인들. 노래 가사 안에 애굽·바로·블레셋·에돔·모압·가나안 주민.
- 노래의 사상(표면): 여호와와 용사. "오른손"(yamin)이 원수를 부숨(6·12절). "여호와가 영원무궁 다스리시도다"(18절).
- 2절: "여호와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ozzi wezimrat Yah).
- 광야 상황: 사흘 물 없음 → 원망("무엇을 마실까", 24절).
-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rofecha) — 용사와 치료자, 두 호칭이 한 장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2절): 바다의 노래 — 용사, 오른손, 물이 원수를 덮음
- 컷 2 (13-18절): 노래 후반 — 인도·거룩한 처소에 심으심, "영원히 다스리시도다"
- 컷 3 (19-21절): 미리암과 여인들의 소고·춤·후렴

- 컷 4 (22-26절): 수르 광야·사흘 물 없음·마라의 쓴 물 → 나무로 달아짐, "치료하는 여호와"
- 컷 5 (27절): 엘림 — 샘 열둘·종려 일흔·물 걸 장막

6 의문점·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shir / az yashir(1, שִׁירִים) — 노래/그 때에 노래하니라.
- gaah(21:1, גָּאָה) — 높고 영화로움. 노래의 처음과 후렴에 걸림.
- ozzi wezimrat Yah(2, זִמְרַת יְהוָה) — 나의 힘과 노래. 시 118:14, 사 12:2에 재인용.
- yamin(12:6, יָמִין) — 오른손.
- Marah / mar(23, מָרָה) — 마라(쓴 곳)/쓰다. 본문이 직접 어원 풀이.
- rofecha(26, רֹפֵא) — 너를 치료하는 자.
- tof / mecholah(20, מְכוּלָה) — 소고/춤.
- Elim(27, אֵילִים) — 엘림. 샘 12·종려 70.

6 의문점·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한 장이 두 쪽으로 접힘: 노래(컷1-3) ↔ 광야(컷4-5).
- 노래의 수미상관: 1절 ↔ 21절(미리암 후렴).
- 평행법(parallelism): 한 줄 뒤에 비슷한 줄이 따르는 메아리 구조.
- 물의 대조(antithesis): 원수를 덮는 물(5·10) ↔ 마실 수 없는 쓴 물(23).
- 두 호칭의 병치: 용사(3절) ↔ 치료자(26절).
- 노래가 사건보다 멀리 감: 14-17절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나안 입성·정착을 미리 노래.

6 의문점·발견·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승전기(victory hymn) 양식 — 전투 후 부르는 노래 형식의 배경.
- 소고 든 여성 인도자의 춤·맞이 — 삿 11:34, 삼상 18:6과 같은 문화 관습. 해석은 보류.

6 의문점·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15 ↔ 출 14장 (노래가 노래하는 그 사건)
- 출 15:2 ↔ 시 118:14 / 사 12:2 (같은 구절 재인용)
- 출 15 ↔ 시 106:12 (그들이 믿고 노래함)
- 출 15 ↔ 신 32장 (모세의 노래) / 삿 5장 (드보라의 노래)
- 출 15 ↔ 계 15:3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바다를 건넌 백성이 바닷가에서 노래를 시작한다. 노래는 방금 본 일(오른손·물의 덮음)을 그리다가 앞으로 달려가 주변 민족의 떼과 거룩한 처소의 정착, 영원한 통치를 노래한다.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여인들이 춤추며 첫 줄을 화답한다. 곧 장면이 바뀌어 백성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물 없이 걷는다. 마라의 쓴 물 앞에서 원망하자, 모세가 부르짖고 여호와가 한 나무를 가리켜 물을 달게 하신다. 거기서 법도·율례를 정하고 시험하시며 "치료하는 여호와"로 자기를 부르신다. 백성은 샘 열둘과 종려 일흔이 있는 엘림에 이르러 물 곁에 장막을 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바다의 노래에서 엘림의 샘으로"
- 초벌 부제: "노래와 광야 — 한 장이 두 쪽으로 접힌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승전가 양식·소고 춤 관습·문학 두 쪽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치료하는 여호와"(26절)를 건강·치유 적용 설교로 미끄러뜨리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서선 "용사와 치료자 두 호칭의 병치"까지만 기록.
- 마라의 "한 나무"를 상징 해석으로 확장하지 않음. "나무를 가리키시니 물이 달아짐"까지만.
- 노래의 미래 시제(가나안 정착)를 작성 연대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음. 본문 표면(이미 노래에 들어 있음)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15장은 같은 백성이 노래하던 입으로 사흘 뒤 원망하는 한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한 장을 두 쪽으로 접는다. 앞 쪽은 바닷가의 노래다. 여호와와 용사이고,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며, 노래는 가나안 정착까지 미리 내다본다.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첫 줄을 화답한다. 뒤 쪽은 광야 길이다. 사흘을 물 없이 걷고, 마라의 쓴 물 앞에서 같은 백성이 원망한다. 나무 하나로 물이 달아지고, 여호와와 "치료하는 자"로 자기를 부르신다. 노래에서 시작한 하루가 엘림의 샘 곁 섬으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둘 — 바닷가 노래 자리(1-21)·광야 길(22-27, 수르·마라·엘림). 소품 — 소고 (tof)·춤·쓴 물·한 나무·엘림의 샘 12와 종려 70.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환호(노래·춤)에서 목마름(원망)으로 낙차가 큼. "오른손" 반복의 청각 인상. 샘 곁에서 조용히 단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노래(1절). 끝 — 엘림 물 걸 장막(27절). 노래 부분 수미상관: 1절↔21절 (미리암 후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모세·백성·미리암·여인들. 노래 안에 주변 민족. 용사(3절)와 치료자(26절) 두 호칭의 병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1 바다의 노래(1~12). 컷2 노래 후반·정착 예고(13~18). 컷3 미리암의 소고·춤 (19~21). 컷4 마라의 쓴 물·달아짐(22~26). 컷5 엘림의 샘(27).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노래와 원망 사이 사흘. 노래가 미래(가나안)를 미리 노래함. 정보 — "법도·올레·시힘"(25절)이 시내산 앞에 먼저 등장.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노래→춤→광야→쓴 물·달아짐→엘림 섬의 한 흐름. 한 장이 노래/광야 두 쪽으로 접힘.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바다의 노래에서 엘림의 샘으로". 초벌 부제 — "한 장이 두 쪽으로 접힌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노래하던 바닷가를 지나 사흘 길 광야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노래 끝의 쓴 물 앞에 서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한 장의 두 쪽:** 노래(1-21)와 광야(22-27)가 한 장에 접힌다. 환호와 목마름이 나란히 놓인다.
- 결 2 — 물의 두 얼굴:** 노래에선 물이 원수를 덮고(5·10절), 광야에선 마실 수 없이 쓰다(23절). 같은 소재가 정반대로 쓰인다.
- 결 3 — 용사와 치료자:** 노래의 "용사"(3절)와 광야의 "치료하는 여호와"(26절)가 한 장 안에서 한 분의 두 호칭으로 놓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14장** (노래가 노래하는 그 사건).
- 다른 권 — **시 118:14 / 사 12:2** (15:2를 거의 그대로 재인용). **신 32장·삿 5장** (또 다른 노래들). **계 15:3**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
- 정경 흐름 — 구원 직후의 노래는 이후 모든 구원 찬양의 원형이 되고, 그 노래 뒤 사흘의 광야는 이후 광야 여정의 첫 표지가 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바다를 막 건너 자리에서 한 사람이 노래에 합류한다.
- **멈춤 1:** 노래가 아직 가지도 않은 곳(거룩한 처소)을 미리 노래하는 지점에서 멈춘다.
- **멈춤 2:** 노래하던 입이 사흘 뒤 원망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쓴 물이 나무 하나로 달아지고 "치료자"라는 이름이 들리는 곳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노래와 광야가 한 장에 있다*는 걸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노래 끝의 쓴 물 앞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한 장이 노래와 광야 두 쪽으로 접힌다
- [x] 노래의 처음과 미리암 후렴이 같은 말로 묶인다
- [x] 노래가 미래의 정착까지 미리 내다본다
- [x] 물이 무기와 결핍, 두 얼굴로 쓰인다
- [x] 같은 백성이 노래하고 사흘 뒤 원망한다
- [x] 용사와 치료자가 한 분의 두 호칭이다
- [x] "법도·올레·시험"이 시내산 앞에 먼저 나온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양식.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1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노래(1-21절)와 원망(24절) 사이의 사흘은 어떻게 함께 서는가?

- 관찰 사실: 같은 백성이 노래하고, 사흘 뒤 물 없다고 원망함.
- 본문은 그 낙차를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노래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가나안 정착)을 미리 노래하는 걸은?

- 14-17절이 주변 민족의 뚝과 거룩한 처소의 정착을 내다봄. 바다를 막 건넌 시점.
- 노래가 사건보다 멀리 가는 까닭은 본문이 풀지 않음. 해석은 뒤로.

Q3. 마라에서 던진 "한 나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물을 달게 했는가?

- 본문은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까지만 말함.
- 나무의 종류·작용은 설명되지 않음. 상징 해석으로 확장하지 않고 의문으로 보존.

Q4. 같은 물이 노래에선 무기, 광야에선 결핍이 되는 걸은?

- 5·10절의 "물이 원수를 덮음" ↔ 23절의 "마실 수 없는 쓴 물".
- 물의 두 얼굴이 한 장에 놓임. 어휘 분포만 기록, 해석은 보류.

Q5. "용사"(3절)와 "치료자"(26절) 두 호칭은 어떻게 한 분으로 서는가?

- 노래에선 전사로, 광야에선 치료자로 자기를 부르심.
- 두 호칭의 관계는 본문이 직접 잊지 않음.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6. 마라의 "법도·율례·시험"(25절)이 시내산(19장) 앞에 먼저 나오는 결은?

- 율법 수여 이전에 광야 첫 자리에서 "법도·율례·시험"이라는 말이 등장.
- 시내산과의 관계는 본장이 말하지 않음. 다음 장들로 가지고 갈 질문.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16장

EXO-016 · 오경 · 히브리어

날마다 그 날의 몫만. 이것이 무엇이나, 묻는 이름으로 양식이 내린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신 광야(엘림과 시내산 사이). 날짜 명시 —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십오일(1절).
- 하루 두 끼의 시간 구조: 저녁 메추라기, 아침 만나.
- 소품 — 메추라기(selav), 짚씨 같고 흰 만나, 거두는 되 오멜(omer), 보관용 항아리.
- 만나 묘사: "짚씨 같고 희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음"(31절), 서리처럼 땅에 깔림(14절).
- 36절이 "한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라는 도량형 주석을 붙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또 한 번의 원망(15장 물 → 16장 양식)으로 열리나, 날마다의 규칙이 정해지며 차분히 정돈됨.
- "이것이 무엇이나"(보고도 이름 모름)의 물음이 인상에 남음.
- 옛세의 같은 박자와 일곱째 날의 다른 박자가 리듬 변화를 만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3절: 신 광야 도착, 온 회중의 원망("애굽의 고기 가마 곁") — 원망으로 시작.
-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 사십 년을 내다보며 단함.
- 한 날(둘째 달 십오일)에서 사십 년으로 펼쳐지는 시작-끝의 시간 대비.
- 33-34절: 한 오멜을 "증거판 앞에 두라" — 증거궤 제작 이전을 앞당겨 내다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아론 / 온 회중(한 덩어리로 움직임).
- 회중의 사상: 원망, 과거 미화("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3절).
- 모세의 응답: "너희 원망은... 여호와를 향한 것"(8절) — 원망의 방향을 짚음.
- "원망"(lun)이 이 장에 반복적으로 깔림.
- 하나님의 사상: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시험하리라"(nasah, 4절) — 풍족함이 시험.
- "안식"(Shabbat, shavath)이 23절에 또렷이 등장 — 십계명(20장) 이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신 광야의 원망
- 컷 2 (4-12절): 양식 약속·"시험하리라"·저녁 고기/아침 떡 예고·영광 나타남

- 컷 3 (13-21절): 저녁 메추라기·아침 만나·"이것이 무엇이나"·한 오멜·남긴 것 상함
- 컷 4 (22-26절): 여섯째 날 갑절·안식일 규례
- 컷 5 (27-30절): 일곱째 날 나간 자들·안식 확정
- 컷 6 (31-36절): 만나의 모양·이름·한 오멜 보관·사십 년·오멜 환산 주석

6 의문점·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an hu(15, מַן הוּ) — "이것이 무엇이나". 본문이 어원으로 풀어 만나(man)가 됨.
- omer(אֹמֶר) — 한 사람당 거두는 되. 36절에 "십분의 일 에바(ephah)" 환산.
- selav(13, סֶלַב) — 메추라기.
- lun(לֹן) — 원망하다. 이 장의 바닥 동사.
- nasah(4, נָסָה) — 시험하다. 15:25(마라)와 같은 어근.
- Shabbat / shavath(30·23, שַׁבָּת / שַׁבְּתַיִל) — 안식/그치다.
- kavod(10·7, כְּבוֹד) — 영광. 구름 가운데 나타남.

6 의문점·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날마다"(엿새)와 "일곱째 날"(예외)의 대비: 컷3 ↔ 컷4-5.
- 같은 행동의 다른 결과: 평일에 남기면 상함(20절) ↔ 여섯째 날 안식 뭇은 상하지 않음(24절).
- 어원 설명(etiology): "man hu" 물음이 그대로 이름이 됨(15·31절).
- 시험 모티프(nasah)가 15장과 16장을 잇는 끈.
- 시작(한 날의 원망)과 끝(사십 년)의 시간 inclusio.

6 의문점·발견·정보 — (3) ANE/자연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광야 위성류 분비물·메추라기 계절 이동 등 자연 현상 — 비교용 배경. 본문은 초자연적 공급으로 서술.
- 오멜·에바의 부피 관계 — 고대 도량형 배경. 36절이 독자용 환산 주석을 제공.

6 의문점·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16 ↔ 민 11장 (만나·메추라기 채등장)
- 출 16 ↔ 신 8:3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 출 16 ↔ 수 5:12 (만나가 그침)
- 출 16 ↔ 시 78:23-25 / 느 9:15,20
- 출 16 ↔ 요 6:31-35 (생명의 떡) / 고전 10:3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엘림을 떠난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먹을 것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한다. 여호와가 "양식을 비 같이 내리되 날마다 그 날 것만 거두게 하여 시험하리라"고 하시고,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남. 저녁에 메추라기가, 아침에 만나가 서리처럼 깔린다. 백성이 "이것이 무엇이나" 물으며 한 오멜씩 거두는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먹을 만큼이 된다. 남긴 것은 상한다. 여섯째 날엔 갑절을 거두고, 그 뭇은 상하지 않는다. 일곱째 날 거두려 나간 자들은 얻지 못하고, 백성이 안식한다.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간직하게 두며,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날마다 그 날의 몫만"
- 초벌 부제: "만나와 안식 — 날마다의 몫, 이레째의 쉽"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도량형 주석·자연 배경·문학 대비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에서 튀면 "다음 결로"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풍족함이 시험"을 절제·재정 적용 설교로 미끄러뜨리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서 "양식 공급이 시험으로 불림"까지만 기록.
- 만나를 신약 "생명의 떡"으로 곧장 끌어가지 않음.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
- 만나의 자연 현상 설명을 본문 위에 두지 않음. 본문은 초자연적 공급으로 서술 — 배경은 배경으로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16장은 날마다의 양식 안에 절제와 안식이라는 시험을 심어 둔 한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원망으로 열린다. 회중은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며 모세를 원망한다. 그 원망에 양식이 응답으로 내린다. 그러나 양식은 결핍이 아니라 시험으로 불린다. 시험의 내용은 "그 날 것만 거두라"는 절제와, 여섯째 날 갑절을 거둬 이레째에 쉬라는 안식이다. 보고도 이름을 모르는 백성이 "이것이 무엇이나" 묻고, 그 물음이 그대로 양식의 이름이 된다. 한 날의 원망에서 시작한 장이 사십 년의 양식과 한 오멜의 기억으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신 광야(엘림과 시내산 사이), 둘째 달 십오일. 소품 — 저녁 메추라기·아침 만나·오멜·향아리. 36절에 오멜=십분의 일 에바 주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또 한 번의 원망으로 열리나 날마다의 규칙으로 정돈됨. "이것이 무엇이냐"의 물음. 옛 새/이레째의 박자 변화.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한 날의 원망(1~3절). 끝 — 사십 년 만나(35절). 한 날에서 사십 년으로 펼쳐짐. 33-34절 보관 명령은 증거궤 이전을 내다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아론·온 회중. 회중의 원망(과거 미화). "양식을 주되 시험하리라"(4절). 안식(Shabbat)이 23절에 또렷이 등장.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1 원망(1~3). 컷2 약속·시험·영광(4~12). 컷3 메추라기·만나·"이것이 무엇이냐"(13~21). 컷4 갑절·안식 규제(22~26). 컷5 이레째·안식 확정(27~30). 컷6 모양·이름·보관·사십 년(31~36).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풍족함이 시험으로 불림. 같은 남김이 날에 따라 갈림. 정보 — nasah(시험)가 15:25(마라)와 16:4를 잇는 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원망→약속·영광→메추라기·만나→갑절·안식→이레째 쉽→보관·사십 년의 한 흐름. "날마다"와 "일곱째 날"의 대비가 축.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별 제목 — "날마다 그 날의 묵만". 초별 부제 — "만나와 안식".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아침마다 서리처럼 깔린 양식을 거두는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날마다 그 날의 묵만 거두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결 1 — 풍족함이 시험이 됨:** 본문은 양식을 주시는 일을 "시험하리라"(4절)로 부른다. 결핍이 아니라 날마다 내리는 양식이 절제의 시험이 된다.
2. **결 2 — 같은 남김, 다른 결과:** 평일에 남기면 상하고(20절), 여섯째 날 안식 묵으로 남기면 상하지 않는다(24절). 날이 행동의 결과를 가르친다.
3. **결 3 — 물음이 이름이 됨:** "이것이 무엇이냐"(man hu)는 물음이 그대로 "만나"라는 이름으로 굳는다(15·31절). 모름이 이름의 뿌리가 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15장** (같은 nasah, 마라의 시험). **출 25장 이후** (한 오멜이 놓일 증거궤).
- 다른 권 — **민 11장** (만나·메추라기 재등장). **신 8:3**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 5:12** (만나가 그침). **요 6:31-35** (생명의 떡).
- 정경 흐름 — 광야 사십 년의 양식 원형으로, 이후 모든 "일용할 양식"의 결을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또 한 번 원망하는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양식을 주는 일이 "시험"으로 불리는 지점에서 멈춘다.
- **멈춤 2:** 보고도 이름을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여섯째 날 갑절과 이레째의 쉽 양식 안에 들어와 있는 곳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날마다 그 날의 묵만*이라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날마다 거두며 남기지 않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원망에 양식이 응답으로 내린다
- [x] 양식이 결핍이 아니라 시험으로 불린다
- [x] 날마다 그 날의 묵만 거두는 규칙이 있다
- [x] 같은 남김이 날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낸다
- [x] "이것이 무엇이나"가 그대로 이름이 된다
- [x] 안식이 율법 수여 이전에 먼저 나온다
- [x] 한 날의 원망이 사십 년의 양식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물.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1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왜 풍족한 양식 공급이 "시험"(4절)으로 불리는가?

- 관찰 사실: 결핍이 아니라 날마다 내리는 양식이 시험으로 명명됨. 시험의 내용은 "그 날 것만 거두라".
- 본문은 그 까닭을 더 풀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17-18절 —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은 결은?

-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뒀다고만 적힘.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본문은 자세히 말하지 않음.
- 분배의 작동 방식은 의문으로 보존. 해석은 뒤로.

Q3. 같은 "남김"이 평일엔 상하고 여섯째 날엔 상하지 않는 결은?

- 20절(상함) ↔ 24절(상하지 않음). 같은 행동, 날에 따라 다른 결과.
- 본문은 안식과의 관계로 묶으나 그 메커니즘은 설명하지 않음.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4.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간 자들(27절)은 왜 나갔는가?

- 갑절을 거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감. 본문은 "언지 못하니라"까지만 적음.

- 그들의 동기는 설명되지 않음. 의문으로 보존.

Q5. "안식"(23절)이 십계명(20장) 이전에 먼저 나오는 결은?

- 율법 수여 전에 안식이 양식 규칙 안에서 또렷이 등장.
- 시내산 안식 계명과 관계는 본장이 말하지 않음. 다음 장들로 가지고 갈 질문.

Q6. 한 오멜을 "증거판 앞에"(34절) 두라는 명령이 증거궤 제작 전에 나오는 결은?

- 증거궤는 본문 시점 이후(출 25장 이후)에 만들어짐. 보관 명령이 앞을 내다봄.
- 본문의 시점 처리(서술 시점과 사건 시점의 차)는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17장

EXO-017 · 오경 · 히브리어

반석의 물, 그리고 든 손. 두 곳에서 목마름과 싸움이 같은 분께 받쳐진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로 나뉜다: 전반(1-7절) 물 없는 르비딤, 후반(8-16절) 르비딤의 싸움터 골짜기와 산 꼭대기.
- 같은 르비딤이 7절에서 "맛사"(Massah, 시험)와 "므리바"(Meribah, 다툼)로 다시 이름 붙는다.
- 지팡이(matteh)가 두 장면을 잇는 소품: 5절 반석을 치는 "나일강 치던 그 지팡이", 9절 산 위에 든 "하나님의 지팡이".
- 반석(tsur)이 "호렙 산 그 반석"으로 지목됨(6절). 돌 하나가 모세의 좌석으로 쓰임(12절).
- 여호수아와 홀이 출애굽기 내러티브에 처음 등장한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전반은 메마르고 시끄러운 다툼, 후반은 산 위의 조용한 든 손. 참가자 다수가 "목마름→전쟁"의 두 결 전환을 공유함.
- 끝에서 "책에 기록"과 단 이름으로 단단하게 매듭지어지는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 결핍으로 시작.
- 16절: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 싸움의 선언으로 닫힘.
- 두 단락이 각각 이름으로 봉인됨: 7절 맛사·므리바, 15절 "여호와 닛시".
-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지움)와 "책에 기록하라"(기록)가 14절 한 절에 함께 놓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모세 / 백성(온 회중) / 여호와 / 장로 몇 사람(5절) / 여호수아(첫 등장) / 아말렉 / 아론 / 홀(첫 등장).
- 전반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rib) 장면 — 2절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 백성의 말이 거침: 3절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모세 "나를 돌로 치려 하나이다".
- 후반은 손의 오르내림과 전세가 묶임 — 11절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 아론·홀이 양쪽에서 손을 받침(12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 백성의 속말이 그대로 인용됨 — 7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르비딤, 물 없음, 백성의 다툼·원망

- 컷 2 (4-7절): 모세의 부르짖음 → 반석 치기 → 물 → 맛사·므리바 이름
- 컷 3 (8-9절): 아말렉의 공격, 여호수아에게 싸움 위임
- 컷 4 (10-13절): 산 위의 든 손, 아론·홀의 받침, 여호수아의 승리
- 컷 5 (14-16절): 책에 기록하라 → 단을 쌓고 "여호와 닛시"
- 전환점: 컷 2→컷 3에서 물 사건이 끝나고 전쟁이 시작됨 (같은 르비딤, 결이 바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Rephidim(רִפְדִּים) — 진 친 곳 지명 (1절).
- rib(רִיב) — 다투다 (2절). 지명 Meribah의 어근.
- nasah(נָסַח) — 시험하다 (2·7절). 지명 Massah의 어근.
- Massah(מַסָּה) / Meribah(מְרִיבָה) — 시험/다툼 (7절). 70인역 Πειρασμός και Λοιδορήσις.
- matteh(מַטֵּה) — 지팡이 (5·9절). 두 장면을 잇는 소품.
- tsur(צֹר) — 반석 (6절). "호렙 산 그 반석".
- Yehoshua(יְהוֹשֻׁעַ) — 여호수아 (9절, 첫 등장).
- Hur(חֹר) — 홀 (10·12절, 첫 등장).
- yad(יָד) — 손 (11-12절 반복).
- nes(נֶס) — 깃발/기치. 단 이름 YHWH-Nissi(여호와 닛시, 15절).
- kes Yah(כֶּס יָה, 16, 17, 18절) — '여호와와 보좌' 또는 '여호와와 손'으로 읽히는 난해 표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두 장면(물-전쟁)이 "받침"의 결로 겹침: 반석이 백성을 받치고, 아론·홀이 손을 받침.
- 지명·단 이름이 동사에서 굳는 결: nasah→Massah, rib→Meribah, nes→Nissi.
- 지팡이가 두 장면을 잇는 반복 소품 (치기 / 들기).
- 14절에 "지움"(기억 없게)과 "기록"(책에)이 한 절에 병치.
- 두 단락이 각각 이름 짓기로 닫히는 평행 구조 (7절 / 15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반건조 광야에서 식수 확보가 유목 집단의 생존 변수였던 정황. 1-3절 다툼의 배경.
- 아말렉이 네게브·시내 반도 일대를 떠돌던 유목 집단으로 알려짐. 8절 공격의 배경.
- 승전·맹세를 "책에 기록"하는 고대 근동 관행. 14절 정황과 병행 관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17 ↔ 출 15:22-25 (마라의 쓴 물 — 앞선 물 사건)
- 출 17 ↔ 민 20:2-13 (가데스 므리바, 또 한 번의 반석 물)
- 출 17 ↔ 신 25:17-19 (아말렉을 기억하라)
- 출 17 ↔ 신 8:15 (반석에서 물 내신 일 회상)
- 출 17 ↔ 시 78:15-16 (반석을 쪼개 물 주심)
- 출 17 ↔ 시 95:8 (므리바·맛사에서 마음을 완악케 말라)

- 출 17 ↔ 고전 10:4 (그들이 마신 신령한 반석)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물 없는 르비딤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묻는다. 모세가 부르짖자 호렙의 반석을 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 곳이 맛사·므리바라 불린다. 이어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싸움을 걸어온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맡기고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서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손이 무거워지자 돌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 해 질 때 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여호와께서 책에 기록하라 명하시며, 모세가 단을 쌓아 "여호와 닛시"라 부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반석의 물, 그리고 든 손"
- 초벌 부제: "두 무대에서 같은 분이 백성을 받치시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식수·아말렉·기록 관행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md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고전 10:4 "신령한 반석"은 신약 해석이므로 관찰에서는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
- "손을 들면 이긴다"가 공로·기도법 프레임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16절 난해 표현(kes Yah)은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17장은 물 없는 다툼과 갑작스러운 싸움이라는 두 무대에서, 같은 분이 반석의 물과 받쳐진 손으로 백성을 받치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마실 물이 없는지라"는 결핍으로 열린다. 백성이 다투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묻고, 반석이 갈라져 물이 나오며 그 곳이 맛사·므리바라 불린다. 곧이어 같은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싸움을 걸고, 산 위의 든 손이 받쳐지는 동안 골짜기에서 이김이 이루어진다. 본문은 두 장면을 같은 지팡이로 잇고, 각각을 이름으로 봉인하며, 마지막에 "여호와 닛시"라는 단 이름으로 닫는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무대 — 물 없는 르비딤(1~7), 싸움터 골짜기와 산(8~16). 소품 — 지팡이·반석·돌·든 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메마른 다툼으로 열려 산 위의 조용한 든 손으로. "목마름→전쟁"의 두 결 전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마실 물이 없는지라"(1절). 끝 —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16절). 두 단락이 각각 이름으로 봉인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모세·백성·여호와·장로·여호수아(첫 등장)·아말렉·아론·홀(첫 등장). 다투는 손과 받쳐지는 손이 마주 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물 다툼(1~3). 컷 2 반석 물·이름(4~7). 컷 3 아말렉 공격(8~9). 컷 4 든 손·승리(10~13). 컷 5 기록·여호와 닛시(14~16).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치라"는 명령의 까닭. 손과 전세의 묶임. 정보 — nasah→Massah, rib→Meribah, nes→Nissi의 어근·이름 결, 지팡이의 두 장면 연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물 다툼→반석 물→아말렉 공격→든 손의 받침→이김→기록·단 이름의 한 흐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별 제목 — "반석의 물, 그리고 든 손". 초별 부제 — "두 무대에서 같은 분이 백성을 받치시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물 없는 르비딤과 손 든 산 위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계신가 묻던 자리에서 받치심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두 장면의 "받침":** 앞은 반석이 물로 백성을 받치고, 뒤는 아론·홀이 손을 받친다. 받침이라는 한 결이 물과 전쟁 위에 겹친다.
- 결 2 — 동사가 이름이 되는 결:** 다투고(rib) 시험한(nasah) 동작이 므리바·맛사라는 이름으로 굳고, 깃발(nes)이 닛시라는 단 이름으로 굳는다. 행위가 이름에 박힌다.
- 결 3 — 같은 지팡이:** 반석을 치던 지팡이(5절)가 산 위에 든 지팡이(9절)로 다시 나온다. 한 소품이 두 무대를 꿰맨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15:22-25 (마라의 쓴 물, 앞선 물 사건). 출 16장 (만나, 직전 양식 사건).
- 다른 권 — 민 20:2-13 (가데스 트리바, 또 한 번의 반석 물). 신 25:17-19 (아말렉을 기억하라). 시 95:8 (트리바·맛사에서 마음을 완악케 말라). 고전 10:4 (신령한 반석, 신약의 결).
- 정경 흐름 — 광야의 결핍과 싸움에서 받치심이 거듭 나타나는 결은, 오경 전체가 "광야의 길을 받치는 손"을 반복해 들여다본다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마실 물이 없는지라"는 결핍의 첫 문장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라는 질문(7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무대가 물에서 전쟁으로 바뀌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받쳐진 손이 해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자리(12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같은 분이 두 곳에서 받치신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목마름과 싸움을 같은 손에 맡기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결핍(1절)으로 열려 싸움의 선언(16절)으로 닫힌다
- [x] 두 무대(물·전쟁)가 받침의 결로 겹친다
- [x] 동사가 이름이 된다 (맛사·트리바·닛시)
- [x] 같은 지팡이가 두 장면을 잇는다
- [x] 받쳐진 손이 해 질 때까지 든다
- [x] 지움과 기록이 한 절에 함께 놓인다 (14절)
- [x] 두 단락이 각각 이름 짓기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받침.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1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굽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왜 "치라"고 명하시는가?

- 관찰 사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로 치라 하심.

- 본문은 "치는" 행위의 까닭을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모세의 손이 든 동안만 이스라엘이 이기는 까닭은?

- 11절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 손과 전세가 묶임.
- 본문은 그 연결의 이유를 말하지 않음. 공로·기도법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어휘 분포만 기록.

Q3.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7절)는 어떤 질문인가?

- 백성의 속말이 그대로 인용됨. 물 사건의 이름(맛사·므리바)이 이 질문에서 나옴.
- 그 질문의 무게는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Q4.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와 "책에 기록하라"가 한 절(14절)에 함께 있는 까닭은?

- 지움과 기록이 같은 호흡에 놓임.
- 두 동작의 병치는 관찰까지.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Q5. 같은 지팡이가 반석을 치는 데와 산 위에 드는 데 다 쓰이는 의미는?

- 5절(치기)과 9절(들기)에 같은 소품이 놓임.
- 본문이 일부러 이은 것인지, 단순 반복인지는 답하지 않고 보존.

Q6. 16절의 난해 표현(kes Yah)은 '보좌'인가 '손'인가?

- 마소라 본문 자체가 난해. '여호와의 보좌'로도 '여호와의 손'으로도 읽힘.
- 70인역은 다른 방향으로 옮김.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18장

EXO-018 · 오경 · 히브리어

장인이 찾아와 듣고, 한 가지를 일러 준다. 홀로 진 자리가 여럿으로 나뉜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하나님의 산 곁 광야"(5절). 모세의 장막(7절)과 이튿날의 재판 자리(13절).
- 이드로(Yitro)가 "미디안 제사장"(kohen Midyan)으로 신분 명시(1절). 모세의 장인.
- 두 아들의 이름이 본문 안에서 풀이됨: 게르숨("나그네", ger), 엘리에셀("내 도움", ezer) (3-4절).
- 시간 표지: 재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13-14절) 이어짐.
- 위계 소재: 천부장·백부장·오십부장·십부장(21절)의 십진 단위 조직.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전반은 가족의 재회로 따뜻하게(앞장 전쟁 다음의 한숨), 후반은 종일 재판의 과중과 차분한 조언으로. 참가자 다수가 "예배→행정"의 결 전환을 공유함.
- 끝은 조언을 받아들이고 손님이 떠나며 깔끔히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드로가 "들으니라" — 들음(소식)으로 시작.
-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 떠남으로 닫힘.
- "들다"(shama)가 양쪽에 걸림: 1절 이드로가 들음 → 24절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들음. 주체 전환.
- 한 방문 안에 두 단락이 묶임: 가족·예배(1-12절), 재판 조직(13-27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이드로 / 모세 / 십보라 / 게르숨·엘리에셀 / 백성 / 아론·장로들(12절).
- 전반은 이드로가 말을 주도: 10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 후반 상황은 모세의 과중: 14절 "어찌하여 홀로 앉아 있느냐",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
- 모세의 자기 진술: 15-16절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 옴이라... 내가 재판하여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함이라".
- 이드로의 진단·처방: 18절 "너무 중함이라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9-23절 위임 조언.
- 조건 표현: 23절 "하나님이 네게 명령하시면" — 조언을 절대화하지 않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이드로가 소식을 듣고 십보라·두 아들을 데리고 옴

- 컷 2 (7-12절): 안부·이야기 → 이드로의 찬송·고백 → 함께 제사·식사
- 컷 3 (13-18절): 종일 재판 → 이드로의 물음과 진단
- 컷 4 (19-23절): 위임 조언 (능력 있는 자를 천·백·오십·십부장으로)
- 컷 5 (24-27절): 모세가 그대로 행함 → 재판관 세움 → 이드로 떠남
- 전환점: 컷 2→컷 3에서 예배·가족 결이 행정·조직 결로 바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Yitro(יִתְרוֹ) — 이드로 (1절). kohen Midyan(미디안 제사장).
- Gershom(גֶּרְשׁוֹם) — "나그네", ger(나그네)에서 (3절).
- Eliezer(אֱלִיעֶזֶר) — "내 하나님은 도움", ezer(도움)에서 (4절).
- shama(שָׁמָע) — 듣다/순종하다 (1·19·24절). 주체 전환의 결.
- shafat(שָׁפַט) — 재판하다 (13·16·22·26절 반복).
- davar(דָּבָר) — 말/일/송사 (16·19·22·26절).
- chuqqim(חֻקִּים) — 율례 (16·20절).
- torah(תּוֹרָה) — 법도/율법 (16·20절). 후대 오경 전체를 부르는 단어와 동일.
- chayil(חַיִל) — 능력 (21절). "능력 있는 사람".
- sar(סַר) — 우두머리/장 (21·25절). 천부장 등의 "장".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듣다"(shama)가 장의 결을 꿰는 inclusio: 이드로의 들음(1절) ↔ 모세의 들음(24절).
- 두 단락(예배·재판)이 한 방문 안에 묶임.
- 두 아들 이름의 본문 내 풀이 (3-4절).
- 위임 조직의 십진 위계 (천·백·오십·십, 21·25절).
- 이드로의 자질 목록이 구체적: 능력·하나님 경외·진실·불의한 이익 미워함 (21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족장·재판관이 백성의 송사를 직접 듣고 판결하던 고대 근동 관행. 13-16절 정황과 병행 관찰.
- 미디안이 시내 반도 동남부·아카바만 일대를 떠돌던 집단으로 알려짐. 이드로의 출신 배경.
- 천·백·오십·십의 십진 위계가 고대의 조직 단위 정황. 21절 정황과 병행 관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18 ↔ 출 2:15-22 (모세의 미디안 도망, 이드로·십보라 만남)
- 출 18 ↔ 출 3:1 (이드로의 양 떼, 호렙)
- 출 18 ↔ 출 4:18-26 (모세가 미디안을 떠남)
- 출 18 ↔ 민 11:14-17 (모세가 홀로 못 지켰다 함, 칠십 장로)
- 출 18 ↔ 신 1:9-18 (재판관 세운 일 회상)
- 출 18 ↔ 민 10:29-32 (호밥/이드로 가족)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출애굽 소식을 듣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곁 광야로 찾아온다. 모세가 맞이해 장막에서 여호와와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이드로가 찬송하며 "이제 내가 알았다"고 고백한 뒤 함께 제사하고 식사한다. 이튿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백성을 재판하자, 이드로가 "너무 중하다, 혼자 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천·백·오십·십부장으로 세워 작은 일을 맡기고 큰 일만 모세가 맡으라 조언한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 재판관을 세우고,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홀로 진 자리가 여럿으로 나뉜다"
- 초벌 부제: "광야의 장막에서, 한 짐이 나누어지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재판 관행·미디안·십진 위계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md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이드로의 조언이 리더십·경영 프레임으로 변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목상 단계로 이월.
- 이방 제사장의 고백(11절)이 비교종교 프레임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본문 표면(인용)만 기록.
- "큰 일/작은 일"의 기준은 본문이 자세히 말하지 않으므로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18장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장인이 홀로 진 모세의 자리를 보고, 한 가지 조언으로 그 짐을 여럿에게 나누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이드로가 "들으니라"는 들음으로 열린다. 가족이 다시 모이고, 이방 제사장이 출애굽의 일을 듣고 찬송하며 "이제 내가 알았다"고 고백한다. 이튿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재판하는 자리를 본 이드로가 "너무 중하다, 혼자 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능력 있는 자를 천·백·오십·십부장으로 세워 짐을 나누라 조언한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본문은 "듣다"의 주체를 이드로에서 모세로 옮긴 뒤 손님을 떠나보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하나님의 산 곁 광야, 모세의 장막, 이튿날의 재판 자리. 소품 — 두 아들의 이름, 십진 위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가족 재회의 따뜻함으로 열려 종일 재판의 과중과 차분한 조언으로. "예배→행정"의 결 전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이드로가 "들으니라"(1절). 끝 — 이드로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27절). 들음으로 열려 떠남으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이드로·모세·십보라·두 아들·백성·아론·장로들. 전반은 이드로가 주도, 후반은 모세의 과중이 드러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가족의 도착(1~6). 컷 2 찬송·식사(7~12). 컷 3 종일 재판·진단(13~18). 컷 4 위임 조언(19~23). 컷 5 실행·떠남(24~27).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모세가 홀로 한 까닭. 큰 일/작은 일의 기준. 정보 — shama(듣다)의 주체 전환, shafat(재판)의 반복, 자질 목록(21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들음→찾아옴→찬송·식사→종일 재판→진단→위임 조언→실행→떠남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홀로 진 자리가 여럿으로 나뉜다". 초벌 부제 — "광야의 장막에서, 한 짐이 나누어지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장막과 재판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홀로 다 짊어지려던 자리에서 나눔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듣다"의 주체 전환:** 이드로가 소식을 듣고(1절),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는다(24절). 들음이 한 장을 꺾며, 듣는 자가 바뀐다.

2. **결 2 — "홀로"에서 "여럿"으로:** 14절의 "홀로 앉아"가 25절의 우두머리들로 나뉜다. 한 자리가 여러 자리로 풀린다.

3. **결 3 — 두 단락의 한 묶음:** 가족·예배(1-12절)와 재판 조직(13-27절)이 한 방문 안에 묶인다. 결이 다른 두 이야기가 한 인물의 방문으로 이어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15-22** (미디안 도망과 이드로·십보라 만남). **출 3:1** (이드로의 양 떼, 호렙). **출 4:18-26** (미디안을 떠남).
- 다른 권 — **민 11:14-17** (모세가 홀로 못 지겠다 함, 칠십 장로). **신 1:9-18** (재판관 세운 일 회상).
- 정경 흐름 — 홀로 진 짐을 나누는 결은, 오경 전체가 "한 사람에게 다 실리지 않는 길"을 반복해 들려다본다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이드로가 "들으니라"는 들음의 첫 문장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이방 제사장이 "이제 내가 알았다"고 고백하는 자리(11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어찌하여 홀로 앉아 있느냐"는 물음(14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24절)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홀로 진 짐이 나누어진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혼자 다 짊어지려던 자리에서 듣는 자리로 옮겨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들음(1절)으로 열려 떠남(27절)으로 닫힌다
- [x] "듣다"의 주체가 이드로에서 모세로 옮겨간다
- [x] "홀로"(14절)가 "여럿"(25절)으로 나뉜다
- [x] 가족·예배와 재판 조직 두 단락이 한 방문에 묶인다
- [x] 두 아들의 이름이 본문 안에서 풀이된다
- [x] 자질 목록이 구체적이다 (21절)
- [x] 조언이 "하나님이 명하시면"으로 여지를 둔다 (23절)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나눔.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1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모세는 왜 그동안 홀로 다 재판했는가?

- 관찰 사실: 14절 "홀로 앉아",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
- 본문은 모세가 혼자 한 까닭을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이방 제사장 이드로의 조언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 미디안 제사장이 조직 조언을 하고, 모세가 그대로 따름(24절).
- 율법이 주어지기 전 단락에 놓인 이 결의 무게는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Q3. "큰 일"과 "작은 일"(22절)을 가르는 기준은?

- 큰 일은 모세에게, 작은 일은 세운 자들에게.
- 본문은 기준을 자세히 말하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4. 이드로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23절)이라는 조건을 붙인 까닭은?

- 자기 조언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지를 둬.
- 그 조건의 무게는 관찰까지.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Q5. "이제 내가 알았도다"(11절)는 어떤 앎인가?

- 출애굽 소식을 들은 뒤의 고백. "여호와와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로 이어짐.
- 그 앎의 결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가족·예배(전반)와 재판 조직(후반)이 한 장에 함께 놓인 까닭은?

- 한 방문 안에 결이 다른 두 단락이 묶임.
- 두 단락의 병치는 관찰까지.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19장

EXO-019 · 오경 · 히브리어

산이 떨고 사람이 떠다. 오르내림과 경계 가운데 한 부르심이 내려온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시내산(Sinai). 산 아래 진 친 곳(2절)과 산을 오르내리는 동선.
- 공간이 거룩함의 정도로 층층이 나뉨: 산꼭대기 / 산 자체(만지면 안 됨) / 산 아래(백성). "경계"(gevul, 12절)가 그어짐.
- 시간 표지: "셋째 달... 그 날"(1절), "삼 일째"(11·16절).
- 강림 소품이 16-18절에 집중: 우레·번개·구름(anan)·나팔(shofar)·연기(ashan)·불.
- 성결 소재: "옷을 빨라"(10·14절), 성결케 하라(qadash).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전반은 "독수리 날개"의 포근함, 후반은 우레·연기·진동의 무게. 참가자 다수가 "준비→강림"의 결 전환과 떨림을 공유함.
- "올라가다/내려오다"의 반복이 분주한 움직임의 인상을 만듦.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시내 광야에 이르러...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 도착으로 시작.
-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 내려감으로 닫힘(미완, 20장으로 이어짐).
- "오르내림"이 양쪽에 걸림: 3절 모세가 올라감 ↔ 25절 내려감.
- 완결되지 않고 다음 장(십계명)으로 넘어가는 열린 끝.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백성 / 장로(7절) / 제사장들(22·24절) / 아론(24절).
- 모세의 오르내림이 골격: 3절 오름, 7절 내림, 8절 다시 올림, 14절 내림, 20절 오름, 25절 내림.
- 핵심 말씀 5-6절: "내 소유(segullah)... 제사장 나라(mamlekheth kohanim)... 거룩한 백성(goy qadosh)".
- 조건절: 5절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 은혜 회상(4절) 다음에 조건.
- 백성의 동의: 8절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 십계명을 듣기 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셋째 달, 시내 광야 도착, 산 앞에 진
- 컷 2 (3-8절): 모세 첫 오름 → 독수리 날개·소유·제사장 나라 → 백성의 동의

- 컷 3 (9-15절): 삼 일 성결 준비, 옷을 빨라, 경계를 정하라
- 컷 4 (16-19절): 삼 일째 아침의 강림 — 우레·구름·나팔·연기·불, 산의 진동
- 컷 5 (20-25절): 모세 다시 오름 → 경계 거둬 경고 → 아론과 함께 내려감
- 전환점: 컷 3→컷 4에서 준비가 끝나고 산이 실제로 떨기 시작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Sinai(סיני) — 시내산 (1·2·11절 등).
- alah(אלה) — 올라가다 (3·12·13·20·23·24절).
- yarad(יָרַד) — 내려오다/강림하다 (11·14·18·20·25절). 사람의 내려옴과 하나님의 강림에 동일 동사.
- segullah(שְׂגֻלָּה) — 소유/보배 (5절). 왕이 따로 간직하는 보배 어감. 70인역 λαὸς περιούσιος.
- mamlekhet kohanim(מַמְלַכְתַּת כֹּהֲנִים) — 제사장 나라 (6절). 70인역 βασιλείον ιεράτευμα (벧전 2:9 재 인용).
- goy qadosh(עַם קָדוֹשׁ) — 거룩한 백성 (6절).
- qadash(קָדַשׁ) — 성결케 하다 (10·14·22·23절).
- gevul(גְּבוּל) — 경계 (12·23절).
- naga(נָגַע) — 만지다/닿다 (12·13절). "산을 만지면 죽으리라".
- shofar(שׁוֹפָר) — 나팔 (16·19절), anan 구름, ashan 연기 (16·18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오르내림"(alah/yarad)이 장의 뼈대. 모세의 위아래 동선이 강림을 감쌌.
- 은혜 회상(4절) → 조건(5절) → 부르심(6절) → 백성의 동의(8절)의 순서.
- 가까이 부르심(제사장 나라)과 다가오지 말라(경계·만지지 말라)의 병존.
- 9절에 강림의 한 목적이 명시됨("듣게 하여 영영히 믿게 하려 함").
- 제사장(22절)이 제도 수립 전에 미리 언급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종주-봉신 언약 형식(은혜 회상→조건→동의)과 닮은 정황. 4-8절 구조와 병행 관찰.
- 성산(聖山)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 경계·성결 관념. 12-13절 정황의 배경.
- 천둥·연기·나팔의 신현(神顯) 모티프. 16-18절 정황의 배경.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19 ↔ 출 3:12 (이 산에서 섬기리라는 표징의 성취)
- 출 19 ↔ 출 24:1-18 (언약 체결과 모세의 산 오름)
- 출 19 ↔ 신 5:2-5 (호렘 언약 회상)
- 출 19 ↔ 신 4:10-13 (불 가운데 말씀하심 회상)
- 출 19 ↔ 히 12:18-24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
- 출 19 ↔ 벧전 2:9 (왕 같은 제사장·거룩한 나라 재인용)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출애굽한 지 셋째 달,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산 앞에 진을 친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일을 회상하시고,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제사장 나라·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조건을 거신다. 백성이 "다 행하리이다" 동의하고, 모세가 그 말을 다시 올린다. 여호와께서 삼일 성결을 명하시고, 옷을 빨고 산에 경계를 정하게 하신다. 삼 일째 아침 우레·번개·구름·나팔 소리가 일고, 산에 연기가 자욱하며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 온 산이 진동한다. 나팔이 점점 커지고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은 음성으로 대답하신다. 모세가 산을 오르내리며 경계를 거듭 경고하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는 말씀을 받은 뒤 백성에게 내려가 말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오름과 내림 사이에 강림이 임하다"
- 초벌 부제: "셋째 날 아침, 산 위에 한 부르심이 내려오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언약 형식·성산 관념·신현 모티프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md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제사장 나라"(6절)가 교회론·신약 적용으로 번질 위험 → 관찰에서는 교차 참조 노드(벧전 2:9)로만 표시.
- 언약 형식의 ANE 비교가 본문 위로 올라서지 않도록 배경 자료로만 주입.
- "산을 만지면 죽으리라"(12절)가 윤리·심판 프레임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본문 표면(경계·성결)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이른 백성에게 가까이 부르심과 다가오지 말라는 경계가 함께 내려오며, 사람의 오르내림 사이에 강림이 임하는 걸이다.

한 문단: 본문은 시내 광야 도착으로 열린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독수리 날개의 회상 다음에 조건이 걸리고, "내 소유·제사장 나라·거룩한 백성"의 부르심이 내려온다. 백성이 듣기 전에 동의하고, 삼 일 성결과 경계가 준비된다. 삼 일째 아침 우레·연기·나팔 가운데 강림이 임해 산이 떨고, 사람은 오르내리며 경계는 거둬 그어진다. 본문은 부르심과 경계를 한 호흡에 두고, 그 말이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미완으로 닫는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시내산, 거룩함으로 층층이 나뉜 공간(꼭대기/산/산 아래), 경계. 소품 — 우레·구름·나팔·연기·불, 성결의 옷 빨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독수리 날개"의 포근함으로 열려 우레·진동의 무게로. "준비→강림"의 결 전환과 떨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2절). 끝 — "백성에게 내려가서... 말하니라"(25절, 미완). 오름으로 열려 내림으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백성·장로·제사장·아론. 모세의 오르내림이 골격. 은혜 회상→조건→부르심→동의의 순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도착(1~2). 컷 2 부르심·동의(3~8). 컷 3 삼 일 성결(9~15). 컷 4 강림(16~19). 컷 5 경계 경고·내려감(20~25).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부르심과 경계의 병존. 듣기 전의 동의. 정보 — alah/yarad의 골격, segullah·제사장 나라·거룩한 백성, 강림의 명시된 목적(9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도착→부르심·동의→삼 일 성결→우레·연기 강림→오르내림·경계 경고의 한 흐름, 다음 장으로 이어짐.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오름과 내림 사이에 강림이 임하다". 초벌 부제 — "셋째 날 아침, 산 위에 한 부르심이 내려오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떨리는 산기슭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가까이 부르시며 경계를 그으시는 그 결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오름과 내림:** 모세가 산을 여러 번 오르내리고(alah/yarad),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yarad). 사람의 내려옴과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같은 동사로 맞물린다.
- 결 2 — 부르심과 경계:** "제사장 나라"(6절)의 가까이 부르심과 "만지면 죽으리라"(12절)의 경계가 한 단락에 함께 놓인다. 가까움과 거리가 동시에 그어진다.
- 결 3 — 미완의 끝:** 25절이 "말하니라"로 멈추고 그 말의 내용이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 한 장이 닫히지 않고 다음으로 흐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3:12 ("이 산에서 섬기리라"는 표징의 성취). 출 24:1-18 (언약 체결과 산 오름).
- 다른 권 — 신 5:2-5 · 신 4:10-13 (호렙 언약과 불 가운데 말씀 회상). 히 12:18-24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 벰전 2:9 (왕 같은 제사장·거룩한 나라 재인용, 신약의 결).
- 정경 흐름 — 산 위의 강림과 부르심은, 오경 전체가 "거룩한 곳에서 부르시는 결"을 반복해 들여다본다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시내산 도착의 첫 문장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회상(4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제사장 나라·거룩한 백성"의 부르심(6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우레와 연기 가운데 산이 떠는 자리(18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가까이 부르심과 경계가 함께 내려온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떨리는 산기슭에서 부르심을 듣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도착(2절)으로 열려 미완의 내려감(25절)으로 닫힌다
- [x] "오름"과 "내림"이 장의 뼈대다
- [x] 사람의 내려옴과 하나님의 강림이 같은 동사다
- [x] 부르심(제사장 나라)과 경계(만지지 말라)가 함께 놓인다
- [x] 백성이 듣기 전에 동의한다 (8절)
- [x] 강림의 한 목적이 명시된다 (9절)
- [x] 끝이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 (미완)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강림.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1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가까이 부르심("제사장 나라", 6절)과 경계("만지지 말라", 12절)가 한 장에 함께 있는 까닭은?

- 관찰 사실: 부르심과 경계가 같은 강림 단락에 병존.

- 본문은 그 병존의 까닭을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백성은 어떻게 십계명을 듣기 전에 "다 행하리이다"(8절)라고 동의하는가?

- 아직 율법의 내용을 듣기 전의 동의.
- 본문은 동의의 근거를 설명하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3. 사람의 "내려옴"과 하나님의 "강림"이 같은 동사(yarad)인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 모세의 내려옴(14:25절)과 하나님의 강림(11:18·20절)이 같은 동사.
- 그 겹침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4.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제사장들"(22절)이 미리 언급되는 까닭은?

- 제도 수립(다음 장들) 전에 이름이 먼저 나옴.
- 그 선행 언급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5. 강림의 목적("듣게 하여 영영히 믿게 하려 함", 9절)은 어떤 결인가?

- 본문이 강림의 한 목적을 직접 명시함.
- 그 목적의 무게는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Q6. 25절에서 본문이 미완으로 닫히고 20장으로 이어지는 까닭은?

- "모세가... 말하니라"로 멈추고, 그 말의 내용이 다음 장(십계명)으로 이어짐.
- 장 구분과 본문 단락의 어긋남은 관찰까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20장

EXO-020 · 오경 · 히브리어

열 마디 말씀. 우리와 번개 가운데서 백성은 멀리 서고, 한 분만 가까이 가신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19장에서 이어진 시내산. 1~17절은 목소리만 있고(인물 비가시), 18~21절에서 우리·번개·나팔·연기 나는 산이 무대 소품으로 가시화됨.
- 앞부분(1~17)의 소재는 추상적: 다른 신·우상·이름·안식일·이웃의 소유. 4절은 "위로 하늘, 아래로 땅, 땅 아래 물 속"의 삼층 공간을 나열.
- 뒷부분 소품은 구체적: 우리·번개·나팔·연기(18절), 흙 제단·돌·정(연장)·층계(24~26절).
- 1절 "모든 말씀"의 '말씀'은 dabar. 출 34:28·신 4:13에서 이 열 가지를 aseret haddevarim('열 마디 말씀')이라 부름. '데칼로그'(deka logos)의 어원.
- 배경: ANE 종주권 조약 형식(서언→역사적 서론→조항)과 2절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의 위치가 유사. 정언적(apodictic) 명령 형식이 ANE 결의론적(casuistic) 법전과 형식상 대조됨. (배경 관찰, 해석 아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전반부의 단호함과 후반부(18절~)의 떨림이 대조. 참가자 다수가 "짧은 부정 명령이 박히는" 인상과 "말씀 후 백성의 물러섬"을 공유.
- 부정어 "lo(~하지 말라)"의 반복이 청각적 인상으로 남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행위.
- 26절: "네 제단에 오르려고 층계로 오르지 말라..." — 끝은 사람의 제단 규제.
- 2절 "나는(anokhi) 여호와"가 앞에 박히고, 24절 "내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가 뒤에 놓임 — '나는'으로 열고 '내가 임하여'로 닫힘.
- 시선의 이동: 위(하나님의 목소리) → 아래(사람의 예배 장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하나님 / "너"(1~17절 2인칭 단수 수신자) / 백성(18절~) / 모세(19절 첫 호명).
- 명령 안의 사람들: 아버지·어머니(12), 이웃, 남종·여종·객(10), 이웃의 아내·집·소·나귀(17).
- 부정 명령 동사: lo tirtsach(살인, 13)·lo tin'af(간음, 14)·lo tignov(도둑질, 15)·거짓 증거(16)·탐냄(chamad, 17).

- 13절 "살인" 동사는 ratsach — 좁은 의미의 불법적 살해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짐(본문은 범위 비명시).
- 명령의 길이 차이: 안식일(8~11)·우상(4~6)이 길고 동기절을 가짐; 살인·간음·도둑질은 두세 단어로 짧음.
- 표면 사상: 하나님을 향한 명령과 사람을 향한 명령이 한 목록에 나란히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서언 —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 컷 2 (3-11절): 하나님 향한 말씀 — 다른 신·우상·이름·안식일
- 컷 3 (12절): 부모 공경 — 동기절 "네 생명이 길리라"
- 컷 4 (13-16절): 짧은 부정 명령 넷 — 살인·간음·도둑질·거짓 증거
- 컷 5 (17절): 탐냄 — 마음의 영역, 목록 길어짐
- 컷 6 (18-21절): 백성의 두려움·멀리 섬, 모세가 가까이 감 (액자의 경첩)
- 컷 7 (22-26절): 제단 규제 — 신상 금지·흙 제단·다듬지 않은 돌·층계 금지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1) 원어 카드

- dabar(דָּבָר) — 말씀. 복수 devarim이 '열 마디 말씀'(aseret haddevarim)의 '말씀'.
- anokhi(אֲנֹכִי) — '나는'. 2절 자기 선언의 첫 단어.
- ratsach(רָצַח) — 살인하다. 좁은 의미의 불법적 살해에 주로 쓰임으로 알려짐.
- na'aph(נָאַף) — 간음하다.
- ganav(גָּנַב) — 도둑질하다.
- chamad(חָמַד) — 탐내다. 신 5:21에서는 일부 대상에 ava(원하다)로 바뀜.
- qanna(קָנָא) — '질투하는'. 우상 계명의 동기절.
- shav(שָׁוָה) — '헛되이/거짓되이'. 이름 계명.
- zakhor(זָכַר) — '기억하라'. 안식일 계명 동사(신 5장은 shamor—'지키라').
- mizbeach(מִזְבֵּחַ) — 제단. adamah(흙)로 쌓으라 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2) 문학 구조

- 액자 구조: 율법 본문(1~17) ↔ 백성 반응 내러티브(18~21) ↔ 제단 규제(22~26).
- 정언적(apodictic) 명령 형식 — "~하라/~하지 말라" 직접 명령. ANE 결의론적("만일 ~하면") 법전과 형식 대조.
- 동기절(ki — '왜냐하면') 분포: 우상(5~6), 이름(7 후반), 안식일(11), 부모(12)에 붙음. 살인·간음·도둑질·거짓 증거에는 없음.
- 명령 길이의 비대칭: 첫 네 계명(하나님 향함)이 길고, 짧은 부정 명령 넷(13~16)이 가운데에 밀집.
- 2인칭 단수 "너" 일관 사용 — 무리에게 주되 개인에게 말하는 어법.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3) ANE/전통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종주권 조약 형식: 서언·역사적 서론·조항 구조와 2절 위치의 유사성.
- 안식일 동기절 차이: 출 20:11은 '창조' 근거, 신 5:15는 '애굽에서 종이였음' 근거. 같은 계명, 다른 동기절.

- 두 돌판 분할 전통(Mekhilta 등)은 후대 배열 논의 — 본장 자체는 "두 판"이라는 분할을 여기서 명시하지 않음(31:18·34장에서 '두 판' 언급). 배경으로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20 ↔ 신 5:6-21 (십계명 재진술, 안식일 동기절 차이)
- 출 20 ↔ 출 19장 (시내산 강림 준비) / 출 34:28 ('열 마디 말씀')
- 출 20:11 ↔ 창 2:1-3 (창조 안식 근거)
- 출 20:13-14 ↔ 마 5:21,27 (살인·간음 계명 내면화)
- 출 20 ↔ 마 22:37-40 (계명 요약) / 약 2:11 (살인·간음 병치)
- 출 20:17 ↔ 롬 7:7 ('탐내지 말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먼저 자기를 밝힌다 — "나는 너를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그 뒤로 명령이 떨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긴 말씀(다른 신·우상·이름·안식일)에서 시작해, 부모 공경을 경첩으로 사람을 향한 짧은 명령들(살인·간음·도둑질·거짓 증거)로 빠르게 흐르고, 마지막 탐냄에서 다시 길어지며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 말씀이 몇자 카메라가 백성에게 돌아간다 — 우레·번개·나팔·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선다. 한 사람(모세)만 캄캄한 데로 가까이 간다. 다시 목소리가 돌아와 제단 규례를 준다 — 신상을 만들지 말고, 흙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층계 없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목소리에서 시작해 목소리로 닫히다"
- 초벌 부제: "선포·두려움·제단 — 한 산기슭의 세 걸"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조약 형식 + 동기절 분포 + 안식일 동기절 차이)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도덕 단정 없이 구조 관찰로만 진행.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7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두 돌판" 분할이 신학 프레임(하나님 사랑/이웃 사랑)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한 목록에 나란히 놓임"까지만.
- "살인하지 말라"의 범위 논쟁(전쟁·사형 등)을 관찰에서 끌어오지 않음 — 어휘 ratsach 기록까지만.
- 제단 규례의 "다듬지 말라" 이유를 추정으로 채우지 않음 — open_questions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20장은 명령의 목록이 아니라, 인도하여 낸 분의 목소리가 떨림을 지나 다시 목소리로 닫히는 한 장면이다.

한 문단: 본문은 명령 앞에 먼저 "나는 너를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는 자기 밝힘을 둔다. 그다음 열 마디 말씀이 흐른다 — 하나님을 향한 긴 명령에서 사람을 향한 짧은 명령으로, 다시 마음(탐냄)으로. 말씀이 몇자 백성이 떨며 멀리 서고 한 사람만 가까이 간다. 끝에 제단 규례가 와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로 닫힌다. 명령의 목록과 그것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한 액자 안에 같이 들어 있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시내산. 1~17절은 목소리만(비가시), 18~21절에서 우레·번개·나팔·연기로 가시화. 소품이 추상(다른 신·이름·안식일)에서 구체(흙 제단·돌·총계)로 이동.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전반부의 단호함과 후반부의 떨림이 대조. "lo(~하지 말라)" 반복의 청각적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하나님의 말씀 행위(1절). 끝 — 사람의 제단 규례(26절). 2절 '나는 (anokhi)'과 24절 '내가 임하여'가 양 끝.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하나님 / "너"(2인칭 단수) / 백성 / 모세. 명령 안 사람들 — 부모·이웃·종·객. 명령 길이의 비대칭(하나님 향한 길고, 살인·간음·도둑질 짧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연기	컷1 서언(1~2). 컷2 하나님 향한 말씀(3~11). 컷3 부모 공경(12). 컷4 짧은 부정 명령 넷(13~16). 컷5 탐냄(17). 컷6 두려움·멀리 섬(18~21). 컷7 제단 규례(22~26).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동기절(ki)이 일부 명령에만 붙음. 18절 소리를 '본다'(ra'ah). 20절 두려움과 두려워 말라의 병치. 안식일 근거가 출(창조)/신(출애굽)으로 다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자기 밝힘 → 긴 명령 → 짧은 명령 → 마음(탐냄) → 백성의 떨림 → 한 사람의 가까이 감 → 제단 규례 →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목소리에서 시작해 목소리로 닫히다". 초벌 부제 — "선포·두려움·제단".
	산기슭에 서서 멀리 선 백성과 가까이 간 한 사람을 본다. 주께 아뢰다 — "그 가까이 가는 자리를 보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단계	핵심 발견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명령보다 먼저 온 인도하심:** 2절은 명령 이전에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을 둔다. 본문이 어순으로 무엇을 앞세우는지 본다.
- 결 2 — 동기절의 비대칭:** 어떤 명령에는 "왜냐하면"이 붙고, 어떤 명령은 한 마디로 끝난다. 본문이 어디에 말을 더 붙였는지 본다.
- 결 3 — 멀리 섬과 가까이 감:** 백성은 멀리 서고(18~19), 모세는 캄캄한 데로 간다(21). 두 방향이 한 장면에 같이 있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19장**(강림 준비). **출 34:28**("열 마디 말씀"). **출 21~23장**(이어지는 언약서).
- 다른 권 — **신 5:6-21**(재진술, 안식일 동기절 차이). **마 5:21,27**(살인·간음 내면화). **마 22:37-40**(계명 요약).
- 정경 흐름 — 창 2:1-3의 창조 안식이 출 20:11의 안식일 근거로 다시 나타난다. 시작의 책 한 절이 율법의 동기절로 되올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명령을 기다리는데, 먼저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이 들린다.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짧은 부정 명령들이 빠르게 박힐 때, 그 사이의 침묵에서 멈춘다.
- **멈춤 2:** 백성이 떨며 멀리 서는 18~19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두려워하지 말라"와 "경외하라"가 한 문장에 같이 올 때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명령보다 인도하심이 먼저였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멀리 설지, 가까이 갈지*의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명령 앞에 인도하심의 선언이 먼저 온다(2절)
- [x] 열 마디 말씀이 하나님 향함→사람 향함→마음으로 흐른다
- [x] 동기절이 일부 명령에만 붙는다
- [x] 말씀 뒤에 백성의 떨림 장면이 액자처럼 끼어 있다(18~21)
- [x] 백성은 멀리 서고 한 사람은 가까이 간다
- [x] 제단 규례가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로 닫힌다
- [x] 소리를 '본다'(ra'ah)는 표현이 그대로 있다(18절)
- [x] "두려워 말라"와 "경외하라"가 한 문장에 같이 온다(20절)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인도하심.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2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18절에서 백성이 소리를 "본다"(ra'ah)고 한 까닭은?

-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본지라" — 들음이 아니라 봄으로 표현됨.
- 본문은 이유를 말하지 않음. 어휘 사실만 기록, 해석은 묵상으로.

Q2. "두려워하지 말라"와 "경외하라"가 한 문장(20절)에 같이 온 까닭은?

- 모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에게 있어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 두 종류의 두려움이 구분되는 듯하나 본문은 길게 설명하지 않음. 질문으로 보존.

Q3. 동기절이 일부 명령에만 붙은 까닭은?

- 우상·이름·안식일·부모에는 "왜냐하면(ki)"이 붙고, 살인·간음·도둑질·거짓 증거에는 없음.
- 이유의 유무가 명령의 무게를 나타내는지 본문은 단정하지 않음.

Q4. 안식일 근거가 '창조'(출 20:11)와 '출애굽'(신 5:15)으로 다른 까닭은?

- 같은 계명, 다른 동기절. 출 20장은 창조 안식 근거.
- 두 본문의 관계는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관찰에서는 차이 사실만.

Q5. 제단을 "다듬은 돌"로 쌓으면 부정해지는 까닭은?

-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25절) — 흙 제단·다듬지 않은 돌·층계 없음의 결.
- 본문은 이유를 명시하지 않음. 질문으로 보존.

Q6. 1~17절의 수신자 "너"(2인칭 단수)는 누구인가?

- 무리(백성 전체)에게 주어졌으나 어법은 개인 "너"에게 말함.
- 공동체와 개인의 결이 한 어법에 겹침.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21장

EXO-021 · 오경 · 히브리어

언약서가 종에 관한 법으로 열린다. 동해보복의 잣대 안에 약자를 세우는 걸.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20장 끝에서 이어진 시내산이나, 조문 안에 일상의 가상 공간들이 그려짐 — 종이 일하는 집, 문설주, 다투는 자리, 소가 받는 들판.
- 소품이 구체적이고 일상적: 송곳·문·문설주(6절), 돌·주먹·지팡이(18~19절), 소·구덩이(28~36절).
- 1절 "법규"는 mishpatim('판결·규례'). 20장 '말씀(devarim)'과 호칭이 다름.
- 형식은 결의론적(casuistic) — "만일(ki/im) ~하면 ~한다". ANE 함무라비·에쉬누나 법전과 형식 평행(받는 소 조항 포함). 신분 차등 배상 대신 종에게도 자유·배상의 길이 열림(배경 대조, 해석 아님).
- 6절 "하나님께로(ha-elohim)"를 70인역은 "하나님의 재판소로"로 옮김 — 재판관 의미.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20장의 정언적 "~하지 말라"에서 결의론적 "만일 ~하면 ~한다"로 어조가 전환됨. 차분한 목록의 인상.
- 숫자(여섯 해/일곱째 해/삼십 세겔)가 자주 등장. tachat('~을 대신하여') 반복의 청각적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mishpatim)는 이러하니라" — 표제 선언.
- 36절: "소는 소로 값고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 재산(받는 소) 배상으로 닫힘.
- 시선 이동: 사람(종)에서 짐승(소)으로.
- 1절 표제 아래 36절까지가 한 목록. 다만 언약서(20:22~23:33)의 첫 토막이라 23장까지 더 이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히브리 남종·여종, 주인, 아내·자식, 폭행 가해자/피해자, 부모를 친 자, 사람을 후린 자, 임신한 여인, 소 임자, 구덩이 판 자.
- 사물·짐승: 송곳·문설주, 돌·주먹·지팡이, 소, 구덩이.
- 상황의 대부분이 '갈등·사고' — 가해와 피해를 값(시간·치료비·자유·생명)으로 환산.
- 23~25절 동해보복 공식(lex talionis):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 tachat의 연속. 임신부 사고(22절) 다음에 놓임.
- 여종(amah) 조항(7~11)이 남종과 다른 걸 —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대신 주인에게 의식주·동침 의무.
- 표면 사상: 가해·피해를 셈으로 환산하는 걸, 책임의 경중(고의/부지중, 알고도 됨/모름)을 가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표제 — "법규는 이러하니라"
- 컷 2 (2-6절): 히브리 남종 — 여섯 해 후 자유, 영영 섬김과 귀 뚫는 의식
- 컷 3 (7-11절): 여종 — 남종과 다른 결, 주인의 의무
- 컷 4 (12-17절): 생명 중죄 — 살인·후림·부모 침/저주, "반드시 죽일지니라"
- 컷 5 (18-27절): 폭행·배상 — 다툼·임신부 사고·동해보복 공식·종의 눈/이
- 컷 6 (28-32절): 받는 소 (1) — 임자의 책임, 종 배상은 30세겔
- 컷 7 (33-36절): 구덩이·소 (2) — 재산 손해, 소가 소를 받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1) 원어 카드

- mishpatim(1, מִשְׁפָּטִים절) — 법규·판결. 언약서 조문의 표제어.
- eved(עֶבֶד) / amah(אִמָּה) — 남종 / 여종. 두 조항의 결이 다름.
- ivri(2, יְהוּדִי절) — 히브리 (사람). 종 조항의 대상.
- ratsa(6, שָׁרַף절) — (귀를) 뚫다. 송곳으로.
- tachat(25~23, תַּחַת절) — '~을 대신하여'. 동해보복 공식의 핵심어.
- ason(23~22, אִסּוֹן절) — 해(害)·재앙. 누구의 해인지 본문은 한 단어로만 말함; 70인역은 '형체 갖춤' 여부로 읽음.
- nagach(28, נָגַח절~) — (소가) 받다. 받는 소 조항의 동사.
- shor(שוֹר) — 소. 28~36절 반복.
- mot yumat(מֹת יוּמָת) — "반드시 죽일지니라". 12·15·16·17절 중죄에 반복.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2) 문학 구조

- 결의론적 형식: 조건절(protasis, "만일 ~하면") + 귀결절(apodosis, "~한다")의 반복. ki(주조건)와 im(하위조건)의 층위.
- 배열 흐름: 사람에 관한 법(2~27) → 짐승·재산에 관한 법(28~36).
- 동해보복 공식이 임신부 사고(22절) 다음, 종 보호 조항(26~27) 앞에 놓임.
- 중죄 조항(12~17)에 "반드시 죽일지니라"(mot yumat)가 후렴처럼 반복.
- 책임 분기: 고의/부지중(13~14), 알고도 됨/모름(28~29) — 본문이 책임의 경계를 가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3) ANE/전통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함무라비 법전 (§ 196~205): 동해보복과 신분 차등 배상. 출 21장은 형식이 같으나 종에게도 자유·배상의 길을 뚫(대조 관찰).
- 에쉬나나 법전: 받는 소 조항의 평행. 28~36절과 형식 유사.
- 13절 "내가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도망할 것이며" — 후대 도피성(민 35, 신 19)의 씨앗 어구. 본장은 "한 곳"이라고만 함.
- Mekhilta(Nezikin)·b.Bava Kamma 83b~: '눈은 눈으로'를 금전 배상으로 읽는 후대 전통(참고, 해석 영역).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21:1 ↔ 출 20:22-26 (언약서 서두에서 연결)
- 출 21:23-25 ↔ 레 24:17-22 / 신 19:21 (동해보복 재진술)
- 출 21:2-6 ↔ 신 15:12-18 (히브리 종 해방)
- 출 21:16 ↔ 신 24:7 (사람을 후린 자)
- 출 21:23-25 ↔ 마 5:38-39 ('눈은 눈으로'의 재해석)
- 출 21 ↔ 출 22장 (이어지는 배상법)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한 줄의 표제가 박힌다 — "네가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 아래 첫 항목이 종이다. 여섯 해를 일한 남종이 일곱째 해에 값없이 나가고, 남기를 택하면 문설주 앞에서 귀가 뚫린다. 여종은 다른 결로 다뤄진다. 화면이 무거워진다 — 살인·후림·부모 침/저주에 "반드시 죽일지니라"가 연달고, 고의가 아니면 도망할 한 곳이 정해진다. 다툼이 이어진다 — 돌·주먹에 맞아 누웠다 일어나면 손해와 치료비를 물고, 임신부 사고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의 잣대가 나온다. 그 잣대 바로 뒤, 주인이 종의 눈·이를 상하게 하면 종은 자유를 얻는다. 마지막 들판에서 받는 소가 사람을 받고, 알고도 둔 입자는 책임을 지며, 구덩이와 소가 소를 받는 재산 배상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표제 아래 펼쳐진 법규 — 사람에서 짐승으로"
- 초벌 부제: "종·중죄·배상·받는 소 — 한 표제 아래 네 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법전 형식 대조 + 동해보복 공식 위치 + 도피성 씨앗 어구)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도덕 단정 없이 구조 관찰로만 진행.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7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눈은 눈으로"를 복수의 정당화/금지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음 — 공식이 놓인 자리(임신부 사고 다음, 종 보호 앞)까지만 관찰.
- 노예제 자체에 대한 현대적 도덕 판단을 본문에 덧씌우지 않음 — 조항의 배열·어휘·책임 분기만 기록.
- 22~23절 '해(ason)'의 대상(태아/산모) 논쟁을 관찰에서 결론짓지 않음 — 본문의 단어·70인역 차이만 open_questions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21장은 "법규는 이러하니라"는 한 줄의 표제 아래, 사람에서 짐승으로 내려가며 가해와 피해를 값으로 환산하는 조문의 목록이다.

한 문단: 본문은 막 자유를 얻은 백성에게 종에 관한 법을 먼저 준다. 그 뒤로 생명에 관한 중죄("반드시 죽일 지니라"), 폭행과 배상, 동해보복의 잣대, 종 보호, 그리고 받는 소와 구덩이의 재산 배상이 결의론적("만일 ~하면 ~한다") 형식으로 배열된다. 같은 잣대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떨어지고(종에게는 자유로), 책임은 고의/부지중·알고도 됨/모름으로 갈린다. 본문은 평가를 길게 하지 않고, 조항을 한 줄씩 놓는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일상의 가상 공간(집·문설주·다투는 자리·들판)과 소품(송곳·돌·소·구덩이). '법규 (mishpatim)'라는 표제어. ANE 결의론적 법전과 형식 평행.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20장의 "~하지 말라"에서 "만일 ~하면 ~한다"로 어조 전환. 숫자와 tachat('~을 대신하여')의 청각적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표제 "법규는 이러하니라"(1절). 끝 — 받는 소의 재산 배상(36절). 사람에서 짐승으로 시선 이동.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남종·여종·주인·임신부·소 임자 등. 상황 대부분 갈등·사고. 가해·피해를 값(시간·치료비·자유·생명)으로 환산. 동해보복 공식(23~25).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1 표제(1). 컷2 남종(2~6). 컷3 여종(7~11). 컷4 생명 중죄(12~17). 컷5 폭행·배상·동해보복·종 보호(18~27). 컷6 받는 소(28~32). 컷7 구덩이·소(33~36).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언약서 첫 조항이 종. 고의/부지중 분기와 도피처 씨앗(13). 같은 잣대가 종에게는 자유로(26~27). '해(ason)'의 대상 모호(22~23).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표제 → 종 → 중죄 → 다툼·배상·동해보복 → 종 보호 → 받는 소·구덩이. 사람에서 짐승·재산으로 내려가는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표제 아래 펼쳐진 법규". 초벌 부제 — "종·중죄·배상·받는 소".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법정의 자리에서 서서, 자유를 얻은 자에게 먼저 준 종의 법을 본다. 주께 아뢴다 — "그 첫 자리를 보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첫 조항이 종:** 막 종에서 나온 백성에게 종을 어떻게 대하러가 가장 먼저 온다. 본문이 무엇을 앞서 우는지 본다.
2. **결 2 — 같은 잣대의 다른 낙하점:** "눈은 눈으로"가 종에게는 '자유'로 떨어진다(26~27). 한 잣대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3. **결 3 — 책임의 경계:** 고의/부지중(13), 알고도 됨/모름(28~29). 본문이 어디서 책임을 가르고 어디서 침묵 하는지 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0:22-26**(언약서 서두). **출 22장**(이어지는 배상법).
- 다른 권 — **신 15:12-18**(종 해방). **레 24:17-22 / 신 19:21**(동해보복 재진술). **마 5:38-39**('눈은 눈으로' 재 해석).
- 정경 흐름 — 21장의 "한 곳을 정하리니 도망할 것이며"(13)가 민 35·신 19의 도피성으로 자란다. 한 어구가 후대 제도의 씨앗으로 되올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법규는 이러하니라"는 표제 앞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첫 조항이 종이라는 데서 멈춘다.
- **멈춤 2:** "눈은 눈으로"의 잣대가 종에게는 자유로 떨어지는 26~27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해(ason)'의 대상이 한 단어로만 적힌 22~23절의 침묵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같은 잣대가 약자에게는 다르게 떨어진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셈하는 법정의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1절의 표제 아래 조문들이 목록으로 펼쳐진다
- [x] 언약서의 첫 조항이 종이다
- [x] 어조가 "만일 ~하면 ~한다"의 결의론적 형식이다
- [x] 동해보복 공식이 임신부 사고 다음에 놓인다(22~25)
- [x] 같은 잣대가 종에게는 자유로 떨어진다(26~27)
- [x] 책임이 고의/부지중·알고도 됨/모름으로 갈린다
- [x] 배열이 사람에서 짐승·재산으로 내려간다
- [x] 본문이 가르는 곳과 침묵하는 곳이 함께 있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배상.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2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언약서의 첫 조항이 '종'인 까닭은?

- 막 자유를 얻은 백성에게 주어진 첫 법규가 종을 어떻게 대하느냐임.
- 본문은 그 배열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2. 12~13절에서 고의와 "부지중"을 가르는 기준은?

-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12) 다음에 "부지중에... 도망할 한 곳"(13)이 옴.
- 둘을 가르는 구체 기준은 본문이 길게 설명하지 않음. 질문으로 보존.

Q3. 22~23절 '해(ason)'는 누구의 해인가?

- 임신부 사고에서 "다른 해가 없으면/있으면"의 그 '해'의 대상(태아/산모)을 본문은 한 단어로만 말함.
- 70인역은 '형체 갖추' 여부로 다르게 읽음. 두 읽기를 답 없이 보존.

Q4. 같은 동해보복 잣대가 종(26~27)에게는 '자유'로 떨어지는 까닭은?

- 23~25절 "눈은 눈으로"가, 종의 경우 눈·이를 상하게 하면 '풀어 줌'으로 적용됨.
- 같은 잣대의 다른 적용을 본문은 설명 없이 나란히 둠. 질문으로 보존.

Q5. 남종(2~6)과 여종(7~11) 조항의 결이 다른 까닭은?

- 여종은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대신 주인에게 의식주·동침 의무가 지워짐.
- 차이의 뜻을 본문은 풀지 않음. 묵상으로 이월.

Q6. 종을 받은 소의 배상이 "은 삼십 세겔"(32절)로 정해진 까닭은?

- 사람·신분에 따라 셈이 다름. 왜 그 액수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음.
-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22장

EXO-022 · 오경 · 히브리어

배상법이 객·과부·고아 보호로 옮겨간다. '너희도 객이었으므로'라는 동기절의 결.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전반부 무대는 일상 공간 — 우리·밭·포도원·남의 집·곡식 단, 도둑이 드는 밤(2절). 후반부는 '하나님 앞'(8~9절 재판)·예배(28~31)로 넓어짐.
- 소품: 소·양·나귀, 곡식 단, 포도원, 은, 전당 잡은 겂옷(26절), 첫 소산·처음 난 것(29~30).
- 전반 반복어 "값을지니라"는 shillem('채워 값다·온전하게 하다' 어근). 후반은 정언 "~하지 말라"로 전환.
- 형식: 절도 다중 배상(소 5배·양 4배·산 채 2배)이 ANE 함무라비 (§ 6~8)와 평행. 위탁물 분쟁의 '신 앞 맹세'(8~11)도 ANE 절차와 평행(배경 대조, 해석 아님).
- 8절·28절 '하나님/재판장(elohim)'을 70인역이 재판소·신들 사이에서 다르게 읽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전반의 '셈하는' 어조에서 후반의 '약자를 향한·예배의' 어조로 전환. 참가자 다수가 중반의 결 꺾임을 공유.
- "객(ger)"과 "너희도 애굽에서 객이었으니"가 청각적 인상으로 남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 도둑·배상으로 시작.
-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 — 거룩·드림으로 닫힘.
- 시선 이동: 사람과 사람 사이(옆) → 사람과 하나님 사이(위).
- '거룩(qadosh)' 어휘가 끝에 처음 등장 — '값으라'에서 '거룩하라'로 단어 전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전반 인물: 도둑, 밭·포도원 주인, 위탁자와 맡은 자(shomer), 빌린 자.
- 후반 인물: 무당, 객(ger), 과부(almanah), 고아(yatom), 가난한 자, 재판장·지도자, 하나님.
- 사물·짐승: 소·양·나귀, 곡식 단, 포도원, 은, 전당 잡은 겂옷, 첫 소산·처음 난 것.
- 22절 '해롭게 하다'는 anah — 출 1장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힘'과 같은 어근(본문은 연결을 명시하지 않음).
- 표면 사상: 전반은 배상의 '배수'를 셈, 후반은 동기를 댐("너희도 객이었으니" 21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27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가축 도둑 — 5배·4배·2배 배상, 밤/낮도둑
- 컷 2 (5-6절): 밭·포도원 손해, 번진 불 — 최선의 것으로 배상
- 컷 3 (7-13절): 위탁물 분쟁 — 하나님 앞 맹세, 찢긴 짐승
- 컷 4 (14-15절): 빌린 짐승 — 배상/면제
- 컷 5 (16-20절): 처녀·무당·수간·다른 신 — 혼합 정언 조항
- 컷 6 (21-27절): 약자 보호 — 객·과부·고아·가난한 자, "내가 들으리라"
- 컷 7 (28-31절): 하나님께 — 재판장·지도자, 첫 소산·말아들 드림, 거룩한 사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1) 원어 카드

- shillem(שילם) — 배상하다·채워 갚다. 전반부 반복.
- ganav(גנב, 1절~) — 도둑질하다. machteret(침입, 2절) — 도둑이 뚫고 들어옴.
- shomer(שמר, 7절~) — 맡은 자·지키는 자. 위탁물 조항.
- mekashifah(מכשפה, 18절) — 무당·주술하는 여자. 70인역 '독을 쓰는 자'.
- ger(גר, 21절) — 객·나그네·체류자.
- almanah(אלמנה) / yatom(יתום, 22절) — 과부 / 고아.
- anah(אנה, 22절) — 괴롭히다·학대하다. 출 1장과 같은 어근.
- neshekh(נשך, 25절) — 이자. 가난한 자에게 금함.
- elohim(אלהים, 28:8절) — 하나님/재판장. 70인역이 다르게 읽음.
- qadosh(קדוש, 31절) — 거룩한. 장 끝에 처음 등장.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2) 문학 구조

- 전반 결의론적("만일 ~하면 ~한다") + 후반 정언적("~하지 말라/~할지니라")의 혼합 구조.
- 배열 전환: 배상(1~15) → 혼합 정언 조항(16~20) → 약자 보호(21~27) → 하나님께 드림·거룩(28~31).
- 동기절(ki — '왜냐하면')이 후반 약자 조항에 몰림: "너희도 객이었으니"(21), "내가 들으리라... 나는 자비로운 자"(23:27),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27).
- 배상 배수의 차이: 소 5배·양 4배(1), 산 채 2배(4) — 본문은 배수 차이의 이유를 명시 안 함.
- 16~20절의 이질적 배치(처녀·무당·수간·다른 신)가 재산/약자 조항 사이에 끼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3) ANE/전통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함무라비 법전 (§ 6~8): 절도 다중 배상. 출 22:1~4의 배수 조항과 형식 평행.
- ANE 위탁물(임치) 분쟁의 '신 앞 맹세' 처리 — 출 22:8~11과 평행.
- 객·과부·고아 보호는 신 24:17-22·레 19:33-34에서 확장 재진술. 이자 금지는 신 23:19-20.
- Mekhilta(Nezikin)·Bava Metzia: 배상 배수·위탁 분쟁 논의(참고, 해석 영역).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22 ↔ 출 21장 (앞선 배상법) / 출 23:9 (객 압제 금지 재진술)
- 출 22:21-22 ↔ 레 19:33-34 / 신 24:17-22 (객·과부·고아 보호)
- 출 22:25 ↔ 신 23:19-20 (이자 금지)

- 출 22:22 'anah' ↔ 출 1장 (애굽의 '괴롭힘'과 같은 어근)
- 출 22:29-30 ↔ 출 13장 (처음 난 것 드림)
- 출 22:22 ↔ 약 1:27 (고아와 과부를 돌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처음엔 셈이다. 소를 훔치면 다섯 배, 양은 네 배, 산 채로 잡히면 두 배. 밤도둑은 무죄, 해 돋은 뒤 친 도둑은 책임이 있다. 밭·포도원 손해와 번진 불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갚는다. 맡긴 물건이 없으면 하나님 앞 맹세로 가리고, 빌린 짐승은 배상하되 임자 동석이면 면한다. 거기서 결이 꺾인다 — 처녀·무당·수간·다른 신의 무거운 조항이 짧게 지나다. 그리고 카메라가 약자에게 돌아간다 — 객을 압제하지 말라(너희도 객이었으니), 과부·고아를 해롭게 말라(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지 말고 전당 잡은 겹옷은 해 지기 전에 돌려주라. 끝으로 시선이 위로 오른다 — 재판장을 모독 말고, 첫 소산·처음 난 것을 드리고,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값으라에서 거룩하라로 — 옆에서 위로"
- 초벌 부제: "배상·약자·드림 — 동기절이 붙는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다중 배상 + 신 앞 맹세 + anah 어근 연결 + 동기절 분포)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도덕 단정 없이 구조 관찰로만 진행.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7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너희도 객이었으니"의 동기절을 사회정의 프레임으로 확대하지 않음 — 동기절이 후반 약자 조항에 몰린다는 분포까지만 관찰.
- 16~20절 무당·수간·다른 신 조항을 현대적 도덕 논쟁으로 끌지 않음 — 배치의 이질성과 어휘만 기록.

• 22절 anah의 출 1장 올림을 '의도된 인유'로 단정하지 않음 — 같은 어근 사실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22장은 배상의 '배수'를 셈하는 법으로 시작해, 약자의 부르짖음을 듣는 법을 지나, 하나님께 드림과 거룩으로 올라가는 한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도둑·재산·위탁물·빌린 짐승의 배상을 결의론적으로 셈한다. 그러다 처녀·무당·수간·다른 신의 무거운 조항이 짧게 끼이고, 결이 약자 쪽으로 꺾인다 — 객·과부·고아·가난한 자. 여기서 본문은 처음으로 동기절을 댄다("너희도 객이었으니", "내가 들으리라", "나는 자비로운 자"). 마지막에 시선이 위로 올라 재판장 존중과 첫 소산·처음 난 것을 드리는 규례,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닫힌다. 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예배로 옮겨가는 배열이 한 장 안에 있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전반 일상 공간(우리·밭·집·밤)에서 후반 '하나님 앞'·예배로 넓어짐. shillem('채워값다'). ANE 다중 배상·신 앞 맹세와 형식 평행.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셈하는' 전반에서 '약자·예배' 후반으로 어조 전환. 객(ger)과 "너희도 객이었으니"의 청각적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도둑·배상(1절). 끝 — 거룩·드림(31절). 옆(사람 사이)에서 위(하나님께)로. 'qadosh'가 끝에 처음 등장.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전반 도둑·주인·맡은 자; 후반 객·과부·고아·가난한 자·재판장·하나님. 22절 anah가 출 1장 '괴롭힘'과 같은 어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1 가축 도둑(1~4). 컷2 밭·불(5~6). 컷3 위탁물·맹세(7~13). 컷4 빌린 짐승(14~15). 컷5 혼합 정언(16~20). 컷6 약자 보호(21~27). 컷7 드림·거룩(28~31).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배상 배수의 차이. 밤/낮도둑의 시간 경계. 16~20절의 이질적 배치. 동기절이 후반 약자 조항에 몰림. elohim(8·28)의 두 읽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셈 → 밭·위탁·빌림 → 무거운 정언 조항 → 약자(부르짖음·들으심) → 드림·거룩. 옆에서 위로 올라가는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값으라에서 거룩하라로". 초벌 부제 — "배상·약자·드림".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그 자리에 서서, 셈하는 법 다음에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가 놓인 절을 본다. 주께 아뢴다 — "제 셈 너머에서 보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셈 다음에 온 들으심:** 배상의 배수를 셈하던 본문이 약자 조항에서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23)로 바뀐다. 어조가 셈에서 들음으로 꺾인다.

2. **결 2 — 동기절의 위치:** "왜냐하면"이 약자 조항에만 몰린다(21·23·27). 본문이 어디에서 이유를 대는지 본다.

3. **결 3 — 같은 어근의 되올림**: 22절 '괴롭히다'(anah)가 출 1장 애굽의 행위와 같은 어근이다. 본문은 연결을 말하지 않고 단어만 겹쳐 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1장(앞선 배상법). 출 23:9(객 압제 금지 재진술). 출 1장('괴롭힘' 같은 어근).
- 다른 권 — 레 19:33-34 / 신 24:17-22(객·과부·고아 보호). 신 23:19-20(이자 금지). 약 1:27(고아·과부를 돌봄).
- 정경 흐름 — 22:23의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가 출 2:23-25(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와 같은 결로 되올린다. 출애굽의 시작이 율법의 동기절로 다시 나타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배수를 셈하는 조문 앞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16~20절의 이질적 조항이 끼어드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너희도 애굽에서 객이었으니"(21)에서 멈춘다.
- 멈춤 3: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23)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셈 너머에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셈하던 자리에서 듣는 자리로* 옮겨 세운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전반은 배상의 배수를 셈한다(1~15)
- [x] 어조가 "만일 ~하면"에서 "~하지 말라"로 전환된다
- [x] 16~20절의 무거운 조항이 사이에 끼인다
- [x] 결이 약자(객·과부·고아·가난한 자)로 꺾인다(21~27)
- [x] 동기절("왜냐하면")이 약자 조항에 몰린다
- [x]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가 셈 다음에 온다(23)
- [x] 끝이 드림과 거룩(qadosh)으로 올라간다(28~31)
- [x] 22절 anah가 출 1장과 같은 어근으로 겹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들으심.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2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배상 배수가 소 5배·양 4배·산 채 2배로 다른 까닭은?

- 1절과 4절의 배수 차이를 본문은 이유 없이 정함.
- 소가 양보다 많은 이유를 본문은 명시하지 않음. 질문으로 보존.

Q2. 밤도둑(무죄)과 낮도둑(피 흘린 죄)을 시간으로 가르는 까닭은?

- 2~3절 "해 돋은 후" 경계가 책임을 가름.
- 그 경계의 이유를 본문은 길게 설명하지 않음. 질문으로 보존.

Q3. 16~20절(처녀·무당·수간·다른 신)이 재산/약자 조항 사이에 끼인 까닭은?

- 앞뒤가 배상·약자 보호인데, 이 단락만 결이 이질적이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계열로 무거움.
- 배치의 이유를 본문은 말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Q4. 동기절("왜냐하면")이 후반 약자 조항에만 몰린 까닭은?

- "너희도 객이었으니"(21), "내가 들으리라"(23), "나는 자비로운 자"(27)가 약자 조항에 붙음. 전반 배상 조항엔 없음.
- 이유의 유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본문은 단정하지 않음. 질문으로 보존.

Q5. 8·28절의 elohim은 '하나님'인가 '재판장'인가?

- 같은 단어가 두 곳에 쓰이고, 70인역은 재판소·신들 사이에서 다르게 읽음.
- 본문 자체의 지시를 한쪽으로 확정하지 않고 두 읽기를 보존.

Q6. 22절 '해롭게 하다'(anah)가 출 1장과 같은 어근인 것은 의도된 울림인가?

-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힘'과 같은 어근이 과부·고아 조항에 쓰임.
- 본문은 그 연결을 직접 말하지 않음. 인유 여부를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23장

EXO-023 · 오경 · 히브리어

공의의 법이 흐르다가, 세 절기로 시간이 묶이고, 끝에 길을 인도하는 사자의 약속이 끼어든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네 영역으로 나뉜다 — 법정·송사 자리(1-9), 농토와 달력(10-13), 절기(14-19), 길과 가나안 땅(20-33).
- 소품 — 원수의 소·나귀(4-5절), 밭·포도원·감람원(10-11절), 첫 열매(19절), 왕벌(28절).
- 절기 셋 — 무교절(봄), 맥추절(qatzir, 거둠), 수장절(asif, 모음). 후대에 세 번의 순례 절기로 묶임.
- 땅 경계 —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강(유프라테스)까지"(31절).
- 가나안 족속 — 아모리·헷·브리스·가나안·히위·여부스(23, 28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부분(법)은 뻣뻣하고 단속적, 뒤로 갈수록(절기·약속) 숨이 트이는 인상.
- "내가 사자를 보내어"(20절)에서 명령조에서 약속조로 톤이 바뀐다.
- "여호와 앞에"가 절기 대목에서 반복(14, 17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1절):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 사람 사이의 말·송사.
- 끝(33절):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하게 할까 하노라" — 우상 섬김 경고.
- 가로 관계(사람-사람)에서 세로 관계(사람-하나님)로 이동.
- 22장에서 이어지고 24장 언약 체결로 넘어가는 율법 묶음 속 중간 단락 인상.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말하는 자: 여호와 한 분. 듣는 "너": 단수.
- 상황 속 인물: 증인·재판관·가난한 자·원수·나그네·객.
- 9절: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 듣는 자의 과거 경험 호출.
- 20-23절: "사자"(malak) 등장.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21절).
- 13절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가 앞뒤를 묶는 편.
- 네 묶음: 법(1-9) → 안식(10-13) → 절기(14-19) → 약속(20-33).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절): 공의의 법 — 거짓 증언·다수 추종·뇌물·나그네 압제 금지, 원수의 짐승 돕기.

- 컷 2 (10-13절): 안식 — 일곱째 해 땅의 쉼, 일곱째 날 안식.
- 컷 3 (14-19절): 세 절기, "여호와 앞에", 첫 열매.
- 컷 4 (20-26절): 사자의 인도, 순종 조건, 복.
- 컷 5 (27-33절): "조금씩 쫓아내리라", 땅 경계, 언약 금지.

6 의문점·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ishpat(משפט) — 공의·재판·법규.
- shabbat(שבת) — 안식·쉼 (12절 동사 형태).
- chag(חג) — 절기. '순례하다·돌다' 어근. 14절.
- matzot(מַצוֹת) — 무교병/무교절 (15절).
- qatzir(קציר) — 추수·거둠 → 맥추절 (16절).
- asif(אסף) — 거두어 들임 → 수장절 (16절).
- malak(מלאך) — 보냄 받은 자·사자 (20절).

6 의문점·발견·정보 — (2) 구조

- 1-9절 송사 규례 한가운데 4-5절 "원수의 짐승 돕기"가 끼어 있음.
- 20-33절 약속이 전부 조건절("칭송하면", "섬기지 말고")로 묶임.
- 19절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가 첫 열매 규례 끝에 돌출. 출 34:26, 신 14:21에 재등장.
- "조금씩 쫓아내리라"(30절)와 "한 해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29절)가 정착의 점진성을 명시.

6 의문점·발견·정보 — (3) 교차 참조 노트

- 출 23:10-11 ↔ 레 25장 (안식년·희년 확장)
- 출 23:14-17 ↔ 레 23장, 신 16장 (세 절기 재규정)
- 출 23:19 ↔ 출 34:26, 신 14:21 (어미 젖 규례 반복)
- 출 23:20-23 ↔ 출 33:2, 수 5:13-15 (앞서 가는 사자)
- 출 23:28 ↔ 신 7:20, 수 24:12 (왕벌)

7 상황의 흐름을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거짓 증언과 굶은 재판관을 금하는 법정 자리에서 시작한다. 그 사이로 원수의 길 잃은 소와 집에 눌린 나귀를 돕는 장면이 끼어든다. 다시 송사의 공정과 뇌물·나그네 압제 금지로 이어진 뒤, 시간이 펼쳐진다 — 여섯 해 뒤 일곱째 해 땅이 쉬고, 일곱째 날 사람과 짐승이 숨을 돌린다. 달력은 셋으로 묶여 무교절·맥추절·수장절에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 마지막에 툰이 바뀌어, 앞서 가는 사자가 길을 지키고,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쫓아 내신다는 약속이 조건절과 함께 주어진다. 끝은 우상과 언약하지 말라는 경고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법 사이에 끼어든 길의 약속"
- 초벌 부제: "율례의 흐름 끝에 들어선 사자의 인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절기 구조, 정착 점진성, 교차 참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드리프트 관찰

- 21절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가 신학 프레임으로 번지지 않도록 어휘 표시까지만.
- 19절 어미 짓 규례 — open_questions에 보존, 해석 생략.
- "조금씩 쫓아냄"이 적용·교훈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본문 진술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23장은 사람 사이의 공의에서 시작해 땅의 쉼과 한 해 세 번의 절기를 지나, 앞서 가는 사자의 길 약속으로 닫힌다.

한 문단: 본문은 법조문처럼 시작하지만 한 묶음에 머물지 않는다. 법(1-9) → 안식(10-13) → 절기(14-19) → 약속(20-33)의 네 영역을 같은 "너" 앞에 차례로 펼친다. 율례의 흐름 끝에 들어선 사자의 약속이 명령조를 약속조로 바꾼다. 같이 본다 — 법과 약속이 한 본문 안에서 이어지는 결.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네 무대 — 법정(1-9)·농토와 달력(10-13)·절기(14-19)·길과 가나안 땅(20-33). 소품 — 원수의 소·나귀, 밭·포도원, 첫 열매, 왕벌.
2 첫 느낌·분위기	앞은 뻑뻑한 법, 뒤는 트이는 약속. "내가 사자를 보내어"에서 톤 전환.
3 시작과 끝	시작 — 거짓 증언 금지(1절, 사람-사람). 끝 — 우상 섬김 경고(33절, 사람-하나님). 율법 묶음 속 중간 단락.
4 등장인물·상황·사상	여호와(말함)·단수 "너"(들음). 사자(malak, 20절) 등장. 핀 구절 — 13절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5 장면 컷	법(1-9)·안식(10-13)·절기(14-19)·사자 인도(20-26)·점진적 정착(27-33).
6 의문·발견·정보	송사 사이 원수 돕기 삽입(4-5). 19절 어미 짓 규례 돌출. 약속의 조건절. chag(순례) 어근. "조금씩 쫓아냄"(30절).
7 동영상	법정 → 들판 → 달력 → 길의 약속. 가로 관계에서 세로 관계로, 명령에서 약속으로 흐른다.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법 사이에 끼어든 길의 약속". 부제 — "율례의 흐름 끝에 들어선 사자의 인도".
9 동영상 걷기·기도	법정에서 길까지 걸으며 멈춤들을 지난다. 주께 아뢰다 — "미운 자의 짐을 함께 일으키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원수의 짐승 돕기(4-5절):** 송사 규례 한가운데 끼어든 한 쌍의 명령. 법정의 공정과 들판의 자비가 같은 묶음 안에 놓인다.
2. **결 2 — 일곱째 반복:** 일곱째 해 땅의 쉼(10-11), 일곱째 날 안식(12). 땅과 사람이 같은 리듬으로 쉰다.
3. **결 3 — 조건절에 묶인 약속:** 20-33절의 인도와 복이 "청종하면"에 매여 있다. 약속과 순종이 한 문장 안에 있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34:18-26** (세 절기·어미 젓 규례 재진술). **출 33:2** (앞서 가는 사자).
- 다른 권 — **레 23장** (절기 확장). **레 25장** (안식년·희년). **신 16장** (세 절기 재규정). **수 24:12** (왕벌).
- 정경 흐름 — 시내산 율법 묶음(출 20-23)의 마지막 장으로, 24장의 언약 체결로 곧장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법정의 단속적 명령 앞에 한 사람이 자세를 고친다.
- **멈춤 1:** 송사 사이 "원수의 나귀를 일으키라"에서 멈춘다.
- **멈춤 2:** 땅이 쉬는 일곱째 해, 사람이 쉬는 일곱째 날에서 멈춘다.
- **멈춤 3:**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에서 명령이 약속으로 바뀌는 순간 멈춘다.
- **끝:** "조금씩 쫓아내리라"는 점진의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법과 약속이 한 길로 이어지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본문은 법으로 시작해 약속으로 닫힌다
- [x] 네 영역(법·안식·절기·약속)이 같은 "너" 앞에 펼쳐진다
- [x] 송사 사이에 원수 돕기가 끼어 있다
- [x] 땅과 사람이 일곱째 리듬으로 쉰다
- [x] 절기는 셋,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
- [x] 사자가 길을 인도하는 약속이 끝에 들어선다
- [x] 약속이 조건절에 묶여 있다
- [x] 정착은 "조금씩" 이루어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언약.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2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송사 규례(1-3, 6-8절) 한가운데 원수의 짐승 돕기(4-5절)가 끼인 까닭은?

- 관찰 사실: 거짓 증언·재판 규례 사이에 "미운 자의 소·나귀를 도우라"가 삽입됨.
- 본문은 배치 이유를 말하지 않음. 목상 단계에서 다시.

Q2. 19절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가 절기 규례 끝에 붙은 까닭은?

- 첫 열매 규례 직후 갑자기 등장. 출 34:26, 신 14:21에 반복.
- 본문 자체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Q3. 21절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의 사자는 누구/무엇인가?

- malak에게 "내 이름"이 있다는 표현. 본문은 정체를 설명하지 않음.
- 해석은 목상/사김 단계로 이월.

Q4. 왜 "조금씩" 쫓아내시는가? (29-30절)

- 본문 진술: "땅이 황폐하게 되며 들짐승이 번성할까 하노라."
- 한꺼번이 아니라 점진적 정착의 까닭이 명시된 드문 곳. 그 함의는 답하지 않고 보존.

Q5. 절기 셋의 이름이 통일되지 않은 까닭은?

- 무교절은 사건 이름, 맥추절·수장절은 농사 시점 이름(qatzir/asif).
- 레 23장·신 16장에서 또 다른 명칭으로 불림. 명칭 다양성의 이유는 본문 밖.

Q6. 약속이 모두 조건절로 묶인 까닭은?

- "칭송하면", "섬기지 말고" — 복과 인도가 순종 조건과 결합.
- 조건의 무게는 관찰에서 분포만 기록, 해석은 뒤로.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24장

EXO-024 · 오경 · 히브리어

언약의 피가 양쪽에 뿌려지고, 칠십 장로가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신다. 그리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 사십 주야를 보낸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2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높이로 층져 있다 — 산 아래(제단·백성), 중턱(장로들이 본 곳), 정상(모세 홀로).
- 소품 — 제단(mizbeach), 열두 기둥(열두 지파), 번제·화목제 짐승의 피, 양푼, 언약서(sefer habberit).
- 정상 무대 — "청옥을 편 듯한" 바닥(10절), 구름(anan), 불 같은 영광(kavod, 17절).
- 시간 무대 — 옛새 구름이 덮음, 일곱째 날 부르심, 사십 일 사십 야(18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전반부는 또렷한 의식(제단·피·낭독), 후반부는 정적(구름·잠잠함·홀로).
- "가까이 오라 / 오지 말라"의 거리 조절이 반복되는 인상.
- "여호와와 모든 말씀"이 듣기-기록-낭독-응답으로 순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1절): "올라오라" — 모세·아론·나답·아비후·장로 칠십 인 함께.
- 끝(18절): "모세가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 모세 홀로.
- 여럿의 부름에서 한 사람의 머뭇머뭇으로 좁혀지는 구조(수미상관 후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모세·아론·나답·아비후·장로 칠십 인·백성. 후반에 여호수아(13절), 아론·홀(14절).
- 백성의 두 응답: "준행하리이다"(3절) → "준행하고 청종하리이다"(7절). 둘째에 "청종" 추가.
- 모세의 복합 동선: 부름(1)→하산·전달(3)→기록(4)→상승(9)→재상승(13)→구름 진입(15).
- 11절: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 — 해 입지 않음 + 식사.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부름. 모세만 가까이.
- 컷 2 (3-4절): 첫 응답, 말씀 기록, 제단·열두 기둥.
- 컷 3 (5-8절): 번제·화목제, 피를 둘로 나눔, 언약서 낭독, 둘째 응답, 언약의 피.
- 컷 4 (9-11절): 칠십 인이 올라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심.
- 컷 5 (12-18절): 모세·여호수아 상승, 구름 옛새, 일곱째 날 부르심, 사십 주야.

6 의문점·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berit(ברית) — 언약. 8절.
- dam(דָּם) — 피. "언약의 피"(dam habberit, 8절)가 성경 첫 등장.
- mizbeach(מִזְבֵּחַ) — 제단. 4절.
- sefer habberit(סֵפֶר הַבְּרִית) — 언약서·언약책. 7절.
- kavod(כָּבוֹד) — 영광. 16-17절, "불 같이" 보임.
- anan(אָנָּן) — 구름. 15-18절.

6 의문점·발견·정보 — (2) 구조

- 피-말씀-피 배치 — 절반 제단에(6절) → 언약서 낭독(7절) → 절반 백성에게(8절).
- 1절과 9절에 같은 명단 반복(부름↔실행).
- 백성 응답이 두 번, 둘째에 "칭종" 추가(3, 7절).
- 인원이 점차 좁혀짐 — 칠십 인 + 모세 → 모세 + 여호수아 → 모세 홀로.

6 의문점·발견·정보 — (3) 교차 참조 노트

- 출 24:8 ↔ 속 9:11, 히 9:18-20 (언약의 피 인용)
- 출 24:1-2, 9-11 ↔ 출 19:12-13, 21-24 (산 접근 금지와의 대조)
- 출 24:12 ↔ 출 31:18, 32:15-16 (친히 기록한 돌판)
- 출 24:16-18 ↔ 출 40:34-35 (구름·영광이 덮음)
- 출 24:13 ↔ 출 32:17, 33:11 (여호수아의 동행)

7 상황의 흐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산 위에서 "올라오라"는 부름이 내려온다. 모세가 내려와 말씀을 전하니 백성이 "준행하리이다" 응답한다. 모세는 그 말씀을 다 기록하고, 이른 아침 제단과 열두 기둥을 세운다. 젊은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모세는 그 피를 돌로 나눠 절반을 제단에 뿌린다. 언약서를 낭독하자 백성이 다시 "준행하고 칭종하리이다" 응답하고, 그 제야 나머지 피가 백성에게 뿌려지며 "언약의 피"로 선언된다. 장면이 위로 올라가 칠십 인이 하나님을 보고도 해를 입지 않고 먹고 마신다. 마지막에 인원이 좁혀져, 모세가 여호수아와 더 올라가고 구름이 산을 엿새 덮은 뒤, 일곱째 날 부르심에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사십 주야를 머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피로 묶인 말씀"
- 초벌 부제: "준행하리이다 — 두 번의 응답 사이에 뿌려진 피"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피-말씀-피 구조, 명단 반복, 교차 참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드리프트 관찰

- "언약의 피"가 신약 인용(히 9장)으로 곧장 미끄러지지 않도록, 본장에선 첫 등장 사실까지만 기록.
- 11절 "보고 먹고 마셨더라" — open_questions에 보존, 신학 해석 생략.
- 12절 "친히 기록한 돌판"과 4절 모세의 기록의 관계 — 질문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24장은 언약의 피가 제단과 백성 양쪽에 뿌려져 말씀을 묶고, 인원이 점점 좁혀져 끝내 모세 홀로 구름 속에 사십 주야 머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올라오라"는 여럿의 부름으로 열린다. 백성의 응답, 말씀의 기록과 낭독, 그 사이에 둘로 나뉜 피가 놓인다. 이어 칠십 인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 먹고 마시는 장면이 담담하게 적힌다. 그리고 인원이 줄어들며 모세 홀로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같이 본다 — 여럿에서 하나로 좁혀지는 상승의 결.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높이로 층진 산(아래·중턱·정상). 소품 — 제단·열두 기둥·피·양푼·언약서. 정상 — 청옥 바다·구름·불 같은 영광.
2 첫 느낌·분위기	전반은 또렷한 의식, 후반은 정적. "가까이/오지 말라"의 거리 조절.
3 시작과 끝	시작 — "올라오라"(여럿, 1절). 끝 — "사십 주야 산에 있으니라"(모세 홀로, 18절). 좁혀짐.
4 등장인물·상황·사상	여호와·모세·칠십 인·백성·여호수아·아론·홀. 두 응답 "준행"→"준행하고 청종". 11절 "보고 먹고 마셨더라".
5 장면 컷	부름(1-2)·첫 응답과 제단(3-4)·피와 언약서(5-8)·하나님을 봄(9-11)·구름 속 상승(12-18).
6 의문·발견·정보	피·말씀·피 배치(6-8). 19장과의 대조. 모세의 기록과 친히 주신 돌판. "언약의 피" 첫 등장.
7 동영상	부름→응답→피→봄→홀로 머무. 여럿에서 하나로 좁혀지는 상승.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피로 묶인 말씀". 부제 — "준행하리이다 — 두 번의 응답 사이에 뿌려진 피".
9 동영상 걸기·기도	제단에서 산정까지 층층이 걷는다. 주께 아뢰다 — "보고도 살아 먹고 마셨다는 한 줄 앞에 머물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피·말씀·피:** 절반의 피(제단)와 언약서 낭독과 나머지 피(백성)가 한 묶음으로 놓인다. 피가 말씀을 양쪽에서 감싼다.
2. **결 2 — 두 번의 응답:** "준행하리이다"(3절)와 "준행하고 청종하리이다"(7절). 같은 백성, 한 단어가 더해진다.
3. **결 3 — 좁혀지는 인원:** 칠십 인 + 모세 → 모세 + 여호수아 → 모세 홀로. 상승할수록 사람이 줄어든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19:12-24 (산 접근 금지와의 대조). 출 31:18 (친히 기록한 돌판). 출 40:34-35 (구름·영광이 덮음).
- 다른 권 — 슥 9:11 ("언약의 피"). 히 9:18-20 (이 장을 직접 인용).
- 정경 흐름 — 시내산 언약 체결의 절정으로, 곧장 성막 규정(25장 이하)의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올라오라"는 부름 앞에 한 사람이 자세를 고친다.
- 멈춤 1: 피가 둘로 나뉘는 곳에서 멈춘다.
- 멈춤 2: 하나님을 보고도 먹고 마셨다는 한 줄에서 멈춘다.
- 멈춤 3: 인원이 좁혀져 모세 홀로 남는 곳에서 멈춘다.
- 끝: 구름이 옛새 덮고 일곱째 날 부르심이 오는 시간의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피로 묶인 말씀 앞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본문은 부름으로 열리고 홀로 머뭇머뭇으로 닫힌다
- [x] 피가 둘로 나뉘어 제단과 백성에 뿌려진다
- [x] 피와 백성 사이에 언약서 낭독이 놓인다
- [x] 백성이 두 번 응답하며 둘째에 "청중"이 더해진다
- [x] 칠십 인이 하나님을 보고도 해를 입지 않는다
- [x] 인원이 칠십 인에서 모세 홀로로 좁혀진다
- [x] 구름이 옛새 덮고 일곱째 날 부르심이 온다
- [x] 모세가 사십 주야를 산에 머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거하다.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2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피를 둘로 나뉘 절반은 제단, 절반은 백성에게 뿌린 까닭은?

- 관찰 사실: 6절(제단) - 7절(낭독) - 8절(백성)의 피-말씀-피 배치.
- 본문은 나눔의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Q2. 19장과 달리, 칠십 인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 먹고 마신 까닭은?

- 출 19장: 산에 손대면 죽음. 출 24:11: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먹고 마셨더라."

- 본문은 변화의 까닭을 말하지 않음. 11절이 굳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를 적은 것만 관찰.

Q3. 모세가 기록한 것(4절)과 하나님이 친히 주신 돌판(12절)의 관계는?

- 4절: 모세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기록함." 12절: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 본문은 돌을 구분만 하고 관계를 설명하지 않음.

Q4. "청옥을 편 듯한" 발 아래 바닥(10절)은 무엇을 본 것인가?

- 본문은 하나님을 본 장면에서 발 아래 바닥만 묘사함. 그 위는 서술하지 않음.
-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둬.

Q5. 백성의 두 응답에서 "청중"이 둘째에만 더해진 까닭은?

- 3절 "준행하리이다" → 7절 "준행하고 청중하리이다."
- 두 응답 사이에 기록·제단·피의 절반이 들어감. 추가된 한 단어의 까닭은 본문 밖.

Q6. 구름이 "옛새" 덮고 "일곱째 날" 부르신 시간 표지의 까닭은?

- 16절: 구름이 옛새 산을 덮고, 일곱째 날 구름 가운데서 부르심.
- 창 1장의 시간 표지와 닮은 리듬이나, 본문은 연결을 명시하지 않음. 관찰만.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25장

EXO-025 · 오경 · 히브리어

자원하는 예물로 성소를 짓는다. 법궤·속죄소·상·등잔대의 치수가 이어지고, 그 한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가 놓인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2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아직 짓기 전 — 모형·설계만 주어진 상태. 재료가 먼저 깔림(2-7절).
- 재료 목록 — 금·은·놋, 청·자·홍색 실, 가는 베, 염소 털, 가죽, 조각목, 기름, 향품, 보석.
- 핵심 소품 셋 — 법궤(aron, 10절), 진설병 상(shulchan, 23절), 등잔대(menorah, 31절).
- 법궤 위 — 속죄소(kapporet, 17절)와 두 그룹(keruvim, 18절), 날개로 덮고 마주 뵈.
- 등잔대 — 한 덩이 정금, 양쪽 가지 셋씩 여섯 + 가운데 줄기, 살구꽃 모양, 일곱 등(31-37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설계도 같은 치수·재료의 연속, 그러나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에서 톤이 바뀜.
- "정금·순금"의 반복으로 안쪽으로 갈수록 빛나는 인상.
- "만들라" 명령 앞에 자원함(2절)이 먼저 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2절):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terumah)을 받으라.
- 끝(40절):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 9절·40절에 "보인 모형대로"(tavnit)가 두 번 — 양 끝을 묶는 수미상관 후보.
- 드림(예물)에서 시작해 모형대로 만듦으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말하는 자: 여호와. 듣는 자: 모세. 주인공은 사람보다 사물(궤·상·등잔대).
-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에서 사람(이스라엘, "그들")이 사물 치수 사이로 들어옴.
-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두 그룹 사이에서 네게 이르리라" — 만남의 자리 명시.
- 명령("만들라")의 반복, 그 앞에 자원함이 전제됨(2절).
- 8절의 "거하리라"가 모든 치수의 목적처럼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예물 목록.
- 컷 2 (8-9절): 목적("거하리라")과 원칙("모형대로").

- 컷 3 (10-22절): 법궤·속죄소·그룹, 만남의 자리.
- 컷 4 (23-30절): 진설병 상.
- 컷 5 (31-40절): 등잔대, "모형대로"로 달음.

6 의문점·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terumah(תְּרוּמָה) — 예물. '들어 올려 바침' 어감. 2절.
- miqdash(מִקְדָּשׁ) — 성소·거룩한 곳. 8절.
- shakan(שָׁכַן) — 거하다·머물다. '장막을 치고 머문다'. 8절.
- aron(אֲרוֹן) — 궤. 10절.
- kapporet(כַּפֹּרֶת) — 속죄소·덮개. 17절.
- keruvim(כְּרוּבִים) — 그룹(복수). 18절.
- shulchan(שֻׁלְחָן) — 상. 23절.
- menorah(מְנוֹרָה) — 등잔대. 31절.
- tavnit(תַּבְּנִית) — 모형·양식. 9, 40절.

6 의문점·발견·정보 — (2) 구조

- 짓는 순서가 안에서 밖으로 — 가장 안쪽 법궤(10절)부터, 상·등잔대로. 외벽은 다음 장.
- 재료 등급 — 궤·속죄소·등잔대는 정금, 상은 정금 입힘.
- 치수 한가운데 만남의 진술(22절)과 목적의 진술(8절)이 삽입됨.
- "한 덩이로 쳐서"(31, 36절) — 등잔대는 조립이 아니라 두들겨 냄.
- 9·40절 "모형대로"가 본문을 둘러쌈.

6 의문점·발견·정보 — (3) 교차 참조 노트

- 출 25:8 ↔ 출 29:45-46, 40:34-35 ("그들 중에 거하리라"의 성취)
- 출 25:9, 40 ↔ 히 8:5 ("모형대로" 인용)
- 출 25:16 ↔ 출 31:18, 40:20 (증거판을 궤에 넣음)
- 출 25:31-40 ↔ 속 4:2, 계 1:12 (일곱 등잔대)
- 출 25:30 ↔ 레 24:5-9 (진설병 규정)

7 상황의 흐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손에서 금·은·놋과 물들인 실과 보석이 모인다. 그 재료 위로 목적이 박힌다 — "성소를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보인 모형대로 만들라." 가장 안쪽부터 지어진다. 조각목 궤에 정금을 입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얹으며, 두 그룹이 날개를 펴 마주 본다. 그 사이가 만남의 자리다. 다음으로 정금 입힌 상에 진설병이 항상 놓이고, 마지막으로 한 덩이 정금을 두들겨 낸 등잔대가 여섯 가지와 일곱 등으로 선다. 그리고 본문은 다시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하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치수 한가운데, 거하리라"
- 초벌 부제: "예물에서 시작해 모형대로 달히는, 머무심을 위한 집"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안→밖 순서, 재료 등급, 모형 수미상관)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드리프트 관찰

- 각 기구의 상징 의미(진설병·등잔대·속죄소)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본장에선 치수·재료·배치까지만.
- "거하리라"(shakan)가 신약 성취(요 1:14 등)로 곧장 번지지 않도록 어근 표시까지만.
- 증거판의 시간 순서 어긋남 — open_questions에 보존, 해석 생략.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25장은 자원하는 예물로 시작해 법궤·상·등잔대의 치수가 이어지지만, 그 한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가 박혀 있어, 집의 목적이 머무심임을 본문이 스스로 말한다.

한 문단: 본문은 설계도처럼 보이나 차가운 명세가 아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에서 출발해, 가장 안쪽 궤부터 밖으로 펼쳐지는 치수가 이어진다. 그 흐름 한가운데 목적("거하리라")과 만남("두 그룹 사이에서")이 끼어든다. 양 끝은 "보인 모형대로"가 묶는다. 같이 본다 — 치수와 임재가 한 본문 안에 겹쳐 있는 걸.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짓기 전 모형만 있는 무대, 재료가 먼저 깔림. 소품 — 법궤·속죄소·그룹·상·등잔대. 안쪽일수록 정금.
2 첫 느낌·분위기	치수·재료의 연속, 그러나 8절 "거하리라"에서 톤 전환. 자원함이 명령 앞에 옴.
3 시작과 끝	시작 — 기쁜 마음의 예물(terumah, 2절). 끝 — "보인 양식대로"(40절). 9·40절 "모형대로" 수미상관.
4 등장인물·상황·사상	여호와(말함)·모세(들음), 주인공은 사물. 8절 "그들 중에 거하리라"로 사람이 들어옴. 22절 만남의 자리.
5 장면 컷	예물(1-7)·목적과 원칙(8-9)·법궤와 만남(10-22)·진설병 상(23-30)·등잔대(31-40).
6 의문·발견·정보	안→밖 순서. 재료 등급(정금). 치수 사이 목적·만남 삽입. "한 덩이로 쳐서" 등잔대. shakan(머뭇).
7 동영상	자원함→목적→안쪽 기구→바깥으로. 치수의 연속 한가운데 임재의 한 줄이 흐름을 잡는다.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치수 한가운데, 거하리라". 부제 — "예물에서 시작해 모형대로 닫히는, 머무심을 위한 집".

단계	핵심 발견
9 동영상 걷기· 기도	재료에서 가장 안쪽 궤까지 걷는다. 주께 아뢰다 — "치수 한가운데 '거하리라'를 두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결 1 — 자원함이 명령 앞에:** "만들라"의 모든 명령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2절)가 전제된다. 강제가 아니라 드림에서 출발한다.
2. **결 2 — 치수 한가운데의 목적:** 8절 "거하리라"와 22절 "거기서 만나리라"가 명세 사이에 삽입된다. 본문이 스스로 왜 짓는지를 말한다.
3. **결 3 — "모형대로"의 양 끝:** 9절과 40절이 같은 표현으로 본문을 둘러싼다. 사람의 손이 짓되, 본 것을 따라 짓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9:45-46**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되리라"). **출 40:34-35** (영광이 성막에 충만). **출 31:18** (증거판).
- 다른 권 — **레 24:5-9** (진설병). **히 8:5** ("모형대로" 인용). **속 4:2·계 1:12** (일곱 등잔대).
- 정경 흐름 — 24장 언약 체결 직후의 첫 지시로, 26장 이하 성막 외벽·휘장·제단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기쁜 마음으로 내라"는 부름 앞에 한 사람이 자기 손을 본다.
- **멈춤 1:** 치수 한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에서 멈춘다.
- **멈춤 2:** 두 그룹이 마주 보는 그 사이가 만남의 자리라는 데서 멈춘다.
- **멈춤 3:** 등잔대가 한 덩이에서 두들겨 나오는 장면에서 멈춘다.
- **끝:** "보인 모형대로 하라"는 양 끝의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치수와 머무심이 겹친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본문은 자원하는 예물로 시작한다
- [x] 치수 한가운데 "거하리라"가 놓인다
- [x] 가장 안쪽 궤부터 밖으로 짓는다
- [x]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가 만남의 자리다
- [x] 안쪽일수록 정금이 쓰인다
- [x] 등잔대는 한 덩이에서 두들겨 낸다
- [x] 9·40절 "모형대로"가 본문을 둘러싼다
- [x] 집의 목적이 머무심임을 본문이 스스로 말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성막.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2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가장 안쪽 법궤부터, 안에서 밖으로 짓게 하셨는가?

- 관찰 사실: 궤(10절)→상(23절)→등잔대(31절), 외벽은 다음 장으로.
- 본문은 순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목상 단계에서 다시.

Q2.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8절)가 치수 한가운데 놓인 까닭은?

- 예물 목록과 기구 치수 사이에 목적의 한 줄이 삽입됨.
- 치수와 임재의 결합 — 본문은 이유를 직접 말하지 않음.

Q3. 22절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신다는 진술이 궤 설명 한가운데 든 까닭은?

- 치수 묘사 중간에 만남의 약속이 끼어듦.
- 본문은 그 배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Q4. 증거판을 궤에 넣으라(16, 21절) 하는데 아직 받기 전인 시간 순서는?

- 돌판은 출 31:18에서 받음. 명령은 미리, 사물은 나중.
- 본문은 시간 어긋남을 설명하지 않음. 관찰만.

Q5. 등잔대를 "한 덩이로 쳐서" 만들라는 반복(31, 36절)의 까닭은?

- 조립이 아니라 한 금덩이에서 두들겨 냄. 다른 기구와 제작 방식이 다름.
- 그 제작 방식의 까닭은 본문 밖.

Q6. 9절·40절 "모형대로"가 두 번 강조된 까닭은?

- 본문 양 끝에서 "산에서 보인 모형"을 강조.
- 모세가 본 모형이 무엇이었는데는 본문이 묘사하지 않음. 강조 사실만 기록.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26장

EXO-026 · 오경 · 히브리어

안에서 바깥으로 겹겹이 입혀지는 장막. 그리고 한 휘장이 안을 둘로 가른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2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이 장은 무대를 짓는 명세서다. 시내산 아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mishkan, "거하는 곳/장막")의 제작을 일러 주신다.
- 덮개가 네 겹: ① 베실 휘장 열 폭(그룹 수놓음, 1-6절), ② 염소털 휘장 열한 폭(7-13절), ③ 붉은 숫양 가죽, ④ 해달 가죽(14절). 안쪽이 가장 귀하고 바깥이 가장 투박하다.
- 골조: 조각목 널판(qeresh)을 금으로 싸 은받침(adanim) 위에 세우고, 띠(beriach) 다섯으로 가로질러 묶음.
- 방위 명시: 남쪽(negev) 20널판, 북쪽(tsafon) 20널판, 서쪽 뒤편 6+모퉁이 2.
- 색 재료: 청색(tekhelet)·자색(argaman)·홍색(tolaat shani) 실과 가늘게 꼰 베실(shesh moshzar).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치수와 재료가 빼곡한 명세서의 공기. 참가자 다수가 "한 겹 한 겹 입혀짐"과 "안으로 좁혀 들어감"을 공유함.
- "너는 만들라"의 반복이 차분한 리듬을 만들고, 31절 가르는 휘장에서 공기가 묵직해진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가장 안쪽 베실 휘장(그룹 수놓은 열 폭)으로 시작.
- 37절: 가장 바깥 입구 휘장의 기둥과 낫받침으로 마무리.
- 안(가장 거룩한 천) → 밖(바깥문)으로 흐르는 공간 순서. 그 사이 31-35절에 안을 가르는 휘장(parochet)이 끼어듦.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사실상 하나님(말씀하심)과 모세(침묵하며 들음) 둘. 명령 동사 "veasita"(너는 만들라) 2인칭 단수가 반복.
- 사물이 주인공: 휘장·널판·띠·기둥·받침·갈고리·고.
- 그룹(keruvim)이 두 번 형상으로 등장 — 안쪽 휘장(1절), 가르는 휘장(31절).
- 거룩의 등급이 사상으로 깔림: 지성소(qodesh haqodashim, "거룩 중의 거룩") > 성소(qodesh) > 바깥(33-34절).
- 제작은 모세에게 명령되나 실제 제작은 후속 장(36장 이하)으로 미뤄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베실 휘장 열 폭, 그룹 수, 금갈고리 연결
- 컷 2 (7-14절): 염소털 휘장 열한 폭, 숫양 가죽, 해달 가죽
- 컷 3 (15-25절): 조각목 널판, 은받침, 방위 배치
- 컷 4 (26-30절): 띠로 결박,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세움
- 컷 5 (31-37절): 가르는 휘장(파로켓), 성소·지성소 구분, 증거궤 안치, 입구 휘장(마삭)
- 결의 차이: 컷 1~4는 "짓기", 컷 5는 "가르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mishkan(מִשְׁכָּן) — 거하는 곳/장막. 1절.
- yeriah(יָרִיחַ) — 양장/휘장(천 폭). 1절 이하 다수.
- shesh moshzar(שֵׁשׁ מוֹשָׁר) — 가늘게 꼰 베실.
- tekhelet / argaman / tolaat shani — 청색/자색/홍색 실.
- keruvim(כְּרוּבִים) — 그룹. 1·31절에 수놓임.
- qeresh(קֶרֶשׁ) — 널판. 15절 이하.
- adanim(אֲדָנִים) — 받침(은받침/놋받침).
- beriach(בְּרִיחַ) — 띠/빋장. 26절.
- parochet(פָּרוֹכֵת) — 가르는 휘장(성소·지성소 구분). 31절.
- masakh(מָסַךְ) — 입구를 가리는 휘장. 36절.
- qodesh haqodashim(קֹדֶשׁ הַקְּדוֹשִׁים) — 거룩 중의 거룩(지성소). 33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공간의 순서가 골격: 안(고운 천) → 밖(가죽) → 골조 → 다시 안(가르는 휘장).
- 재료 등급의 역방향 배치: 가장 귀한 직물이 가장 안쪽, 가장 투박한 가죽이 가장 바깥.
- 금속의 등급이 위치를 따라 내려감: 금(널판 표면) → 은(널판·파로켓 받침) → 놋(입구 휘장 받침).
- 두 휘장의 구분: 파로켓(그룹 수놓음, 안을 가림) vs 마삭(그룹 없음, 입구를 가림).
- "너는 만들라"(veasita) 명령형의 반복이 장 전체의 리듬.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 이동식 천막 성소·휴대형 신전의 관행이 보고됨. 본문의 천막 구조와 병행 관찰.
- 청·자·홍색 염료와 가늘게 꼰 베실은 고대 근동에서 값비싼 재료로 알려짐.
- 본문은 외부 관행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무대 자료로만 둬.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26 ↔ 출 25장 (기물 명세 — 직전 배경)
- 출 26 ↔ 출 36:8-38 (이 지시의 실제 제작 기사)
- 출 26 ↔ 출 40:18-21 (성막을 세우고 휘장을 닦)
- 출 26 ↔ 레 16:2 (대제사장이 휘장 안 지성소에 드는 규례)

- 출 26 ⇔ 히 9:1-8 (둘째 휘장과 지성소)
- 출 26 ⇔ 마 27:51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가장 안쪽 고운 베에 그룹이 수놓인 열 폭의 휘장이 펼쳐져 금갈고리로 한 몸이 된다. 그 위에 염소털 휘장 열 한 폭, 붉은 숫양 가죽, 해달 가죽이 차례로 덮여 천막이 겹겹이 입혀진다. 조각목 널판을 금으로 싸 은반침 위에 세우고, 남·북·서로 배치한 뒤 띠로 가로질러 한 몸으로 묶는다. 모세가 산에서 본 양식대로 그것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청·자·홍색에 그룹을 수놓은 휘장을 안에 드리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그 안에 증거궤를 둔다. 성막 문에도 휘장을 쳐 바깥을 가린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한 휘장이 안을 둘로 가른다"
- 초벌 부제: "겹겹이 입혀진 장막, 한 휘장으로 갈린 안"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이동식 성소 + 재료 등급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두 휘장(파로켓/마삭)의 상징 해석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재료·금속 등급의 의미 부여는 관찰에서 어휘·위치 분포만 기록.
- 마 27:51(휘장 찢어짐)은 신약 본문이므로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 해석 생략.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26장은 거하실 장막을 안에서 밖으로 겹겹이 입히고, 마지막에 한 휘장으로 그 안을 둘로 가르는 명세다.

한 문단: 본문은 가장 안쪽 고운 천에서 시작해 염소털·숫양·해달 가죽으로 천막을 겹겹이 입히고, 조각목 널판과 은받침으로 골조를 세운다. 재료의 등급은 안쪽이 가장 귀하고 바깥으로 갈수록 투박해진다. 모든 것을 "산에서 본 양식대로" 세운 뒤, 마지막에 그룹을 수놓은 한 휘장(파로켓)을 안에 드리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다. 짓는 결과 가르는 결이 한 장 안에 함께 있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를 짓는 명세. 네 겹 덮개(베실·염소털·숫양·해달), 조각목 널판과 은받침, 청·자·홍색 직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치수가 빼곡한 차분한 명세. 한 겹 한 겹 입혀지고, 31절 가르는 휘장에서 공기가 목직해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가장 안쪽 베실 휘장(1절). 끝 — 가장 바깥 입구 휘장의 기둥·놋받침(37절). 안→밖, 그 사이 가르는 휘장.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하나님(말씀)과 모세(침묵). "너는 만들라"(veasita) 반복. 거룩 등급 — 지성소 > 성소 > 바깥.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베실 휘장(1~6). 컷 2 덮개들(7~14). 컷 3 널판·받침(15~25). 컷 4 띠·세움(26~30). 컷 5 가르는 휘장·증거궤·입구(31~37).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두 휘장(파로켓/마삭)의 차이. 열 폭 대 열한 폭의 한 폭 차이. 정보 — 금·은·놋의 등급이 위치를 따라 내려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안쪽 천→바깥 가죽→골조→세움→가르는 휘장의 한 흐름. "짓기"와 "가르기"가 한 장에 함께.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한 휘장이 안을 둘로 가른다". 초벌 부제 — "겹겹이 입혀진 장막, 한 휘장으로 갈린 안".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갓 세워진 장막 앞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뢰다 —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안쪽에 두신 결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안에서 밖으로의 등급:** 가장 귀한 직물이 가장 안쪽, 가장 투박한 가죽이 가장 바깥에 놓인다. 금·은·놋도 같은 방향으로 내려간다. 본문은 거룩을 위치로 말한다.
- 결 2 — 한 휘장의 가름:** 짓는 명세가 이어지다가 31절에서 한 휘장이 안을 둘로 가른다. 가장 큰 무게가 가르는 자리에 실린다.
- 결 3 — 산에서 본 양식:** 모든 치수가 사람의 고안이 아니라 "산에서 본 본"을 따른다(30절). 본문은 짓는 손보다 보인 본을 앞세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5장** (기물 명세의 직전 배경). **출 36:8-38** (이 지시의 실제 제작). **출 40:18-21** (성막을 세우고 휘장을 덮).
- 다른 권 — **레 16:2**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드는 규례). **히 9:1-8** (둘째 휘장과 지성소). **마 27:51**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짐).
- 정경 흐름 — 가려진 지성소의 휘장은 정경 뒤편에서 다시 다뤄진다. 가름과 그 가름의 끝이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가장 안쪽 고운 천의 첫 절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귀한 천이 안에, 가죽이 밖에 놓이는 역방향 등급에서 멈춘다.
- **멈춤 2:** "산에서 본 양식대로"(30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한 휘장이 안을 가르는 자리(31-33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거룩은 위치로 말해진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가려진 안과 그 가름 앞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무대를 안에서 밖으로 겹겹이 입힌다
- [x] 재료 등급이 안에서 밖으로 내려간다
- [x] 금·은·놋이 위치를 따라 갈린다
- [x] 두 휘장(파로켓/마삭)이 구분된다
- [x] 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다
- [x] 모든 것을 산에서 본 양식대로 세운다
- [x]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안쪽 가려진 곳에 놓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가름.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2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꺽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왜 안을 가르는 휘장(파로켓)과 입구 휘장(마삭)이 따로 있는가?

- 관찰 사실: 둘 다 청·자·홍색이나, 파로켓(31절)에만 그룹을 수놓고 마삭(36절)에는 없음.

- 본문은 차이의 까닭을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안쪽 휘장은 열 쪽, 그 위 염소털 휘장은 열한 쪽 — 한 쪽의 차이는 왜인가?

- 12절에서 남는 반 쪽을 "성막 뒤에 드리우라" 함.
- 한 쪽이 더 많은 까닭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그대로 질문으로 보존.

Q3. 재료 등급이 안에서 밖으로 내려가는 배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 직물(귀한 베 → 가죽)과 금속(금 → 은 → 놋)이 모두 안에서 밖으로 등급이 낮아짐.
- 위치와 등급의 상관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4. 그룹(케루빔)이 두 휘장(1절, 31절)에 수놓인 까닭은?

- 안쪽 천과 가르는 휘장 모두에 그룹 형상이 들어감.
- 형상이 거듭 놓인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5.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30절)는 어디까지를 가리키는가?

- 모세가 산에서 본 본(tavnit)을 따라 짓는다고 함(출 25:9 연결).
- 본을 본다는 것의 범위는 본문이 한 방향으로 못 박지 않음.

Q6.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배치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지성소가 가장 안, 가장 가려진 곳에 놓임(33-34절).
- 거룩과 가려짐의 관계는 시선의 방향으로만 남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27장

EXO-027 · 오경 · 히브리어

놋으로 만든 제단에서 시작해, 뜰의 울타리를 두르고, 끊이지 않는 등불의 기름으로 닫힌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2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성막의 바깥마당(뜰, chatser)으로 나온다. 26장의 천막 안에서 한 칸 더 바깥.
- 번제단(mizbeach): 조각목(shittim)에 놋(nechoshet)을 입힘. 5×5×3 규빗, 네 모퉁이에 빨 (qarnot).
- 제단 기구가 모두 놋: 통(sirot)·부삽(yaim)·대야(mizraqot)·갈고리(mizlagot)·불그릇(machtot). 절반 높이에 놋 그물(mikbar).
- 뜰: 가는 베실 포장(qela'im)을 기둥(amudim)에 걸고 놋받침(adanim) 위에 세움. 남·북 100규빗, 동·서 50규빗.
- 마지막 소재가 등불용 순수한 감람유(shemen zayit zakh katit, 20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26장보다 더 바깥, 더 넓어지는 공기. 주 재료가 금에서 놋으로 바뀜. 참가자 다수가 "마당으로 퍼짐"을 공유.
- 치수의 명세가 이어지다 20-21절 등불에서 갑자기 조용해진다(건축→예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번제단의 치수로 시작(사물).
-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로 끝(사람·행위).
- 사물→사람, 치수→시간(tamid, "끊임없이"; "대대로 영원한 규례")의 전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하나님(말씀)·모세(침묵)가 앞부분. 21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20절)이 처음 등장.
- 21절에 "회막"(ohel moed, 만남의 장막)이 처음 나옴(26장의 mishkan과 다른 단어).
- 주 재료가 놋(nechoshet) — 바깥마당의 금속. 26장 안쪽의 금과 대비.
- 거룩의 등급이 한 칸 더 바깥(제단·마당)으로 내려옴.
- 끝의 등불은 "백성을 위한 영원한 규례"로 못박힘(계속 이어질 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번제단 본체 — 조각목·놋, 네 빨

- 컷 2 (3-8절): 제단 기구, 놋 그물, 채·고리, "산에서 보인 대로"
- 컷 3 (9-19절): 뜰 — 포장·기둥·받침, 동쪽 문, 모든 기구 놋
- 컷 4 (20-21절): 순수한 감람유, 아론과 아들들이 끊임없이 보살핌
- 절의 차이: 컷 1~3은 "짓기", 컷 4는 "섬기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mizbeach(מִזְבֵּחַ) — 제단. 1절.
- nechoshet(נְחֹשֶׁת) — 놋/구리. 이 장의 주 재료.
- qarnot(קַרְנוֹת) — 뿔. 제단 네 모퉁이(2절).
- mikbar(מִקְבָּר) — 놋 그물. 4-5절.
- chatser(חֲצֵר) — 뜰/마당. 9절 이하.
- qela'im(קֵלָעִים) — 포장(휘장 울타리). 9절.
- amudim / adanim — 기둥/받침(놋).
- shemen zayit zakh katit(שֶׁמֶן זַיִת זָךְ קָטִית) — 빵아 짠 순수한 감람유. 20절.
- ner(נֵר) — 등불. tamid(תָּמִיד) — 끊임없이/항상(20절).
- ohel moed(אוֹהֶל מוֹעֵד) — 회막(만남의 장막). 21절 첫 등장.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공간이 안→밖으로 이어짐: 26장(천막) → 27장(제단·뜰).
- 주 재료가 금(안)에서 놋(밖)으로 전환.
- "너는 만들라"(veasita) 명령형이 앞부분의 리듬, 20절에서 "명령하여 가져오게 하라"로 백성이 들어옴.
- 장의 끝이 사물·치수에서 사람·시간(tamid)으로 옮겨감.
- "산에서 보인 대로"(8절)가 26:30에 이어 재등장.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 뿔 달린 제단(horned altar) 형식이 고고학적으로 보고됨. 본문의 네 뿔과 병행 관찰.
- 올리브 기름은 고대 근동의 등불·음식·예식 주요 재료로 알려짐.
- 본문은 외부 관행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무대 자료로만 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27 ↔ 출 26장 (성막 본체 — 직전 배경)
- 출 27 ↔ 출 30:1-10 (분향단 — 또 다른 제단)
- 출 27 ↔ 출 38:1-20 (이 지시의 실제 제작 기사)
- 출 27 ↔ 레 6:8-13 (제단 불을 끄지 말라)
- 출 27 ↔ 레 24:1-4 (등불을 끊임없이 켜는 규례)
- 출 27 ↔ 히 13: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마당 한가운데에 조각목을 돛으로 입힌 큰 제단이 세워지고, 네 모퉁이엔 한 덩이로 솟은 뿔이 달린다. 통·부삽·대야·갈고리·불그릇이 모두 돛으로 놓고, 절반 높이에 돛 그물을 두르며, 채와 고리로 뿔 수 있게 한다. 모두 산에서 보인 대로 짓는다. 그 돌레로 가는 베실 포장을 기둥에 걸어 뿔을 두르고, 동쪽에 청·자·홍색 문을 둔다. 마당이 다 둘러진 뒤, 백성이 뿔아 짠 순수한 감람유를 가져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 안에서 그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끄이지 않게 보살핀다. 대대로 이어질 규례로.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짓는 일이 끝나고 섬기는 일이 시작된다"
- 초벌 부제: "마당을 두른 뒤, 밤새 꺼지지 않을 불 하나"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뿔 제단 + 감람유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제단 뿔·돛의 상징 해석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tamid(끊임없이/저녁부터 아침까지)의 두 결을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음.
- 히 13:10은 신약 본문이므로 교차 참조 노트로만 표시, 해석 생략.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27장은 늦 제단에서 마당 전체로 퍼져 짓다가, 끝에서 밤새 꺼지지 않을 한 등불의 섬김으로 닫히는 명세다.

한 문단: 본문은 26장의 천막 안에서 한 칸 더 바깥, 곧 제단과 뜰로 나온다. 주 재료가 금에서 늦으로 바뀌고, 제단·기구·그물·뜰의 받침이 모두 늦이다. 치수의 명세가 이어지다가 20-21절에서 결이 바뀐다. 사물에서 사람(아론과 그 아들들)으로, 치수에서 시간(tamid, 끊임없이)으로 옮겨간다. 짓는 일이 끝나는 자리에서 섬기는 일이 시작된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성막의 바깥마당(뜰). 늦 번제단(5×5×3, 네 뿔), 늦 기구·그물, 베실 포장의 뜰, 등불용 감람유.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더 바깥·더 넓어지는 공기. 금에서 늦으로. 20-21절 등불에서 건축이 예배로 가라앉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번제단 치수(1절, 사물). 끝 — 아론과 아들들이 등불을 보살핌(21절, 사람·시간). 치수→tamid.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하나님·모세 앞부분, 21절에 아론·아들들·이스라엘 자손 등장. "회막"(ohel moed) 첫 등장. 주 재료 늦.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제단 본체(1~2). 컷 2 기구·그물(3~8). 컷 3 뜰(9~19). 컷 4 감람유·등불 관리(20~21).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속 빈 제단(8절)·늦 그물(4-5절)의 용도. 등불 기름이 장 끝에 붙은 배치. 정보 — 안쪽 금/바깥 늦의 금속 갈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늦 제단→마당의 울타리→동쪽 문→밤새 켜질 등불의 한 흐름. "짓기"가 끝나고 "섬기기"가 시작.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짓는 일이 끝나고 섬기는 일이 시작된다". 초벌 부제 — "마당을 두른 뒤, 밤새 꺼지지 않을 불 하나".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둘러친 마당 안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밤이 깊어도 꺼지지 않게 보살피라 하신 한 등불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금에서 늦으로:** 26장 안쪽의 금이 27장 바깥마당의 늦으로 바뀐다. 본문은 위치를 금속으로 말한다.
- 결 2 — 사물에서 사람으로:** 줄곧 치수만 말하다가 21절에서 처음으로 섬길 사람(아론과 아들들)이 들어온다. 가장 큰 무게가 섬김의 자리에 실린다.
- 결 3 — 치수에서 시간으로:** 끝의 등불은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대로"의 시간으로 못박힌다(tamid). 본문은 짓는 일을 시간 속의 섬김으로 잇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6장** (천막 본체의 직전 배경). **출 30:1-10** (또 다른 제단인 분향단). **출 38:1-20** (이 지시의 실제 제작).
- 다른 권 — **레 6:8-13** (제단 불을 끄지 말라). **레 24:1-4** (등불을 끊임없이 켜는 규례). **히 13: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 정경 흐름 — 꺼지지 않는 등불의 규례는 정경 곳곳에서 다시 다뤄진다. 짓는 명세와 이어지는 섬김이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마당 한가운데 낮 제단의 첫 절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안쪽 금이 바깥 낮으로 바뀌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치수의 명세가 갑자기 등불로 옮겨가는 20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않게"(21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짓는 일은 섬기는 일로 이어진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밤새 꺼지지 않을 한 등불 앞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무대가 천막 안에서 바깥마당으로 나온다
- [x] 주 재료가 금에서 낮으로 바뀐다
- [x] 제단·기구·그물·받침이 모두 낮이다
- [x] 뜰이 마당 전체를 두른다
- [x] 끝에서 사물이 사람으로 옮겨간다
- [x] 등불을 끊임없이 보살피라 한다
- [x] 모든 것을 산에서 보인 대로 짓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섬김.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2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제단을 "속이 비게"(8절) 만들라 한 까닭은?

- 관찰 사실: 널판으로 속이 빈 형태로 만들라 함.
- 본문은 까닭을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제단 절반 높이의 놋 그물(mikbar, 4-5절)은 무슨 용도인가?

- 그물의 위치는 명시되나 용도는 본문이 분명히 말하지 않음.
- 그대로 질문으로 보존.

Q3. 등불용 기름 규례(20-21절)가 왜 제단·뜰 다음, 장의 끝에 붙는가?

- 등잔대 기름은 25장, 기름·관리는 27장 끝에 떨어져 배치됨.
- 배치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4. "끊임없이"(tamid)와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어떻게 함께 읽히는가?

- "쉬지 않고"와 "매일 밤마다"의 두 절이 한 절에 함께 놓임.
- 두 절의 관계는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5. 바깥마당의 주 재료가 놋인 까닭은?

- 26장 안쪽은 금, 27장 바깥마당은 놋으로 갈림.
- 위치와 금속의 상관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21절에서 처음으로 "회막"(ohel moed)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함께 등장하는 까닭은?

- 거하는 곳(mishkan)에 만남(moed)의 결과 섬길 사람이 처음 붙음.
- 시선이 사물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자리.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28장

EXO-028 · 오경 · 히브리어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메고 들어가는 옷. 그리고 이마에 새겨진 한 마디, "여호와께 성결".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2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사람의 몸으로 옮겨온다. 26·27장의 천막·마당에서, 28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나답·아비후·엘르아살·이다말)의 옷.
- 옷을 "거룩한 옷"(bigdei qodesh)이라 부르며 "영화롭고 아름답게"(kavod·tiferet) 하라 함(2절).
- 여섯 가지 옷: 에봇(ephod), 흉패(choshen), 겹옷(meil), 반포 속옷(ketonet), 관(mitsnefet), 띠(avnet). 더해 정금 패(tsits)와 고의(mikhnesayim).
- 재료: 금실, 청·자·홍색 실, 가는 베실, 보석(호마노 돌 + 흉패 열두 보석).
- 겹옷 자락에 청색 석류(rimmonim)와 금방울(paamonim)을 번갈아 뒹(들고날 때 소리, 35절). 흉패 안에 우림과 둠뫼(urim/tummim, 30절, 미상).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금·보석·색실의 화려한 공기. 27장 늦 마당과 대비. 참가자 다수가 "이름을 메고 들어감"을 공유.
- 모든 화려함 끝에 "여호와께 성결" 한 줄이 이마에 박히며 가라앉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 사람을 세움.
- 43절: "회막에 들어갈 때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게 하라. 영원히 지킬 규례" — 들어갈 때의 규례로 닫힘.
- "가까이 오게 함"(1절) ↔ "들어갈 때 죽지 않게 함"(43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양쪽에 걸림. 사이를 옷이 채움.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하나님(말씀)·모세. 아론과 네 아들(이름 명시). "마음에 지혜 있는 자"(3절, 옷 짓는 자).
- "이름"이 사물처럼 등장: 어깨(호마노, 12절)와 가슴(흉패 열두 보석, 29절)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 "멤"이 두 번 "기념"(zikaron, 기억)과 붙음(12·29절). 몸의 세 자리에 글자/이름 — 어깨·가슴·이마.
- "거룩"(qodesh)이 옷의 처음(거룩한 옷, 2절)과 끝(여호와께 성결, 36절)을 감쌌.
- 흉패는 "판결 흉패"(choshen mishpat, 15절). 이마의 패가 "성물의 죄책을 담당"(38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아론·아들들 세움, 재료와 짓는 자
- 컷 2 (6-14절): 에봇, 어깨의 호마노에 이름 새겨 멤(기념)

- 컷 3 (15-30절): 판결 흉패, 열두 보석, 가슴에 이름, 우림과 둠뭉
- 컷 4 (31-35절): 겹옷 자락의 석류·금방울, 드나들 때 소리
- 컷 5 (36-39절): "여호와께 성결" 정금 패, 관·반포 속옷·띠
- 컷 6 (40-43절): 아들들의 옷, 위임, 들어갈 때의 규례
- 묶음: 컷 2·3·5가 "이름·글자를 몸에 얹기"(어깨·가슴·이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bigdei qodesh(בגדי קודש) — 거룩한 옷. 2절.
- ephod(עֵפוֹד) — 에봇. 6절 이하.
- choshen (mishpat)(חֹשֶׁן מִשְׁפָּט) — (판결) 흉패. 15절.
- urim / tummim(אֲבִנֵי טֹמְמִים) — 우림과 둠뭉(30절, 형태·작동 미상).
- zikaron(זִכָּרוֹן) — 기념/기억. 12·29절.
- shoham(שׁוֹהַם) — 호마노. 9절.
- meil(מַעֲלֵיל) — 겹옷. paamonim / rimmonim — 금방울/석류(33-34절).
- tsits(צִיצִית) — 정금 패. 36절.
- qodesh laYHWH(קֹדֶשׁ לַיהוָה) — "여호와께 성결". 36절.
- mitsnefet / avnet / ketonet / mikhnesayim — 관/띠/반포 속옷/고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거룩"(qodesh)이 옷의 처음(2절)과 끝(36절)을 감싸는 inclusio.
- 이름이 두 번 메어짐 — 어깨(에봇)와 가슴(흉패), 둘 다 "기념"(zikaron).
- 몸의 세 자리 배치 — 어깨·가슴·이마.
- "죽지 않게"가 두 번(35·43절) — 옷을 갖추기와 죽음의 연결.
- 옷 목록의 나열 구조와 "너는 만들라"(veasita) 명령형 반복.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서 제사장·왕의 예복에 보석·금을 두르는 관행이 보고됨. 본문의 화려한 의복과 병행 관찰.
- 신탁을 구하는 도구가 고대 근동에 존재했다는 보고가 있으나, 우림과 둠뭉과 직접 동일시하지 않고 배경으로만 둬.
- 본문은 우림과 둠뭉의 형태·작동을 설명하지 않음(미상).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28 ↔ 출 25:7 (에봇·흉패 보석이 예물 목록에 미리 언급)
- 출 28 ↔ 출 39:1-31 (이 지시의 실제 제작 기사)
- 출 28 ↔ 레 8:7-9 (아론에게 이 옷을 실제로 입힘)
- 출 28 ↔ 민 27:21 (우림으로 판결을 구함)
- 출 28 ↔ 슥 3:1-5 (대제사장의 옷 갈아입힘)
- 출 28 ↔ 계 21:19-20 (열두 기초석의 보석)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아론과 그 네 아들이 제사장으로 불러 나오고, 지혜 있는 자들이 금실·색실·보석으로 거룩한 옷을 짓는다. 먼저 에봇을 지어 어깨받이의 호마노 두 개에 열두 이름을 여섯씩 새기고, 아론이 그 이름을 두 어깨에 기념으로 멘다. 그 위에 네모난 흉패를 달아 너 줄 열두 보석에 한 이름씩 새기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가슴에 멘다. 청색 겹옷을 입고, 자락에 석류와 금방울을 번갈아 달아 들고날 때 소리가 나게 한다.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을 새긴 정금 패를 매어, 그 패가 성물의 죄책을 담당하게 한다. 아들들에게도 속옷·띠·관을 입히고 위임하며, 회막에 들어갈 때 죽지 않도록 고의를 입힌다. 대대로 지킬 규례로.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떼고 들어가다"
- 초벌 부제: "어깨와 가슴의 이름, 이마의 성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예복 관행 + 우림/둠밈 미상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우림과 둠밈을 한 형태로 확정하지 않음 — 본문 미상 그대로 보존.
- 열두 보석·이름의 상징 해석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속 3장·계 21장은 다른 권 본문이므로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 해석 생략.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28장은 섬길 사람을 거룩한 옷으로 입히되, 다른 이들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메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을 얹은 채 들어가게 하는 명세다.

한 문단: 본문은 천막을 짓던 손을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의 몸으로 옮긴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고, 금·보석·색실로 거룩한 옷을 짓게 한다. 옷의 부위마다 무언가가 얹힌다 — 어깨엔 이름, 가슴엔 이름과 우림·뚝뚝, 이마엔 "여호와께 성결". 그 이름들은 "기념"(zikaron)으로 불리고, "거룩"(qodesh)이 옷의 처음과 끝을 감싼다. 들어갈 때 죽지 않게 하는 규례로 달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가 사람의 몸으로. 거룩한 옷 — 에봇·흉패·겂옷·관·띠·속옷·정금 패. 금·보석·색실, 석류·금방울, 우림·뚝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금·보석의 화려한 공기(27장 노트 대비). 끝의 "여호와께 성결" 한 줄에서 가라앉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가까이 오게 하라"(1절). 끝 — "들어갈 때 죽지 않게 하라"(43절). 사이를 옷이 채움.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하나님·모세·아론과 네 아들·지혜 있는 자. "이름"이 사물처럼 어깨·가슴에 매어짐(기념). "거룩"이 양 끝을 감쌌다.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세움(1~5). 컷 2 에봇(6~14). 컷 3 판결 흉패·우림뚝뚝(15~30). 컷 4 겂옷(31~35). 컷 5 정금 패(36~39). 컷 6 아들들·규례(40~43).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우림·뚝뚝의 미상. 방울 소리와 "죽지 않게"의 연결. 정보 — 이름이 어깨·가슴 두 곳, 둘 다 "기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사람을 세움→어깨에 이름→가슴에 이름·우림뚝뚝→겂옷의 소리→이마의 성결→들어갈 때의 규례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메고 들어가다". 초벌 부제 — "어깨와 가슴의 이름, 이마의 성결".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이름을 멘 사람 걸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한 사람이 다른 이들의 이름을 가슴에 얹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이름을 메고 들어감:** 같은 열두 이름이 어깨와 가슴 두 곳에 매어지고, 둘 다 "기념"(zikaron)으로 불린다. 한 사람이 다른 이들의 이름을 지고 들어간다.
- 결 2 — 거룩이 양 끝을 감쌌다:** 옷은 "거룩한 옷"으로 열려 "여호와께 성결"로 달힌다(qodesh). 가장 큰 무게가 이마의 한 마디에 실린다.
- 결 3 — 몸의 세 자리:** 어깨·가슴·이마에 이름과 글자가 놓인다. 본문은 거룩을 몸의 자리로 말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5:7 (보석이 예물 목록에 미리 나옴). 출 39:1-31 (이 지시의 실제 제작).
- 다른 권 — 레 8:7-9 (아론에게 이 옷을 실제로 입힘). 민 27:21 (우림으로 판결을 구함). 속 3:1-5 (대제사장의 옷 갈아입힘). 계 21:19-20 (열두 기초석의 보석).
- 정경 흐름 — 이름이 새겨진 보석은 정경 끝(새 성)에서 다시 열두 기초석으로 나타난다. 이름을 메는 결이 멀리서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가까이 오게 하라"(1절)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어깨에 이름을 메는 자리(12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가슴에 이름을 메고 우림·뚝뚝을 품는 자리(29-30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이마의 "여호와께 성결"(36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거룩은 이름을 메고 들어가는 일이라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다른 이들의 이름을 가슴에 얹고 성결의 패 아래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무대가 천막에서 사람의 몸으로 옮겨온다
- [x] 옷을 "거룩한 옷"이라 부른다
- [x] 이름을 어깨와 가슴 두 곳에 멘다
- [x] 메는 것이 "기념"으로 불린다
- [x] 우림과 뚝뚝은 미상으로 남는다
- [x]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을 새긴다
- [x] 거룩이 옷의 처음과 끝을 감싼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기념.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2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우림과 둠뭉(30절)은 무엇이며 어떻게 쓰였는가?

- 관찰 사실: 흉패 안에 넣으라고만 하고, 형태·작동을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미상으로 남는 것이 정직한 관찰.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같은 열두 이름을 왜 어깨(에봇)와 가슴(흉패) 두 곳에 메는가?

- 둘 다 "기념"(zikaron)이라 불리나, 새기는 방식이 다름(어깨 6+6, 가슴 12개 보석).
- 두 자리에 거듭 두는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그대로 보존.

Q3. 겹옷의 방울 소리가 왜 "죽지 않게"(35절)와 연결되는가?

- 들고날 때의 소리가 죽음을 면함과 묶임.
- 소리와 죽음의 연결을 본문은 풀어 말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4. 이마의 정금 패가 "성물의 죄책을 담당한다"(38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 장식이 아니라 "담당"이라는 동사가 쓰임.
- 담당의 결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5. "거룩"(qodesh)이 옷의 처음과 끝을 감싸는 배치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거룩한 옷(2절)과 여호와께 성결(36절)이 양 끝에 걸림.
- 처음과 끝을 감싸는 결은 시선의 방향으로만 남김. 답하지 않고 보존.

Q6. 흉패가 "판결 흉패"(choshen mishpat, 15절)로 불리는 까닭은?

- 이름을 멘 가슴의 보석 판이 "판결"과 묶임(흉패 안의 우림·둠뭉과의 관계).
- 이름·판결·신탁의 관계는 관찰까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29장

EXO-029 · 오경 · 히브리어

손과 옷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레의 절차가, 끝에 가서 "그들 중에 거하리라"는 한 문장으로 모인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2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회막 문 앞 (4절). 위임식(1-37)과 매일의 상번제(38-46) 두 무대로 나뉜다.
- 소품 — 수송아지 1, 숫양 2, 무교병·기름 섞은 과자·기름 바른 전병 한 광주리, 제사장 의복, 관유, 피, 기름.
- 동물 셋의 쓰임이 다르다 — 송아지(속죄제), 첫째 양(번제), 둘째 양(위임식의 숫양).
- 위임식은 mile yad('손을 채우다'). 35절에 "그들의 손을 채워" 표현이 나온다.
- "거하리라"(45절)는 shakan, 성막(mishkan)과 같은 어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뻣뻣한 절차의 반복. 참가자 다수가 "손으로 만지고 바르는" 촉각적 인상과 "피가 많아 무겁다"는 인상을 공유.
- 마지막 두 절(45-46)에서 분위기가 따뜻해진다는 공통 관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 절차의 서두.
- 45-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 목적의 선언.
- 시작(수단·절차) → 끝(목적·거함)의 관계. 출 25:8과 같은 어근(shakan)이 달는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말하는 이 — 여호와. 듣는 이 — 모세 ("너는 ~하라" 반복).
- 행동의 대상 — 아론과 그 아들들. 대부분 수동적(씻김·입힘·기름·피를 당함).
- 손 없음(semikah)이 제물 머리 위에 반복 (10·15·19절).
- 위임제 피의 자리 — 오른 귓부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20절).
- 표면 사상 — 제사장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세움을 받는다.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준비 — 동물 셋, 빵 광주리
- 컷 2 (4-9): 씻김·옷·기름 (외형의 구별)

- 컷 3 (10-14): 속죄제 수송아지 — 피는 단 뿔, 몸은 진영 밖 소각
- 컷 4 (15-18): 번제 숫양 — 전부 단 위 불사름
- 컷 5 (19-28): 위임제 숫양 — 귀·손·발의 피, 옷에 뿌림, 흔들고 태움, 분깃
- 컷 6 (29-37): 이레 동안 반복, 제단을 거룩하게 함
- 컷 7 (38-46): 매일의 상번제 → "그들 중에 거하리라"

6 의문점, 발견, 정보 — (1) 원어 카드

- qodesh — 거룩·구별. 사람·물건·제단·옷 모두에 적용.
- mile yad(손을 채우다) — 위임식. 직분 위임의 관용구. 35절 "손을 채워".
- semikah — 머리에 손을 얹음 (10·15·19).
- dam(피) — 자리에 따라 처리가 다름 (단 뿔 / 단 사방 / 사람 몸·옷).
- mishchah(기름 부음) / 관유 — 7절 머리에 붓고, 21절 피와 섞어 옷에 뿌림.
- tenufah(요제·흔드는 제물) / terumah(거제·들어 올리는 제물) — 24·27-28절.
- tamid(항상·매일) — 38·42절 상번제.
- shakan(거하다) — 45절. 성막(mishkan)의 어근.

6 의문점, 발견, 정보 — (2) 구조·분포

- 제사 순서 — 속죄제(죄) → 번제(온전한 드림) → 위임제(직분).
- 피의 처리 3종 — 속죄제(단 뿔+뿔), 번제(단 사방), 위임제(사람 귀·손·발 + 단 + 옷).
- 불사름 장소 차이 — 속죄제 몸은 "진영 밖"(14절), 번제 몸은 "단 위 전부"(18절).
- 이레 반복(35-37절) + 제단 자체의 속죄·거룩 (36-37절, "지극히 거룩").
- 일회성 위임 ↔ 영속적 상번제(tamid)가 한 장 안에 공존.

6 의문점, 발견, 정보 — (3) 교차 참조 노트

- 출 29 ↔ 출 28 (제사장 의복, 직전 장)
- 출 29 ↔ 레 8장 (위임식의 실제 시행)
- 출 29 ↔ 레 9장 (위임 후 제 팔일)
- 출 29:45 ↔ 출 25:8 ("그들 중에 거하여")
- 출 29:45-46 ↔ 출 40:34-35 (영광이 성막에 충만)
- 출 29 ↔ 히 7-10장 (제사장직과 단번의 제사)

7 상황의 흐름을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회막 문 앞에 동물 셋과 빵 광주리가 놓이고, 아론과 아들들이 선다.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며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수송아지로 죄를 다루고(피는 단 뿔, 몸은 진영 밖 소각), 첫째 양을 온전히 사르며, 둘째 양 곧 위임의 양으로 그들의 귀·손·발에 피를 바르고 옷에 뿌린다. 빵을 손에 들려 흔들고 일부를 태운다. 이 일을 이레 동안 반복하며 제단까지 거룩해진다. 위임이 끝나면 화면이 바뀌어, 매일 아침저녁의 어린양으로 이어지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로 봉인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손을 채우다 — 세움을 받는 사람"
- 초벌 부제: "속죄·번제·위임, 그리고 거함"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제사 순서·피 처리·이레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드리프트 관찰

- 귀·손·발의 피를 "성결의 신학"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 — 관찰에선 "어디에 발랐다"까지만.
- 위임식의 그리스도론적 성취(히 7-10)는 목상 단계로 이월.
- "진영 밖 소각"의 의미는 open_questions에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29장은 사람을 거룩하게 세우는 뻑뻑한 절차가, 끝에 가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는 한 문장으로 모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회막 문 앞에서 씻김·옷·기름으로 외형을 구별한 뒤, 속죄제·번제·위임제의 세 제사를 차례로 거친다. 피는 자리마다 다르게 처리되고, 위임의 양 차례에 이르러서야 사람의 귀·손·발에 닿는다. 이 모든 일이 이레 동안 반복되고, 제단까지 거룩해진다. 그리고 위임이 끝나면 화면이 매일의 상번제로 바뀌어, 마지막에 "거함"으로 봉인된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회막 문 앞. 동물 셋(송아지·양 둘), 빵 광주리, 의복, 관유, 피, 기름. 위임식(앞)과 상번제(뒤) 두 무대.
2 첫 느낌·분위기	뻑뻑하고 축각적인 절차, 피의 무게. 끝의 두 절에서 따뜻해짐.
3 시작과 끝	시작 —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1절). 끝 —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45-46절). 수단 → 목적.
4 등장인물·사상	여호와와 모세에게 명함. 대상은 아론과 아들들, 대부분 수동적으로 세움을 받음.
5 장면 컷	준비(1-3)·구별(4-9)·속죄제(10-14)·번제(15-18)·위임제(19-28)·이레 반복(29-37)·상번제(38-46).
6 의문·발견·정보	피 처리 3중, 진영 밖/단 위 소각의 차이, mile yad('손을 채우다'), tamid('매일'), 제단의 성별.

단계	핵심 발견
7 동영상	씻김→구별→속죄→번제→위임→이레 반복→매일의 양→거함. 절차가 거함으로 흐른다.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손을 채우다 — 세움을 받는 사람". 부제 — "절차가 거함으로 모이는 결".
9 동영상 견기·기도	회막 문 앞을 걸으며 "세움을 받는다"는 결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세 제사의 순서:** 속죄제(죄) → 번제(온전한 드림) → 위임제(직분)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 죄가 먼저 다뤄지고, 그다음 위임이 온다.
2. **결 2 — 피의 자리:** 단 빨, 단 사방, 그리고 사람의 귀·손·발. 위임의 양에서만 피가 사람 몸에 닿는다. 본문은 그 까닭을 말하지 않는다.
3. **결 3 — 절차에서 거함으로:** 뻑뻑한 동작들이 결국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는 한 문장으로 모인다. 절차는 거함을 향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8장**(제사장 의복, 직전 장). **출 25:8**("그들 중에 거할 성소"). **출 40:34-35**(영광이 성막에 충만).
- 다른 권 — **레 8장**(여기 명령의 실제 시행). **레 9장**(제 팔일). **히 7-10장**(제사장직과 단번의 제사).
- 정경 흐름 — "거함"의 주제는 성막(출)→성전(왕상)→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요 1:14)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뻑뻑한 절차 앞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아론과 아들들이 거의 "당하는" 쪽임을 본다.
- **멈춤 2:** 피가 귀·손·발에 닿는 그림에서 멈춘다.
- **멈춤 3:** 절차가 "거함"으로 모이는 마지막 두 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세움은 받는 것*이라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자리에서 세움을 받는 자리로* 옮긴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절차는 회막 문 앞에서 시작한다
- [x] 세 제사가 속죄·번제·위임 순서로 흐른다
- [x] 피의 처리가 자리마다 다르다
- [x] 위임의 양에서만 피가 사람 몸에 닿는다
- [x] 절차는 이레 동안 반복된다
- [x] 제단도 거룩하게 된다
- [x] 위임 뒤에 매일의 상번제가 이어진다
- [x] 모든 절차가 "거함"으로 모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거함.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29장 — 미해결 질문 (관찰에서 답하지 않고 보존)

LOCKED v2.0 가이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위임제에서만 사람의 귀·손·발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 관찰 사실: 속죄제·번제 피는 사람 몸에 가지 않음. 위임제 피만 오른 귀·오른손 엄지·오른발 엄지에 (20절).
- 본문은 이유를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2. 속죄제 수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태우는 이유는?

- 고기·가죽·똥까지 진영 밖에서 소각 (14절). 번제 양은 단 위에서 전부 사름 (18절).
- 같은 불사름인데 장소가 다른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Q3.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거룩함이니라"(33절)에서 거룩과 먹음의 관계는?

- 위임식의 음식을 위임받은 자만 먹을 수 있음.
- '거룩'이 '먹을 자격'과 묶이는 결의 의미는 답하지 않고 보존.

Q4. 사람뿐 아니라 제단도 "위임"·"거룩"의 대상이 되는 까닭은?

- 36-37절에서 제단을 이레 동안 속죄하여 "지극히 거룩"하게 함.
- 사람의 위임과 사물(제단)의 성별이 같은 절차로 묶이는 결은 묵상으로.

Q5. 일회성 위임(mile yad)과 영속적 상번제(tamid)가 한 장에 함께 있는 까닭은?

- 38-42절의 매일 어린양은 위임이 끝난 뒤 영구히 반복됨.
- 세움(한 번)과 만남(매일)의 관계는 답 없이 보존.

Q6. "그들 중에 거하리라"가 절차의 끝에 오는 까닭은?

- 제사장 위임의 모든 절차가 45-46절의 "거함"으로 모임.
- 거함이 절차의 목적인지, 결과인지는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묵상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30장

EXO-030 · 오경 · 히브리어

다섯 가지 거룩한 규례가 나란히 놓인다. 향 피우는 단, 한 사람당 반 세겔의 속전, 씻을 물두멍, 그리고 함부로 흉내 낼 수 없는 관유와 향.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3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성막 안(분향단)과 회막·단 사이의 마당(물두멍). 다섯 묶음의 규례가 나란히 놓인다.
- 소품 — 분향단(조각목+금), 속전의 은(반 세겔), 놋 물두멍, 거룩한 관유, 거룩한 향.
- 분향단(mizbeach haqetoret) 위에 아침저녁 향(qetoret)을 피움. 불이 끊이지 않음.
- 관유 재료 — 몰약·육계·창포·계피 + 감람유. 향 재료 — 소합향·나감향·풍자향·유향.
- "대대로"(ledorotam)가 여러 토막에 반복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여러 주제가 토막토막 이어지는 인상. 후각적(향·기름)·수치적(반 세겔·규격) 인상이 공존.
- 마지막 두 토막(관유·향)에서 경고("만들지 말라·끊어지리라")로 분위기가 단단해진다는 공통 관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 동사 asah(만들다) 명령형.
- 37-38절: "너희를 위하여는 만들지 말라... 만들면 끊어지리라" — 같은 동사 asah 금지형.
- "만들라"(시작) ↔ "만들지 말라"(끝)가 양 끝을 묶는다. 거룩한 것은 명령대로 만들되 사사로이 모방하지 말라는 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말하는 이 — 여호와. 듣는 이 —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11·17·22·34절에 반복(토막 표지).
- 행동 대상 — 분향·씻음·기름 부음은 아론과 아들들.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 "생명의 속전"(12절) — 계수할 때 각 사람이 냄. 빈부 동일(15절).
- 표면 사상 — 거룩한 것은 정해진 방식대로만 다뤄야 하며, 사사로운 모방은 금지된다.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0): 분향단 — 규격·위치·아침저녁 분향·연 1회 속죄
- 컷 2 (11-16): 생명의 속전 — 반 세겔, 빈부 동일, 회막 봉사 비용
- 컷 3 (17-21): 놋 물두멍 — 손발 씻음, "죽지 않게"
- 컷 4 (22-33): 거룩한 관유 — 재료·조제, 바르는 대상, 모방 금지(kareth)

- 컷 5 (34-38): 거룩한 향 — 재료·조제, 사사로이 만들기 금지(kareth)

6 의문점, 발견, 정보 — (1) 원어 카드

- mizbeach haqetoret(분향단) / qetoret(향).
- kopher(속전) — '덮다·대속하다' 어근. "생명의 속전"(12절).
- beqa(반 세겔, 13절) — 성소 세겔 기준으로 잼.
- kiyyor(물두멍) — 늦. 규격(치수)이 명시되지 않음.
- shemen hamishchah(거룩한 관유, 25절).
- qodesh / "지극히 거룩"(29절) — 닿는 것을 거룩하게 함(거룩의 전이).
- kareth(끊어짐) — 모방 금지의 벌. 33·38절.
- tamid(항상, 8절) — 끊이지 않는 분향.

6 의문점, 발견, 정보 — (2) 구조·분포

- 다섯 토막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분절됨 (1·11·17·22·34절 무렵).
- 양 끝의 asah — "만들라"(1) ↔ "만들지 말라"(37-38).
- 분향단 위 금지 — 다른 향·번제·소제·전제 금지, 정해진 향만(9절).
- 거룩의 전이 — 관유 바른 것은 "지극히 거룩", 닿는 것도 거룩(29절).
- 물두멍만 규격 부재 — 다른 기구는 치수 명시, 물두멍은 "늦으로"까지만.

6 의문점, 발견, 정보 — (3) 교차 참조 노트

- 출 30 ↔ 출 25-29 (기구 목록·위임식)
- 출 30:11-16 ↔ 출 38:25-28 (속전의 실제 사용)
- 출 30:1-10 ↔ 레 16:12-13 (대속죄일의 향)
- 출 30 ↔ 민 16장 (향로 — 자격 없는 분향)
- 출 30:7-8 ↔ 시 141:2 ("내 기도가 분향함같이")
- 출 30 ↔ 계 8:3-4 (성도의 기도와 향)

7 상황의 흐름을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성소 안 휘장 앞에 금 단이 놓이고, 아침저녁 향이 끊이지 않고 오른다. 화면이 마당으로 바뀌어, 백성을 계수할 때 각 사람이 빈부 없이 반 세겔을 내고 그 은이 회막 봉사에 쓰인다. 회막과 단 사이의 늦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거룩한 관유가 조제되어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에게 발리니 닿는 것마다 거룩해진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향이 같은 분량으로 조제되고, "사사로이 만들면 끊어지리라"는 단호한 경고로 화면이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만들라와 만들지 말라 사이"
- 초벌 부제: "거룩하게 구별된 다섯 가지 규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다섯 토막 구조·거룩의 전이·반 세겔)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드리프트 관찰

- "생명의 속전"을 구속 교리로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 — 관찰에선 "각 사람이 반 세겔을 낸다"까지만.
- 분향 = 기도(시 141, 계 8)의 연결은 교차 참조로만 기록, 해석은 묵상으로.
- 물두명 규격 부재는 open_questions에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30장은 분향·속전·씻음·관유·향의 다섯 규례가 나란히 놓이며, 모두 "거룩"이라는 한 단어로 묶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다섯 토막을 끊어 가며, 향 피우는 단, 한 사람당 반 세겔의 속전, 손발 씻을 물두명, 거룩한 관유와 거룩한 향을 차례로 규정한다. 양 끝에는 같은 동사 asah가 "만들라"와 "만들지 말라"로 마주 서고, 거룩한 것은 정해진 방식대로만 다뤄야 하며 사사로운 모방은 끊어짐(kareth)으로 막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성소 안(분향단)·마당(물두명). 다섯 묶음 — 분향단, 속전 은, 놋 물두명, 관유, 향.
2 첫 느낌·분위기	토막토막 이어지는 후각적·수치적 인상. 끝의 경고로 단단해짐.
3 시작과 끝	"만들라"(1절) ↔ "만들지 말라"(37-38절). 같은 동사 asah가 양 끝을 묶음.
4 등장인물·사상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함("말씀하여 이르시되" 반복). 대상은 제사장과 백성 전체.
5 장면 컷	분향단(1-10)·속전(11-16)·물두명(17-21)·관유(22-33)·향(34-38) 다섯 컷.
6 의문·발견·정보	분향단의 위치, 빈부 동일한 반 세겔, 물두명의 규격 부재, 거룩의 전이, kareth의 별.
7 동영상	향→속전→씻음→관유→향. 다섯 규례가 흐르며 "거룩"으로 모인다.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만들라와 만들지 말라 사이". 부제 — "거룩하게 구별된 다섯 가지 규례".
9 동영상 걸기·기도	향이 오르는 단 걸을 걸으며 "거룩은 흥내가 아니라 구별"이라는 걸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걸 1 — 다섯 토막의 나열:**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다섯 번 다시 시작하며, 서로 다른 규례를 한 장 안에 나란히 둔다. 형식이 내용을 끊는다.

2. **결 2 — 만들라와 만들지 말라**: 같은 동사 asah가 시작과 끝에서 반대로 쓰인다. 거룩한 것은 명령대로 만들되 사사로이 모방할 수 없다.

3. **결 3 — 거룩의 무게**: 관유 바른 것은 "지극히 거룩"해지고, 그 모방에는 끊어짐(kareth)이 붙는다. 거룩이 전이되고, 동시에 함부로 다룰 수 없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5-29장**(기구·위임식). **출 38:25-28**(속전의 실제 사용).
- 다른 권 — **레 16:12-13**(대속죄일의 향). **민 16장**(자격 없는 분향). **시 141:2**("내 기도가 분향함같이").
- 정경 흐름 — 분향과 기도의 연결은 **계 8:3-4**(성도의 기도와 향)에서 다시 울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토막토막 나뉜 규례 앞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끊이지 않고 오르는 향의 그림에서 멈춘다.
- **멈춤 2**: 빈부 없이 같은 반 세겔에서 멈춘다.
- **멈춤 3**: "만들지 말라·끊어지리라"의 단호함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거룩은 흥내가 아니라 구별됨*이라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거룩을 스스로 만들려는 자리에서 구별을 받는 자리로* 옮긴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다섯 규례가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나뉜다
- [x] 향이 아침저녁 끊이지 않는다
- [x] 속전은 빈부 없이 반 세겔로 동일하다
- [x] 물두명에는 규격이 없다
- [x] 관유 바른 것은 닿는 것까지 거룩해진다
- [x] 모방에는 끊어짐의 벌이 붙는다
- [x] 양 끝의 동사가 "만들라"와 "만들지 말라"다
- [x] 다섯 규례가 "거룩"으로 묶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거룩.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30장 — 미해결 질문 (관찰에서 답하지 않고 보존)

LOCKED v2.0 가이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목상·사꺾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분향단이 25-27장 기구 목록이 아니라 위임식 다음에 따로 나오는 까닭은?

- 관찰 사실: 다른 기구(법궤·상·등잔대 등)는 25장에 모여 있으나 분향단만 30장 첫머리에 따로 놓임.
- 본문은 배치의 까닭을 말하지 않음. 목상 단계로 이월.

Q2. 속전이 빈부 없이 모두 반 세겔로 똑같은 까닭은?

-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15절).
- 생명의 값이 동일하다는 결의 의미는 답하지 않고 보존.

Q3. 물두멍에만 규격(치수)이 주어지지 않은 까닭은?

- 다른 기구는 크기·재료가 다 명시되나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라"까지만.
- 빈 자리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Q4. "계수 → 재앙 → 속전"이 묶이는 까닭은?

- 계수할 때 속전을 내어 "재앙이 없게 하라"(12절).
- 계수와 재앙과 대속이 한데 묶이는 결의 의미는 목상으로.

Q5. 관유 바른 것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까닭은?

- 29절 — 기름 부은 것이 "지극히 거룩"해지고, 닿는 것도 거룩해짐.
- 거룩이 전이되는 결의 의미는 답 없이 보존.

Q6. 관유·향의 모방에만 가장 무거운 벌(kareth)이 붙는 까닭은?

- 33·38절 — 사사로이 만들거나 타인에게 부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 다섯 규례 중 이 둘에만 끊어짐의 벌이 붙는 까닭은 목상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31장

EXO-031 · 오경 · 히브리어

짓는 일에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신 두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일 한가운데 심을 명하시는 안식일. 긴 지시가 친히 쓰신 두 돌판으로 닫힌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3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시내산 위 여호와·모세의 대화 자리. 세 부분(임명·안식일·돌판)으로 나뉜다.
- 인물 소품 — 브살렐(유다 지파, 흙의 손자, 우리의 아들), 오홀리압(단 지파).
- 만들 것 목록(7-11절) — 회막·증거궤·속죄소·상·등잔대·두 단·물두멍·제사장 옷·관유·향. 25-30장의 요약 호명.
- 안식일(Shabbat)·"표징"(ot, 13·17절). 17절은 창 2장의 일곱째 날을 끌어옴.
- 18절 — "증거판 둘 곧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긴 지시 끝의 "끝맺음" 인상. 처음으로 일반인 이름(브살렐)이 불러 반가움.
- 앞(짓는 일)과 뒤(쉬는 일)의 대비, 안식일 부분의 무거운 경고("죽일지니라")가 공통 관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고" — 사람을 부르심으로 열림.
- 18절: "말씀하시기를 마치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니라" — 친히 쓰심으로 닫힘.
- '사람의 손'(짓는 일) ↔ '하나님의 손'(친히 쓰심)이 양 끝에 놓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말하는 이 — 여호와. 듣는 이 — 모세. 처음으로 일반인 둘(브살렐·오홀리압)이 호명됨(직접 발화 없음).
- "하나님의 영"(ruach elohim)과 "지혜"(chokmah)가 손재주·총명·지식·재주와 묶임(3절).
- 6절 —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전체에게 지혜를 주심.
- 안식일 토막에서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넓어짐(13절).
- 표면 사상 — 짓는 재능도 주어진 것이며, 짓는 일 한가운데 심이 함께 명해진다.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 브살렐·오홀리압 임명 — 지혜의 영, 만들 것 목록
- 컷 2 (12-17): 안식일 — 표징·거룩·영원한 언약·창조 일곱째 날의 메아리
- 컷 3 (18): 말씀을 마치심 + 친히 쓰신 두 돌판

6 의문점, 발견, 정보 — (1) 원어 카드

- ruach elohim(하나님의 영) + chokmah(지혜) — 3·6절. 짓는 솜씨와 연결.
- melakhah(일·작업) — 짓는 일과 안식일에 금하는 "일"이 같은 단어.
- Betsalel(브살렐) / Oholiav(오홀리압) — 유다·단 지파.
- Shabbat(안식) / shabat(그치다, 17절).
- ot(표징) — 13·17절,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
- berit(언약) — "영원한 언약"(16절).
- luchot(판) / "친히 쓰신"(18절).

6 의문점, 발견, 정보 — (2) 구조·분포

- 세 컷의 가파른 전환 — "만들라"(1-11) → "그러나 안식하라"(12-17) → 돌판(18).
- 만들 것 목록은 25-30장의 요약 호명.
- 안식일에만 사형 경고("죽일지니라") 두 번(14·15절), 짓는 일엔 없음.
- 17절이 창 2:1-3을 직접 인용·메아리 — 안식의 근거를 창조에 둬.
- 양 끝의 대비 — 사람이 짓는 손 ↔ 하나님이 친히 쓰신 손.

6 의문점, 발견, 정보 — (3) 교차 참조 노트

- 출 31 ↔ 출 25-30 (만들 것 목록의 본문)
- 출 31:1-11 ↔ 출 35:30-36:1 (브살렐 임명의 실제 시행)
- 출 31:12-17 ↔ 출 20:8-11 (안식일 계명)
- 출 31:17 ↔ 창 2:1-3 (창조의 일곱째 날)
- 출 31:18 ↔ 출 32장 (직후 — 금송아지, 돌판이 깨짐)
- 출 31:18 ↔ 출 34:28 (다시 쓰인 돌판)

7 상황의 흐름을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산 위에서 여호와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 유다 지파 브살렐, 그에게 지혜의 영을 채우시고 단 지파 오홀리압을 짝으로 세우신다. 그들이 만들 것을 하나하나 호명하시니 앞서 본 모든 기구가 그 손에 맡겨진다. 그러나 화면이 멈칫하며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가 들어온다.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며 영원한 언약, 어기면 죽는다는 무거운 말이 따르고, 창조의 일곱째 날이 메아리친다. 끝으로 여호와가 말씀을 마치시고 친히 쓰신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건네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짓는 손과 쓰시는 손"
- 초벌 부제: "짓는 일과 쉬는 일, 그리고 친히 쓰신 판"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세 컷 구조·창 2장 메아리·melakhah 동일어)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드리프트 관찰

- "지혜의 영"을 일반 은사론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 — 관찰에선 "영과 지혜가 짓는 솜씨와 묶인다"까지만.
-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언약 표징)는 교차 참조로만 기록, 해석은 묵상으로.
- 18절 돌판이 32장에서 깨진다는 사실은 흐름 메모로만, 해석은 다음 장으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31장은 짓는 일에 지혜의 영을 부으시는 임명과, 그 짓는 일 한가운데 명해진 안식일이 만나, 친히 쓰신 두 돌판으로 달히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처음으로 일반인의 이름(브살렐·오홀리압)을 불러 지혜의 영으로 채우고, 25-30장의 만들 것 전체를 그 손에 맡긴다. 그러나 곧 "그러나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로 화면이 멈칫하며, 짓는 일과 같은 단어(melakhah)의 멈춤이 영원한 표징으로 명해진다. 그리고 긴 지시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친히 쓰신 두 돌판으로 마무리된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시내산 위. 브살렐·오홀리압, 만들 것 목록, 안식일, 친히 쓰신 두 돌판.
2 첫 느낌·분위기	긴 지시의 끝맺음. 짓는 일(앞)과 쉬는 일(뒤)의 대비, 안식일의 무거운 경고.
3 시작과 끝	시작 — 사람을 부르심(1-2절). 끝 — 친히 쓰신 돌판(18절). 사람의 손 ↔ 하나님의 손.
4 등장인물·사상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함. 처음으로 일반인 둘이 호명됨. 짓는 재능과 솜이 함께 명해짐.
5 장면 컷	임명(1-11)·안식일(12-17)·돌판(18) 세 컷.
6 의문·발견·정보	"만들라→쉬라"의 전환, 안식일의 사형 경고, ot·berit, 창 2장 메아리, melakhah 동일어.
7 동영상	임명→안식→돌판. 사람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양 끝에서 마주 본다.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짓는 손과 쓰시는 손". 부제 — "짓는 일과 쉬는 일, 그리고 친히 쓰신 판".
9 동영상 걸기·기도	짓는 일과 솜이 함께 명해지는 자리에 서서, 어느 쪽에 매달렸는지 묻는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이름을 불러 채우심:** 그동안 기구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일반인의 이름이 불리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채워진다. 짓는 재능이 주어진 것으로 그려진다.

2. **결 2 — 만들라와 쉬라의 같은 단어:** 짓는 일과 안식일에 금하는 일이 같은 melakhah다. 성막 짓는 일조차 일곱째 날엔 멈춘다는 결이 본문에 깔린다.

3. **결 3 — 사람의 손과 하나님의 손:** 장은 사람이 짓는 손으로 열려,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으로 닫힌다. 양 끝의 손이 마주 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5-30장**(만들 것 목록). **출 35:30-36:1**(브살렐 임명의 시행). **출 20:8-11**(안식일 계명). **출 32장**(직후 — 돌판이 깨짐).
- 다른 권 — **창 2:1-3**(창조의 일곱째 날, 17절의 메아리).
- 정경 흐름 — "친히 쓰신" 돌판은 32장에서 깨지고 34장에서 다시 쓰인다. 안식의 주제는 창조에서 시작해 율법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처음 불리는 사람의 이름 앞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짓는 재능이 "지혜의 영"으로 채워진다는 그림에서 멈춘다.
- **멈춤 2:** "만들라"가 "그러나 쉬라"로 꺾이는 지점에서 멈춘다.
- **멈춤 3:** 사람의 손이 다 호명된 끝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판이 놓이는 데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일도 쉽도 명해진 것*이라는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일에만 매달린 자리에서 일과 쉬를 함께 받는 자리로* 옮긴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처음으로 일반인의 이름이 불린다
- [x] 짓는 재능이 지혜의 영으로 채워진다
- [x] 만들 것 목록이 한 번에 다시 호명된다
- [x] "만들라"가 "그러나 쉬라"로 꺾인다
- [x] 짓는 일과 안식의 "일"이 같은 단어다
- [x] 안식일이 표징이자 영원한 언약이다
- [x] 17절이 창조의 일곱째 날을 끌어온다
- [x] 장은 친히 쓰신 두 돌판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쉽.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31장 — 미해결 질문 (관찰에서 답하지 않고 보존)

LOCKED v2.0 가이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목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긴 "만들라" 목록 끝에 "쉬라"는 안식일이 붙는 까닭은?

- 관찰 사실: 13절의 "그러나"가 짓는 일과 안식을 잇는다. 두 곳 모두 동사 melakhah.

- 본문은 둘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풀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2. 짓는 일에는 없는 사형 경고가 안식일에는 두 번 붙는 까닭은?

- "죽일지니라"가 14·15절에 반복. 짓는 일에는 없음.
- 쉽게 더 무거운 말이 붙는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Q3. 안식일이 "표징"(ot)이자 "영원한 언약"으로 불리는 까닭은?

- 13·17절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 16절 "영원한 언약".
- 안식이 무엇의 표징인지의 의미는 답하지 않고 보존.

Q4. 17절이 창조의 일곱째 날을 직접 끌어오는 까닭은?

- "옛새 동안에... 일곱째 날에 쉬어 평안하셨음이니라"가 창 2:1-3과 메아리.
- 안식의 근거를 창조에 두는 결의 의미는 묵상으로.

Q5. 짓는 재능(지혜의 영)을 하나님이 직접 부여 주신다고 하는 까닭은?

- 3·6절 — 손재주·총명·지식·재주까지 "지혜"로 묶여 주어짐.
- 재능이 주어진 것이라는 결의 의미는 답 없이 보존.

Q6. 18절이 돌판을 "친히 쓰신" 것으로 강조하는 까닭은?

- 사람이 짓는 모든 기구와 대비되어, 돌판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으로 명시됨.
- 대비가 의도된 것인지, 단순 서술인지는 본문이 말하지 않음. 묵상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32장

EXO-032 · 오경 · 히브리어

산 위의 언약과 산 아래의 송아지. 깨진 두 돌판, 그리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우소서"라는 중보.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3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로 나뉘고 카메라가 위아래를 오간다: 산 아래(1-6절) → 산 위(7-14절) → 하산·산 아래(15-35절).
- 소품: 금 귀고리, 송아지 형상(egel · massekah), 단(altar), 두 돌판("하나님이 만드신 것, 글자는 하나님이 쓰신 것", 16절).
- 돌판에 새겨진 것은 charut(새긴 것, 16절). 송아지는 egel, 부어 만든 형상은 massekah.
- 시간 배경: 모세가 사십 일 산에 있음(직전 24:18), 1절의 "더디 내려오매"가 그 끝자락.
- 직전 20:4(우상 금지)가 배경으로 깔려 정면 충돌한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모세가 더디 내려오매"(1절)의 조급함으로 열린다. 산 위의 고요와 산 아래의 들끓는 축제가 동시에 돌아가는 온도 차.
- 후반은 깨진 돌판과 칼로 무거워지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우소서"(32절)에서 공기가 멎는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듬을 보고" — 조급한 기다림으로 시작.
-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 결과(치심)로 닫힘.
- 1절과 35절에 "송아지"(egel)가 양쪽에 걸림. 요구(1절) → 평가(35절).
- 닫힘이 완전하지 않음 — 모세의 중보(32절)와 여호와의 답(33절)이 다 풀리지 않은 채 33장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김.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백성 / 아론 / 여호와 / 모세 / 여호수아(17절) / 레위 자손(26절).
- 말하는 자리의 이동: 백성→아론(1절), 여호와→모세(7-10절), 모세→여호와(11-13절), 모세→아론(21절).
- 아론의 변명(22-24절): "나왔나이다"(wayyetse)로 송아지가 저절로 나온 듯 표현 — 4절의 능동적 제작과 어긋남.
- 모세의 첫 중보 논리(11-13절): ① 주의 백성 ② 애굽 사람의 비웃음 ③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약속을 근거로 함.

- 모세의 두 번째 중보(32절):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 자기를 백성과 묶음.
- 여호와와의 제안(10절):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 모세가 받지 않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산 아래 — 송아지 제작·제사·축제
- 컷 2 (7-10절): 산 위 — 여호와가 알리심, 진노(charah af)
- 컷 3 (11-14절): 산 위 — 모세의 첫 중보, 여호와가 뜻을 돌이키심
- 컷 4 (15-20절): 하산 — 여호수아와의 소리 대화, 돌판 깨뜨림, 송아지 불사름·갈아 마시게 함
- 컷 5 (21-29절): 산 아래 — 아론 추궁, 레위 자손의 헌신
- 컷 6 (30-35절): 이튿날 — 두 번째 중보·여호와와의 답·치심
- 위아래 짝: 컷 2(위에서 알려짐)와 컷 4(아래서 직접 봄)가 같은 송아지에 두 번 반응.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egel(עֵגֶל) — 송아지. 4·8·19·20·24·35절.
- massekah(מַסֵּכָה) — 부어 만든 형상. 4·8절.
- charut(חֲרוּת) — 새긴 것. 16절, 돌판의 글자.
- luchot(לְחֹט) — 돌판. 15·16·19절.
- qol(קוֹל) — 소리. 17-18절에 집중(싸우는/노래하는 소리).
- charah af(חָרָה אַף) — 진노가 맹렬함. 10절(여호와), 19절(모세), 22절(아론의 말 중).
- chag la-YHWH(חַג לַיהוָה) — 여호와와의 절기. 5절, 아론의 선포.
- chatat gedolah(חַטָּאת גְּדוֹלָה) — 큰 죄. 21·30·31절.
- sefer(סֵפֶר) — 책. 32·33절, "주의 책".
- qadesh yedchem 계열 — 헌신하다(손을 채우다). 29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진노(charah af)가 산 위(10절)와 산 아래(19절)에 한 번씩 — 같은 표현의 위아래 배치.
- 같은 사건에 대한 두 화법: 4절(아론의 능동 제작) ↔ 24절(아론의 변명, 저절로 나옴).
- 같은 소리에 대한 두 청취: 여호수아 "싸우는 소리" ↔ 모세 "노래하는 소리"(17-18절).
- 중보가 두 번 — 산 위 첫 중보(11-13절), 이튿날 두 번째 중보(31-32절).
- "큰 죄"(chatat gedolah)가 모세·아론·모세의 입에 반복(21·30·31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서 황소·송아지는 신의 좌대 또는 신성을 나타내는 동물상으로 쓰임. 본문의 송아지 형상과 병행 관찰.
- 이스라엘이 막 떠나온 이집트에 아피스 황소 숭배가 있었음. 출애굽 직후라는 시간 배경과 함께 됨.
- 5절 "여호와와의 절기"(chag la-YHWH) 선포 — 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는 혼합의 정황(배경 관찰까지).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32 ↔ 출 20:4 (우상 금지 — 정면 충돌)
- 출 32 ↔ 출 24:18 (사십 일 산에 머뭇 — 시간 배경)
- 출 32 ↔ 신 9:7-21 (모세의 회상)
- 출 32 ↔ 느 9:18 (금송아지 회상)
- 출 32 ↔ 시 106:19-23 (호렘의 송아지와 모세의 증보)
- 출 32 ↔ 고전 10:7 (먹고 마시고 뛰는 일 인용)
- 출 32 ↔ 행 7:39-41 (스테반의 회상)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사십 일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 요구하고, 아론이 금붙이로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그 앞에 단을 쌓고 제사·축제가 벌어진다. 산 위에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백성의 부패를 알리고 진노하며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나, 모세가 주의 백성·애굽의 비웃음·조상의 맹세를 들어 빌고 여호와가 뜻을 돌이키신다.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 여호수와 소리를 두고 주고받다가,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진노하여 돌판을 깨뜨리고, 송아지를 불사르고 갈아 마시게 한다. 아론을 추궁하고,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자손이 모인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올라 "그들의 죄를 사하시거나, 아니면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 빌고, 여호와는 범죄한 자를 책에서 지우겠다 하시며 백성을 치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산 위의 언약, 산 아래의 송아지"
- 초벌 부제: "위에서 새겨지는 동안, 아래에서 부어 만들어지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황소상 + 십계명 충돌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md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송아지를 갈아 마시게 한 일(20절)이 의식·심판 프레임으로 변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목상 단계로 이월.
- 레위 자손의 칼(26-29절)이 윤리·폭력 프레임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찰에서는 본문 동작과 어휘 분포만 기록.
- 33절 여호와와 그의 답이 모세의 청과 어긋나는 결은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질문으로 남김.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32장은 산 위에서 언약이 새겨지는 동안 산 아래에서 신이 부어 만들어지고, 그 어긋남 한 가운데를 한 사람이 자기를 걸고 가로막아 서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더디 내려오매"라는 조급함으로 열린다. 위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에 글자가 새겨지고(charut), 아래에서는 사람의 금붙이로 송아지가 부어 만들어진다(massekah). 카메라가 위아래를 오가며 같은 사건에 진노가 두 번 실리고, 같은 송아지에 두 번 반응한다. 그 사이에 모세의 두 중보가 놓인다 —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근거로, 하나는 자기 이름을 책에서 지워 달라는 청으로. 장은 닫히되 다 닫히지 않고, 응답의 어긋남을 남긴 채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위아래 두 무대를 카메라가 오감. 소품 — 금 귀고리·송아지(egel·massekah)·단·두 돌판(하나님이 새기심, charut).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더디 내려오매"의 조급함. 위의 고요와 아래의 들끓는 축제의 온도 차. 후반은 깨진 돌판과 "지우소서"에서 멎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내려오매 더디를 보고"(1절). 끝 — "백성을 치시니...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35절). 송아지가 양 끝에 걸리되 닫힘이 완전치 않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백성·아론·여호와·모세·여호수아·레위 자손. 말하는 자리가 백성→아론→여호와→모세→아론으로 옮겨감. 아론의 변명(24절)과 제작(4절)이 어긋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송아지(1~6). 컷 2 산 위 진노(7~10). 컷 3 첫 중보(11~14). 컷 4 깨진 돌판(15~20). 컷 5 아론·레위(21~29). 컷 6 두 번째 중보(30~35).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위·아래의 두 진노, 한 송아지의 두 화법(4절↔24절), 한 소리의 두 청취(17~18절). 정보 — charut(새김)과 massekah(부어 만들)의 대비, 두 번의 중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조급한 축제→산 위 진노와 첫 중보→깨진 돌판과 무거운 하루→자기를 건 두 번째 중보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산 위의 언약, 산 아래의 송아지". 초벌 부제 — "위에서 새겨지는 동안, 아래에서 부어 만들어지다".

단계	핵심 발견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깨진 돌판이 흩어진 산 중턱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자기를 걸고 곁에 선 한 사람을 보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새김과 부어 만들:**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시고(charut), 아래에서는 사람이 금을 부어 형상을 만든다(massekah). 두 동사가 위아래로 마주 본다.
- 결 2 — 두 번 실린 진노:** 같은 표현 charah af가 산 위 여호와(10절)와 산 아래 모세(19절)에 한 번씩 놓인다. 진노가 두 자리에 같은 결로 맺힌다.
- 결 3 — 자기를 건 중보:**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너로 큰 나라")을 받지 않고, 도리어 "내 이름을 지우소서"로 자기를 백성과 묶는다. 가장 큰 무게가 그 묶음에 실린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0:4** (우상 금지, 정면 충돌). **출 24:18** (사십 일, 시간 배경). **출 33~34** (깨진 언약 뒤의 회막과 두 번째 돌판).
- 다른 권 — **신 9:7-21** (모세의 회상). **시 106:19-23** (호렙의 송아지와 중보). **고전 10:7·행 7:39-41** (신약의 회상).
- 정경 흐름 — 언약이 주어진 직후의 어긋남이라는 결은, 정경이 거듭 "받은 자리에서의 돌아섬"을 들여다본다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더디 내려오매"의 조급함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위에서 새겨지는 동안 아래에서 부어 만들어지는 동시성에서 멈춘다.
- **멈춤 2:** 손에 든 돌판이 산 아래로 던져져 깨지는 자리(19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32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받은 자리에서도 돌아설 수 있고, 그 자리에 가로막아 서는 이가 있다는 결을 손에 친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깨진 돌판과 자기를 건 중보 사이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조급한 기다림(1절)이 신을 만드는 자리로 변진다
- [x] 위에서 새겨지고 아래에서 부어 만들어진다
- [x] 진노가 위와 아래에 한 번씩 놓인다
- [x] 같은 사건이 두 화법(4절·24절)으로 전해진다
- [x] 같은 소리가 두 청취(17~18절)로 걸린다
- [x] 모세가 두 번 중보하며, 두 번째는 자기를 건다
- [x] 장이 응답의 어긋남을 남긴 채 다 달하지 않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중보.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3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여호와가 이미 다 아시는데(7-8절) 모세는 직접 보고서야 진노한(19절) 까닭은?

- 관찰 사실: 같은 사실을 산 위에서 듣고, 산 아래서 본 뒤 반응함. 진노(charah af)가 두 자리에 한 번씩.
-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모세가 송아지를 불살라 갈아 물에 뿌려 마시게 한(20절) 까닭은?

- 관찰 사실: 형상을 가루로 만들어 백성에게 마시게 함.
- 본문은 그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3. 여호수아와 모세가 같은 소리를 다르게 들은(17-18절) 까닭은?

- 여호수아 "싸우는 소리" ↔ 모세 "노래하는 소리". 같은 qol을 두 사람이 다르게 분별.
- 두 청취의 차이는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4. 여호와의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10절)는 제안의 결은?

- 모세가 그 제안을 받지 않고 백성을 위해 빌었다는 사실은 관찰됨.
- 그 제안이 어떤 결의 제안이었는지는 본문이 풀어 말하지 않음. 해석은 뒤로.

Q5. 모세의 "나를 지우소서"(32절)와 여호와의 답(33절)이 어긋나는 까닭은?

- 모세는 자기 이름을 책에서 지워 달라 청하고, 여호와는 "범죄한 자를 지우겠다"로 답하심.
- 청과 답의 어긋남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6. 레위 자손의 헌신(29절)이 칼을 든 일과 함께 놓인 까닭은?

- "여호와의 편" 부름(26절)과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29절)가 한 단락에 함께 놓임.
- 헌신과 그 무거운 동작의 관계는 윤리 프레임으로 끌지 않고 어휘 분포만 관찰로 남김.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33장

EXO-033 · 오경 · 히브리어

함께 가실 것인가, 친히 가실 것인가. 얼굴과 얼굴로 말하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청이 오른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3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옮겨간다: 진영(1-6절) → 진 밖에 친 회막(ohel moed, 7-11절) → 바위와 바위 틈(18-23절).
- 소품: 백성의 장신구(4-6절, 떼어 냄), 구름 기둥(9-10절), 바위(tsur)·바위 틈·손(21-23절).
- 회막이 "진 밖에" 쳐진 것이 특이점(7절).
- 직전 32장(송아지 사건)이 배경으로 깔려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의 그늘이 됨.
- "얼굴을 본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왕·신 앞 알현의 관용(배경 자료까지).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3절)의 거리감과 장신구를 떼는 슬픔으로 가라앉아 열린다.
- 11절 "친구와 이야기함같이"에서 온도가 가까워졌다가, 20절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에서 다시 긴장으로 갈림. 바위 틈에서 따뜻함과 두려움이 섞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3절: "올라가라" +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 거리로 시작.
- 23절: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 "내 등을 볼 것이요" — 가까움 속의 거리로 닫힘.
- 1절과 23절에 "얼굴"(panim)의 결이 양쪽에 걸림. 가운데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직역 "내 얼굴이 가리라")가 놓임.
- 거리로 열려 다른 종류의 거리로 닫히되, 가운데가 동행으로 가까워지는 단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백성 / 여호수아(11절) / 사자(mal'akh, 2절 언급).
- 말하는 비중이 여호와와 모세 둘에 집중. 11절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 panim(얼굴)의 두 결: 11절(친밀한 대화) ↔ 20절(직접 봄, 불가). 14절(동행, "내 얼굴이 가리라").
- 모세의 청이 단계적으로 상승: 13절(주의 길을 보이사 알게 하소서) → 15절(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보 내지 마옵소서) → 18절(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 "은혜"(chen)가 12·13·16·17절에 반복 — 청의 근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명령 + "함께 가지 않겠다"

- 컷 2 (4-6절): 백성의 슬픔, 장신구를 땀
- 컷 3 (7-11절): 진 밖 회막, 구름 기둥, "얼굴과 얼굴로"
- 컷 4 (12-17절): 모세의 청과 "내가 친히 가리라"
- 컷 5 (18-23절):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바위 틈, 등을 봄
- 마주 보는 짝: 컷 1 "함께 가지 않겠다" ↔ 컷 4 "내가 친히 가리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panim(פָּנִים) — 얼굴. 11·14·15·20·23절. 친밀·동행·직접 봄의 세 결.
- ohel moed(אֹהֶל מוֹעֵד) — 회막, 만남의 천막. 7절.
- panim el panim(פָּנִים אֶל פָּנִים) — 얼굴과 얼굴로. 11절.
- chen(חֵן) — 은혜. 12·13·16·17절.
- yada(יָדָעַ) — 알다. 12·13·17절.
- derech(דֶּרֶךְ) — 길. 13절, "주의 길을 보이사".
- kavod(כְּבוֹד) — 영광. 18·22절.
- tov(טוֹב) — 선한 것. 19절,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 chanan(חָנַן) / racham(רָחַם) — 은혜 베풀 / 긍휼. 19절, 동사를 두 번 겹쳐 쓰는 어법.
- tsur(צוּר) — 바위. 21-22절. achor(אַחֲרָיִם) — 등/뒤. 23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얼굴"(panim)이 한 장에서 세 결(동행 14절·대화 11절·봄 20절)로 움직임.
- "함께 가지 않겠다"(3절) ↔ "내가 친히 가리라"(14절)의 마주 봄.
- 모세의 청이 길→동행→영광으로 단계적 상승.
- "보다"와 "알다"(yada)가 겹쳐 놓임(12-13·18절).
- 19절의 자기 지시적 어법(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 출 3장 "에호에" 결과 병행 관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서 "얼굴을 본다"는 왕·신 앞 알현을 뜻하는 관용. 본문의 panim 용법과 병행 관찰.
- 이동하는 백성의 만남 장소로서의 천막 신전 구조. 회막이 "진 밖에" 처진 정황과 함께 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33 ↔ 출 32장 (송아지 사건 — 직전 배경)
- 출 33 ↔ 출 25:22 (속죄소 위에서 만나리라)
- 출 33 ↔ 출 34:5-7 (여호와와 이름 선포로 이어짐)
- 출 33 ↔ 민 12:8 (대면하여 말하심)
- 출 33 ↔ 신 34:10 (대면하여 아신 자)
- 출 33 ↔ 요 1:18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 출 33 ↔ 고후 3:7-18 (모세의 수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여호와가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시니, 백성이 슬퍼하며 장신구를 떼어 낸다. 모세가 진 밖 멀리 회막을 치고, 그가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문에 서며 여호와가 모세와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해 말씀하신다. 그 친밀함 안에서 모세가 "주의 길을 보이사 주를 알게 하소서" 청하고, 여호와가 "내가 친히 가리라" 답하신다. 모세가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니 그 청도 들으신다. 모세가 한 걸음 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청하자, 여호와는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하시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신다.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신 뒤 등을 보이시겠다 하시며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함께 가지 않겠다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로"
- 초벌 부제: "동행을 청하던 자리에서 영광을 청하다, 그리고 바위 틈"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알현 관용 + 회막 구조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md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20절)가 신학적 가시성 논쟁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19절 자기 지시적 어법은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출 3장 결과의 병행만 표시.
- 회막이 "진 밖에" 쳐진 까닭(7절)은 송아지 사건과 연결하되 본문이 말하는 데까지만 관찰.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33장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리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는 동행으로 돌아서고, 그 동행의 친밀함 안에서 한 사람이 더 깊은 데를 청하다 얼굴은 못 보되 등을 보는 자리에 멎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송아지 사건의 그늘 위에서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라는 거리로 열린다. 백성이 장신구를 떼고, 회막이 진 밖에 처지며, 거기서 여호와가 모세와 "얼굴과 얼굴로" 친구처럼 말씀하신다. 그 친밀함 안에서 모세의 청이 길→동행→영광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고, "내가 친히 가리라"로 거리가 동행으로 돌아선다. 그러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가장 깊은 청 앞에서는, "얼굴은 보지 못하되 등은 보리라"는 바위 틈의 자리로 닫힌다. 한 단어 panim(얼굴)이 동행·대화·봄의 세 결로 움직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진영→진 밖 회막(ohel moed)→바위 틈으로 옮겨가는 무대. 소품 — 떼어 낸 장신구·구름 기둥·바위와 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함께 가지 않겠다"의 거리와 장신구를 떼는 슬픔. 11절의 친밀함에서 가까워졌다 20절에서 다시 긴장으로 갈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3절). 끝 — "내 얼굴은 보지 못하되 등을 보리라"(23절). 거리로 열려 다른 거리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 중심, 백성·여호수아. panim의 두 결(11절 대화 ↔ 20절 봄). 모세의 청이 길→동행→영광으로 상승, "은혜"(chen)가 근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거리(1~3). 컷 2 장신구(4~6). 컷 3 진 밖 회막(7~11). 컷 4 동행 약속(12~17). 컷 5 영광·바위 틈(18~23).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얼굴과 얼굴로"와 "얼굴을 못 봄"의 공존. 회막의 진 밖 위치. 정보 — panim의 세 결, 19절 자기 지시적 어법, "보다·알다"의 겹침.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거리→장신구를 떼→진 밖 회막의 친밀한 대화→"내가 친히 가리라"의 동행→영광 청과 바위 틈의 등.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함께 가지 않겠다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로". 초벌 부제 — "동행을 청하던 자리에서 영광을 청하다, 그리고 바위 틈".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진 밖 회막 결, 바위 틈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친구처럼 말씀하시되 다 보이지 않으시는 자리를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한 단어의 세 결:** panim(얼굴)이 동행(14절, "내 얼굴이 가리라")·대화(11절, "얼굴과 얼굴로")·봄(20절,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으로 움직인다. 한 단어가 장 전체를 꿰뚫는다.
- 결 2 — 거리에서 동행으로:** "함께 가지 않겠다"(3절)와 "내가 친히 가리라"(14절)가 마주 본다. 가장 큰 돌아섬이 그 사이에 놓인다.

3. **결 3 — 청과 한 선:** 모세의 청이 길→동행→영광으로 오르되, 마지막 청은 "등은 보되 얼굴은 못 본다"는 한 선에서 벗는다. 가까움과 한계가 한 자리에 같이 있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32장** (송아지 사건, 직전 배경). **출 25:22** (속죄소 위에서 만나리라). **출 34:5-7** (다음 장, 여호와와 이름 선포로 답하심).
- 다른 권 — **민 12:8·신 34:10** (대면하여 말하심/아신 자). **요 1:18**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고후 3:7-18** (모세의 수건, 신약의 결).
- 정경 흐름 — "보되 다 보지는 못함"이라는 결은, 정경이 거듭 가까움과 거룩함을 한 자리에 두고 읽게 한다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리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진 밖 회막에서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말씀하시는 자리(11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내가 친히 가리라"(14절)로 거리가 동행으로 돌아서는 순간 멈춘다.
- **멈춤 3:** "얼굴은 보지 못하되 등을 보리라"(23절)는 바위 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가장 가까운 자리에 다 보지 못하는 결이 함께 있다는 것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친밀함과 거룩함이 한 자리에 있는 바위 틈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함께 가지 않겠다"(3절)는 거리로 열린다
- [x] 회막이 진 밖에 쳐진다(7절)
- [x] "얼굴과 얼굴로" 친구처럼 말씀하신다(11절)
- [x] 거리가 "내가 친히 가리라"(14절)로 동행으로 돌아선다
- [x] 청이 길→동행→영광으로 상승한다
- [x] 영광 청에 "선한 것·이름"으로 답하신다(19절)
- [x] 얼굴은 못 보되 등을 보는 바위 틈으로 닫힌다(23절)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이름.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3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얼굴과 얼굴로"(11절)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20절)가 한 장에 같이 있는 까닭은?

- 관찰 사실: 같은 단어 panim이 친밀한 대화(11절)와 직접 봄의 불가(20절)로 같림.
- 본문은 두 절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회막이 "진 밖에"(7절) 처진 까닭은?

- 관찰 사실: 만남의 천막이 진영 안이 아니라 멀리 밖에 놓임. 직전 송아지 사건이 배경.
- 본문은 그 위치의 까닭을 직접 말하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3. "내가 친히 가리라"(14절)와 "함께 가지 않겠다"(3절)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 거리에서 동행으로 돌아서는 자리. 그 사이에 백성의 슬픔과 모세의 청이 놓임.
- 돌아섬의 까닭은 본문이 풀어 말하지 않음.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4.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18절)에 "선한 것·이름"으로 답하신 까닭은?

- 영광을 청했는데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의 선포하리라"(19절)로 답하심.
- 청과 답의 결이 어긋나는 듯한 자리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5. 19절의 자기 지시적 어법("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은 무엇을 뜻하는가?

- 같은 동사를 두 번 겹쳐 쓰는 어법. 출 3장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와 병행으로 보임.
-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두 본문의 결만 관찰로 남김.

Q6. "보다"와 "알다"(yada)가 겹쳐 놓인 까닭은?

- 12-13절에서 "알다"가 거듭되고, 18절에서 "보이소서"로 청함. 앎과 봄이 한 장에 맞물림.
- 두 동사의 짝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34장

EXO-034 · 오경 · 히브리어

깨진 돌판을 다시 깎아 올라간 자리에서,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선포하신다.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빛난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3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산 위(1-28절)와 산 아래(29-35절)로 나뉜다.
- 소품: 다시 깎은 두 돌판(luchot, 모세가 깎음 pasal), 구름, 빛나는 얼굴(qaran), 수건(masveh).
- 첫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심(32:16), 이번 둘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 올라감(1·4절).
- 시간 표지: 사십 일 사십 야, 떡도 물도 없이(28절).
- 직전 32-33장(깨진 돌판·이름과 영광 청)이 배경으로 깔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다시 깎으라"(1절)의 재시작 공기로 열린다. 이름 선포(5-7절)에서 가장 환해지고, 규례(18-26절)에서 호흡이 빨라짐.
- 후반은 본인도 모르는 빛과 수건의 신비로 조용히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시 깎으라" — 다시 새김으로 시작.
- 35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 새겨진 빛으로 닫힘.
- 1절 "돌판"(luchot) ↔ 35절 "얼굴"(panim). 무게가 돌에서 얼굴로 이동.
- 깨짐에서 시작해 언약을 만난 자의 빛으로 닫히는 단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아론(30절) / 백성(30·32절).
- 5-7절 말하는 비중이 여호와께 쏠림 — 이름 선포. 모세는 듣고 엎드림(8절).
- 이름 선포의 형용사 목록: 자비(rachum)·은혜(chanun)·노하기를 더디·인자(chesed)·진실(emet), 끝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noqeh lo yenaqeh).
- 모세의 간구(8-9절): "함께 행하시고... 죄악을 사하시고... 기업을 삼으소서" — 33장의 청이 이어짐.
- 순서: 이름 선포(누구신지, 6-7절) → 언약·규례(어떻게 살지, 10-26절) → 기록(27-28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두 돌판을 다시 깎아 산에 오름
- 컷 2 (5-9절): 이름 선포와 경배·간구

- 컷 3 (10-17절): 언약 체결, 이상 경계
- 컷 4 (18-26절): 절기·안식·만물 규례
- 컷 5 (27-28절): 돌판에 기록, 사십 일
- 컷 6 (29-35절): 빛나는 얼굴로 하산, 수건
- 마주 보는 짝: 컷 1 "다시 꺾으라"(빈 돌판) ↔ 컷 5 "기록하였더라"(채워진 돌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luchot(לוחות) — 돌판. 1·4·28·29절.
- pasal(פסוק) — 꺾다/다듬다. 1·4절, 모세가 돌판을 꺾음.
- shem(שם) — 이름. 5절, "여호와와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 rachum(רחום) — 자비로운. 6절. chanun(חנּוּן) — 은혜로운. 6절.
- chesed(חסד) — 인자. 6·7절. emet(אמת) — 진실. 6절.
- noqeh(נֹקֵה) — 벌하지 않다/면제하다. 7절,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의 강조 어법.
- berit(ברית) — 언약. 10·27·28절.
- qaran(קָרַן) — 빛을 발하다. 29·30·35절. 어근이 "뿔"(qeren)과 같음.
- panim(פָּנִים) — 얼굴. 29·33·34·35절.
- masveh(מַסְוֶה) — 수건. 33·34·35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돌판"(1절) ↔ "얼굴"(35절)의 양 끝 배치 — 돌에서 얼굴로의 이동.
- 이름 선포(6-7절)의 형용사 나열, 끝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가 더해지는 구조.
- 빈 돌판을 꺾음(1절) ↔ 글자로 채움(28절)의 마주 봄.
- 순서 — 이름(누구신지) 먼저, 규례(어떻게 살지) 다음.
- 수건의 쓰는 때(백성 앞)와 벗는 때(여호와 앞)의 교대(33-35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서 깨진 언약을 다시 세우는 갱신 의식과 돌에 조문을 새기는 관행이 보고됨. 본문의 둘째 돌판과 병행 관찰.
- 종주-봉신 조약 양식에서 규례·절기가 언약과 함께 묶이는 정황. 10-26절의 규례 묶임과 함께 됨.
- qaran의 어근이 "뿔"과 같아 후대 라틴 역이 "뿔"로 옮긴 번역사 — 빛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 번역 같림만 배경으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34 ↔ 출 32장 (깨진 첫 돌판 — 직전 배경)
- 출 34 ↔ 출 33장 (이름·영광 칭 — 직전 장, 여기서 응답됨)
- 출 34 ↔ 출 20:5-6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병행)
- 출 34 ↔ 민 14:18 (이름 선포의재인용)
- 출 34 ↔ 느 9:17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 출 34 ↔ 시 86:15·103:8 (이름 선포의 시적 재사용)

- 출 34 ↔ 고후 3:7-18 (모세의 수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아 들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오른다. 여호와가 구름 가운데 강림하여 그 이름을 선포하신다 —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는 분. 모세가 급히 엎드려 함께 행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기업을 삼아 달라 빈다. 여호와가 언약을 세우시며 우상을 경계하고 절기·안식·만물의 규례를 주신다. 모세가 사십 일 사십 야를 떡도 물도 없이 머물며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한다.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되 본인은 알지 못한다. 백성이 두려워하자 그가 불러 말씀을 전하고, 마친 뒤 얼굴에 수건을 쓴다.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는 벗고, 나와 전할 때는 다시 쓴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다시 깎은 돌판, 선포된 이름"
- 초벌 부제: "돌에 다시 새겨지는 동안, 얼굴에 새겨진 빛"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언약 갱신 + qaran 번역사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md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이름 선포의 "자비 + 벌"(6-7절)이 신학 프레임으로 변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28절 기록의 주어(모세/여호와) 모호함은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본문 그대로 둬.
- qaran의 "뿔/빛" 번역사는 배경으로만 표시하고, 본문은 빛을 가리키는 것으로 관찰.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34장은 깨진 언약을 다시 깎은 빈 돌판을 들고 올라간 자리에서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만남이 한 사람의 얼굴에 본인도 모르는 빛으로 새겨지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32-33장의 그늘 위에서 "다시 깎으라"는 재시작으로 열린다. 첫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나, 이번 둘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 올라간다. 산 정상에서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길게 선포하신다 — 자비·은혜·인자·진실, 그리고 끝에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모세가 엎드려 33장의 청을 이어 빈다. 언약이 세워지고 규례가 주어지며, 빈 돌판이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진다.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빛(qaran)이 남되 본인은 모르고, 그 빛을 수건으로 가렸다 벗었다 하며 장이 닫힌다. 무게가 돌에서 이름으로, 다시 얼굴로 옮겨간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산 위(1-28)·산 아래(29-35)의 두 무대. 소품 — 모세가 다시 깎은 돌판(pasal)·구름·빛나는 얼굴(qaran)·수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다시 깎으라"의 재시작. 이름 선포에서 가장 환해지고 규례에서 호흡이 빨라짐. 본인도 모르는 빛으로 조용히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처음 것과 같이 다시 깎으라"(1절). 끝 —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35절). 돌에서 얼굴로 무게 이동.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 중심, 아론·백성. 이름 선포(자비·은혜·인자·진실 + 별)와 모세의 간구. 순서 — 이름 먼저, 규례 다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다시 깎음(1~4). 컷 2 이름 선포(5~9). 컷 3 언약(10~17). 컷 4 규례(18~26). 컷 5 기록(27~28). 컷 6 빛나는 얼굴(29~35).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두 돌판의 만든 손이 다름. 28절 기록 주어의 모호함. 자비와 별의 공존. 정보 — qaran의 빛/뿔 번역사, 수건의 교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빈 돌판을 깎아 오름→이름 선포→경배·간구→언약과 규례→돌판에 기록→빛나는 얼굴로 하산·수건.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별 제목 — "다시 깎은 돌판, 선포된 이름". 초별 부제 — "돌에 다시 새겨지는 동안, 얼굴에 새겨진 빛".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구름 내린 산 정상, 빛나는 얼굴의 길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뢰다 — "깨진 것을 다시 들고 올라간 자리에서 이름을 들려주신 것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다시 깎음과 새 기록:** 깨진 첫 돌판(32장) 뒤에 모세가 빈 돌판을 깎아 올라가고(pasal), 그 빈 판이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진다. 깨짐이 재시작으로 이어진다.
- 결 2 — 선포된 이름:**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자비·은혜·인자·진실로 선포하시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로 닫으신다. 가장 큰 무게가 그 이름의 목록에 실린다.

3. **결 3 — 본인도 모르는 빛**: 만남의 흔적이 모세의 얼굴에 빛(qaran)으로 남되 본인은 모른다. 돌에 새겨진 언약이 얼굴에 새겨진 빛으로 옮겨 앉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32장** (깨진 첫 돌판). **출 33장** (이름·영광 청, 여기서 응답됨). **출 20:5-6**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병행).
- 다른 권 — **민 14:18·느 9:17·시 86:15·시 103:8** (이름 선포의 재인용). **고후 3:7-18** (모세의 수건, 신약의 결).
- 정경 흐름 — "선포된 이름"이라는 결은, 정경이 거듭 이 6-7절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다시 깎으라"는 재시작의 명령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는 자리(6-7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빈 돌판이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리(28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본인도 모르는 빛이 얼굴에 남은 자리(29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깨진 것을 다시 들고 올라간 자리에 이름과 빛이 함께 있다는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선포된 이름과 새겨진 빛 사이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깨진 언약이 "다시 깎으라"(1절)로 재시작한다
- [x] 둘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 올라간다
- [x]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선포하신다(6-7절)
- [x] 자비의 목록 끝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가 더해진다
- [x] 빈 돌판이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진다(28절)
- [x]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남되 본인은 모른다(29절)
- [x] 수건이 여호와 앞에선 벗기고 백성 앞에선 쓰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빛.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3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첫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둘째 돌판은 모세가 깎은(1-4절) 까닭은?

- 관찰 사실: 32:16은 하나님이 만드신 판, 34장은 모세가 깎은 판.
- 본문은 그 차이의 까닭을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28절 "기록하였더라"의 주어는 모세인가 여호와인가?

- 1절은 "내가 그 판에 쓰리라"(여호와), 28절은 "그가... 기록하였더라"로 주어가 모호함.
- 히브리어가 한 방향으로 못박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3. 이름 선포의 "자비"와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6-7절)가 한 문장에 함께 놓인 까닭은?

- 긴 자비의 목록 끝에 별에 관한 한 마디가 더해짐.
- 두 절의 관계는 본문이 풀어 말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4. 모세가 자기 얼굴의 빛을 모른(29절) 까닭은?

-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 본인은 모르고 백성이 봄.
- 그 모름의 결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5. 수건을 쓰는 때(백성 앞)와 벗는 때(여호와 앞)가 나뉘는(33-35절) 까닭은?

- 여호와 앞에선 벗고, 백성에게 전한 뒤엔 씌.
- 그 교대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6. 이름 선포(6-7절)와 규례(10-26절)가 한 묶음으로 놓인 까닭은?

- 누구신지(이름)를 먼저, 어떻게 살지(규례)를 다음에 두는 순서.
- 두 묶음의 순서는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35장

EXO-035 · 오경 · 히브리어

먼저 안식일이 못 박히고, 그 뒤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들고 나온다. 강요 없이 넘쳐나는 결.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3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시내 산 아래 진영.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한곳에 모음(1절).
- 소품 — 예물 재료: 금·은·놋, 청색·자색·홍색 실, 가는 베, 염소 털, 붉은 물 들인 숫양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와 분향 향품, 호마노와 보석(5-9절).
- 만들 물건 — 성막과 막·덮개·갈고리·널판·띠·기둥·받침, 궤와 채와 속죄소,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뜰의 포장과 말뚝, 제사장의 옷(11-19절).
- 이 재료·물건 목록은 25-31장 지시 단락의 어휘를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다.
- 안식일 규례가 성막 예물 정보다 앞에 놓임(2-3절): 옛새 일, 이렛날 안식, "불도 피우지 말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성막 이야기 앞에 안식일이 먼저 와서 의외라는 인상(참가자 다수).
- "자원하여"가 반복되어 떠밀림이 없고 가벼운 공기. 후반부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나오는 움직임의 인상.
- 25장에서 들은 단어가 다시 나오는 반복의 청각적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모세가 회중을 모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을 운 땀.
- 35절: 브살렐·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 기술과 가르치는 능력을 채우심.
- 양쪽에 "여호와께서 명하신"이 걸림. 시작은 명령, 끝은 그 명령을 행할 능력의 부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모세 / 이스라엘 온 회중 / 마음에 감동된·자원하는 남녀 /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실을 자음, 25-26절) / 지도자들(*nasi*, 보석·기름·향품, 27-28절) / 브살렐(유다 지파)과 오홀리압(단 지파).
- 반복 표현: *nasao libbo*(마음에 감동된) · *nativ lev*(마음에 자원하는) · *chokhmat lev*(마음이 지혜로운) — 셋 다 "마음"(*lev*) 포함.
- 상황은 한 방향: 모세가 청함 → 사람들이 가져옴 → 또 가져옴. 막는 자 없음.
- 31절: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과 영이 함께 묶임(본문 표면).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회중을 모음 + 안식일 규례(멈춤)
- 컷 2 (4-9절): 자원하는 예물 청 + 재료 목록
- 컷 3 (10-19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만들 물건 목록
- 컷 4 (20-29절): 물러갔다가 감동된 자·자원한 자가 예물 들고 나옴 (남녀·지도자)
- 컷 5 (30-35절): 브살렐·오홀리압 지명, 영·지혜·가르치는 능력 부여
- 컷 1만 멈춤, 나머지는 움직임. 멈춤이 움직임 앞에 놓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shabbat*(שַׁבָּת) — 안식. 2-3절. 성막 청 앞에 놓임.
- *terumah*(תְּרוּמָה) —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 5절.
- *nedavah*(נְדָבָה) / *nadiv lev*(נָדִיב לֵב) — 자원하는 (마음). 강제 부과 반대.
- *nasao libbo*(נָסְאוֹ לִבּוֹ) — '마음이 그를 들어 올린' = 감동된. 21·26절.
- *chokhmat lev*(חֻכְמַת לֵב) — 마음이 지혜로운. 10·25·35절.
- *nasi*(נָסִי) — 지도자·족장. 27절.
- *ka-asher tsivah YHWH*(כַּאֲשֶׁר צִוָּה יְהוָה) —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1·29절 등.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25-31장(지시)과 35-40장(실행)이 거울처럼 마주 봄. 안식일이 지시에선 끝(31장), 실행에선 처음(35장)에 놓여 위치가 뒤집힘.
- 재료·물건 목록이 25-31장 어휘를 거의 그대로 되풀이 — 명령·성취 패턴.
- "마음"(*lev*)이 세 표현(*nasao libbo* / *nadiv lev* / *chokhmat lev*)에 반복 배치.
-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가 후렴처럼 반복(36-40장에서 더 강해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전통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신전 건축은 보통 왕이 자재·노동을 강제 징발. 출35는 그 반대로 "자원하는 예물"이며, 일을 멈추는 안식일을 먼저 못 박음.
- 유대 전통(b.Shabbat 49b 계열): 성막 노동 종류에서 안식일 금지 노동 도출. 해석 영역이므로 배경으로만 기록.
- 32장(금 송아지)과의 대조: 같은 금이 한 번은 우상으로, 한 번은 자원한 성막 예물로 모임. 관찰에서는 어휘·방향만 기록.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35 ↔ 출 20:8-11 (안식일 계명)
- 출 35 ↔ 출 25:1-9 (예물 받는 첫 지시)
- 출 35 ↔ 출 31:1-11 (브살렐·오홀리압 첫 언급)
- 출 35 ↔ 출 31:12-17 (안식일 명령의 첫 자리)
- 출 35 ↔ 출 36-39 (예물의 실제 사용)
- 출 35 ↔ 고후 9:7 (즐거 내는 자를 사랑하심) — 신약 병행,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세가 온 회중을 모은다. 첫 말은 일이 아니라 멈춤 — 이렛날 안식, 불도 피우지 말라. 그다음에야 청이 나온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예물을 가져오라." 재료가 호명되고, 만들 물건이 호명된다. 회중이 물러갔다다 다시 돌아오는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다. 감동된 남녀가 패물을 가져오고, 여인들은 손수 실을 자아 가져오며, 지도자들은 보석과 기름을 가져온다. 그 흐름의 끝에서 두 사람—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호명되고, 영의 충만함과 지혜·기술, 가르치는 능력까지 받는다. 멈춤에서 시작해 자원하는 손들이 모이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세워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멈춤을 먼저, 그다음 손"
- 초벌 부제: "안식 뒤에 오는 자원함 — 마음·지혜·영"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신전 자재 징발 대조 + 25-31장 거울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안식일이 성막 청 앞에 온 까닭이 해석 질문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 32장 금 송아지와 대조가 신학 프레임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찰에서는 "같은 금, 다른 방향"의 어휘 대조까지만.
- "영의 충만"(31절)이 은사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본문 표면(일+영의 묶임)까지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35장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멈춤을 먼저 못 박고, 그 뒤에 마음이 감동된 손들이 자원하여 모이는 장이다.

한 문단: 모세가 온 회중을 모이지만, 첫 말은 일이 아니라 안식이다. 옛새 일, 이렛날 안식, 불도 피우지 말라. 그 멈춤 뒤에야 성막 예물의 청이 나온다. 25-31장에서 한 번 들었던 재료와 물건 목록이 거의 그대로 되풀이되고, 사람들은 물러갔다가 손에 예물을 들고 다시 나온다. 끝에는 두 사람이 이름으로 호명되어 영의 충만함과 기술, 가르치는 능력을 받는다. 명령이 능력으로 이어지는 결을 같이 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시내 산 아래 진영, 온 회중 소집. 소품 — 금·은·놋·실·베·가죽·조각목·기름·향품·보석. 만들 물건 — 성막 일습과 제사장 옷. 안식일이 청 앞에 놓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성막 앞 안식일이 의외. "자원하여"의 가벼운 공기. 25장 어휘의 반복이 청각적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회중 소집과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1절). 끝 — 명령을 행할 기술·가르치는 능력의 부여(35절). 양쪽에 "여호와께서 명하신"이 걸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모세·온 회중·감동된 남녀·슬기로운 여인들·지도자들·브살렐(유다)·오홀리압(단). "마음"(*lev*)이 세 표현에 반복.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안식일(1~3). 컷 2 예물 청(4~9). 컷 3 만들 물건 목록(10~19). 컷 4 예물 들고 나옴(20~29). 컷 5 브살렐·오홀리압 지명(30~35). 컷 1만 멈춤, 나머지 움직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안식일이 청 앞에 온 까닭. 25-31장과 35-40장의 거울 구조(안식일 위치 뒤집힘). 32장 금과의 방향 대조. 두 사람만 호명되는 까닭.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소집→멈춤→청→재료·물건 호명→물러감→자원하여 들고 나옴→일꾼 세워짐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멈춤을 먼저, 그다음 손". 초벌 부제 — "안식 뒤에 오는 자원함 — 마음·지혜·영".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모인 회중 사이를 걸으며 묻는다 — "제 마음이 감동되어 무엇을 들고 나온 적이 언제였는지요."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멈춤이 일 앞에 온다:** 성막을 짓는 거대한 일 앞에, 일을 멈추는 안식일이 먼저 못 박힌다(2-3절). 본문은 움직임을 멈춤 위에 올려놓는다.

2. **결 2 — "마음"이 세 번 반복된다:** 감동된 마음(*nasao libbo*)·자원하는 마음(*nadiv lev*)·지혜로운 마음(*chokhmat lev*). 예물도 기술도 다 "마음"에서 나온다.

3. **결 3 — 명령이 능력으로 이어진다:** 시작의 "여호와께서 명하신"(1절)이 끝의 "만들 능력을 채우심"(35절)으로 닫힌다. 명령만 있고 능력이 없지 않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5:1-9(예물을 받으라는 첫 지시). 출 31장(브살렐·오홀리압과 안식일의 첫 자리). 출 36-39장(여기 모인 예물의 실제 사용).
- 대조 — 출 32장(같은 금이 송아지로 모임 / 여기선 자원하여 성막으로).
- 다른 권 — 고후 9:7("즐거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 자원함의 결).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일을 시작하려는 한 사람이, 멈춤을 먼저 들으며 잠시 선다.
- 멈춤 1: 성막 청 앞에 놓인 안식일에서 멈춘다.
- 멈춤 2: "마음이 감동된 자"라는 말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멈춘다.
- 멈춤 3: 같은 금이 한 번은 우상, 한 번은 예물이 되는 갈림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명령에는 능력이 함께 온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자원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묻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안식일이 성막 청 앞에 먼저 놓인다
- [x] 예물은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이다
- [x] "마음"이 세 표현에 반복된다
- [x] 재료·물건 목록이 25-31장을 되풀이한다
- [x] 남녀와 지도자가 함께 가져온다
- [x] 브살렐·오홀리압이 영과 기술·가르침을 받는다
- [x] 명령(1절)이 능력(35절)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자원함.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3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왜 성막 예물 청 앞에 안식일이 먼저 놓이는가?

- 관찰 사실: 1절 회중 소집 → 2-3절 안식일 → 4절 이후 예물 청.
- 본문은 그 순서의 이유를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Q2. "불도 피우지 말라"(3절)가 따로 명시된 까닭은?

- 안식일 금지 중 "불"이 특정되어 나옴.
-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어휘 위치만 기록.

Q3. 25장의 "예물을 받으라"와 35장의 "예물을 가져오라"의 단계 차이는?

- 25:1-9에선 하나님이 모세에게, 35:4 이후엔 모세가 백성에게.
- 같은 칭이 전달되는 단계의 차이는 본문이 따로 설명하지 않음.

Q4. "마음"(*lev*)이 세 표현에 반복되는 결은?

- *nasao libbo*(감동된) · *nativ lev*(자원하는) · *chokhmat lev*(지혜로운).
- 세 결의 "마음"이 같은 것인지, 다른 층위인지는 관찰에서 어휘 분포만.

Q5. 왜 브살렐과 오홀리압만 이름으로 호명되는가?

- 유다 지파·단 지파 두 사람. 다른 일꾼은 익명.
- 두 사람에게 "가르치는 능력"(35절)이 더해진 이유는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음.

Q6. 32장의 금과 35장의 금은 어떤 관계인가?

- 같은 백성이 같은 금을 한 번은 송아지로, 한 번은 자원한 성막 예물로 모음.
- 이 대조가 의도된 결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36장

EXO-036 · 오경 · 히브리어

예물이 넘쳐 도리어 그치게 한다. 25-26장의 지시가 이제 손으로 옮겨지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가 후렴이 된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3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시내 산 아래 진영. 앞(2-7절)은 예물 수합·정리, 뒤(8-38절)는 제작 작업장.
- 소품 — 아침마다 들어오는 예물(3절); 열 폭 휘장, 염소 털 휘장, 붉은 숫양 가죽·해달 가죽 덮개, 조각목 널판, 은받침, 띠, 안 휘장(그룹 수놓음), 출입구 휘장, 기둥·갈고리·받침(8-38절).
- "성막"(*mishkan*, 거하는 곳), "휘장"(*yeriah*, 폭천), "널판"(*qeresh*, 안 휘장의 "그룹"(*keruvim*, 35절).
- 8-38절은 26장 지시를 거의 그대로 실행으로 되풀이.
- 고대 근동 성소 건축은 자재 부족이 흔한데, 여기서도 도리어 "남았다"(7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예물이 모자라지 않고 넘쳐 말리는 장면의 의외성(참가자 다수).
- 26장 어휘가 다시 나와 "들은 적 있는" 반복의 인상.
- "만들되"의 반복으로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영상감. 정밀한 수치(규빗·개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 일의 선언.
- 38절: 기둥·갈고리·놋받침 다섯의 제작 보고 — 완료.
- 시작은 "하리라"(선언), 끝은 "만들었더라"(완료). 명령이 실행으로 닫힘.
- 35장 끝(브살렐·오홀리압 호명)과 36장 시작(그 이름으로 일 착수)이 매끄럽게 이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브살렐 / 오홀리압 /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chokhmat lev*) / 모세 / 예물을 들고 오는 백성.
- 상황 둘로 갈림: 앞(2-7절) "넘침" — 일꾼들이 일을 멈추고 보고, 모세가 "그치라" 명령, 백성이 그침. 뒤(8-38절) "제작".
- "일"(*mlakhah*)이 반복(5·7절 등). "마음이 지혜로운"(1·8절)이 35장 표현을 이음.
- 본문 표면: 일꾼들이 "남는다"고 보고하고, 멈추라는 명령이 내려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지혜로운 자들이 명하신 대로 일하리라

- 컷 2 (2-7절): 예물 넘침 → 보고 → "그치라" 명령 → 그침 (남음)
- 컷 3 (8-13절): 열 폭 휘장(그룹 수놓음, 갈고리 연결)
- 컷 4 (14-19절): 염소 털 휘장과 가죽 덮개들
- 컷 5 (20-34절): 조각목 널판·은받침·띠
- 컷 6 (35-38절): 안 휘장(그룹)·출입구 휘장·기둥·받침
- 컷 2만 내러티브, 나머지는 제작 목록.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chokhmat lev*(לֵב חָכְמָה) — 마음이 지혜로운. 1·8절. 35장에서 이어짐.
- *mlakhah*(מְלָאָה) — 일·작업. 5·7절 등 반복.
- *dayyam vehoter*(וְהוֹתֵר יָמָיו) — "넉넉하여 남았다". 7절.
- *mishkan*(מִשְׁכָּן) — 성막, '거하는 곳'.
- *yeriah*(יְרִיעָה) — 휘장, 천막 폭천. 8절 이하.
- *qeresh*(קֶרֶשׁ) — 널판. 20절 이하.
- *keruvim*(כְּרוּבִים) — 그룹. 안 휘장에 수놓음(35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8-38절이 26장 지시를 "명령-성취" 형식으로 되풀이: "너는 만들지니라" → "그가 만들었으며".
- 36-39장 전체가 25-31장 지시의 실행 보고로, 거울처럼 마주 봄.
- 컷 2(2-7절)만 내러티브로, 제작 목록 사이에 끼인 한 장면.
-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가 후렴처럼 시작에 박힘(1절), 39장에서 더 강해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본문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성소 건축은 자재 부족이 흔한 문제 / 출36은 "남았다"는 보고로 반대.
- 직조·금속 세공의 분업 길드 관행 / 성막 일꾼의 분업 작업과 병행 관찰.
- 70인역에서 36-39장 단락의 순서·분량이 마소라 본문과 차이 큼. 배경으로만 기록.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36 ↔ 출 25:1-9 (예물 받는 지시)
- 출 36 ↔ 출 26장 (성막 휘장·널판 지시의 원형)
- 출 36 ↔ 출 35:4-29 (자원하는 예물 모음)
- 출 36 ↔ 출 35:30-35 (브살렐·오홀리압 부름)
- 출 36 ↔ 출 39:32,42-43 (제작 완료 총괄 보고)
- 출 36 ↔ 고후 8:2-3 (넘치는 연보) — 신약 병행,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지혜로운 손들이 일을 시작하려는데, 예물이 아침마다 계속 들어온다. 일꾼들이 손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남습니다" 보고한다. 모세가 진영에 "그치라" 명령을 돌리니 백성이 비로소 멈추고, 재료는 넉넉하여 남는다. 이제 손이 움직인다. 열 폭 휘장이 짜여 그룹이 수놓이고 갈고리로 이어지며, 그 위에 염소 털과 가죽 덮

개가 덮인다. 조각목 널판이 은받침에 세워지고 띠로 묶여 벽이 된다. 마지막으로 안쪽을 가르는 휘장에 그룹이 정교히 수놓이고, 출입구 휘장과 기둥이 놓여 거처가 모양을 갖춘다. 들었던 도면이 그대로 손으로 옮겨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넘쳐서 멈추다, 그리고 명하신 대로"
- 초벌 부제: "넘침의 멈춤, 그리고 명하신 대로의 실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자재 부족 대조 + 26장 거울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넘쳐서 멈춤"(2-7절)이 헌금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찰에서는 "남았다"는 보고와 "그치라" 명령의 본문 표면까지만.
- 지시(26장)와 실행(36장)의 반복이 "왜 두 번?"의 해석으로 번지지 않도록, 어휘 대응 관찰까지만.
- 안 휘장의 그룹(35절)이 법궤 그룹과의 신학 연결로 번지지 않도록, 위치·수놓음 사실까지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36장은 예물이 넘쳐서 멈추게 하고, 그 뒤에 26장에서 들었던 도면이 손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장이다.

한 문단: 지혜로운 손들이 일을 시작하려는데, 백성이 아침마다 예물을 들고 와 쓸 것보다 많아진다. 일꾼들이 멈추고 보고하니, 모세가 "그치라" 명령을 돌리고 재료는 넉넉하여 남는다. 그 위에 26장의 지시가 한 단 어씩 실행으로 옮겨진다 — 휘장·덮개·널판·받침·안 휘장이 차례로 만들어진다. 명령이 실행으로 달히는 결을 같이 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시내 산 아래 진영. 앞은 예물 수합, 뒤는 작업장. 소품 — 휘장·가죽 덮개·널판·은받침·안 휘장(그룹). *mishkan*·*yeriah*·*qeresh*. 26장 지시의 실행.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예물이 넘쳐 말리는 의외성. 26장 어휘의 반복. "만들되"의 부지런한 영상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1절, 선언). 끝 — 기둥·받침 제작 보고(38절, 완료). 35장과 매끄럽게 이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브살렐·오홀리압·지혜로운 자들·모세·예물 든 백성. 상황 둘 — 넘침(2~7)과 제작(8~38). *mlakhah*(일) 반복.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일의 선언(1). 컷 2 넘침·그침(2~7). 컷 3 열 폭 휘장(8~13). 컷 4 가죽 덮개(14~19). 컷 5 널판·받침(20~34). 컷 6 안 휘장·기둥(35~38). 컷 2만 내러티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지시·실행을 두 번 적는 까닭. "남았다"는 넘침. "그치라"의 멈춤. 안 휘장 그룹과 법궤 그룹의 관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일 착수→예물 넘침→보고→"그치라"→그침→휘장·덮개·널판·안 휘장 제작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넘쳐서 멈춘다, 그리고 명하신 대로". 초벌 부제 — "넘침의 멈춤, 그리고 명하신 대로의 실행".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예물 쌓인 작업장을 걸으며 묻는다 — "넉넉하여 '그만'이라 말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아는지요."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넘쳐서 멈춘다:** 예물이 부족이 아니라 넘쳐 "그치라" 명령이 내려진다(6-7절). 본문은 멈춤을 넘침 위에 둔다.
- 결 2 — 지시가 실행으로 옮겨진다:** 26장의 "만들지니라"가 36장의 "만들었으며"로 동사만 바뀌어 되풀이된다. 들은 대로 손이 움직인다.
- 결 3 — 내러티브 한 컷이 목록 사이에 끼인다:** 제작 목록(8-38절) 앞에 사람들의 행동 장면(2-7절)이 놓인다. 일은 사람의 자원함 위에서 시작된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6장**(여기 실행되는 휘장·널판 지시의 원형). **출 35:4-29**(여기 넘친 예물의 출처). **출 39:42-43**(전체 제작 완료의 총괄 보고).
- 이어짐 — **출 35:30-35**(브살렐·오홀리압 호명이 36:1로 이어짐).
- 다른 권 — **고후 8:2-3**("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 넘치는 연보의 결).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일을 시작하려는 한 사람이, 들어오는 예물의 넘침을 본다.
- 멈춤 1: "쓸 것보다 남는다"는 보고에서 멈춘다.
- 멈춤 2: "그치라"는 명령에서, "그만"을 말할 줄 아는 자리에 멈춘다.
- 멈춤 3: 26장에서 들었던 말이 그대로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들은 대로 손이 움직인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넘침과 멈춤 사이* 어디쯤에 세운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예물이 넘쳐 멈추게 한다
- [x] 재료가 넉넉하여 남았다
- [x] 26장 지시가 손으로 실행된다
- [x] "명하신 대로"가 시작에 박힌다
- [x] 제작 목록 사이에 한 내려티브가 끼인다
- [x] 35장과 매끄럽게 이어진다
- [x] 선언(1절)이 완료(38절)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실행.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3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왜 본문은 지시(26장)와 실행(36장)을 거의 같은 말로 두 번 적는가?

- 관찰 사실: 8-38절이 26장과 동사만 바뀐 채 대응.
- 본문은 그 반복의 이유를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Q2. 예물이 "남았다"(7절)는 보고는 어떤 결인가?

- 부족이 아니라 넘침. 성경에서 흔치 않은 보고.
- 본문은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음. 어휘 사실만 기록.

Q3. "그치라"는 명령(6절)의 결은 무엇인가?

- "더 하라"가 아니라 "그만"의 명령. 모세가 진영에 돌림.
- 왜 멈춤이 필요했는지는 본문이 따로 말하지 않음.

Q4. 일꾼들이 일을 멈추고 보고하러 온 까닭은?

- 2-5절: 일하던 자들이 손을 멈추고 모세에게 옴.
- 본문은 일꾼들의 내면을 묘사하지 않음. 행동만 기록.

Q5. 안 휘장의 그룹(35절)은 법궤 위 그룹과 어떤 관계인가?

- 안 휘장에 그룹을 정교히 수놓음. 37장 속죄소 그룹과의 관계.
- 본문은 여기서 그 연결을 설명하지 않음. 위치·수놓음 사실만.

Q6. 컷 2(넘침 내러티브)가 제작 목록 사이에 놓인 결은?

- 제작 목록 사이에 사람들의 행동 장면이 끼임.
- 이 배치가 의도된 결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37장

EXO-037 · 오경 · 히브리어

브살렐이 손수 법궤와 속죄소, 진설병 상, 등잔대, 분향단을 만든다. 25-30장의 안쪽 기구가 한 사람의 손에서 차례로 빚어지는 걸.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3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36장과 같은 작업장. 단, 큰 천이 아니라 손에 드는 정밀 기구의 공방.
- 소품 — 법궤+속죄소+두 그룹(1-9절), 진설병 상+그릇들(10-16절), 등잔대+일곱 등잔(17-24절), 분향단(25-28절), 관유·향(29절).
- 재료 — 조각목+순금이 주류, 등잔대는 순금 한 덩이(miqshah). 채와 고리가 운반 장치로 반복.
- 원어 — "궤"(*aron*), "속죄소"(*kapporet*, 덮음·속죄 어근 kpr), "그룹"(*keruvim*), "등잔대"(*menorah*), "쳐서 만든"(*miqshah*, 24절).
- 배경 — 날개 펼친 수호 형상의 도상, 신상 운반 궤의 채 구조와 병행(해석 아닌 배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한 사람("브살렐이 만들되")이 묵묵히 손을 움직이는 인상. 대화 없음.
- "순금"의 반복으로 반짝이는 질감. 36장의 천·가죽과 대비되는 금속·정밀함.
- 치수의 또박또박한 나열이 도면을 따라 읽는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 가장 안쪽·가장 큰 기구.
- 29절: "거룩한 관유와 정결한 향을 만들었더라" — 형체 없는 기름·향.
- 단단한 금에서 향기로 가는 흐름. 시작과 끝 모두 "만들었더라"와 브살렐의 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사실상 브살렐 한 사람(1절 호명 후 계속 "그가 만들되"). 대화·사건 없음.
- 사물이 전면에 섬: 궤·속죄소·그룹 둘·상과 그릇들·등잔대와 부속·분향단·관유·향.
- 그룹(7-9절): 속죄소 양 끝에 한 덩이로 이어짐, 날개로 덮음, 얼굴 서로 마주함 — 25:18-20 지시와 거의 동일.
- 상황: 한 사람이 다섯 기구를 차례로 빚는 연속 작업. 본문 표면의 인상은 "정밀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절): 법궤 → 속죄소·두 그룹
- 컷 2 (10-16절): 진설병 상 → 상 위 그릇들

- 컷 3 (17-24절): 등잔대(한 덩이, 여섯 가지, 살구꽃 잔, 일곱 등잔, 한 달란트)
- 컷 4 (25-28절): 분향단(네 뿔, 채와 고리)
- 컷 5 (29절): 관유·정결한 향
- 컷 5만 형체 없는 것 — 만지는 것에서 향기로 넘어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aron*(אֲרוֹן) — 궤·상자. 1절.
- *kapporet*(כַּפֹּרֶת) — 속죄소, '덮는 것'. 어근 kpr(덮다·속죄하다)와 연결. 6절.
- *keruvim*(כְּרֻבִים) — 그룹. 7-9절.
- *shulchan*(שֻׁלְחָן) — 상. 10절.
- *menorah*(מְנוֹרָה) — 등잔대. 17절.
- *miqshah*(מִקְשָׁה) — 쳐서 한 덩이로 만든. 등잔대(17·22·24절).
- *mizbeach*(מִזְבֵּחַ) — 단. 분향단(25절).
- *shemen hammishchah*(שֶׁמֶן הַמִּשְׁחָה) — 거룩한 관유. 29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1-28절이 25장(궤·상·등잔대)과 30장(분향단·관유·향) 지시를 "명령-성취" 형식으로 실행으로 옮김.
- 기구 순서: 가장 안쪽 법궤부터 시작 — 36장의 바깥부터와 방향이 다름.
- 각 기구가 "그가 만들되 → 치수 → 부속 → 채/고리"의 정형 리듬으로 나열.
- 컷 5(관유·향)가 형체 있는 기구 목록 끝에 다른 결로 붙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본문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날개 펼친 수호 형상(체류/스핑크스)이 왕좌·신전 위에 놓이는 도상 / 속죄소 그룹과 병행.
- 신상 운반 궤·가마에 채(막대)를 끼우는 구조 / 법궤·상·분향단의 채와 비교.
- 금 세공 망치질(miqshah)로 한 덩이에서 형태를 내는 기법 / 등잔대 제작.
- 70인역에서 37-38장 기구 단락의 순서·범위가 마소라 본문과 차이. 배경으로만 기록.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37 ↔ 출 25:10-22 (법궤·속죄소 지시)
- 출 37 ↔ 출 25:23-30 (진설병 상 지시)
- 출 37 ↔ 출 25:31-40 (등잔대 지시)
- 출 37 ↔ 출 30:1-10 (분향단 지시)
- 출 37 ↔ 출 30:22-38 (관유·향 지시)
- 출 37 ↔ 히 9:3-5 (지성소 기구 요약) — 신약 병행,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브살렐이 가장 안쪽 기구부터 손에 잡는다. 조각목으로 궤를 짜 안팎에 순금을 입히고, 금 테와 고리·채를 단다.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양 끝에서 두 그룹을 한 덩이로 빚어 날개로 덮고 얼굴을 마주하게 한다. 이어 진설병 상에 테와 그릇들을 얹고, 순금 한 덩이를 두드려 여섯 가지와 살구꽃 잔, 일곱 등잔의 등잔대를 빛

다. 그다음 분향단에 네 뿔과 채를 내고, 마지막으로 만질 수 없는 관유와 정결한 향을 향 만드는 법대로 조제한다. 한 사람의 손이 안쪽 기구부터 차례로 나아가다 향기로 닿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안쪽부터 — 궤에서 향까지"
- 초벌 부제: "가장 안쪽 기구의 제작 — 궤·상·등잔대·분향단·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그룹 도상·채 구조·miqshah 기법 + 25/30장 거울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속죄소(*kapporet*)의 어근(kpr)이 속죄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찰에서는 어근 연결과 "덮음" 사실까지만.
- 그룹·날개·마주 봄이 신학 상징으로 번지지 않도록, 25:18-20 지시와의 어휘 일치와 형태 사실까지만.
- 기구 순서(안쪽부터)가 성소 신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36장과의 방향 대비 사실까지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37장은 브살렐 한 사람의 손이 가장 안쪽 기구부터 차례로 빗어, 형체 있는 금에서 만질 수 없는 향으로 닿는 장이다.

한 문단: 36장이 성막의 바깥 구조를 세웠다면, 37장은 그 안에 들어갈 기구다.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가장 안쪽 법궤가 먼저다. 궤와 속죄소, 두 그룹, 진설병 상, 등잔대, 분향단이 25장과 30장의 지시 그대로 손으로

옮겨지고, 끝에는 형체 없는 관유와 향이 조제된다. 한 사람의 손과 정밀한 치수가 흐트러짐 없이 이어지는 결을 같이 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정밀 기구 공방. 소품 — 법궤·속죄소·그룹·상·등잔대·분향단·관유·향. 재료 — 조각목 +순금, 등잔대는 한 덩이(*miqshah*). *aron*.*kapporet*.*menorah*.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한 사람이 묵묵히 손을 움직임. "순금"의 반짝임. 36장의 천·가죽과 대비되는 금속·정밀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법궤(1절, 가장 안쪽). 끝 — 관유·정결한 향(29절, 형체 없음). 단단한 금에서 향기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사실상 브살렐 한 사람. 대화 없음. 사물이 전면. 두 그룹은 날개로 덮고 얼굴을 마주함 (25:18-20과 일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법궤·속죄소(1~9). 컷 2 상(10~16). 컷 3 등잔대(17~24). 컷 4 분향단(25~28). 컷 5 관유·향(29). 컷 5만 형체 없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안쪽부터 시작하는 순서. 25:22 만남의 약속이 제작 보고엔 부재. 등잔대 *miqshah* 기법. 등잔대만 채 없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법궤→속죄소·그룹→상→등잔대→분향단→관유·향의 한 손 작업의 흐름. 안쪽부터 향기까지.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안쪽부터 — 궤에서 향까지". 초벌 부제 — "가장 안쪽 기구의 제작 — 궤·상·등잔대·분향단·향".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막 벗어진 기구 사이를 걸으며 묻는다 — "가장 안쪽부터 빛으시는 손의 차례를 제가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안쪽부터 빛는다:** 36장은 바깥 구조부터였으나, 37장 기구는 가장 안쪽 법궤(1절)부터 시작한다. 손의 차례가 안에서 밖으로 흐른다.
- 결 2 — 한 사람의 손:** 1절 호명 뒤 대화도 사건도 없이 "그가 만들되"만 이어진다. 인물이 좁혀지고 사물이 전면에 선다.
- 결 3 — 금에서 향으로:** 단단한 금속 기구들 끝에 형체 없는 관유와 향(29절)이 놓인다. 만지는 것에서 만질 수 없는 것으로 닫힌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5:10-40**(여기 실행되는 궤·상·등잔대 지시의 원형). **출 30:1-10, 22-38**(분향단·관유·향 지시). **출 36장**(바깥 구조, 방향이 반대).
- 대비 — **출 25:22**("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 제작 보고엔 부재).
- 다른 권 — **히 9:3-5**(지성소 안 기구의 요약 — 궤·속죄소·그룹·상·등잔대).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가장 안쪽 기구—법궤—를 손에 잡는 데서 멈춘다.

- **멈춤 1:** 두 그룹이 날개로 덮고 얼굴을 마주하는 상태에서 멈춘다.
- **멈춤 2:** 한 덩이를 두드려 빛는 등잔대(miqshah)에서 멈춘다.
- **멈춤 3:** 단단한 기구 끝에 향이 조제되는 다른 곁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손의 차례가 안에서 밖으로 흐른다*는 곁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가장 안쪽부터 빛으시는 손*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곁:

- [x] 기구 제작이 가장 안쪽 법궤부터 시작한다
- [x] 사실상 브살렐 한 사람의 손이다
- [x] 두 그룹이 날개로 덮고 얼굴을 마주한다
- [x] 등잔대는 한 덩이로 쳐서 만든다
- [x] 25·30장 지시가 그대로 실행된다
- [x] 단단한 금에서 형체 없는 향으로 단힌다
- [x] 치수와 재료가 흐트러짐 없이 이어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안쪽.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3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곁.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왜 기구 제작은 가장 안쪽 법궤부터 시작하는가?

- 관찰 사실: 36장은 바깥 구조부터, 37장은 안쪽 법궤부터.
- 본문은 그 순서의 이유를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Q2. 제작 보고에서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25:22)는 왜 빠지는가?

- 25장 속죄소 지시에 있던 만남의 약속이 37장 제작 보고엔 없음.
- 본문은 만드는 것만 적음. 어휘 부재 사실만 기록.

Q3. 두 그룹이 "얼굴을 서로 대하여"(9절) 만들어진 곁은?

-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얼굴을 마주함. 25:18-20 지시와 일치.
- 그 마주 봄의 곁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형태 사실만.

Q4. 등잔대를 "한 덩이로 쳐서"(miqshah, 24절) 만든 까닭은?

- 이어 붙이지 않고 한 달란트 순금을 두드려 통째로 빚음.
- 왜 그 기법인지는 본문이 따로 말하지 않음. 방식 사실만.

Q5. 왜 어떤 기구는 채(운반 막대)가 있고 등잔대는 없는가?

- 궤·상·분향단엔 채, 등잔대엔 채 언급 없음.
- 운반 방식의 차이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분포만 기록.

Q6. 왜 형체 없는 관유·향(29절)이 기구 목록 끝에 붙는가?

- 만지는 기구들 뒤에 기름·향이 따라옴.
- 이 배치가 의도된 결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38장

EXO-038 · 오경 · 히브리어

만든 것을 다 만든 뒤, 본문은 무게를 단다. 봉사한 여인들의 거울이 물두멍이 된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3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성막 제작 작업장 (시내산 아래 진영). 37장이 내부 기구라면 38장은 바깥 뜰의 기물과 울타리.
- 소품: 번제단(조각목·놋·뿔·넛·그물·채·기구), 물두멍과 받침, 뜰 포장·기둥·받침·말뚝·줄.
- 재료가 셋: 번제단·물두멍·뜰 기물은 놋(nechoshet). 후반 결산은 금·은·놋을 따로 셈.
- 무게 단위: 달란트(kikkar)·세겔(sheqel), 기준은 "성소의 세겔"(sheqel ha-qodesh).
- 물두멍은 회막 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mar'ot)로 만들 (8절).
- 일꾼: 브살렐·오홀리압(21-23절). 결산: 레위 사람이 이다말(아론의 아들) 손 아래에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만들고, 만들고"가 이어지는 손의 공기로 열린다. 흥분 없는 차분·꼼꼼한 결.
- 후반에서 회계 장부처럼 무게를 세는 칸으로 분위기가 전환됨.
- 8절 거울 한 줄이 목록 사이에 사람의 걸로 끼어 있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가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 만드는 동작으로 시작.
- 31절: 뜰 사면의 말뚝과 모든 기구의 말뚝 — 가장 작은 부속까지 적고 닫힘.
- 큰 것(번제단)→작은 것(말뚝). 제작과 결산이 한 장에 같이 닫힘.
- "만들었다"로 열려 "셈이 다 맞았다"로 닫히는 단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브살렐 / 오홀리압 / 모세 / 이다말 / 회막 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8절).
- 대사가 없는 장. 행동과 셈으로만 채워짐.
- 여인들은 이름 없이 "봉사하는"(tsove'ot, tsava 어근)으로 불림. 자기 거울을 내놓음.
- 21절: "이것은 증거막 곧 성막을 위하여 계산한 것이라" — 다 세어 기록으로 남기는 태도.
- 만든 사람과 셈한 사람이 따로 적힘 (책임의 분리).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놋 번제단 — 뿔·그물·채·기구
- 컷 2 (8절): 물두멍과 받침 — 여인들의 거울로

- 컷 3 (9-20절): 뜰 — 사면 포장·기둥·받침·말뚝
- 컷 4 (21-23절): 결산 머리말 — 누가 셈하고 누가 만들었는가
- 컷 5 (24-31절): 금·은·놋 무게 결산과 쓰임
- 전환점: 컷 3→컷 4에서 만들기→세기로 결이 바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mizbeach(מִזְבֵּחַ) — 제단. 1절 번제단.
- nechoshet(נְחֹשֶׁת) — 놋/청동. 번제단·물두멍·뜰 기물의 재료.
- kiyyor(כִּיּוֹר) — 물두멍. 8절. 손발을 씻는 그릇 (지시는 30:18-21).
- mar'ot(מַרְאוֹת) — 거울. 8절.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
- tsove'ot(צֹבְאוֹת) — 봉사하는/무리 지어 섬기는 여인들. tsava 어근.
- chatser(חֲצֵר) — 뜰. 9절 이하.
- pequdim(פְּקוּדִים) — 계수된 것/결산. 21절 "계산한 것".
- kikkar(כִּכָּר) — 달란트 (무게 단위).
- sheqel(שֶׁקֶל) — 세겔. sheqel ha-qodesh(성소의 세겔)이 기준.
- qodesh(קֹדֶשׁ) — 성소/거룩. "성소의 세겔"에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제작 보고(1-20절)와 결산 장부(21-31절)의 두 단락 결합.
- 큰 단(1절)→작은 말뚝(31절)의 하향 inclusio.
- "만들었다"(asah)의 반복이 제작 단락의 골격.
-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 39·40장으로 이어질 후렴의 선취.
- 8절의 거울→물두멍이 목록 한복판에 끼인 사람의 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서 성소·신전 재물을 무게로 달아 결산하는 관행이 보고됨. 24-31절의 결산과 병행 관찰.
- 고대 거울은 연마한 청동이었음 — 8절의 거울이 놋 물두멍이 된 정황과 맞물림.
- 본문은 거울의 출처와 결산의 까닭을 더 설명하지 않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38 ↔ 출 27:1-8 (번제단 지시)
- 출 38 ↔ 출 30:18-21 (물두멍 지시)
- 출 38 ↔ 출 27:9-19 (뜰 지시)
- 출 38 ↔ 출 30:11-16 (반 세겔 속전 — 25-26절 은의 출처)
- 출 38 ↔ 출 31:1-11 (브살렐·오홀리압 지명)
- 출 38 ↔ 출 39 (제사장 옷의 같은 결산 형식)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브살렐이 조각목과 놋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회막 문에서 섬기던 여인들의 청동 거울을 모아 씻는 물두명과 받침을 만든다. 이어 뜰 사면에 베 포장을 두르고 기둥과 놋 받침을 세우며,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문에는 수놓은 휘장을 달고 말뚝과 줄까지 박는다. 만들기가 끝나자 셈이 시작된다. "이것은 성막을 위하여 계산한 것이라." 레위 사람이 이다말 손 아래에서, 금·은·놋의 무게를 단다. 회중이 반 세겔씩 낸 은으로 성소의 받침 백 개를 부어 기초로 삼고, 놋으로 문과 단과 뜰 기물을 만든다. 큰 단에서 가장 작은 말뚝까지, 빠진 것 없이 셈이 맞은 채로 끝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다 만든 뒤, 무게를 단다"
- 초벌 부제: "봉사한 여인들의 거울, 회중의 반 세겔 — 손이 모인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결산 관행·청동 거울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8절 거울→물두명을 "헌신·희생"의 교훈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무게 결산의 숫자를 상징·풍유로 환산하려는 충동 → 본문 그대로의 셈으로만 남김.
- "성소의 세겔" 기준 단위는 무게 단위로만 관찰하고 가치 판단을 더하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38장은 바깥 뜰의 기물을 다 만든 뒤, 들어온 금·은·놋을 빠짐없이 무게로 달아 셈하는 것이다.

한 문단: 본문은 "번제단을 만들었으니"라는 손의 동작으로 열린다. 번제단·물두멍·뜰이 차례로 만들어지고, 그 한복판에 봉사하던 여인들의 거울이 씻는 물두멍이 되는 한 줄이 끼인다. 만들기가 끝나면 결산이 시작된다. 회중이 똑같이 낸 반 세겔의 은이 성소의 받침 백 개가 되고, 금과 놋이 달란트·세겔로 셈해진다. 큰 단에서 가장 작은 말뚝까지, 누락 없이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성막 제작 작업장의 바깥 뜰. 소품 — 놋 번제단·물두멍·뜰 기물. 재료 — 놋, 결산의 금·은·놋, 성소의 세겔.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만들고, 만들고"의 손의 공기로 열려, 후반에 회계 장부의 칸으로 전환. 8절 거울 한 줄이 사람의 걸.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번제단을 만들었으니"(1절). 끝 — 모든 기구의 말뚝(31절). 큰 단 → 작은 말뚝, 제작 → 결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브살렐·오홀리압·모세·이다말·봉사하는 여인들. 대사 없는 장. 만든 사람과 셈한 사람이 따로 적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번제단(1~7). 컷 2 물두멍·거울(8). 컷 3 뜰(9~20). 컷 4 결산 머리말(21~23). 컷 5 금·은·놋 결산(24~31).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거울이 씻는 그릇이 된 대비. 결산의 까닭. 정보 — 반 세겔 속전이 받침이 됨, "성소의 세겔" 기준, 22절 명령대로의 후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만드는 손→여인들의 거울→뜰의 울타리→만들기에서 세기로→회중의 은이 기초로→작은 말뚝까지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다 만든 뒤, 무게를 단다". 초벌 부제 — "봉사한 여인들의 거울, 회중의 반 세겔 — 손이 모인 자리".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작업장과 결산의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비추던 것을 내놓아 씻는 것이 되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비추던 것이 씻는 것으로:** 자기를 비추던 청동 거울이 정결을 위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된다(8절). 목록 한복판에 끼인 한 줄이 사람의 자리를 연다.
- 결 2 — 똑같이 낸 은이 기초가 되다:** 회중이 반 세겔씩 낸 속전이 성소의 받침 백 개, 곧 성막을 떠받치는 기초가 된다(25~27절). 모두의 같은 뭉이 바닥을 받친다.
- 결 3 — 빠짐없이 셈하다:** 큰 단에서 가장 작은 말뚝까지, 누락 없이 무게가 달리고 적힌다. 만든 것을 다 세어 기록으로 남기는 걸.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7:1-8(번제단 지시), 출 30:18-21(물두멍 지시), 출 27:9-19(뜰 지시)와 짝을 이루는 "지시→제작"의 결. 출 30:11-16(반 세겔 속전, 은의 출처). 출 39장(같은 결산 형식의 제사장 옷).
- 정경 흐름 — 만든 것을 무게로 달아 결산하는 결은, 성막 단락이 "지시받은 그대로, 빠짐없이"라는 일치를 향해 가는 흐름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번제단을 만드는 손 결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거울이 씻는 그릇이 되는 한 줄(8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만들기가 세기로 넘어가는 자리(21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회중의 반 세겔이 받침이 되는 셈(27절)에서 멈춘다.
- 끝: 가장 작은 말뚝까지 빠짐없이 닫히는 장부 앞에서 한 사람이 일어선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비추던 것을 내놓아 씻는 것이 되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만드는 동작(1절)으로 열려 셈(24-31절)으로 닫힌다
- [x] 봉사한 여인들의 거울이 물두멍이 된다 (8절)
- [x] 회중의 반 세겔이 성소의 받침이 된다
- [x] 만든 사람과 셈한 사람이 따로 적힌다
- [x] 큰 단에서 작은 말뚝까지 누락이 없다
- [x] 22절에 "명령하신 대로"의 후렴이 한 번 또렷이 나온다
- [x] 비추던 것이 씻는 것으로 바뀌는 대비가 남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그대로.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3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물두멍을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한 줄(8절)은 왜 여기 끼어 있는가?

- 관찰 사실: 만드는 목록 한복판에 거울의 출처가 사람으로 적힘.
- 본문은 그 이상 설명하지 않음. 목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왜 금·은·놋의 무게를 일일이 세어 기록하는가(24-31절)?

- "만들었다"로 충분할 텐데 달란트·세겔까지 셈해 둬.
- 결산을 이 장에 두는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3. 회중이 반 세겔씩 낸 은이 성소의 받침(기초) 백 개가 된 것(25-27절)은?

- 모두에게서 똑같이 거둔 속전이 성막을 떠받치는 기초가 됨.
- 그 연결의 관찰은 완료. 해석은 뒤로.

Q4. 거울(비추는 것)이 물두멍(씻는 것)이 된 대비는 무엇을 뜻하는가?

- 자기를 비추던 청동이 정결을 위해 씻는 그릇으로 바뀜.
- 본문은 이 대비를 평하지 않음. 관찰까지만.

Q5. 만든 사람(브살렐·오홀리압)과 셈한 사람(레위·이다말)을 따로 적은 까닭은?

- 제작과 결산의 책임이 나뉘어 기록됨(21-23절).
- 그 분리의 의도는 본문이 말하지 않음. 보존.

Q6. 가장 작은 말뚝까지 빠짐없이 적고 달는 결(31절)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큰 단에서 작은 부속까지, 누락 없이 달히는 장부.
- 그 빠짐없음 자체가 질문으로 남음.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39장

EXO-039 · 오경 · 히브리어

옷이 한 벌씩 완성될 때마다 같은 한 줄이 돌아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3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38장과 같은 성막 제작 작업장. 이번엔 건물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bigde qodesh).
- 소품: 에봇(ephod)·흉패(choshen)·겔옷(me'il)·속옷·관·띠·금패(tsits).
- 재료: 금실, 청색·자색·홍색 실, 가는 베 실. 금을 얇게 쳐서 실로 잘라 짜 넣음.
- 보석 — 어깨받이 두 호마노와 흉패 열두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김(6-7, 14절).
- 정금 패에 "여호와께 성결"(qodesh la-YHWH)을 새겨 관 위에 매듭(30절).
- 이 옷은 아론과 제사장이 입을 것. 28장의 지시와 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후렴처럼 거듭 돌아오는 박자.
- 금·세 가지 색·가는 베의 화려함이 들뜨지 않고 차분함.
- 후반에서 일이 닫혀 가고(32절 "마치니"), 마지막에 모세의 점검과 축복으로 정돈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세 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옷"을 만들 — 제작으로 시작.
- 43절: 모세가 마친 모든 것을 보고 "축복하였더라" — 점검·축복으로 닫힘.
- 가운데 32절: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 일이 한 번 닫힘.
- 만드느 손 → 보는 눈 → 축복. kalah(마치다, 32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옷을 만드는 일꾼들 / 아론과 제사장(입을 사람) / 모세(점검·축복).
- 대사 거의 없음. 행동으로 채워짐. 마지막에 모세의 동작(보고·알고·축복)이 뚜렷.
- 후렴 ka'asher tsivvah YHWH et-Moshe(명령하신 대로)가 단락마다 확인 도장처럼 섬.
- 43절: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을 모세가 확인하고 vayevarekh(축복하였더라).
- 만든 것을 다 모세에게 가져옴(33-41절) — 목록을 다시 부르듯 늘어놓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에봇 — 금실·세 색실, 어깨받이 이름 새긴 두 보석
- 컷 2 (8-21절): 흉패 — 보석 열두 개·이름 열둘, 에봇에 매어 붙임

- 컷 3 (22-31절): 겹옷·속옷·관·금패 — "여호와께 성결"
- 컷 4 (32-41절): 모든 역사를 마치고 만든 것을 다 모세에게 가져옴
- 컷 5 (42-43절): 명령대로 된 것을 모세가 보고 축복함
- 전환점: 컷 3→컷 4에서 만들기→가져오기·점검으로 결이 바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bigde qodesh(בִּגְדֵי קֹדֶשׁ) — 거룩한 옷. 1절.
- ephod(אֵפֹד) — 에봇. 2절 이하.
- choshen(חֹשֶׁן) — 흉패. 8절 이하.
- me'il(מֵיל) — 겹옷. 22절.
- tsits(צִיצִית) — 패/금패. 30절.
- qodesh la-YHWH(קֹדֶשׁ לַיהוָה) — "여호와께 성결". 30절 금패의 명문.
- ka'asher tsivvah YHWH et-Moshe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후렴, 거듭 반복.
- kalah(כָּלָה) — 마치다/끝냈다. 32절 "마치되".
- vayevarekh(וַיְבָרֵךְ) — "그가 축복하였더라". 43절.
- mela'khah(מְלָאכָה) — 일/역사. 32·43절 "모든 역사".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명령하신 대로"의 후렴이 제작 단락의 골격을 이룸 (반복).
- 28장(지시)과 39장(실행)이 거울처럼 마주 봄 — 지시→성취의 짝.
- 32절(마침)과 43절(점검·축복)이 단락을 이중으로 닫음.
- 이름 새김(어깨·흉패)이 반복 모티프 — 몸에 지닌 열두 이름.
- 42-43절의 "마치심·보심·복 주심"이 창 1:31-2:3과 어휘 결로 닿음 (교차 참조 노트).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서 직조와 보석 세공을 갖춘 제사장 복식이 보고됨. 1-31절의 옷과 병행 관찰.
- 이마에 명문을 새긴 금패를 다는 제의 복식 관행 — 30절 tsits와 맞물림.
- 본문은 글귀·이름·금패의 까닭을 더 설명하지 않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39 ↔ 출 28장 (제사장 옷 지시 — 실행의 짝)
- 출 39 ↔ 출 25:40 (식양대로 만들라)
- 출 39 ↔ 창 1:31-2:3 (마치심·보심·복 주심의 어휘 결)
- 출 39 ↔ 출 40장 (세움 — 다음 장)
- 출 39 ↔ 레 8장 (위임식에서 이 옷을 입힘)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일꾼들이 금을 얇게 쳐 실로 잘라, 세 색실·가는 베와 함께 에봇을 짜고 어깨받이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다. 흉패에 보석 열두 개를 박아 열두 이름을 담고, 에봇에 매어 붙인다. 겹옷 단에 석류와 금방울을

달고, 속옷과 관과 띠를 짜며, 정금 패에 "여호와께 성결"을 새겨 관 위에 단다. 단락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돌아온다. 마침내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마쳐지고, 만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세에게 가져온다. 모세가 그 전부를 보니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을 축복한다.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명령하신 대로 — 돌아오는 한 줄"
- 초별 부제: "옷 한 벌마다 돌아오는 후렴, 마지막에 모세의 점검과 축복"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제사장 복식·금패 명문 + 문학 후렴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명령하신 대로"의 후렴을 순종·교훈으로 환산하려는 충동 → 반복 사실로만 관찰, 목상 단계로 이월.
- 창 1장과 의의 어휘 결은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 의미 부여 보류.
- 금패 "여호와께 성결"의 글귀를 상징 해석으로 끌지 않고 본문 그대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39장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한 벌씩 지을 때마다 "명령하신 대로"가 돌아오고, 마지막에 모세가 마친 전부를 보고 축복하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세 색실로 옷을 짓는 데서 열린다. 에봇과 흉패에 열두 이름이 새겨지고, 겹옷과 관이 지어지며, 이마의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진다. 단락마다 같은 후렴이 돌아온다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

령하신 대로." 일이 다 마쳐지면 만든 것을 빠짐없이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세가 그 전부를 보니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을 축복한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제작 작업장의 옷 짓는 자리. 소품 — 에봇·흉패·겂옷·관·금패. 재료 — 금실·세 색실·가는 베, 이름 새긴 보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명령하신 대로"의 후렴이 박자처럼 돌아옴. 차분한 색. 마지막의 점검과 축복으로 정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세 색실로 옷을 만듦(1절). 끝 — 모세가 보고 축복함(43절). 가운데 32절에 "마치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일꾼·아론과 제사장·모세. 대사 없는 장. 후렴이 확인 도장처럼 섬. 43절 명령과 실행의 일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에봇(1~7). 컷 2 흉패(8~21). 컷 3 겂옷·관·금패(22~31). 컷 4 마침·가져옴(32~41). 컷 5 점검·축복(42~43).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후렴의 반복. 이마의 "여호와께 성결". 몸에 지닌 열두 이름. 정보 — 28장과 의 거울 짝, 창 1장과 닿는 마침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옷 짓는 손→이름 새김→금패→단락마다 후렴→모든 역사 마침→다 가져옴→명령대로 됨을 보고 축복.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명령하신 대로 — 돌아오는 한 줄". 초벌 부제 — "옷 한 벌마다 돌아오는 후렴, 마지막에 모세의 점검과 축복".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옷 짓는 자리와 점검의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명령하신 그대로 되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돌아오는 후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단락마다 돌아온다. 28장의 지시와 39장의 실행이 거울처럼 마주 본다.
- 결 2 — 몸에 지닌 이름들:** 어깨받이와 흉패에 이스라엘 열두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다(6~7, 14절). 제사장이 그 이름을 지니고 성소에 들어간다.
- 결 3 — 보고 축복함:** 마지막에 모세가 마친 전부를 보고, 명령하신 그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축복한다(42~43절). 만드는 손이 보는 눈으로, 다시 축복으로 닫힌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8장**(제사장 옷 지시, 실행의 짝), **출 25:40**(식양대로 만들라), **출 40장**(세움, 다음 장).
- 다른 권 — **레 8장**(위임식에서 이 옷을 아론에게 입힘). **창 1:31-2:3**(마치심·보심·복 주심의 어휘 결).
- 정경 흐름 —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마침내 보고 복을 비는 결은, 성막 단락이 창조의 마침과 닿는 어휘 결로 읽히는 흐름과 마주 본다 (관찰 노트).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옷을 짓는 손 곁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단락마다 돌아오는 "명령하신 대로"의 한 줄에서 멈춘다.
- **멈춤 2:** 이마의 "여호와께 성결"(30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모든 것을 다 가져와 모세 앞에 놓이는 자리(33절)에서 멈춘다.
- **끝:** 명령과 실행이 들어맞아 축복으로 달히는 자리(43절)에서 한 사람이 일어선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명령하신 그대로 되어 점검받고 복을 받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옷 짓는 동작(1절)으로 열려 점검·축복(43절)으로 닫힌다
- [x] "명령하신 대로"가 단락마다 돌아온다
- [x] 열두 이름이 어깨와 흉패에 새겨진다
- [x] "여호와께 성결"이 이마의 금패에 새겨진다
- [x] 일이 마쳐지고 만든 것을 다 모세에게 가져온다
- [x] 모세가 보니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다
- [x] 모세가 그들을 축복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세움.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3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거듭 반복되는 까닭은?

- 관찰 사실: 만든 것마다 같은 후렴이 따라붙음.
- 본문은 그 반복을 평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제사장이 열두 지파의 이름을 어깨와 흉패에 지니고 들어가는 것(6-7, 14절)은?

- 이름들을 몸에 지니고 성소에 들어감.
- 그 지님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3. 정금 패의 "여호와께 성결"(30절)을 이마에 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 왜 이마, 왜 그 글귀인가. 본문은 새겼다는 사실만 말함.
- 그 관찰은 완료. 해석은 뒤로.

Q4. 42-43절의 "마치심·보심·복 주심"이 창세기 첫 장과 닮은 결은?

- 일을 다 마치고, 보고, 복을 비는 흐름이 창 1:31-2:3과 어휘 결로 닮음.
- 본문은 그 연결을 직접 말하지 않음. 교차 참조 노트로만 남김.

Q5.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축복하였더라"(43절)인가?

- 축복의 내용은 본문에 없음. 동작만 놓임.
- 그 비워 둠의 의도는 본문이 말하지 않음. 보존.

Q6. 만든 것을 다 모세에게 가져와 목록을 다시 부르듯 늘어놓는 까닭(33-41절)은?

- 이미 만든 것을 다시 한 번 전부 호명함.
- 그 되움음 자체가 질문으로 남음.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40장

EXO-040 · 오경 · 히브리어

세우자, 구름이 덮는다. 만든 손이 멈춘 자리에 영광이 들어와 찬다.

관찰된 사실

출애굽기 4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작업장이 아니라 세우는 자리 — 진영 한가운데 성막(mishkan)이 처음 일어섬.
- 시간 표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2, 17절). 출애굽 이후 첫 새해 첫날.
- 소품: 앞 장들에서 만든 증거궤·속죄소·상·등잔대·분향단·번제단·물두멍·휘장·뜰이 제자리에 놓임.
- 핵심 동작: heqim(세우다), mashach(기름 붓다, 9-11절).
- 후반 소품은 사람의 것이 아님 — 구름(anan)과 영광(kavod), 34절.
- 이 구름은 13장(구름·불 기둥)부터 함께해 온 것 (배경 노트).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부분은 명령("세우라·두라·놓으라"), 뒷부분은 같은 목록의 실행. 거울 두 장.
- "명령하신 대로"의 후렴이 박자처럼 돌아옴.
- 34절에서 손의 장면이 임재의 장면으로 전환. 끝이 멈춤이 아니라 인도 — "달히며 열린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 명령으로 시작.
- 38절: 구름과 불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함께함 — 인도로 닫힘.
- "세우라"의 명령 → 마침(33절 kalah) → 충만 → 동행.
- 출애굽기 전체의 끝 — 1장 종살이에서 40장 충만한 영광·인도하는 구름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말씀) / 모세(세움) / 아론과 아들들(기름 부음) / 구름·영광(후반의 주어).
- 1-16절 지시, 17-33절 실행. 모세가 거의 모든 동작의 주어.
-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함 — 구름이 덮이고 영광이 충만함(kissah·male).
- "명령하신 대로"(ka'asher tsivvah)가 17-32절에 거듭 붙음.
- 순서: 사람이 명령대로 다 함 → 사람의 손 아닌 것이 들어와 채움. 주어가 모세에서 구름·영광으로 바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세우라는 명령 — 기구를 제자리에
- 컷 2 (9-16절): 기름 부으라는 명령 — 성막·기구·제사장

- 컷 3 (17-33절): 모세가 그대로 세움 — 후렴 반복, 33절 "마치니"
- 컷 4 (34-35절): 구름이 덮고 영광 충만, 모세가 못 들어감
- 컷 5 (36-38절): 구름의 오르내림이 행진을 인도
- 전환점: 컷 3→컷 4에서 사람의 동작→임재로, 주어가 바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mishkan(מִשְׁכָּן) — 성막/거처. 2절 이하.
- ohel mo'ed(אֹהֶל מוֹעֵד) — 회막/만남의 장막. 2절.
- heqim(הִקִּים) — 세우다. 2·18절 등.
- mashach(מָשַׁח) — 기름 붓다. 9-11절.
- anan(אָנָן) — 구름. 34·36-38절.
- kavod(כְּבוֹד) — 영광/무게. 34-35절.
- kissah(כִּסָּה) — 덮다. 34절 "덮이고".
- male(מָלֵא) — 가득 차다. 34-35절 "충만하매".
- ka'asher tsivvah YHWH et-Moshe — "명령하신 대로". 17-32절 반복.
- kalah(כָּלָה) — 마치다. 33절 "역사를 마치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명령(1-16절)과 실행(17-33절)의 거울 대칭 — 거의 같은 목록이 두 번 흐름.
- "명령하신 대로"의 후렴이 실행 단락의 골격.
- 33절(마침)→34절(임재)의 인접 — 마침에 붙은 임재.
- 1-33절 주어 모세 / 34-38절 주어 구름·영광 — 주어 전환이 climax.
- 출애굽기 전체의 inclusio적 닫힘(종살이→임재·인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서 신의 임재를 구름·영광 등 가시적 현상으로 표상하는 관행이 보고됨. 34-38절과 병행 관찰.
- 날짜 표지(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는 출애굽 이후의 달력 안에서의 시점.
- 본문은 구름·영광의 본질이나 인도의 까닭을 더 설명하지 않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출 40 ↔ 출 25-31장 (성막 지시) / 출 35-39장 (제작) — 지시→제작→세움의 닫힘
- 출 40 ↔ 출 13:21-22 (구름·불 기둥 — 같은 구름)
- 출 40 ↔ 출 24:16-17 (시내산을 덮은 영광)
- 출 40 ↔ 민 9:15-23 (구름의 인도, 36-38절의 확장)
- 출 40 ↔ 왕상 8:10-11 (성전을 채운 영광, 제사장이 서지 못함)
- 출 40 ↔ 창 2:1-3 (마치심의 어휘 결, 노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고 기구를 제자리에 두며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명하신다. 모세가 받침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막을 펴며, 증거판을 궤에 넣고 휘장을 치고, 상에 떡을 진설하고 등잔에 불을 켜며, 향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 물을 담는다. 동작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따라붙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친다. 그 순간 구름이 회막을 덮고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모세가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후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머무르면 머물며, 낮의 구름과 밤의 불이 모든 길에 함께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세우자, 구름이 덮는다"
- 초벌 부제: "첫째 달 초하루, 세워진 성막을 구름이 덮고 길을 인도하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날짜 표지·ANE 임재 표상 + 거울 대칭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못 들어가는 모세"(35절)를 자격·교훈으로 환산하려는 충동 → 관찰 사실로만 두고 묵상 단계로 이월.
- 구름·영광을 신학 개념으로 정의하려는 충동 → 본문이 보여주는 현상(덮음·충만·인도)까지만 관찰.
- 출애굽기 전체의 닫힘을 주제 선언으로 끌지 않고, 본문의 마지막 그림(인도하는 구름)으로만 남김.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출애굽기 40장은 모세가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다 세우자, 사람의 손이 멈춘 자리에 구름이 덮고 영광이 충만해지며, 그 구름이 앞으로의 길을 인도하는 절이다.

한 문단: 본문은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으로 열린다. 명령(1~16절)과 실행(17~33절)이 거울처럼 두 번 흐르고, 동작마다 "명령하신 대로"가 따라붙는다. 모세가 역사를 마치는 순간, 구름이 회막을 덮고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끝은 멈춤이 아니라 인도다 —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고 머무르면 머문다. 종살이로 열린 출애굽기가 충만한 영광과 동행하는 구름으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세우는 자리. 박힌 날짜(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소품 — 만든 기구들, 기름 부음, 그리고 구름·영광.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명령과 실행의 거울 두 장, 돌아오는 후렴. 손에서 임재로의 전환. "닫히며 열린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성막을 세우라"(2절). 끝 — 모든 길에 함께하는 구름·불(38절). 세움 → 마침 → 충만 → 동행.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아론과 아들들·구름·영광. 1-33절 주어 모세 → 34-38절 주어 구름·영광. 35절 모세가 못 들어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세우라(1~8). 컷 2 기름 부으라(9~16). 컷 3 그대로 세움(17~33). 컷 4 구름·영광 충만(34~35). 컷 5 구름의 인도(36~38).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못 들어가는 모세. 인도하는 구름. 두 번 흐르는 목록. 정보 — 13장·24장·왕상 8장과 닿는 임재의 절, 마침에 붙은 임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세우라는 명령→모세의 실행→후렴→ 역사를 마침→구름이 덮고 영광 충만→ 못 들어감→구름의 인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세우자, 구름이 덮는다". 초벌 부제 — "첫째 달 초하루, 세워진 성막을 구름이 덮고 길을 인도하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세우는 자리와 구름이 덮는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손이 멈춘 자리에 임재로 채우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명령과 실행의 거울:** 세우라는 명령(1~16절)과 그대로 세움(17~33절)이 두 번 흐르고, 동작마다 "명령하신 대로"가 돌아온다. 39장의 후렴이 40장에서 임재로 이어진다.
- 결 2 — 손이 멈춘 자리의 임재:** 모세가 역사를 마치자(33절) 곧바로 구름이 덮고 영광이 찬다(34절). 주어가 사람에서 구름·영광으로 바뀐다. 다 세운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한다(35절).
- 결 3 — 닫히며 열리는 끝:**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멈춤이 아니라 인도다. 구름이 길을 정하고, 낮의 구름과 밤의 불이 모든 행진에 함께한다(36~38절).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출 25-31장(지시)·출 35-39장(제작)과 함께 "지시→제작→세움"의 닫힘. 출 13:21-22(구름·불 기둥, 같은 구름). 출 24:16-17(시내산을 덮은 영광).
- 다른 권 — 민 9:15-23(구름의 인도, 36~38절의 확장). 왕상 8:10-11(성전을 채운 영광, 제사장이 서지 못함). 창 2:1-3(마치심의 어휘 결).
- 정경 흐름 — 사람이 명령대로 다 세운 자리를 임재가 채우고 인도로 이어지는 결은, 정경이 "거처와 동행"을 향해 가는 흐름과 마주 본다 (관찰 노트).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 결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같은 목록이 명령과 실행으로 두 번 흐르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모세가 역사를 마치는 자리(33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구름이 덮여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35절)에서 멈춘다.
- 끝: 구름이 길을 인도하는 마지막 그림(38절) 앞에서 한 사람이 일어선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손이 멈춘 자리에 임재가 들어와 채우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세우라"는 명령(2절)으로 열려 구름의 인도(38절)로 닫힌다
- [x] 명령과 실행이 거울처럼 두 번 흐른다
- [x] "명령하신 대로"가 실행 단락에 거둬 돌아온다
- [x] 모세가 역사를 마치자 곧 구름이 덮고 영광이 찬다
- [x] 다 세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한다
- [x] 주어가 모세에서 구름·영광으로 바뀐다
- [x] 구름이 행진과 머뭇을 인도하며 출애굽기를 닫는다

다음 책으로 가져갈 한 단어: 임재.

미해결 질문

출애굽기 4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다 세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35절)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관찰 사실: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이 정작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함.
- 본문은 이유를 "구름이 덮이고 영광이 충만함"으로만 말함.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명령(1-16절)과 실행(17-33절)의 거의 같은 목록을 본문이 두 번 적는 까닭은?

- 지시와 행함이 거울처럼 두 번 흐름.
- 그 되움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3. "명령하신 대로"는 반복되는데, 임재(구름·영광)는 명령의 대상이 아닌 비대칭은?

- 사람이 다 한 뒤에 임재가 명령 없이 들어와 채움.
- 그 비대칭의 관찰은 완료. 해석은 뒤로.

Q4. 사람의 일이 마쳐진 자리(33절)에 바로 임재가 붙는(34절) 인접은 무엇을 뜻하는가?

- 마침과 충만이 한 호흡에 놓임.
- 본문은 그 인접을 평하지 않음. 관찰까지만.

Q5. 구름이 행진과 머뭇을 정하는 인도(36-38절)는 왜 구름을 표지로 삼는가?

-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고 머무르면 머뭇.
- 그 표지의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보존.

Q6. 출애굽기가 종살이로 열려 충만한 영광·인도하는 구름으로 닫히는 결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책 한 권의 처음과 끝이 마주 봄.
- 그 닫힘 자체가 질문으로 남음.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출애굽기 한 권의 관찰을 여기서 닫는다.
